

統一家族論文集 第2輯

民族統一의 摸索



國土統一院

이 논문집은 '89年度 職員個別研究課題發表會에서
發表된 優秀論文을 收錄한 것임.

1990. 5.

企 劃 管 理 官 室

目 次

統一家族論文集 第2輯

1. 民族共同體의 現象學的 接近 文大瑾 3
2. 統一의 前段階로서 安保共同體 形成論議 曹龍男 110
3. 南北交流協力 誘導方案에 關한 研究 崔常喆 160
4. 北韓의 協商戰略戰術에 關한 研究 金雄熙 247

民族共同體의 現象學的 接近

文 大 瑾*

目	次
I. 序 論	V. 民族共同體의 現象學的 接近 摸索
II. 統一問題의 새로운 認識	VI. 結 論
III. 民族共同體의 概念과 本質	
IV. 現象學的 認識의 틀	

1. 序 論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우리가 순수한 意味에서 統一을 民族을 단위로하여 하나의 國家體制를 形成하고 維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南北韓關係에서 그러한 統一은 當爲的· 規範的인 측면에서는 絶실히 要求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短期間에 성취되기 힘든 期待와 欲求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韓 統一問題를 目標로서뿐만 아니라 過程으로서도 認識하고 이에 필요한 手段과 方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南北對話事務局·對話企劃部·5級相當

이런 觀點에서 볼때 현재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統一은 南北韓 兩側이 공존하게 되고 현재 갖고 있는 相異한 體制위에 上部構造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政治構造面에서 雙方體制內에 급격한 變化를 가져올 수는 없으므로 南北韓이 현 狀況을 감수하면서 平和를 制度化하고 民族共同體를 創出하기 위한 公동의 土臺를 만드는 일이다.

제6공화국 政府가 統一 政策 構想에 있어서 이전까지 도외시되었던 民族主義的 接近 등 보다 근본적인 問題에 접근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認識과 發想에 의한 것이며, 또한 『南北韓이 對決의 구조를 終熄시키는 일은 서로를 가르는 벽을 허물어 서로 開放하고 交流·協力하여 믿음을 심는 일밖에 없다.』³⁾고 한 盧대통령의 UN연설은 統一問題의 認識과 實踐에 있어서 『새로운 接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統一政策은 實踐的인 面과 方法論的 次元에서 統一의 過程·節次 등을 너무 강조한 감이 없지 않으며²⁾, 보다 근본적인 문제나 哲學的 認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統一問題와 南北韓關係에 관한 方法論上의 問題點에 대한 명확한 概念認識이나 체계적인 理解없이 實際的인 것 또는 効能的인 부문의 추구에서 起因한다.

거의 반세기를 내다보는 分斷狀態의 지속과 南北韓 두 體制의 존립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統一論議와 學術研究活動은 理論的인 基礎³⁾나 政策學的

-
- 1) 盧泰愚大統領 UN總會 演說文, 『韓半島에 平和와 統一을 여는 길』,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南北對話], 제46호, 1988.12, p.53.
 - 2) 梁性喆, [南北統一理論의 새로운 展開],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p.106.
 - 3) 잘 발전되고 검증된 일반이론은, 한 분야의 기존 지식을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미해결의 문제를 지적해줌으로써 이론수립에 기여하고, 現象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깊은 흐름의 把握과 여러가지 具體的인 문제에 自主的이고 創造的으로 對處해 갈수 있는 基礎 能力을 提供한다.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연구에 있어서도 잘 검증된 타당한 이론적 전제가 있을 때 건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설명력이나 실천성이 향상될 수 있다. 김철민, [哲學의 基礎理論], 백산서동, 1984, pp. 12-14, 브라이언 페이, [社會理論과 政治的 實踐], 조형譯,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3, pp.11-12.

接近方法이 缺如된채, 統一論議의 지배적 『패라다임』(Paradigm)⁴⁾이었던 規範의 接近과 그 成就를 위한 技術의 方案論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統一理論이 累積的이지 못할 뿐만아니라 予備理論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非正常的인 南北韓關係가 南北韓의 統一方案의 문제보다는 統一問題와 상대방에 대한 偏向된 視角과 歪曲된 認識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南北韓 關係의 現象과 상대방 存在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統一問題와 南北韓關係의 認識과 發想의 올바른 전환을 위해서는 政策變化에 상응하는 認識方法의 개발 및 기존 認識方法의 修正·補完은 꼭 필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統一政策過程에서 가장 먼저 提起되고 전체 政策過程뿐만아니라 그 結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南北韓問題의 現象 및 事實에 대한 정확한 認知與否의 問題라고 볼 때 이의 客觀的 糾明을 위한 理論 틀로서의 認識論的方法論의 탐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統一問題 및 南北韓 關係에 대한 觀點의 變化는 認識論의 再指向을 의미하고 存在와 現象의 새로운 파악과 價値論의 再定立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筆者는 統一問題를 연구하는데 있어 현재의 政策狀況에서 全體의이며 適實하게 우리의 關心對象을 설명할 수 있고 기존의 研究方法의 한계를 보완시킬 수 있는 認識論的方法論을 이른바 質的 메타理論(Meta-theory)으로서의 現象學的 關心이라고 보고 本研究에서 이를 援用코자 한다.

『피어칸트』(Alfred Vierkand)에 의하면 『現象學的方法은 共同體를 構成하

4) 『쿤』이 패라다임이라는 概念을 사용하면서부터 이 말은 매우 包括的인 意味를 지니게 되었다. 즉 패라다임에는 科學에서 기본이 되는 理論과 法則들, 다양한 狀況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道具的 기술, 形而上學的 원리등이 포함된다. 또한 패라다임은 特定 共同體 構成員들이 공유하고 있는 信念, 價値, 技術 등의 總體를 指稱하는 概念이며,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는 科學者 共同體에서 모델적인 問題와 解決을 제시해 주는 普遍的으로 제시된 科學的 成果이다. 넓게 解釋하면 패라다임은 世界를 바라보는 하나의 理論의 틀이다. T.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d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고 있는 內的 性向과 社會的 關係에 대한 說明을 提示할 뿐만아니라 集團에 대한 理解도 가능케 한다.』⁵⁾고 한다. 또한 現象學의 方法은 南北韓의 統一問題가 상대방과의 關係, 나아가 周邊國家들과의 상호 關係속에서 解決될 수 있는 냉혹한 現實問題라고 볼 때 分裂된 民族共同體의 研究를 위한 적절한 接近方法이라 하겠다.

따라서 現象學의 方法이 기존 接近方法上的 理論的 偏向을 止揚하고 상대방에 대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研究를 통해 韓半島 상황의 科學的 認識과 分斷矛盾 해결의 實踐方途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本 研究는 統一問題 研究에 새로운 認識의 地平을 여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脈絡에서 本 研究는 統一問題와 南北韓關係의 研究를 보완한다는 方法論의 발전적 方向轉換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즉, 本 研究는 『7.7宣言』이나 盧대통령의 유엔演說등에서 제시되었고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에서 구체화된 南北韓 民族共同體의 形成에 관한 올바른 認識과 이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現象學的 接近(phenomenological approach)을 試圖함으로써, 南北韓關係와 統一問題 現象의 본질을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把握할 수 있는 理論 또는 認識論的 基盤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方法

위와같은 목적에 따라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目標와 問題意識에 대한 體系의 論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첫째, 統一問題를 어떻게 認識할 수 있는가? 둘째, 民族共同體란 무엇을 意味하며 어떠한 內容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民族共同體를 適實하게 說明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哲學的· 認識論的 方法論인 現象學이란 무엇인가? 넷째, 南北韓의 民族共同體 형성을 現象學的 方法으로 접근했을 때 어떠한 意味가 있는가 에 대한 檢討가 그것이다.

5) 李圭浩 編著, [社會科學의 方法論], 玄岩社, 1977, p.209 再引用.

이에 따라 本研究는 第2章에서 統一問題 및 南北韓關係와 관련된 政策與件과 統一問題에 관한 認識의 경향을 살펴보고, 第3章에서는 政策目標의 구체화와 現象學的 方法論에서 강조되는 『概念의 明確化』라는 측면에서 民族共同體의 概念과 本質內容을 共同體理論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分析하였다.

第4章에서는 民族共同體의 形성을 위한 接近方法의 보완책의 하나인 現象學的의 哲學的· 認識論의 내용과 方法論의 含蓄性을 검토하여, 第5章에서 民族共同體와 現象學과의 相關性이나 接近可能性을 분석, 現象學的 觀點에서 導出되는 統一問題와 南北韓 關係의 認識과 實踐接近의 의미를 記述하였다.

본 연구는 文獻調查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既存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實踐方案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統一政策의 目標· 手段關係의 前提이자 本질문제인 現象의 認識問題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進行하였다.

끝으로 本研究는 民族共同體에 관한 論議와 研究水準이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統一問題의 現象學的 接近 또한 기존의 研究나 接近方法과는 다른 새로운 試圖라는 점에서 하나의 問題提起를 위한 試論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筆者가 1987년 6월에 발표한 論文 『南北韓 統一對話政策의 理論的 接近』의 結論에서 제기한⁶⁾ 문제를 本研究를 통해 示顯해보고자 한 것임을 밝혀둔다.

6) 『… 韓民族이라는 有機的 전체로서의 生態學的 接近(Ecological approach), 그리고 現象學(Phenomenology)에서의 相互主觀性을 바탕으로 한 ‘우리’라는 觀點에서의 研究와 對北 政策接近을 시도해야 할 것…』; 拙稿, “南北韓 統一對話政策의 理論的 接近”, 國土統一院, 『民族統一의 摸索』, 統一家族論文集 제1집, 1989.12, p.111

II. 統一問題의 새로운 認識

1. 新『데땅뜨』時代와 韓半島

가. 變動과 政策

萬物은 流轉하며 이 세상에서 不變하는 것은 變化뿐이라는 말이 있는 바와 같이 行政環境은 변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變動에 대한 對應이 곧 行政²⁾의 본체인 政策의 문제로 대두된다. 變動에 대한 對應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生存의 問題와 직결되고, 적절한 對應이 없는 조직은 침체하고 만다는 사실은 바로 近代 우리 民族史와 현재의 北韓의 例²⁾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지금 우리는 역동적인 變革의 時代에 살고 있으며 國內外的으로 變化하는 흐름의 한가운데 서있다. 특히 南北韓 統一問題와 관련된 內外與件은 새로운 轉機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變化潮流에 대응하고 나아가 그러한 變動을 豫測하고 미리 對備하는 政策, 나아가 變動을 誘導하는 政策이야말로 바람직한 行政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 行政은 곧 政策의 問題이다. 모든 行政은 政策의 立案→決定→執行→評價→還流(feedback)의 循環過程으로 된다. 이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變數이자 기본적인 사항은 問題狀況, 즉 變動에 대한 認識의 問題이다. 政策決定者가 발생된 어떤 現象이나 事實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政策의 內容이 크게 左右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變動을 수용하고 소화하는 認識의 틀 또는 思考의 틀(paradigm)의 중요성이 있다.

1) 李漢彬, [社會變動과 行政], 博英社, 1981.

2) 北韓은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는 슬로건아래 變化하는 세계조류에 同參하기를 躊躇함으로서 國際的 孤立과 經濟의 沈滯, 그리고 住民 일반이 『安逸과 해이, 보수와 沈滯』의 늪에 빠져있음을 스스로 是認하고 있다. [內外通信], 1989, 4.19 參照.

이런 점은 統一政策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統一問題와 南北韓關係에 있어서의 世界觀이나 價値觀은 그것이 民族의 生存問題와 관련되는 것이고 南北韓의 상이한 體制內에서 오랫동안 冷戰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硬直性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민족이 變動하는 分斷環境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對應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環境에 의해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脫冷戰時代에 상응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認識의 轉換이 없이는 南北間의 葛藤과 混亂, 그리고 對立關係의 解消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脫冷戰 海域의 冷戰 孤島』라는 韓半島의 現象態를 정상화시키고 內外環境의 변화에 적응하는 적절한 政策對應은 무엇보다도 統一問題와 南北關係에 대한 南北韓의 새로운 認識과 思考의 柔軟性이라 하겠다. 다음 항에서 논의될 新『데탕트』분위기 역시 美·蘇兩國의 變動狀況에서의 認識과 發想의 획기적 轉換에 의한 것임을 볼때 더욱 그러하다.

나. 新『데탕트』時代의 開幕

레이건의 『힘을 통한 外交』와 고르바초프의 『改革』이 맞물린 『레이카비크』 美·蘇 頂上會談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美·蘇의 平和共存 분위기는 세계 각처에 開放과 和解의 물결을 일게 하였다. 즉 戰後 『알타』體制的 기조가 되어 온 冷戰的 葛藤을 인류의 理性과 良識이 지배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는 『對決과 反目的 시대』에서 『和解와 協力の 시대』, 『開放과 역동적인 變革의 시대』, 『交渉의 시대』, 『經濟體制的 調整³⁾ 및 經濟安保時代』, 그리고 『脫이데올로기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變化를 가능케 한 중요한 要因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다른 變數들이 작용하였고 또한 自國의 利害關係와 必要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共同的 安全保障』(Common

3) Galbreith 教授는 현 世界經濟體制的 특징으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相互 補完에 의한 變化·調整을 지적하였다.

Security)과 國際關係에서의 『새로운 思考』라는 概念일 것이다.

현재의 東·西 新대당트는 여러가지 다른 要因에도 불구하고 이 共同의 安全保障에 대한 兩側의 利害一致의 산물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세계는 험악한 위험속에 살았고 軍備競争, 核戰爭의 恐怖, 中東에서의 紛糾, 아프가니스탄戰爭 등의 먹구름이 덮어져 있었으나 1987년 12월의 美·蘇 頂上會談을 전후로 世界平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東西 兩陣營, 특히 美·蘇는 레이저빔무기·스텔스 등 각종 탄도 미사일 및 SDI 등과 같은 戰略武器의 개발을 위해서 무제한적인 財政을 投入하였는데, 이는 美·蘇로 하여금 國力を 낭비시키고 經濟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공히 認識케하였다. 그뿐만아니라 그러한 武器의 증대는 결국 世界平和를 보존하기보다는 破壞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認識함으로써 平和와 安全에 대한 종전의 軍事的·理念的 偏向의 시각을 교정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核武器나 기타 高性能 武器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現實에 직면한 超強大國들은 서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認識을 같이하게 되었고, 平和는 共同의 安全保障 手段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여기에서 『共同의 安全保障』이란 美·蘇 어느 한쪽도 다른쪽을 희생시키면서 安全할 수 없다는 概念⁴⁾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屈服시키면서 軍事的 優位에 서겠다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인식하고 상호 안정된 均衡을 이루자는 論理다. 이러한 認識과 發想의 轉換에서 美·蘇 초강국은 진지한 협상국면에 들어가 1987년의 중거리핵 協定(INF)에 성공한 것이다.

또 하나 蘇聯 및 東歐共產圈 諸國으로 하여금 國際關係에서의 開放과 改革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認識과 發想으로서 고르바초프가 主唱한 『노보에 뤼시레이니』(새로운 思考)라는 概念⁵⁾이다. 고르바초프의 표현에 의하면,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對外的 現實에 대한 精確한 이해는 實質적으로 상당히

4) 고르바초프의 共同의 安全保障이라는 新安全保障觀은 專守防衛라는 新독트린의 中心概念이며 軍備保有의 基準을 『合理的 充分性』으로 하고 있다. 國土統一院, [最近의 新대당트 潮流], 1988, pp.39-41, 63-68 참조.

5)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고명식譯, 시사영어사, 1988 참조

다른 蘇聯의 外交政策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蘇聯外交의 근본적인 發想의 轉換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舊態依然한 概念을 탈피하고 새로운 政治的 現實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현재 蘇聯에서 진행중인 페레스트로이카(再編作業)의 對外的 側面으로서 『새로운 思考』이다.

이러한 主唱과 노력의 결과, 우선 蘇聯을 비롯한 東歐의 共產國家는 내부적으로 종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敎祖의인 執着을 떨구어 버리고 開放化, 自由化, 資本主義化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軍備競爭과 膨脹主義政策을 포기하고 西方世界와의 平和交流와 和解를 적극 推進⁶⁾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와같은 認識과 發想은 東西關係의 획기적인 關係發展을 가져왔고 특히 中·蘇關係의 正常化는 東北亞 地域關係의 安定성을 고양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美國을 포함한 새로운 4각 勢力關係를 형성시키는 契機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蘇聯의 軍縮先制攻勢와 平和攻勢의 底意를 의심해 온 美國도 어쩔수 없이 對應戰略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美國은 東『아시아』 太平洋지역의 友邦들과 군사력을 줄이고 經濟協力關係를 모색하려는 蘇聯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太平洋經濟協議體』와 같은 『經濟的 安保』의 공동전략 마련을 구상하는 한편, 새로운 東·西軍縮案⁷⁾을 提示하였고 새로운 東北亞 體制에 대응하기 위해 美·北韓關係 改善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시아 經濟協議體 구상을 서두르면서 對北韓 關係改善을 공식화시킨 바 있으며, 中·蘇 역시 韓國과의 關係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

6) 이것은 戰略의 수정이 아니라 戰術의 變更이라는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맑스·레닌주의의 古典에서 우리는 社會主義 本質의 특성에 대한 定義를 찾을 수 있다.』고 한 申明에서 찾아 볼수 있다. 고르바초프, 앞의 책, p.42

7) 『부시』美 大統領은 1989.5.29, 브뤼셀에서 開幕된 NATO 창설 40주년 기념 특별 頂上會談에서 서구배치 美軍兵力(33만 9,000)의 20% 일방적 減縮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東·西軍縮案을 提議하였고, 1990년 2월에는 미·소 공히 중부유럽에 19만 5천명의 지상군을 주둔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다. 즉 美·日은 北韓과 中·蘇는 南韓과 비공식적인 接觸과 交流를 통하여 사실상의 交叉接觸(cross contact)을 하고 있으며, 당장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나 交叉承認(cross recognition)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 分斷環境의 變化와 남북한 關係

觀點을 달리해서 보면 현시점에서 周邊勢力들이 理念보다 國家利益을 앞세우는 분위기를 진작시키면서 『韓半島 問題와 韓半島化』(The Koreanization of Korean problems)를 推進하는 것은 必然的으로 南北韓으로 하여금 韓半島 問題解決의 準據를 冷戰이데올로기로부터 民族主義에로 再定向(reorientation)시키는 선택에 나서게 할 것이며 이러한 狀況의 도래는 南北對話의 참된 維持力, 즉 對話를 選好하는 적극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韓半島의 分斷環境은 國際的인 和解構造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對決構造에 놓여 있는 二重構造의인 성격을 띠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周邊情勢는 유연하게 變化하여 統一與件 조성에 유리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 南北韓關係는 여전히 경직되어 심한 構造的 不一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전후 分斷國치고 가장 변치않은 것이 南北韓이다. 東西獨은 協商을 통하여 平和共存關係를 정착시켜 統一로 치닫고 있고 南北越南은 戰爭을 통하여 소위 統一을 실현했으며 中國은 臺灣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나의 中國으로 되어버린 셈이다. 한 차례의 戰爭과 여러 차례의 對話를 거치면서도 아직 본래의 冷戰的 分斷狀態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南北韓關係이다. 적어도 상식으로 보면 韓半島의 分斷이 冷戰의 산물인 이상 東西冷戰의 後退는 당연히 南北韓 關係의 변화로 연결됨직한 일이다.

그런데 무엇이 당연히 있음직한 南北韓 關係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遲延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一次的으로 그 心理的 基盤에서 『Zero-Sum Game』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南北韓關係가 화해지향적 國際環境의 변화를 쉽사리 수용하기 힘든 構造的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경

직성이 緩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의 經過가 불가피한 탓이다. 현재 南北韓은 급격히 변화하는 周邊情勢를 소화(수용)하기 힘든 內部體制(특히 북한체제의 閉鎖的 凝集力)와 분단이후 계속되어 온 냉정적 思考의 틀(paradigm) 자체를 再定立하지 못한채 過渡期的 調整상태에 있다.

그러나 새로운 國際環境의 변화는 아직도 圖式的인 舊政策을 고집하는 北韓에 비해 새 政策轉換을 추구하는 南韓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한국은 北方政策을 바탕으로 이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현재의 選擇的 Delemma에 빠져 있는 北韓 또한 理性과 感情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의 물결을 언제까지나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부분적이나마 政策의 전환을 試圖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곧 지역적 平和共存秩序의 대두가 韓半島에서 平和共存의 秩序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視角에서 問題를 보더라도 南北韓 關係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南北韓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雙方間의 관계를 위협하고 불안한 現狀態로 무작정 放置할 수 없는 시점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南北韓은 지난 40년 동안의 冷戰的 敵對體制, 적일변도의 思考方式과 行動樣式, 그리고 이에 따른 政策推進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건전한 理性을 發揮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思考方式과 行動樣式, 그리고 政策樹立에 대비한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다.⁸⁾

2. 統一問題에 대한 새로운 Paradigm(思考의 틀)

南北이 分斷된지 40여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南北韓은 서로 斷絶의 벽을 높이 쌓아올리고 體制優位競爭을 펼쳐왔으나 최근 韓國은 經濟的 優位와 國際

8) 梁性喆, 『南北韓關係를 보는 새로운 視角』, 大陸研究所 政策討論會 主題發表論文, 1989.5.2.

情勢의變化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성숙된 統一觀과 對北認識을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각계에서도 統一問題가 현안으로 등장, 새로운 열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⁹⁾ 이에 따라 국민들의 統一觀과 政府의 對北問題 접근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88년대 초반부터 지난해 말까지 各界에서 南北統一에 대한 國民意識을 조사한 結果를 綜合해 보면 統一의 當爲性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으나 統一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순을 고비로 다소 變化되고 있을 뿐이다.

우선 統一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70·80년대에는 80%이상이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統一을 해야 하는 이유로 壓倒의 多數가 같은 民族이기 때문(70.4)이라는 應答이다. 그러나 統一이 가능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悲觀的인 자세가 支配的이었으나 '88년 11월에 發表한 조사에서는 『可能하다』가 60.7%, 『不可能하다』가 39.3%로 나타나 統一에 대한 意識의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朝鮮日報社가 실시한 『韓國 대학생 및 고교생들의 民主意識 및 安穩意識에 관한 實證的 研究』 조사에 의하면 平和와 統一중에 어떤 것을 중시하는 물음에 대하여 전체의 81.8%가 平和를 선택했다. 이는 統一至上主義보다는 統一이 안되더라도 平和를 選好하는 학생이 絶대다수임을 말해 준다.

統一 후의 바람직한 國家體制에 관해서는 54.5%가 우리나라식을 지목하였고 混合體制가 좋다는 의견은 41.4%로 이보다 약간 적었으며 北韓式을 選好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89년 5월에 한겨레 신문의 『바람직한 統一方式에 대한 調査』 결과를 보면 南韓式 社會體制가 46.7%, 南北韓 社會體制 혼합 형태가 41.4%로 나타났으며, 南韓式이든 北韓式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10.4%로 나타났다. 이는 社會人口學的 특성에서 어느 정도 상반된 傾向을

9) 이에 대한 최근 論議는 김영명, 『國內情勢와 統一與件 變化』, 國際政治學會 창립 30주년 기념 學術會議 발표논문, 1989.6.2 參照.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調査結果¹⁰⁾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統一에 대한 否定的 認識이 可能과 希望에 대한 認識으로 轉換되고 있고, 現實的인 상황에서 統一보다는 平和와 自由를 選好하는 意識이 壓倒的으로 높다. 그러나 20대 전후반의 高學歷層에서는 體制選好·對北韓觀·安保觀 등에서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進보적 中產階層意識이 팽배해 가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같은 國民의 統一意識 變化는 6.25 세대의 退潮와 함께 젊은 전후 세대의 광범위한 등장과, 北韓을 對立的 존재라기보다 한 핏줄로 包容, 民族 同質性을 찾고자 하는 民族主義的 사회분위기, 그리고 現 政府의 民主化 및 北方政策의 活性化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은 認識의 변화와 더불어 지난 1-2年 동안 일어난 韓國內의 變化를 살펴보면 첫째, 統一論議의 開放化와 더불어 統一運動이 부분적 전개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韓國政府의 統一政策上에 있어 기본원칙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北韓에 대한 전반적인 認識의 變化가 摸索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7.7 特別宣言』에 나타난 바와 같이 韓國에서의 北韓에 대한 認識과 態度는 단순한 敵의 概念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民族共同體를 재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동반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같은 變化는 韓國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共產國家를 말하게 되면 거의 언제나 反共이데올로기를 내세워 危險들만을 생각하고 결코 可能性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認識은 엄청난 思考의 轉換인 것이다.

人間에게는 既存해 온 認知圖(cognitive map)의 變化를 막으려고 하는 心理

10) [現代公論], 『輿論調査를 통해 본 統一 및 安保觀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 1989 年, 1월호, pp.189-207, 朝鮮日報, 1988.8.28, 朝鮮日報, 1988.11.30, 國土統一院, [國民輿論調査], 1988, 한겨레 신문, 1989.5.16, 朝鮮日報, 1989.6.2. 參照.

的 경향이 있지만¹¹⁾, 認識이 實際狀況에 맞추어 뒤늦게나마 조정될 수 있는 여지마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과 關聯해서 우리는 開放社會에 살기 때문에 狀況에 대한 認識이 北韓에 비해 正確하고 또한 우리의 信念이 옳다고 確信하면서, 北韓이 認識을 轉換하고 合理性을 되찾도록 하는 政策勞力을 계속할 일이다.

3. 統一政策의 變化 傾向

第6共和國은 統一問題에 있어 方案이 不足해서 統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認識下에 民族主義의 發想과 未來指向의 觀點에서 南北關係를 我邦과 他邦(敵)의 關係가 아닌 兄弟關係 또는 同伴者 關係로 보고 다뤄나가는 노력을 조용히 實踐해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南北關係에 대한 認識과 發想, 그리고 接近方法등에 있어서 새로운 試圖이다.

盧대통령은 國民의 統一熱望과 周邊情勢의 變化를 受容하여 지난 87년 大統領 選舉公約에서 統一問題와 관련, 『중요한 것은 새로운 統一方案의 개발보다 認識과 發想의 轉換』이라는 前提下에 平和統一의 原則, 그리고 民族共同體의 形成과 積極적인 北方政策의 推進등을 제시하였다.

위와같은 公約實踐의 일환으로 盧泰愚 大統領은 『民族自存과 統一繁榮을 위한 7.7 特別宣稱』에서 6개항의 對北 門戶開放 조치를 발표하면서 南北관계의 認識의 轉換을 闡命하고 앞으로의 南北關係를 大결과 경쟁에서 협력과 동반으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韓國은 對北接近과 交流에 있어서도 기존의 路線을 固執하지 않고 伸縮性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南北 쌍방의 統一接近에는 南韓

11) W.Lance Benner, 『Perception and Cognition ; An Information Processing Framework for Politics』, Samuel L.Long(ed.), The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Vol. I (New York Plenum Press, 1981), pp.83-85.

의 漸增의 機能主義와 北韓의 包括主義가 대립되어 상호 한치의 양보없이 對立狀態를 유지해 왔으나 韓國의 民族主義의 發상은 北韓의 接近方法을 대폭 수용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분단국의 接近과 交流에는 2개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獨逸모델과 中國모델이 그것이다.¹²⁾ 獨逸모델은 先對話—後交流의 방식으로 정부주도의 公式交流形態이다. 東·西獨 政府는 72년 12월 「東·西獨 基本條約」을 체결한 이후 交流와 協力을 증진시켜 온 결과 올림픽 단일팀 출전과 유엔 동시가입, 頂上會談의 교환개최도 이뤄졌다.

中國모델은 정부차원의 공식관계없이 交流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民間先導의 非公式 交流形態이다. 北京과 台北사이엔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지금까지도 中國의 一國兩體制論과 台灣의 3不政策(不接觸, 不妥協, 不談判)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륙과의 경제교류와 관광, 친척방문이 방해없이 이뤄지고 있다.

南北韓 사이엔 公式對話는 여러차례 시도돼 왔으나 相互交流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獨逸모델 실험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1988년부터 시작된 북한상품의 輸入과 기업인의 북한방문등은 中國모델의 새로운 實驗 또는 新機能主義(New-Functionalism)¹³⁾接近의 시도로 볼 수 있다.

12)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 패턴은 西獨의 東方政策 이후의 東西獨關係와 中國, 臺灣關係를 혼합한 전략적 思考가 支配하고 있다는 分析이 가능하다.

13) 新機能主義 統合理論은 아주 높은 수준의 非政治的이고 기술적인 問題들에 대한 통합을 이루면서 이와 아울러 보다 낮은 水準의 機關統수를 이루어 나가면 그 결과 더 높은 수준의 統수를 이룰 수 있고 더 높은 共同體意識을 形成하게 되어 정치적 統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Ⅲ. 民族共同體의 概念과 本質

1. 共同體理論 檢討

인간이 『政治的 또는 社會的 동물』이라는 말은 보다 일반화된 표현으로 인간은 共同體의 삶을 영위하는 『共同體의 存在』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인간이 共同體의 존재라 함은 평면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共同體속에 編入되어 살아가며, 他人과 더불어 共同生活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그러한 인간은 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 누구나 共同體를 추구하고 있다.

인간이 追求하는 『共同體의 삶』이란 통상적으로 인간 상호간에 ① 더욱 親密하고 ② 충분히 서로 理解하며 ③ 더욱 자유롭고 平等하며 ④ 상호간에 協同·扶助하고 ⑤ 全人格的 關係를 맺으며 ⑥ 感情의으로 凝集을 강화하고 ⑦ 充滿함으로 갖고 느끼며 ⑧ 道德的으로 獻身하고 ⑨ 더욱 持續的으로 ⑩ 긴밀한 紐帶를 맺고 살아가는 것¹⁴⁾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追求하는 民族共同體나 民族統一의 내용도 바로 이와같은 한민족의 삶의 形態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가. 共同體의 概念

共同體라는 말은 여러가지 상이한 方式들로 쓰여져 왔다. 그것은 社會集團들이나 전체적 制度들 및 近隣 集團들을 지시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哲學的 意味로 사용되기도 하며 마을이나 都市, 또는 地域들을 포괄하는 總稱的 用語(generic term)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4) 愼錫夏, 『共同體에 대한 現代人の 追求』, 愼錫夏 編, [共同體 理論], 文學과 知性社, 1987, p.11.

즉, 共同體의 用例는 心情的인 連帶, 地域單位, 社會組織 單位, 社會集團, 社會體系, 相互作用關係의 連結網, 文化·心理的 單位 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이 歷史的이든 象徴的이든 共同體의 원형은 家族이다.

이렇듯 매우 多樣하게 사용되고 어디에나 두루 사용하는 用語인 共同體의 概念을 명확하고 엄밀하게 定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社會經濟史學的 觀點과 社會學的 觀點, 그리고 心理的인 觀點에서 논의되는 共同體에 관한 몇가지 정의들을 살펴봄으로써 막연한 概念을 整理해 보고자 한다.

1) 社會經濟史學的 觀點

社會經濟史學에서 共同體란 『資本主義的 生産社會에 先行하는 社會에서 볼 수 있는 閉鎖性이 강한 地域團體』¹⁵⁾ 즉, 土地所有制度가 未開社會 이래로 여러 가지 形態를 거치면서 展開되는 가운데 완전한 의미에서의 私的 所有權이 確立되는 것은 近代社會 성립 이후의 일이거나, 그 이전 土地의 私的 所有와 共同體에 의한 所有가 並存하는 상태 아래서의 『土地의 공동 所有團體』를 말한다.

私的 소유와 共同所有의 關係 또는 兩者의 비중은 여러 가지 條件으로 규정되어, 마르크스가 지적한 아시아적 形態, 고전고대적 形態, 게르만적 形態 등 몇개의 形態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共同所有者가 農業生産에 不可缺한 要素를 이루고 있어, 『土地의 共同所有團體로서의 共同體』¹⁶⁾에서 離脫한 개개인은 자유롭게 行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의 共同體에서는 私的 生産의 獨立性은 없었고, 주체적인 自我는 아직 形成되지 않았으며 共同體 내부에 대한 道德과 그 외부에 대한 道德과의 乖離現象이 생겨 兩者가 상반적인 性격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M.베버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즉, 共同體의 成원사이에 긴밀한 結合性의 뒷받침으로 정서적인 融合이 강

15) 박현채, 『共同體論, 共同體 運動』, [共同體 文化], 제2집, 共同體, 1984, pp.54-57.

16)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5, p.413.

해지고, 자질구레한 豫算같은 것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兄弟와 같은 친밀감이 생기고, 또한 그러한 關係가 尊重되는데 반하여 成員外의 사람에 대하여는 정반대로 가차없이 營利를 追求하거나 鬭爭意識을 가지고 대하려 한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共同體의 해체와 더불어 이 점은 자연스럽게 克服되고, 그것이 광범위한 商品流通을 基底로 하는 資本財生産이 성립되는 하나의 條件을 이루었다고¹⁷⁾ 본다.

共同體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일정한 歷史的 範疇로서 사용되는 동시에 보다 일반적으로는 긴밀한 結合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營利追求的인 態度에서가 아닌 相互 連帶의 基礎的인 集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社會經濟史學上의 共同體의 개념은 매우 制限的인 것으로 歷史發展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2) 社會學的 觀點

많은 社會學者들은 社會學의 概念과 理論들을 이용하여 共同體란 무엇인가의 概念問題를 여러가지 接近方法으로 研究하였다.

힐러리(G. A. Hillery Jr.)의 『共同體의 定義들—합의의 領域; Definitions of Community: Agreement』에 의하면 서로 다른 94개의 共同體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으며 이를 抽象化시켜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16개 이하로 좁혀지지 않았다.¹⁸⁾고 할만큼 共同體는 다양한 意味와 次元을 가지고 있다.

포플란의 『共同體의 概念』과, 벨 및 뉴비의 『共同體의 理論』들이 1958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共同體의 개념 定義들과 研究方法 및 成果들을 요약하여 정리해주고 있는데 위의 두 論文에 의하면, 현대의 共同體 연구자들의 共同體의 概念을 정의하는 傾向을 다음과 같이 分類¹⁹⁾할 수 있다. 즉,

- ① 共同體를 同質性을 가진 小集團과 동일한 것으로 概念化하는 傾向(예컨대, D. W. Minar, S. Greer)등.

17) 이호철, 오세철, 『共同體精神의 回復』(對談), [月刊中央], 1989.2, p.415

18) 愼鏞廈, 앞의 책, p. 14에서 再引用

19) 데니스 포플란, 『共同體의 概念』, 김경일 譯, 愼鏞廈, 앞의 책, pp.48-49.

② 共同體를 타인과 일체가 되어 協同의 關係를 맺고자 하는 心性的·精神的 現象과 關係를 가리키는 概念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예컨대, R. W. Maclver, R. A. Nisbet, B. Brownwell 등).

③ 共同體를 지역과 결부된 組織體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概念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예컨대, D. E. Poplin, M. B. Sussman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힐러리(Hillery)는 共同體 定義에서 대부분 社會學的인 3가지 주요 要素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① 地理的인 領域, ② 社會的 相互作用, ③ 共同的 紐帶 혹은 連帶들이다.²⁰⁾ 이를 기반으로하여 힐러리는 『共同體는 한 지리적 領域內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共同的 紐帶를 통해 社會的으로 相互作用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集團』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定義는 地域的 變數(거리적 領域), 社會學的 變數(社會的 相互作用), 그리고 文化心理的 變數(공동의 連帶)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共同體의 定義에 이들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必要로 하며 이것은 특히 社會學者들이 共同體를 다른 사회 組織體의 단위들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몇 가지 주장들은 妥當性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① 共同體를 확고한 地域的 기반을 발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社會組織體의 단위들과 구분된다. 무엇보다도 共同體는 사람들이 局地的 領域에서 일상의 必要를 充足시키는 조직적 樣相을 대표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점이 共同體가 다른 社會 組織의 단위들과 구분되는 주요한 基準이 될 것이다.

② 共同體를 社會 組織體의 단위로서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의 方法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共同體를 相互 作用에 의거하여 社會 集團으로서 혹은 社會體系로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견

20) George A. Hillery, Jr.,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966, p.118.

을 같이하고 있다. 共同體는 다른 사람들과 相互作用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共同體들이 명확한 社會 組織體의 유형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共同體는 社會 組織體의 독특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人間의 欲求들을 잠재적으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共同體는 사람들이 동일시하고 安定感과 歸屬感을 느끼는 기본적 單位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지 모른다. 오늘날 共同體 成원들이 共同의 紐帶와 連帶들을 共有한다는 主張은 주의깊게 檢討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紐帶와 連帶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20세기의 사람들은 疏外되어 있고 挫折感에 사로잡혀 있으며 고독하다고 主張하는 수많은 學者들의 主張은 매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서스만(Sussman)의 共同體 概念²¹⁾은 總括的 정의로 주목되는데 그는 『個人들 사이의 相互作用이 개별적 欲求를 충족시키고 集團의 目標를 획득하려는 意圖를 지닐 때 共同體는 存立한다고 말할 수 있다. … 共同體의 또 다른 特性은 制限된 地理的 領域이다. … 共同體를 정의하는데 基本的인 것들로는 社會的 相互作用의 특성들, 身體的·社會的·心理的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構造 및 제한된 地理的 領域을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個人과 集團의 目標를 特定化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어려운 作業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정의가 지니는 有用성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유사하게 카우푸만(Kaufman)은 그의 論文『共同體의 相互作用개념을 위한 試論: Toward an Interactional Conception of Community』에서 共同體는 場(그것도 상대적으로 좁은)이라는 점, 그리고 共同體는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가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한, 즉 制度들과 集合的 目標들의 兩者를 포괄하는 삶의 樣式에 관한 윤곽을 提示한다는 점, 세번째는 보다 根本的인 데서 비롯되며 集合의 行爲에 關心을 지닌 것이다. 그는 『共同體

21) Marin B. Sussman (ed.), Community Structure and Analysis, New York, Crowell, 1959. pp.1-2, 慎鐸厦, 앞의 책, p.64에서 再引用.

내부의 사람들은 共同的인 삶의 關心을 위하여 함께 行動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흔히 그러하기도 하다.²²⁾』고 한다. 따라서 共同體에 관한 그의 相互作用的 모델에는 3가지 要素들이 있게 된다. 즉 共同體 參與者, 共同體 集團들과 結社體들, 또한 共同體 行爲의 局面들과 過程들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서튼(Sutton)과 콜라자(Kolaja), 탈코트 파슨즈(Talcott Parsons), 조버그(Gideon Sjoberg)등의 예에서 共同體에 관한 定義²³⁾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大同小異하며 社會學者들 사이에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은 대부분의 社會學者들이 흔히 共同體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反映시켜 그것에 관한 자신의 概念을 考案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네 自身の 用語로 定義하라』는 傾向이 지배적이었으며 社會學者들은 흔히 어느 정도의 自意的 意志로써 共同體를 정의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哲學的·心理學的 觀點

共同體라는 말은 哲學的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心情的(moral) 이거나 精神的인 現象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²⁴⁾ 여기에서의 共同體는 어떤 實體로서의 場이나 組織의 問題가 아니라 마음의 問題로 된다.

예를 들면 마이나(Minar)와 그리어(Greer)가 이러한 方式으로 概念을 定義하고 있다. 共同體의 概念을 논의하는 가운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그것은 이웃 사람들과 共同的 紐帶關係, 또한 우리들 주위의 누구나가 共通的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憧憬을 표시하며 우리와 運命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親族的이며 友愛的인 紐帶를 擴張시키는 것이다.』

[表 1]은 이러한 共同體의 概念을 이와 對立하는 大衆 社會의 그것과 대조시켜 본 것이다. 이 表의 왼쪽 난에는 『心性 共同體』의 몇 가지 基本的 特性

22) Harold F. Kaufman, 『Toward an Interactional Conception of Community』, social forces. 38, 1959, 慎鐸厦, 앞의 책, p. 65에서 再引用

23) 慎鐸厦, 앞의 책, pp.66-68 參照.

24) 위의 책, pp.21-26 參照.

들을 列舉하였으며 오른쪽 난에는 大衆社會의 特性들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이밖에도 大衆社會들에 관한 다른 많은 特性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表 1] 心性 共同體와 大衆 社會의 選擇의 特性들

心性 共同體	大衆 社會
一體 感	疏 外
心性的 統一	心性的 斷絶
自 發 性	非 參 與
全 體 性	紛 絶 化

<資料 ; Minar and Greer(eds.), The Concept of Communit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9. p.ix, 慎鐸厦, [共同體 理論], 文學과 知性社, 1985,p.22 內容을 要約>

[表 1]을 살펴보면 共同體의 概念은 결코 단일 次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心性的 現象으로서의 共同體는 자신이 속한 集團에 대한 一體感과 統一性을, 또한 개개인의 立場에서 보면 自發性과 全體性의 감정을 수반하는 것같이 보인다. 쉽게 말해서 共同體란 인간이 자신의 同僚들과 촘촘하게 짜여진 狀態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共同體에 관한 대부분의 定義들은 地域性, 社會的 相互作用 혹은 社會的 相互 關係 및 心情的인 공동의 紐帶나 活動이 共同體의 구성 要素들이라는 생각을 어떠한 形態로든지 強調하고 있다.

또한 共同體라는 말 속에는 規範的 힘이나 價值的 側面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共同體로 指稱될 수 있는 대상은 家族이나 親族, 마을, 農村이나 都市 혹은 巨大 都市 등의 地域, 社會, 民族 혹은 國家, 人類와 같이 다양한 차원을 包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하여 볼 때 대표적인 社會學的 概念이나 哲學的 心理學的 概念에 의해 共同體를 정의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것이 明白하게 된 것 같다.

따라서 現代的 의미에서 共同體란 어떤 實體로서의 共同體가 아니라 原理로서의 共同體이며 장래의 共同社會를 이론적으로 拘束하기 위한 어떤 매개

로서의 共同體 이상으로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民族共同體를 논의할 때 도 마찬가지로 適用된다고 볼 것이다.

나. 共同體 論議와 思想

1) 共同體 論議

共同體에 대한 본격적인 論議가 시작된 것은 18세기 末에서 19세기 初에 겪었던 産業化 過程에서 資本主義의 발달에 따른 人間疏外 현상이나 社會 不平等 문제가 提起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일부학자들 사이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에 부합되는 이상적인 사회모델로써 原始 共同體나 中世社會에서의 共同體를 考慮²⁵⁾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共同體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며 共同體의 소멸은 痛歎할 만하고 두려운 것이었으며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共同體의 終熄에 대한 理由²⁶⁾라고 생각되는 사건들(美國과 프랑스의 民主的 政治 革命들, 英國과 다른 유럽 國家들의 産業革命에 따른 都市化, 産業化, 官僚制化)이 토크빌이나 콩트, 퇴니스, 르 플레, 마르크스 및 뒤르켐 등 가장 뛰어난 社會學的 先驅者들의 學問的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共同體 理論의 始祖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퇴니스』(Tönnis)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의 『共同社會와 利益社會』(Gemeinschaft and Gesellschaft)는 1887년 처음 출간된 이후로 共同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끊임없는 思想的 源泉이 되어 왔다.

퇴니스는 인간의 相互規定的인 人間關係, 또는 人間의 結合樣式을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게젤샤프트(Gesellschaft)의 두 範疇로 나눈다. 이 두 範疇를 개념지움으로써 共同體(Gemeinde)란 어떤 것이며 오랜 共同體에서

25) [共同體 文化], 제1권, 共同體, 1983, p. 11.

26) 콜린 벨/하워드 뉴비, 『共同體의 理論들』, 慎鏞廈, 앞의 책, pp.50-53, pp.65-77, pp.79-80 참조. 그런데 맑스가 資本主義 發展의 結果로 共同體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퇴니스는 資本主義를 共同體가 상실된 結果로 보고있다. 慎鏞廈, 앞의 책, p.58.

분리된 人間의 結合樣式은 어떤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說明하고자 한 것이다.

퇴니스는 歷史를 크게 原始共產社會에서 資本主義社會까지, 그리고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社會와 그 뒤에 이어지는 社會로 구분하여 人類史를 크게 게마인샤프트의 時代에서 게셀샤프트의 時代의 變化로 把握한 것이다.

퇴니스에 의한 共同體의 두가지 概念은 다음과 같다. 『人間은 意思的 存在이다. 인간은 意思에 따라 相互 結合하고 集團을 형성한다. 원래 인간은 사조차도 그 일부로 되는 感情, 衝動, 欲望의 全一體이고 그와같은 意思를 本質意思(Wessenwille)라고 이름지을 수 있다. 그리하여 人間은 의사에 따라 생각하는 存在로 되고 全一體로 되는 바, 그 意思는 選擇意思(Kurwille)라고 이름지운다. 本質意思是 自然的·實際的이고 選擇意思是 人爲的·觀念的이다. 이 가운데서 本質意思에 기초한 인간 서로의 結合樣式이 게마인샤프트이다. 身體的으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노여워하고 미워하며 사랑하고 생각하는 結合으로 家族, 氏族, 部族으로 펼쳐지는 血緣社會, 마을, 고을들의 地緣社會가 그것이다.²⁷⁾

퇴니스가 끊임없이 主張하였던 것은 共同體는 사람들 사이의 連帶的 關係를 增進시킨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基盤이 되는 한가지 要因-地域的 要因, 場所, 地方-만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적 의미에서의 共同體는 비록 地域共同體를 포함한다 해도 또한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바, 宗教·일·家族·文化 등을 의미하는 包括的 用語인 것이다. 즉 그것은 감성적 凝集性과 깊이, 連續性, 충만함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社會的 連帶를 指稱하는 것이다.

한편 共同體概念과 그 反命題에 대한 베버의 특수한 用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共同體的(communal)과 結社體的(associative)을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連帶的 社會關係』의 유형²⁸⁾에 대한 論議에서 발견된다. 이들

27) 이에 대한 論議는 로버터 A. 니스킷, 『共同體 理論의 歷史』, 지승중 譯, 慎鏞廈, 앞의 책, pp.54-60, 136-146, 박현채, 共同體論. 共同體運動, [共同體 文化], 제2집, 1984 p.41 참조.

28) 慎鏞廈, 앞의 책, pp.148-150.

은 베버가 人類史의 어디에서나 발견하였던 類型들이었으며, 퇴니스에 있어서 共同社會와 利益社會인 바, 베버에게 있어서 정확히 理想型(Ideal type)이었다. 베버에 의하면 어떤 관계가 共同體的이라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所屬되어 있고, 서로 서로의 總體的 존재에 連累되어 있다고 느끼는 『主觀的 感情』에 기초하고 있을 때이다.

베버에 있어서 어떤 關係가 結社體的이라는 것은 그것이 『理解의 합리적으로 動機化된 調整 또는 이와 유사하게 動機化된 同意』에 근거하고 있을 때이다.

이들은 베버가 人間社會에서 발견된 社會關係의 두 기본형이다. 베버에 있어서 이들은 觀點, 즉 理想型이며, 따라서 베버는 兩者가 같은 사회구조에 參與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強調하고 있다.

콩트(August Comte)의 경우에는 상실된 共同體的의 回復이 그의 社會學 창건의 思想的 動因이었으며, 社會를 共同體가 擴大된 概念으로 파악하여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회가 結合의 原理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共同의 原理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그 원리를 實證的으로 밝히고자하여 社會學이라는 새 학문을 創建하였다. 그 이후의 많은 社會學者들과 社會 思想家들은 콩트의 이 명제를 흔쾌히 받아들여므로써 18세기의 思想의 핵심이 『社會契約』이었던 것처럼 19세기의 그 核心은 『共同體』로 되었다.²⁹⁾

뒤르켐(Emile Durkheim)도 社會의 진정한 뿌리는 共同에 있는 것이지 結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理性的의 本質的 요소가 흘러나오는 곳도 共同體라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19세기 社會學 創建期의 가장 중요한 主題가 『共同體』로 정립되었다.³⁰⁾

19세기의 社會學者들과 사회 思想家들은 共同體를 재발견하고 사회에서의 가장 소중한 것들인 사랑·獻身·友情·協同·連帶 등이 共同體로부터 創出된다는 것을 밝혔으며, 미래 사회가 共同體的 사회로 建設되어야 한다는 展

29) 慎鐸廬, 앞의 책, p.12, pp.115-122.

30) 위의 책, pp.151-154.

望을 確固하게 正立해 주었다.

이 밖에도 우리는 近代化 또는 近代批判으로서의 共同體論을 들 수 있다. 그간에 일반적으로 共同體論은 近代批判보다는 社會經濟史的 觀點에서 近代化의 前提 또는 前近代의인 것에 대한 批判論으로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近代化論이 근대 資本主義 社會가 낳은 여러가지 모순의 해결에서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近代批判으로서의 共同體論과 共同體運動이 역사적으로 傳承된 諸要素의 복합으로서 提起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역사에서 共同體의 肯定性을 表出시키고 共同體 運動을 전개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은 共同體論은 1960년대부터 비롯하여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것으로 되는 바, 그것은 전후 世界 資本主義에서 高度成長이 自立的 諸個人에 의한 民主的인 근대사회가 아니라 언뜻 리스만(D. Riesman)이 그리는 『고독한 群衆』에 의한 大衆社會와 여러 개인의 自發性을 壓殺할 정도로 발달한 管理社會로 된다. 그 기초를 갖는다. 그와 같은 狀況에서 共同體運動이나 諸個人의 자립과 연대를 구하는 立場에서 共同體의 再評價를 주장하여 近代化論의 이론적 결함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주어졌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2) 共同體 思想

한편 共同體 論議와 관련하여 共同體의 삶의 思想과 倫理라는 측면에서 個人과 共同體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西歐의 傳統思想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래 루소와 헤겔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린, 홉 하우스 등 19세기 英國의 新自由主義 政治思想家에로까지 發展해오면서 특히 社會哲學과 道德哲學, 認識論, 심지어 形而上學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³¹⁾

인간은 共同體의 존재이고 또 理性的 존재라는 두 가지 基本命題에 입각하여, 개인과 共同體의 문제를 解明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古典哲學者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다.

31) 共同體의 사상적 맥락에 대해서는 李東熙, [韓民族共同體論], 法文社, 1988, pp. 41-49, 慎鏞廈, 앞의 책 pp.186-193 참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目標을 幸福으로 보고 어떠한 條件과 狀況 속에서 이 幸福이 어떻게 최고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探究³²⁾하였다. 이 問題 領域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적으로 인간은 共同體의 삶을 통해서 人生의 최고목표인 幸福에 到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政治共同體, 즉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의 概念대로라면 『都市國家』(polis)속의 삶을 매개로 비로소 幸福이 保障될 수 있다는 것이다. 國家 이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속할 수 있는 사회(共同體)로서 家族, 共同部落 등을 들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家族共同體를 굳이 논하고 있는 까닭은 國家生活속의 幸福을 強調하기 위한 논리적 說明의 前段階라 할 수 있다. 그는 家族共同體의 例를 통해 欲求充足의 기능적 必要性에 의해서 형성된 共同體는 인간의 참된 행복을 保障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國家라는 政治共同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은 야수 아니면 神일뿐이지 참된 인간일 수 없다. 政治共同體속의 인간관계는 主人과 奴隸의 관계가 아니다. 奴隸는 主人의 단순한 道具일 뿐이지만 정치적 市民은 指導者의 단순한 道具일 수 없다. 참된 인간, 참된 인간의 幸福, 참된 人間紐帶는 國家라는 政治的·共同體의 삶을 통해 비로소 實現된다.』고 하였다.

市民社會의 思想史의 傳統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自由主義의 限界를 미리 豫見하고, 共同體의 秩序나 共同善의 重要性을 각성하여 주고 있는 思想家가 바로 루소였다.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개인은 共同體를 생각하지 않고 共同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루소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共同體와의 『완전합일적 存在로서 個人』까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共同體의 存續과 繁榮을 위해, 또 참다운 共同體의 構成員이 되기 위해 개인의 私의 特殊意志를 억누를 수 있는 德性和 道德的 힘을 요구하였다.³³⁾

個人과 國家를 相互 對立的 존재로 파악하지 않고 하나의 統一의 秩序體로

32) 李東熙, 앞의 책, pp.41-42, 慎鏞廈, 앞의 책, pp.113-114 參照

33) 李東熙, 위의 책, pp.43-44.

이해하려는 思想史的 傳統은 헤겔에 의해 最高潮에 달하게 된다. 헤겔은 國家秩序에의 완전히 歸屬된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自由는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 觀念論者로서 헤겔은 法, 道德, 社會制度 등을 人間理性이 겉으로 유한한 모습을 띠고 드러난 客觀精神의 表出로 본다. 國家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完成態에 도달한 『客觀精神』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헤겔에 있어 國家는 최고의 理性的 存在로서 그 자체가 普遍性和 道德的目的을 갖는 人倫態³⁴⁾이다. 한 개인은 共同體, 특히 國家와 對立되고 遊離된 존재로 남아 있는 한, 참 自我의 실현도 自由의 진정한 完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헤겔의 생각이었다.

헤겔은 제각기 特殊利益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共同體로서 근대 市民社會가 가져올 불행한 결말을 豫見하고 이 市民社會의 遠心力이 보다 고차원적인 統一的 秩序 즉, 國家로 統合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個人과 國家를 對立的 存在로 이해해 오던 英國의 思想史的 흐름 속에서도 國家秩序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個人과 國家가 調和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인과 흄하우스가 이러한 知的 傾向을 대표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個人과 共同體를 對立的 관계로 파악해오던 高前적 自由主義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自由를 個人的 行爲水準의 문제라기보다는 社會적 관심의 문제로 간주한다. 자유는 『拘束과 干涉의 排除』보다는 『共同體 連帶性의 強化』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³⁵⁾는 것이다.

그린의 『共同善』의 개념이나 흄하우스의 『社會的 連帶性』 또는 『조화적全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社會有機體說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흄하우스의 思想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참다운 自由의 실현은 곧 人格性, 다시 말한다면 진정한 自我의 具現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人格性의 단계

34) 이수은, [政治哲學：—認識과 實踐의 統一—], 法文社, 1984, pp.334-339, 李東熙, 앞의 책, pp.44-46, 慎鏞廈, 앞의 책, pp.113-114.

35) 李東熙, 위의 책, pp.46-49.

는 調和的 전체로서 共同體의 삶의 營爲를 통해 가능하다. 『調和的 全體』의 존속과 進歩속에서 개개인의 人格이 완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개인의 人格完成은 소극적 受惠者로서보다는 적극적 貢獻者로서 行爲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에 적합한 社會組織原理와 행동양식을 摸索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어느 人間 共同體 사회이든 자신의 생존의 持續과 繁榮을 목표로 그 스스로 안고 있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회이든지 構成員들간에 對立과 葛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共同體 成員의 합의를 거쳐 이미 정해져 있는 큰 原則과 方針을 따르게 마련이며 이는 곧 그 社會의 基本的 秩序를 構成³⁶⁾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基本秩序의 이념이 構成員들간의 마음속에 內面化되고 信念化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特定 思考와 行動의 類型을 主宰하며 촉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共同體 社會든지 그 構成員들의 共同體의 삶을 組織化하는 원리로서의 理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共同體 運動과 地域 統合

전통적 의미의 共同體 社會는 文明化되고 近代化됨에 따라, 즉 都市化나 産業化, 官僚制化라는 사회적 과정이 進行된 결과 必然的으로 해체의 추세를 가져오면서 지역적 自律性이 減少된 반면, 상호 依存性을 增大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³⁷⁾

共同體의 解體라는 시대적 趨勢는 한편으로 共同體를 指向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하나의 共同體의 典型으로 構想된 것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이다. 그리고 이것은 캄파넬라의 『太陽의 都市』(1623)와 같은 또다른 유토피아를 낳으면서 共同體는 인간의 抑壓과 貧困으로부터의 解

36) 李東熙 앞의 책, pp.129-130.

37) Maurice Stein, The Eclipse of Communoity, New York, 1964

放을 위한 꿈의 培養基로 된다.

또 하나의 共同體 構想은 프랑스 革命에서 表現되는 市民革命의 한계 의식으로서 空想的 社會主義에서 제시된다. 프랑스 大革命을 주도한 사상적 원리는 天賦人權의 思想이며 그것은 近代 自然法 思想에 기초한 것이었다. 自由·平等·私有財産·契約 등이 그 思想의 基本概念이고 이들 原理의 실현이 인류의 普遍的 解放을 가져오는 것으로 確信되고 있었다.

프랑스 大革命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일단의 社會主義者들(오웬, 푸리에, 생시몽 등)은 共同體를 인간의 個別化를 그 극한까지 추구한 近代社會에 대한 안티테제, 즉 보다 높은 차원에서 人間生活를 共同化로 이해할 때 그와 같은 共同體의 건설에는 政治權力과 産業의 問題가 불가피한 것으로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問題를 저버린채 共同體 問題를 다룬다.

이와같은 共同體運動은 그것의 前史로 되는 많은 유토피아, 그리고 그 후계자인 아나키즘과 복음서에 입각한 平等主義 運動과 결합하여 역사속에서 지속된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인류의 꿈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다분히 浪漫主義的 思考方式에 의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역사에서 共同體運動은 인간의 유토피아에서의 憧憬에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강력한 政治的 힘을 동반하거나 政治的 힘을 위한 중요한 手段으로서 등장한다. 이른바 『民族共同體運動』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社會的 人種共同體의 최고의 형태로 되는 民族을 모든 것의 위에서는 최고의 것으로 본다. 다름아닌 總體(All) 또는 全體(Genze), 人間은 이것을 통해 살아가고 또 이를 통해서만이 人間이 될 수 있으며 全體에 대해서만 人間은 責任을 진다는 것이다. 전체는 神도 아니며 精神, 教會, 人類도 아닌 國家와 民族 바로 그것이다. 人類는 초인격적인 개체현상인 民族속에서 自己를 實現한다. 모든 社會組織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체안에 완전한 생활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民族이야말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어 構成員이 생활에서 필요한 일체의 것, 다시말해서 形式과 機能을 갖춘 言語·宗教·

法律·國家·經濟·藝術·教育, 그리고 歷史와 傳統에서 나오는 일체의 價値 內容을 만들어낸다고³⁸⁾ 본다.

이와같은 民族共同體 理論은 共同體를 정신적 實體로 보는 헤겔의 觀念論에서 출발, 일종의 生物學的 實用主義, 生活空間論, 人種主義로 되어 역사에서 反動的인 파시즘으로 된다. 파시즘이 밖으로 民族的인 排外主義로, 안으로는 個人을 民族共同體의 구성으로만 인정하며 개인은 물론 한 사회안에서의 階級·階層的 利害의 相衡을 부정한 채 획일주의적인 것으로 치닫게 하는데는 歷史와 理論에서 질서지워진 民族에 대한 강한 自負로서의 民族共同體論에 크게 힘입고 있다.³⁹⁾

이런 의미에서 共同體運動으로서의 이른바 民族共同體 運動은 역사에서 크게 否定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共同體가 갖는 자기성격의 兩面性(구성원의 平等위에서는 相扶相助의 조직과 지배의 基盤 또는 手段으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歷史的 경과를 共同體의 긍정쪽에 서서 이것의 再現을 위한 試圖를 부단히 낳았다. 그것은 資本財化에 따르는 共同體로부터의 解放이 資本主義의 個人主義的인 성격과 함께 광범한 사람들을 그간에 누릴 수 있었던 自救的인 공동적 보호를 制裁한데서 오는 것이거나, 支配·被支配關係에서 오는 社會的 不合理에 대한 理念的인 定義 또는 平等에의 요구가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傳統的 의미의 共同體와는 次元을 달리하지만 新데탕트 이후 國際關係에서 脫이데올로기적인 相互作用의 증대와 國家들 혹은 集團들의 非政治的 接觸과 交流의 증대에 따라 세계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論議되고 추진되어가고 있는 人類共同體 또는 世界的·地域的 經濟共同體로서의 block化 傾向이나 地域統合 노력을 지적할 수 있다.

대체로 새로운 國際環境에서 國家들은 對決과 安保보다 協力이나 適應에

38) 노이로르, [第3諸國의 神話], 전남석 譯, 한길사, 1982, pp.272-273.

39) 박현채, 앞의 글, pp.48-53.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現象이다. 따라서 同盟體의 結成보다 雙務的 協力이나 多邊的 協力を 指向하는 등 상호의존 체제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특히 經濟 블럭화 추세가 普遍化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動向을 살펴보면 既存의 EC(유럽共同體)와 ASEAN(동남아 國家聯合) 그리고 GCC(아랍만 國家協力會議)외에 최근에 結成되었거나 構想중에 있는 經濟的 地域共同體로는 北美의 미·캐나다 自由貿易 協定, (89. 1. 1, 발효), 中東地域의 ACC(아랍 協力會議 '89. 2. 17 設立)가 있으며, 특히 韓國과 관련있는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는 최근 美國, 日本, 中國, 蘇聯, 濠洲 등 韓半島 周邊國들이 『東北亞 經濟圈』, 『黃海 經濟圈』, 『大中華 經濟體』, 『極東 經濟共同體』, 『環東海 國際會議』, 『亞·太經濟協力機構』, 『太平洋 沿岸國 協議體』, 『太平洋 經濟協力共同體』 등 각종 地域經濟 및 安保協力體 創設問題를 적극 檢討⁴⁰⁾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같은 국가간·지역간의 經濟 블럭화 움직임은 80년대 이전의 경우에는 理念的·軍事的인 성격이 강하고 地域的인 것은 副次的인 것이었으나 현재 追求되고 있는 共同體는 地政學的 側面과 특히 經濟的인 側面이 강하게 浮刻되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이렇듯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南北韓만이 아직도 낡은 理念的 對立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南北間의 和解와 協력이 統一의 필수 前提라는 점에서 세계 여러 地域에서 특히, 주변국 가들이 하나의 經濟共同體로 統合돼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南北韓에게 統合意志와 能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40) 여기에서 東北亞 經濟圈, 黃海 經濟圈, 大中華 經濟體, 極東 經濟共同體는 中國 學者들에 의해 주창되고 있고 環東海 國際會議, 亞·太協力機構, 太平洋 연안국 協議體, 太平洋 經濟協力共同體는 주로 美國을 중심으로 日本과 濠洲가 이에 同意하고 있으며, 蘇聯은 環東海 國際會議와 亞·太諸國 協力體 構築을 표명하고 있다.

라. 小 結

共同體를 논의하는 趣旨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意味의 복고적 취미일 수 없다면 未來指向的인 시각에서 共同體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評價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共同體는 歷史的 實體이고 그것은 기본에 있어서 共同所有, 共同勞動에 기초한 相扶相助로써 證여의 원리가 지배하는 閉鎖的인 1차적 集團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歷史的 實體로서 變化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原始社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만 된 共同體는 社會의 分化·發展過程에서 지배의 手段으로 轉化가 이루어지며, 그것은 社會的 生産力의 경제외적인 것으로 近代의 人間類型의 確立에 있어서 장애로 된다. 그런 의미에서 共同體는 資本財化, 近代化를 위해 否定되어야 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같은 共同體認識에 대하여 그 차원을 한정지우지 아니하고 人類가 세계사적으로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모든 制度로까지 擴張하여 보려는 노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 있어서 共同體는 이제 보다 肯定的인 것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共同體의 抽象化에서 주어진다. 즉, 共同體를 共同組織 또는 共同存在性이라는 聯關=統合의 구조원리를 共同體→市民社會→共同體에로 圖式化하면서 미래의 게마인샤프트로서의 共同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共同體의 모델을 지난 歷史에서 보지 아니하고 人類史의 내일에서 본다는 데서 肯定的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歷史的 具體性속에서 제시된 共同體의 性格變化를 捨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서 문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共同體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實體로서의』 共同體가 아니라 『原理로서의』 共同體이며 장래의 共同社會를 이론적으로 構築하기 위한 『媒介로서의』 共同體 이상으로 될 수는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 共同體 論議⁴¹⁾는 주관적 동기에 있어서 南北韓 間

41) 박현채, 앞의 글, pp.58-61, 慎鏞履, 앞의 책, pp.209-210.

題의 보다 나은 해결을 위한 노력의 一環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共同體 論議는 實體로서의 共同體가 아니라 原理로서의 共同體라는 범위 이상의 것일 수는 없고 그것이 장래의 共同社會를 理論적으로 構築하기 위한 媒介로서의 共同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共同體의 再現이나 그것이 개별적인 한정된 사람들간의 結合에 의한 것으로 되는 경우, 共同體 論議는 그 主觀적인 순수한 動機와는 상관없이 現實적으로 有害한 것으로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긴 歷史的 過程에서 본 것과 같이 現實社會와 人間의 이상적 追求와의 乖離는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꿈으로서의 유토피아에 대한 幻像을 갖도록 하게 되어 있다.⁴²⁾ 더우기 그와같은 이상의 追求가 과학적 認識위에 서지 않은 채 소수의 閉鎖적인 觀念的 集團에 의해 追求되는 경우 그것은 단순히 그것에 參與하는 사람들만의 損失로 되지 않고 歷史의 進展에 있어서 큰 損失로 되며 歷史의 發展을 그르치는 것으로 된다.

더우기 共同體가 민족적 心意나 민족적 傳統 그리고 민족적 一體性的의 강조로 되는 경우 그것은 지난 역사적 經過가 보여주듯이 排外主義적인 民族主義로서의 國粹主義로 전락할 수 있는 논리를 스스로 간직하고 있다.⁴³⁾ 民族的인 것은 歷史적으로 傳承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낡은 것의 執着이나 強調가 아니라 광범한 民族構成員의 오늘의 생활에서 여과되어 밑으로부터 다시 收斂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와같은 의미에서 民族主義는 민족이 역사적 발전의 所産으로 주어져야 하고 민족적인 것에 새로운 創造的 內容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에 있어서 共同體運動은 비록 보잘 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信仰共同體와 일부 아니키즘적인 共同體運動, 그리고 生産共同化로서의 協業運動 등에서 提起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낡은 경험은 보잘 것이 없고 一般化되어 있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定立된 것도 아니다.

42) 金學俊, [韓國民族主義 統一論理], 集文堂, 1983, pp.61.

43) 역사적으로 獨逸의 나찌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그것이다.

그러한 理由로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共同體 論議와 運動은 共同體 概念의 不正確, 共同體에 대한 歷史的 契機속에서의 認識缺如, 共同體的 삶을 回復하는 방법의 未提示, 共同體文化의 제기에서 보여준 觀念性등을 보여주고⁴⁴⁾ 있으며 이는 民族共同體를 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未解決 問題들이 다.

그것은 研究不足이거나 우리 사회의 歷史的 시기에 있어서 아시아적 성격의 反映일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역사속의 두레패나 軍布契, 大同契, 그리고 鄉約등의 共同體的 殘存을 보면서 共同體運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지는 않는다. 共同體 論議나 共同體運動은 그것이 지난날의 共同體 그 자체의 再現이 아니고 현대의 일정한 목적에 立脚한 共同體理念의 제시로 되는 한, 그것은 한 社會와 民族의 바람직한 未來像을 提示하는 노력의 일환이어야 한다.

2. 民族共同體의 概念과 內容

가. 民族共同體의 概念

지금까지의 國內統一論議에서 보면 統一의 概念과 관련하여 과거지향적인 再統一(Reunification)보다는 未來指向的인 新統一(New-Unfication), 그리고 단순한 國土의 統一보다는 民族史의 觀點과 時間的 次元에서 民族共同體의 회복을 통한 統一의 실현⁴⁵⁾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統一의 개념이라는데 意見이 集約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指向하는 統一이란 1945년 分斷以前의 상태로 돌아가는 統一이 아니라 현재의 상이한 두 體制를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묶어서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어떻게 形成시키느냐 하

44) 박현채, 앞의 글, p.57.

45) 國土統一院, [民族共同體 形成을 통한 統一로의 前進], 1989, pp.5-7, p.99., pp.107-108, 自由評論社 編輯部 編著, [分斷現實과 統一論理], 自由評論社, 1988, p.53 참조.

는 작업으로 된다.

즉, 오늘날 우리 民族에게 있어 統一이란 민족이 自主的으로 자신의 運命을 결정하면서 모든 民族構成員들이 思想이나 信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平和로이 하나의 共同體的 생활을 營爲하게 되는 상태를 回復하는 일이다.

南北으로 分斷된 우리가 원래 같은 民族이 아니었거나 같은 겨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統一問題는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統一의 共通分母가 民族이라는 이유때문에 40여년의 分斷史에서 누적된 反目·不信과 異質化 現象은 統一의 過程에서 信賴와 和合을 바탕으로 하는 民族共同體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러한 民族和合과 共同體意識의 회복이야말로 政治的 統一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民族共同體의 形成을 우리의 統一政策으로 했을때 이에 대한 概念의 구체적 定立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떤 政策이든 그 目標에 대한 정확한 理解와 구체적인 內容의 제시가 없으면 이에 대한 手段·方法의 선택이 어렵게 되고⁴⁶⁾ 目標·手段의 連繫(chains of means-end)⁴⁷⁾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政策의 不確實性(uncertainty)과 曖昧性(ambiguity)이 提起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共同體라는 概念은 嚴密하지 않으며 다양한 次元을 내포하고 있다. 共同體의 한 유형으로써 民族共同體 또한 이러한 共同體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社會學的 觀點에서 共同體의 개념을 定義할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共同體

46) 政策目標에 대한 具體的 內容은 姜信澤의 共著, [政策學], 法文社, 1982, pp.57-64, Fred M.Frock, Public policy,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9, pp.23-29, James E.Anderson, Public Policy Mak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pp.52-54. 참조.

47) 目標—手段의 關係는 Victor A.Thompson, Decision theory : pure and applied, in Kym Young Phoung(ed.), Policy Making Theories, Vol.I,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3, pp. 61-62, Herbert A.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The free press, Inc., 1976, pp.62-64.

의 概念構成要素로 지리적 變數(거리적 領域), 사회적 變數(사회적 相互作用 및 關係), 그리고 文化·심리적 變數(共同的 紐帶 및 連帶)를 어떠한 形態로든 強調하고 있음을 보았다.

民族共同體를 위와같이 社會學的 觀點에서 보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論外로 치고 위의 3변수를 南北韓의 현실에 대입해 볼때 韓民族의 共同體의 性格은 거의 상실되었거나 훼손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 거리적 變數(韓半島)와 과거 오랫동안 단일 民族社會를 유지해 오면서 어려운 時代를 함께 살아온 心性的인 紐帶와 文化的 傳統의 共有는 敵對狀況에서도 南北으로 하여금 하나의 共同體關係라는 심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統一의 當爲性이 있고, 현실의 당면 과제로서는 體制와 理念의 차이로 인해 民族共同體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도록 民族共同體를 어떻게 확고히 재형성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있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하면 훼손되고 파괴될 위험이 있는 民族共同體를 회복하고 統一을 이룩하려는 發想은 分斷으로 인한 民族의 分裂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方法論』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民族이란 人間이 객관적으로 言語·地域·血緣·文化·政治·經濟·歷史를 共同으로 하여 공고히 結合되고, 그 기초위에서 民族意識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공고하게 結合된 역사적 범주의 人間共同體를 말한다.

民族 자체가 하나의 共同體(Gemeinschaft)이지만 民族共同體다 갖추어 부르는 경우 歷史性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즉 民族의 상황이 軌道를 벗어나려 하거나 벗어난 非正常的인 狀況일 경우 歷史적으로 정상 軌도에 있었을 때를 강조하게 되고 民族共同體 개념의 構成 要素에 問題가 발생할 때 共同體 개념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民族이란 본질적으로 共同體를 의미하였으며 民族共同體가 곧 國家의 實體를 의미하기도 하였다.⁴⁸⁾ 이러한 사실은 세계유수의 單

48) 民族(nation)이 精神·文化的인데 반하여 國家(state)는 政治·法律的 概念이다. 그러므로 民族共同體는 政治的 自治權을 소지하게 될때 民族國家가 된다. 한점수, 『統一論議와 民族共同體』, 大學統一問題研究所 協議會 編, [統一論議의 諸問題], 대왕사, 1988, p.137.

一民族國家를 형성하고 있는 한民族에게 각별한 의미⁴⁹⁾를 갖는다.

民族共同體는 地緣·血緣·言語·文化의 複合的 共同體이다. 그것은 우리가 한民族이라고 할 때 객관적 基準으로 血緣과 地緣·言語의 共通性을 가장 중요한 基準으로 삼고 있는데 이 세가지 기준은 바로 社會學的 의미에서의 共同體 形成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民族共同體에서 共同體란 말을 굳이 쓰지않고서도 『民族』이라는 말만으로서도 그 개념에는 共同體라는 의미가 含蓄되어 있다. 여기서 共同體라는 말은 우리가 常識的으로 인식하고 있는 同質性을 바탕으로 같이 모여 살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共同繁榮을 추구하는 것을 그 본질적 內容으로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社會·文化·經濟·政治制度와 規範까지도 포함⁵⁰⁾된 것으로 본다.

우리 民族은 세계 民族史上 오랫동안 單一 民族 社會를 유지해 왔으며 日帝時代에 國權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民族共同體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것은 民族의 생활과 傳統은 어떤 정치제도 보다도 民族이라는 共同體에 의해 지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民族共同體를 강조하는 것은 이와같이 共同體로서 살아왔고, 共同體로서 살아야 할 하나의 민족이 分斷된 채 共同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共同體를 형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즉 하나의 民族이라는 當爲性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⁵¹⁾

民族共同體의 형성은 分斷 현실과 統一韓國이라는 연결선상에서 볼 때 이러한 當爲性 뿐만 아니라 民族主義의 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民族史의 正統性을 확립하고 分斷에서 오는 민족 力量의 소모를 제거하며, 民族構成員의 福祉增進과 民族自尊 및 民族生存權을 보장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고

49) 미국의 社會學者 George Kurian의 조사에 의하면 全世界의 모든 國家 가운데 유독 南北韓만이 순수한 單一 民族國家임이 밝혀졌다.

박한식, 『民族情緒의 맥은 끊이지 않았다.』, 國民日報, 1989.1.4.

50) 國土統一院, 앞의 책, pp.87-88.

51) 위의 책, pp.88-89.

려한 것이다.

이러한 民族共同體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民族이란 共同體가 하나의 政治的·社會的 單位라는 본래 概念이 내포하고 있듯이 他 집단과의 境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는 自主性的의 문제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自主性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民族的 悲運을 맛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共同體는 첫째, 自主性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둘째로 境界內外에서 민족의 生存權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平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는 境界內에서는 구성원의 自由가 保障되고 福祉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⁵²⁾

따라서 民族共同體란 우리 민족이 韓半島라는 일정한 거리적 영역에서 相互作用과 關係를 통하여 서로 同質感을 가지고, 서로 돕고 함께 힘을 합하여 共同繁榮을 추구하면서 自主·平和·自由·福祉가 보장되는 하나의 삶의 場이라고 概念化할 수 있다.

統一과 관련시켜서 民族共同體를 본다면, 民族共同體를 형성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즉 文化的 共同體·社會的 共同體·經濟的 共同體·政治的 共同體의 형성이 그것이다.

네가지 측면의 共同體가 형성되면 그것이 바로 統一인데, 그중 궁극적인 것은 政治共同體를 형성하는 것이다. 政治共同體는 單一民族國家의 형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가 統一을 追求하는 과정은 곧 이 네가지 共同體를 형성하는 過程이며, 統一의 내용이란 네가지 측면의 共同體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즉 民族共同體란 民族統合의 過程이자 그 目標이며 統一의 內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民族共同體는 앞서 共同體 論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떤 實體로서의 共同體보다는 南北韓의 統合構造 原理로서의 共同體, 또는 장래 民族의 統一된 共同社會를 이론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媒介 또는 方法論으로서의 共同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2) 國土統一院, 앞의 책, p.89

나. 民族共同體의 內容

民族史의 실제로 볼때 우리 民族은 10세기 전반에 하나의 民族으로 정립되었으나 그후의 民族史는 분단의 누적과 相互作用의 결여로 사실상 前近代의 民族일 뿐이었다. 그러나 1876년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民族으로 結集·形成되어 수난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民族의 生活樣式과 文化를 이룩하였고 그것을 유대로 民族共同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民族共同體는 南北分斷으로 인해 分裂되었으며 6.25를 통하여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南北 同胞間의 극단적인 相互不信과 敵對感은 統一을 遲延시키고 沮害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은 물론, 南北 異質化는 政治體制와 이데올로기, 社會構造와 經濟制度, 文化·藝術分野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을 뿐만아니라 날이 갈수록 深化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새로운 民族共同體 形成問題는 現實의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또한 어느정도 단계적인 過程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民族共同體는 역사적 概念으로서의 民族의 主體라는 次元과 統一에 이르는 過程이나 內容 또는 方法論으로서의 차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후자의 경우, 그 實相은 『南北이 相互 信賴回復을 통한 相扶相助의 관계를 통해 種族 및 文化的 同質性을 回復하고, 政治·經濟的인 共同紐帶를 통하여 相互 共同繁榮과 이익을 指向하면서 對外的으로 協力하는 狀態』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民族共同體의 개념 내용은 지금 새삼스럽게 형성발전되어야 할 Community(共同體)가 아니라 우리 民族은 1천년 이상이나 삶의 운명을 함께해 온 하나의 運命共同體라는 관점에서 민족적인 것을 基底로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內容으로 하는 Gemeinschaft(共同體)의 概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Gemeinschaft는 퇴니스가 말하는 『本質意志』에 입각한 사람들의 全人格的인

結合體인 반면, Community는 共同體의 감정과 地域性을 기초로 한 지역사회적인 共同營爲體(대표적인 EC의 경우 地域經濟協力 統合體 또는 政治 協力體)⁵³⁾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統一政策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民族共同體의 개념은 可變性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한편, Gemeinschaft의 定立論理로 民族共同體를 형성한다고 할때에도 그 과정에서 『利益社會』의 Gesellschaft의 추구를 도외시킬 수는 없다. 民族共同體의 형성과정에서 南北離散家族과 學生·體育·文化交流 등은 Gesellschaft적 追求의 典型이 될만하다. 따라서 民族共同體의 형성은 Gemeinschaft적 추구를 母體로 깔고 Gesellschaft적 追求를 다져나가는 段階的 接近이 필요할 것이다.

統合의 形態라는 관점에서 民族共同體가 Federation(聯邦制)이나 Confederation(國家聯合)이나의 問題⁵⁴⁾는 民族共同體의 성격으로 볼 때 그 論議의 妥當性이 있는가는 의문시 된다. 왜냐하면 國家聯合이나 또는 聯邦制나 의 문제는 이것이 制度的·法的 接近方法에 의한 統合形態의 분류방법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民族共同體는 거시 社會學的 次元의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전혀 別個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民族共同體가 발전되어 統一된 單一民族國家의 조직이나 실체로 現出되었을때 이의 성격을 統合形態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民族共同體는 南北韓間의 相互關係가 상호작용의 觀點에서의 社會學的 概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國際法이나 國際政治學上的 法的·制度的 觀點에서 파악하는 類型論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이 民族共同體의 개념 내용은 포괄적이면서 다양한 斷面과 次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南北韓이 할 일은 상호 認定과 尊重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民族이 하나의 民族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53) 변도은, [유럽 共同體], 평민사, 1982, pp.9-16. EC의 최근 狀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IME, MAY. 27. 1989. 참조.

54) 國土統一院, 앞의 책, pp.100-102, 鄭用吉, 『統一로 가는 過渡體制의 諸形態』, 韓國政治學會 통일문제 특별 심포지움, 1989.2.1-2.2

하는 방법을 摸索하는 일이다.

이러한 共同體의 關係를 追求하는데 있어 예측가능한 시기내에 政治的·制度的 統合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現 狀況을 잘 活用하는 民族의 意志와 能力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면 南北間의 심정적인 統一, 또는 生活圈의 統一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東西獨의 生活共同體나 中國民族의 民族共同體의 접근이 그것이다.

生活共同體나 나아가 民族共同體를 형성하는데 있어 우선적이고 쉬운 일은 社會共同體의 형성⁵⁵⁾일 것이다. 社會共同體란 6천만 동포가 하나의 共同體라는 사회적 유대와 結集을 강조해가는 것으로 무엇보다 相互交流와 接觸이 필요하다. 그러한 交流와 接觸을 통해 상이한 체제하에서 각기 다른 社會化 過程에서 형성된 異質性을 극복해가는 것이며 그 方法은 이산가족의 結合이나 南北韓 住民의 多방면적 交流와 協力, 그리고 南北韓 住民의 自由往來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社會共同體의 形成은 동시에 文化的 共同體를 형성케 할 것이다. 文化共同體로서의 民族共同體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文化的 요소들의 많은 교류를 통해 分裂보다 統合된 共同體文化를 회복 또는 창조해 가는 것⁵⁶⁾이다. 우리가 한 거래라고 하는 것은 數千年에 걸쳐서 이 땅에서 우리 民族이 하나의 文化傳統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南北韓은 상이한 體制差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連綿해 온 傳統文化속에서 같은 言語를 쓰고 있다. 그런 뜻에서 南北韓이 우리의 國語를 함께 발전시키고 과거의 民族文化의 유물을 保存·整理하며 우리의 傳統的인 民族文化·藝術을 즐기면서 繼承·發展시키는 것이 하나의 文化共同體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民族文化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南北韓 거래가 서로 같은 말, 같은 風習, 같은 文化, 같은 歷史, 같은 民族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상호 不信과 憎惡心, 誤解와 偏見의 벽

55) 國土統一院, 앞의 책, p.52.

56) 위의 책, p.53.

을 제거하며 民族의一體感과 同質性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社會的·文化的 共同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經濟共同體의 형성이다. 南北韓의 경제를 묶어서 우리 民族이 보다 윤택한 생활, 보다 높은 質의 삶을 營爲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經濟共同體의 문제는 福祉共同體의 문제로 되며 여기에는 民族經濟를 발전시킨다는 측면과 발전의 惠澤을 南北韓이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측면이 있다.⁵⁷⁾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세계는 특히 經濟的인 면에서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고 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오늘날의 南北韓과 같이 서로 인접한 지역의 두 개 國家(체제)가 經濟的 交易과 分業의 관계를 그토록 오래 斷絶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나라와 나라사이의 國境은 彈丸이 오고 가지 않으면 商品이 오고 가는 법이라고 하는데, 韓半島에서는 무거운 斷絶이 지속되고 있어 民族經濟의 血脈은 이미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南北韓經濟가 상호 유기적 關聯性을 회복하여 民族經濟를 재생하려면 조속한 經濟交流의 실시는 필수적인 일이다. 남과 북의 社會·經濟體制가 상이하다는 사실이 쌍방간의 交易을 방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社會主義 國家들과 資本主義 國家들간의 급격한 貿易增大 추세에 의해서 충분히 反證되었다. 문제는 남과 북이 피차 적대적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향한 信賴를 증대해가기만 하면 經濟交流의 실현과 이의 그 급격한 擴大는 매우 용이한 문제로 될 것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社會·文化·經濟共同體의 형성은 나아가 政治的 共同體의 형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政治的 共同體는 위의 여러 共同體를 어떻게 管轄하느냐의 문제이며, 이것은 곧 民族共同體를 어떻게 하나의 政治單位로 組織·運營해 나갈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 方法으로는 聯邦制나 國家聯合 또는 體制聯合등의 통합형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南北韓의 상이한 理念과 體制로 인하여 쉽지 않을

57) 國土統一院 앞의 책, p.53.

58) 위의 책, pp.53-54, 100-102., 한점수, 앞의 글, p.144 참조.

것임이 분명하다. 南北韓의 40여년에 걸쳐 理念的 分裂과 政治的 對決狀態를 계속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政治共同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자기의 體制를 포기하거나 새로운 제3의 政治體制에 쌍방이 同意하는 길밖에 없다.⁵⁹⁾

이 問題를 해결해 나간다면 현재에 存在하는 政治的 分斷, 軍事的 對決을 緩和시키는데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共同體의 育成 作業을 게을리 한다면 바로 政治的 分裂과 軍事的 對決로 말미암아 共同體 自體가 갈라지는, 즉 한 民族이 아니라 民族共同體 자체가 분열되는 그야말로 5천년 歷史上에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民族의 悲劇을 가져올 수 있다.⁶⁰⁾

그러나 오늘날의 和解와 共存의 시대를 맞아 우리 민족도 相互尊重과 理解와 터전위에서 對話와 協商을 통해 社會·文化·經濟共同體를 확고히 운영할 수 있다면 政治共同體, 그것이 聯邦制이든, 國家聯合·體制聯合이든 또는 완전한 하나의 民族國家이든 간에 統一祖國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民族共同體의 理念

민족의 참뜻은 歷史와 함께 형성된 歷史的 존재이며 民族共同體에는 민족이 指向할 理念과 이를 成就하는 方法과 原則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統一問題란 본질적으로 政治問題 이전의 것으로 民族史의 理念體系, 즉 민족성원 전체의 自主的, 普遍的 욕구충족을 가능케 하는 理念體系인 民族主義를 기반으로 전개된다는 기본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統一祖國의 성취과정속의 모든 국면에서는 韓國民族主義의 理念이 항상 具體化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이 指向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상으로서의 民族共同體 형성을 다른 나라와 關係에서 民族自決의 성취와 민족내의 내용으로서 民族構成員의 보

59) 河英善, 『統一過程으로서의 民族共同體 形成 摸索』, 國土統一院, [民族和解와 共同體 形成의 摸索], 1988. p.43.

60) 國土統一院, 위의 책, p.26

다 나은 삶의 高揚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民族成員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民族共同體』의 理念은 민족성원으로 하여금 민족의 自己決定性에 立脚하여 주체적인 獨立國家의 完成, 기본적인 人權의 保障, 그리고 정의로운 福祉社會 건설을 指向하는 능동적이고 主體的인 人間像을 기대하게 된다.⁶¹⁾

위와같은 民族共同體의 기본적 이념은 盧대통령의 7.7特別宣言에서 闡明된 바와같이 自主·平和·民主·福祉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理念에 의해 새로이 形成될 統一된 韓國社會로서의 民族共同體像은 다음과 같은 社會를 構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새로운 民族共同體란 지나간 歷史에 있어서 우리 民族으로 하여금 分裂과 對立과 상호 排他와 利己心에서 벗어나서 開放되고 容納되며, 상호의 차이성숙에서 나와 너를 서로 발견함으로써 相互 共存共榮하는 社會共同體를 말한다. 이러한 民族共同體란 바로 人間化된 社會이다.

우리 民族은 강력한 人本主義의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國家나 民族에 대한 충성이나 愛着이 흐리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과 그 고귀함에 대한 本能的 믿음을 지녔다는 것이다. 우리민족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소박한 생각이 생활의 規範으로 內面化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本主義의 전통이 실제로 우리 역사속에서 활짝 꽃을 피운 것은 아니다. 이른바 封建社會의 질서가 구조적으로 非人間化를 강요하여 왔다. 그러한 封建的 要素를 씻어버리기도 전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近代化가 수반하는 또 하나의 非人間化의 물결에 휩싸이는 이중의 고초를 우리는 겪어 왔다. 따라서 인간은 그 자체가 目的이지 단순한 手段으로 轉落되어서는 안 된다는 人本主義의 원리가 실현되는 民族社會를 우리는 期待⁶²⁾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民族共同體란 경제적 富의 分配과 사회적 機會의 分配에 있어서 풍요로운 삶의 質과 다양한 사회적 機會를 享有할 수 있는 社會共同體이

61) 盧在鳳, 『韓國民族主義와 自由主義』, 梁好民(外) 共著, [韓國民族主義의 理念], 亞細亞政策研究所, 1977. p.211

62) 李洪九, 『미래를 보는 哲學과 姿勢』, 朝鮮日報 21世紀 모임 宣言文, pp.20-21.

다. 이러한 民族共同體가 바로 社會化되고 福祉化된 사회이다.

나아가 政治的·社會的·文化的 삶에 있어서 한 個人이나 소수가 사회적 意思決定을 독점하지 않고 國民合意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소수의 見解와 利益도 존중하고 受容하는 성숙한 社會共同體이다. 이러한 民族共同體가 바로 民主化된 사회이다.

이러한 民族共同體는 민족의 同質性和 紐帶性, 그리고 共存共榮을 어떠한 이데올로기보다도 優位로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民族主義的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결코 他民族을 輕蔑하거나 排他的이지 않으며 民族至上主義나 國粹主義를 배격한다.

새로운 民族共同體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人間化·福祉化·民主化라는 개방된 人道主義的 態度를 가지고 분단된 세계현실의 和解와 共存共榮을 위해서 참여한다.

위와같은 사회가 우리민족이 追求해야 할 바람직한 社會라고 본다면 장래 民族共同體의 政治理念은 南北韓이 공동으로 追求하는 民族主義, 民主主義, 社會福祉의 종합형태가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남북한이 民族主義, 民主主義, 社會福祉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自由民主主義나 社會主義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原理·原則을 창조적으로 적용할때 그러한 統一的인 政治理念이 점진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⁶³⁾

한편, 우리는 지난 世界歷史와 冷戰時代에서 이념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아왔고⁶⁴⁾ 현재의 世界潮流는 그로하여 脫이데올로기 時代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留意하면서 우리가 民族共同體를 논의할 때 共同體란 꾸준히 더불어 이룩해나가는 運動의 측면보다 어떤 理想的인 狀態 또는 완성된 形態로 본다면 이는 共同體的 삶보다는 共同體의 이념을 더 중시함으로써 오는

63) 韓昇助, [統一과 統一哲學], 民族統一大學 강좌(12집), 民族統一研究會, 1988, pp.7-9.

64) 理念이 무섭고 심각했던 역사적 實例는 엄청난 犠牲과 災殃을 가져온 中, 蘇의 피의 肅清과 캄보디아 事態, 그리고 越南戰爭과 韓國動亂에서 볼 수 있다. 東亞日報, 1989. 5. 27.

共同體의 否定的 側面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⁶⁵⁾

라. 民族共同體의 形成要件

南北韓이 현재의 非正常的인 關係를 청산하고 民族共同體의 形成을 통한 民族統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信賴回復을 통한 평화의 制度化와 社會·文化·經濟的 相互作用 나아가 政治整合을 위한 장기적인 相互作用 過程이 필요하다.

보다 具體的으로 우선적인 것은 南北韓 주민의 民族統一에 대한 認識의 轉換과 확고한 意志가 필요하다고 본다.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아무리 좋은 手段과 方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認識과 實踐意志가 없다면 空論에 불과한 것이며 能力은 2차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統一論議를 통하여 南北韓에 의해서 가능한 거의 모든 方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提案들이 南北韓 問題解決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데서 反證되고 있다.

따라서 運命共同體로서의 民族構成員들은 모두 하나의 유기적 共同體 안에서 피차가 하나의 生命임을 인정하고, 서로 피를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며 더불어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是認하면서 이를 實踐해야만 한다. 아울러 민족의 異質化의 이면에 도사린 民族共同體의 同質性 存續과 사회변동의 결과로 生成되는 남북한 사회의 同質化에 대한 통찰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對決體制의 解消이다. 韓半島 統一問題가 民族共同體의 形成問題이고 民族共同體가 남북한 주민이 서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營爲하기 위한 것이라면 先價値 概念은 平和가 된다.

南北韓 사이에 전쟁의 위험이 尙存하고 있거나 어느 一方이 他方을 해방시키겠다는가 하는 不安要因이 尙存할 때 남북한은 共同體意識보다 敵對意識이 팽배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理解와 尊重의 바탕 위에서 緊張狀態를 해소하는 일이 필요하다.

65) 정호경, 『生活共同體란 무엇인가?』, [共同體文化], 제3집, 共同體, 1986, p.49.

세째로 韓半島의 경우와 같이 理念의 對立이 苛심한 두 개의 政治體制가 하나의 共同體를 이루기 위해서는 既存 兩體制의 이념적 基盤을 동시에 收斂해 갈 수 있는 제3의 方向摸索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하임(K.Manheim)이 말하고 있는 『제3의 길』⁶⁶⁾이나 『收斂理論』의 妥當性和 效率性是 현대 共產主義의 體制改革에서 체계적으로 浮出되고 있음⁶⁷⁾을 볼때 統一祖國의 미래상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理念은 明確해지고 있다. 그것은 민족의 幸福과 平和 및 發展·繁榮이 一致하는 方向에서 우리 民族共同體 구성원 누구나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잘사는 社會 이상이 아니다.

우리 民族의 分단원인은 무엇보다도 冷戰 이데올로기였으며 지난 40여년간 南北韓의 分立·對決의 가장 큰 要因 역시 이데올로기였다.

이데올로기의 分立과 對峙는 민족의 同質性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6.25動亂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準戰時狀態를 지속시키면서 緊張과 葛藤을 거듭해 왔었다. 그와같은 현상은 民族의 同質性에서는 생각될 수 없는 非自然的인 現象이다.

위와같은 비정상적인 南北韓 關係를 打開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理念共同體가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創出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人間化·民主化·福祉化를 추구하는 方向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네째로 들 수 있는 것은 民族主義의 高揚과 對外 自律性的의 提高일 것이다.⁶⁸⁾ 1945년이래 韓半島 分斷體制의 형성과 이의 固着化는 끊임없는 國際體制의 영향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韓半島 分단체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民族共同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反外勢 自主나 親外勢 從屬을 넘어서

66) Kahl Manheim은 現代에 있어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는 본래 의미의 體制를 벗어나서 辨證法的 整合인 『제3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Galbreith 教授는 이를 『經濟體制의 調整의 時代』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67) 김태구, 『統一의 方向과 統一國家의 未來像』, [北韓], 北韓研究所, 1989, 1월호, pp.34-37

68) 河英善, 앞의 글, pp.39-41

서 보다 적극적으로 國際體制의 활용을 통한 對外 自律性의 提高가 필요하다.

民族主義의 고양과 對外 自律性의 제고는 南北共同體의 형성을 위한 큰 계기와 자극요인 될 것이며, 나아가 이와같은 民族共同體의 형성은 韓半島가 지금까지와 같은 強大國의 각축장이나 東西對決의 前哨地가 아니라 平和와 統一의 緩衝地·中心地로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統一方案이나 統一論議보다도 우선 나라의 民主化의 具體的 실현으로 국민의 和合과 團結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社會·政治的 統合을 바탕으로 統一方案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의 體制內的 문제는 『韓半島 문제의 韓半島化』가 深化되면 될수록 統一問題의 가장 중요한 變數가 될 것임이 분명하며 그러한 현상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統一問題解決이 남북한의 意志와 能力의 문제로 된다면 南北韓 각자의 體制內的 정비는 民族共同體 형성의 基盤이 된다. 왜냐하면 각기의 體制內的 問題와 統一의 문제는 相互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며 현재의 南北韓 관계를 特定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즉,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은 南北韓의 통일문제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 된다. 남북한의 體制가 정비되지 못한 狀態⁶⁹⁾에서의 民族共同體 형성과 統一論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것은 熱狂主義로 흐를 可能性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熱狂主義가 冷徹한 이성을 필요로 하고 세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南北韓 問題를 해결할 可能性은 극히 稀薄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體制內的 改革을 통한 民族共同體 형성의 準備가 절실하다고 보며 이러한 改革은 政治的 民主化·經濟的 民主化·理念의 開放化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國內 政治·社會의 착실한 民主化와 균형잡힌 經濟力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人道的·自主的 統一力量을 길러가야 한다.

69) 韓國이 體制 및 政策轉換의 과정에서 오는 혼미나 漂流를 맞고 있다면, 정반대로 北韓은 體制 및 政策의 固守에서 오는 沈滯와 危機에 휩싸여 있다.

3. 民族共同體論에 대한 北韓의 認識

가. 民族共同體論의 內容

民族의 統一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進行은 南北韓當事者의 주체적인 意志下에서 전개되는 統一政策인 것이다. 그것은 南北韓간에 직접적인 交流와 協商의 길에 있어 시대상황의 轉換過程上에 민족적 『이니셔티브』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합리적인 歸結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변화된 國際政治環境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南과 北이 함께 平和的 共存과 共榮의 길을 모색해 갈 수 있는 現實的이면서도 指向하는 바가 선명한 統一政策의 闡明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 당연히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적 興望에 副應하여 盧대통령의 7.7 特別宣言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宣言의 근본사상을 이루고 있는 民族共同體論도 기본적으로 國際政治狀況의 변화에 따른 대응에서 출발하여 民族主義的 歷史認識을 바탕으로 남북한당국이 對話와 交流를 통하여 民族再結合을 다짐하고 민족성원 전체의 智慧와 勇氣로 統一에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밟아가자는 것이다.

새로운 統一政策으로서의 민족공동체형성은 民族自決에 의한 民族統一의 추진만이 國際秩序上의 역학관계와 不確實性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對處方案이라는 인식의 측면외에도 현실적으로 첨예한 軍事的 對立을 보이고 있는 南北韓間에 平和적 共存共榮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民族次元의 共同繁榮을 추구함과 동시에 相對方에 대한 敵對關係를 포기토록함으로써 민족전체의 生存權을 보장한다는 統一安保의인 의의도 있다.

統合理論의 한 변형인 民族共同體論을⁷⁰⁾ 바탕으로 한 새로운 統一政策이 전개되는 배경에는 기존 統一政策(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論理的 구성이 統一의 過程보다는 統一의 完了段階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간과정의 결

70) 梁性喆, 『南北韓 關係를 보는 새로운 視角』, 大陸研究所 政策討論會 主題發表論文, 1989.5.2

여로 인한 비현실적인 限界性에 대한 반성의 측면과 함께 우리의 國力伸張에서 오는 자신감의 發露라는 國內狀況의 변화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다.

民族統一을 향한 중간과정의 論理的 構成 補完策으로서의 民族共同體論의 構想은 일찍이 李洪九 교수에 의해 제시⁷¹⁾된 바 있다. 그는 『한民族 共榮體』(The Korean commonwealth)의 樹立을 제창하면서 이 『한民族共同繁榮體』의 理想을 平和와 福祉로 설정하였다. 韓民族이 서로간의 증오심과 적대감을 버리고 『칼을 녹여 호미를 만들어』 平和 속에서 繁榮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한民族福祉共同體』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이 구상은 統一의 주체를 정부나 權力體制에 두지 말고 民族 構成員에 두자는, 그리고 民族和合의 1차적 목적을 모든 한국인의 自由와 福祉向上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統一政策 차원에서 民族共同體 형성의 시도는 여러번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거의 모든 政策은 民族共同體의 형성을 통한 民族統一에의 指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統一問題가 민족의 再統一問題이고 이는 우리 민족의 共同體的 自我를 回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統一問題의 基本命題라는데 있다.

이러한 民族共同體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7.7 宣言』에 의해서 보다 具體化된 형태로 표출되었다.

『7.7 宣言』은 民族共同體의 형성을 위한 可視的 접근방안의 摸索이며 이는 民族共榮의 차원에서 前提條件 없는 前향적인 政策의 전개로 북한측의 相應하는 對應 有無에 관계없이 그 成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闡明된 것이다.

이 宣言의 근본정신은 한마디로 『韓半島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자⁷²⁾』

71) 金學俊, [韓國民族主義의 統一論理], 集文堂, 1983, p58-60, 李洪九,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의 歷史的·理念的 照明』, [統一韓國의 摸索], (李相禹 편), 搏英社, 1988, p.173 參照.

72) 盧泰愚 大統領 UN演說文, 『韓半島에 平和와 統一을 여는 길』,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南北對話], 제6집, 1988.12, p.59.

는 것이다. 즉 南北이 하나의 民族이라는 民族共同體意識에서 출발, 南北韓이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여 民族繁榮과 共榮의 길을 모색하며, 이로써 한반도의 平和定着과 民族自尊·民族統合을 이루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統一問題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民族共同體의 형성이 統一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며 당장에 政治的 統一의 達成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단계적인 統一接近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의 民族共同體란 기본적으로 統一祖國에 이르는 선행단계로서 『1民族 2體制』라는 기본적인 틀을 상호 인정하고 民族繁榮과 평화적 共存을 함께 추구해가는 잠정적 特殊體制라 할 수 있다.

나. 北韓의 認識

民族解放의 논리에 의해 北韓이 내세우는 統一政策의 기본원칙은 이른바 『先統一, 後平和』로써, 통일을 내세워 駐韓美軍을 철수시키는데 統一戰略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統一은 복잡한 政治·社會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한국이 主張하는 단계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政治와 軍事問題의 우선 解決이 없는 남북한간의 交流와 接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統一接近에 대한 基本立場은 매우 저돌적(more aggressive)이며 一括妥結方式(once and for all) 또는 包括的(synoptic) 접근에 의한 統一成就⁷³⁾로 된다.

이러한 戰略에 따라 北韓은 駐韓美軍이 즉각 撤收하고 南北韓間에 통일을 위한 政治協商會議를 개최하여 지체없이 政治·軍事的인 合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같은 북한의 統一論理에서 볼때 民族共同體論은 北韓이 당장 수용하

73) Suk-Ryul Yu, 『Theoretical Approach to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Korea and World Affairs], Vol.12., No.4, winter 1988, p.809-825.

기 어려운 내용임을 알 수 있다.

民族共同體는 그 자체가 過程이며 目標인 동시에 여기에서의 共同體는 두 개의 體制를 전제한 概念이고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新機能主義 접근논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점은 北韓이 일관되게 내걸고 있는 슬로건인 『朝鮮은 하나다』라는 論理에서는 分斷 固定化 또는 分裂主義 정책으로 인식된다.⁷⁴⁾

또한 북한이 統一對話戰略에서 추구하는 包括主義 또는 一括妥結論理의 견지에서 볼때도 일정한 段階와 過程을 거쳐 形成될 수 밖에 없는 政治共同體로서의 民族統一은 分斷固着化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民族에 대한 概念과 한국의 民族共同體論에서 인식하고 있는 民族에 대한 概念의 相異點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불행히도 남북한 상호간에는 民族의 概念問題에서부터 그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對立되어 있다.

북한에서 간행되는 辭典에는 民族共同體에 대한 概念規定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民族과 共同體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民族을 『오랜 역사적 기간동안 自主性を 위한 鬭爭을 해오는 과정에 言語와 飢餓, 領土와 文化의 공통성 그리고 經濟生活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람들의 확고한 集團⁷⁵⁾』으로, 共同體를 『國家가 발생하기 이전시기에 發生하여 그 뒤에도 남아있었던, 血緣의으로 또는 地域的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이며 生産手段에 대한 共同所有에 기초한다.⁷⁶⁾』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北韓의 勞動新聞 論評(88.11. 8)에서는 民族問題에 대해 『民族은 사

74) 한국은 現實의·合理的 접근에 의해 民族共同體의 발전과 政治共同體 構築을 통한 民族統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政治共同體를 먼저 形成하면 다른 共同體 形成問題는 자연히 해결되고 民族統一도 이룩된다는 논리이다.

75) 北韓 社會科學院 言語學研究所 編纂, [현대 조선말 사전], 1981, p.1047,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p.423-424.

76) 北韓 社會科學院, 위의 책, p.206

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회적集團의 하나로서 핏줄과 言語, 文化와 領土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歷史적으로 형성된 共同體이다. 민족을 共同體라고 하는 것은 民族이 동일한 요구와 자체의 生活力을 가지고 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하나의 社會的 生命體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社會的 集團인 民族은 자기 運命의 주인으로서 자기 問題를 자신이 결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屬性, 즉 自主性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같이 北韓은 민족과 共同體에 대한 개념을 社會經濟史의 관점에서 階級과 鬭爭의 문제로 인식하고 특히 自主性의 問題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民族 共同體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수 있다.

民族共同體論에 대한 北韓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7.7 宣言 이후 北韓의 매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反應⁷⁷⁾에서 볼 수 있다. 北韓은 韓國의 民族共同體論에 대해 일면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의 論理(段階論, 駐韓美軍撤收, 國家保安法 廢止)를 가지고 非難하고 있다.

첫째, 民族共同體論의 段階性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이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를 인정하고 容納하는 기초위에서 聯邦制에 의한 통일 국가를 창설한 다음에는 共存의 원칙에서 살아나아가야 한다.』고 北側의 高麗 聯邦制論을 擁護하고 『民族共同體論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分열상태를 既定 事實化하고 固着시킬 것을 노린 事實상의 永久分裂論이며, 무엇보다도 民族統一을 외면하고 북과 남이 往來와 交流나 하며 共存, 共榮할 것을 제창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둘째, 北韓은 自主性의 문제와 관련 民族共同體論의 내용에서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駐韓美軍撤收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北韓은 『南北을 하나의 民族共同體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眞實이라면 民族共同體안에 침입한 外來侵略勢力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美軍撤去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民族共同體論에서는 『우리 民族의

77) 祖平統 논평, 1988.7.8, 노동신문 논평, 1988. 7. 13. 노동신문 논평, 1988.11.8 참조.

自主性を 유린하는 美帝侵略軍을 철거시킬데 대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정으로 民族共同體를 형성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非難하고 있는 것이다.

세제는 우리의 國家保安法 撤廢 주장과 관련시킨 것이다. 북한은 民族共同體論에서 그들을 同伴者 關係로 규정했다면 反國家團體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을 廢止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北韓의 주장은 우리의 民族共同體論의 주장과 內容을 이용하여 그들이 끊임없이 主張하고 있는 非現實的인 여러가지 問題와 連繫시켜 우리 측의 立場變化를 요구하는 論據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北韓이 이와같이 民族共同體論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統一政策의 積極性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으나 民族共同體 그 자체는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고 앞으로의 주변여건이 北韓으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인 政策變化를 가져오게 할 요인이 존재하는 狀況에서 우리는 조그만한 싹이라도 키워나가는 忍耐와 勞力이 民族共同體를 실현시키는 길일 것이다.

IV. 現象學的 認識의 틀

1. 現象學의 概念과 基本 命題

가. 胎動背景과 發展

自然的 現象이건 社會的 事件이건간에 現象에 대한 인간의 認識欲求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傳統을 지니고 있다. 現象에 대한 認識欲求는 자연적, 사회적 世界를 제어함으로써 보다 나은 世界를 指向하려는 基本적 欲求充足을 위한 前提條件이기 때문이다.

現象에 대한 認識方式 또한 변천하는 社會상황과 文化적 土壤의 기초위에서 대단히 다양한 樣相을 보여왔다. 歷史主義, 構造機能主義, 經驗主義, 行態

主義, (新)칸트主義, 解釋學…… 등과 같은 方法論的 接近方式은 그와같은 認識方式의 다양성을 反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연구는 社會現實의 說明과 理解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未來社會를 處方하고 그 實踐을 강구해야 한다. 社會科學의 哲學이 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바로 理論과 實踐의 통합의 問題에 관한 省察이어야 하며 이것없이 진정한 학문은 성립될 수 없다.

19세기 末과 20세기 初 유럽학문의 客觀主義가 안고 있는 主觀과 客觀의 대립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훗설(Edmund Husserl, 1859-1938)의 現象學이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學問研究에 있어서 이론정립에 기여하게 된 것은 위와같은 認識論的 反省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러한 점은 오늘의 시대적 狀況에 있어서도 같은 意義를 지닌다.

훗설의 現象學과 現象學運動은 당시 유럽 科學世界의 지배적 paradigm이었던 論理實證主義와 經驗主義(LP/E: Logical positivism, Empiricism)¹⁾가 가져온 유럽과학의 危機와 그에 따른 인간의 物象化에 대한 反省이 그 배경이 되었다.

科學과 技術의 진보로 모든 思想을 計量化하는 思惟 습성과 모든 文化現象을 物象化하려는 態度에 대한 反作用으로 人間主義의 재확립을 주장하는 現象學으로의 關心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社會世界와 文化世界를 창조적인 人間의 主觀性으로 부터 분리해서 觀察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한 懷疑²⁾가 社會科學者들 사이에 생기게

1) 이에 대한 內容은 Harold I. Brown, Perception theory and Commitment, the new Philosophy of sci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pp. 13-14, Peter Halfpenny, Positivism and sociolog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82 參照.

2) 社會研究에서 價値判斷과 實踐을 외면하는 科學的 客觀主義의 沒價値性에 대한 反省이 그것이다. 따라서 現象學은 價値를 만들고 文化를 창조하는 人間의 主觀性에 關心을 집중한다. 車仁錫, [現代政治와 哲學], 평민서당, 1981, pp. 120-129 참조.

되었다. 한편으로 自然科學의 經驗的·分析的 研究節次를 사회현실의 認識에도 적용되어야만 科學으로서의 社會科學이 성립된다는 믿음은 價値判斷이 人間社會와 그 歷史를 연구하는데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學問觀을 내세우는 일군의 學者들의 도전을 받음으로써 現象學은 학자들 사이에 큰 관심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反省과 挑戰의 核心命題는 社會科學에서 『무엇을 위한 사회과학인가?』라는 懷疑와 哲學에서의 『哲學은 더 이상 세계를 解釋만 할 것이 아니라 改善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용없는 哲學은 소용없다.』고 하는 學問的 反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現代社會의 人間성의 파괴와 生存危機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영이었으며 특히 越南戰은 60년대의 젊은 知識人들로 하여금 현실의 記述에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옳고 그르다는 評價를 내리며 處方도 함께하는 理論活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학문경향의 認識論的 기반이 現象學이었다.

現象學의 方法論에 대한 關心이 고조되고 그 位置가 확고히 다져지면서 現象學과 現象學運動³⁾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學問分野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1968년 D. Waldo를 중심으로 Minnowbrook에서 會同한 少壯行政學徒들은 종래의 行政學이 行態主義의 影響을 받아 價値中立의(Value-free)이거나 非實踐的인 성격을 갖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종래의 行政理念이었다면 能率主義나 成果主義 대신에 適實性(relevance), 規範性(prescribe), 그리고 社會的 衡平(social equity)을 새로운 行政理念으로 내세웠다.⁴⁾

政治學에서도 D. Easton은 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革命으로 『適實性』(relevan-

3) 우리나라에서의 現象學 實踐運動으로는 김용옥의 『氣철학』이나 홍태수의 『丹學思想』을 들 수 있는데 이는 存在를 現象論的 시각으로 투영하여 자신의 氣의 신체인 단자를 宇宙와 生命的으로 끊임없이 氣를 주고받는 動態的 存在論의 立場이다.

4) 이것을 新行政學(NPA : New Public Administration)이라 한다.

ce) 과 『行動』(action)을 들고 나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學者들이 현실참여를 통해 社會改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脫行態主義(post-bahavioralism) 가 그 目的이었다. 行態主義 方法으로는 當代의 社會問題를 해결할 수 없다는 結論에서 종래의 記述的 學問에서 處方的 學問을 지향한 것이다.⁵⁾

이러한 경향은 政策科學(policy science)의 發展은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政策科學은 社會문제의 發生要因을 탐구하며 그 改善方案을 강구, 政策勸告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提高시키자는 것이다.⁶⁾

요컨대, E.Husserl이 창시한 現象學은 학문연구에서 客觀主義를 극복하고 인간의 主觀性을 높여 생명있는 인간의 生活世界의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哲學만이 아니라 모든 學問과 思想의 基礎問題로 제기되면서 20세기 『知性的 寵兒』로 등장하였다.

나. 現象學의 두가지 概念

現象學(Phenomenology)이란 말의 뜻은 現象(The phenomenal)에 관한 學問(logos)이란 뜻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말을 사용하는 學者의 立場에 따라서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에 가장 많이 問題가 되고 또 哲學的 立場으로서 影響力이 큰 것은 훗설이 창시한 그것이다. 그의 現象學에 대한 생각에는 몇개의 發展段階가 있는데, 根本 動機는 다음과 같은 점⁷⁾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哲學을 세계관적 前提나 개인적 性向이 같은데서 해방하여 嚴密性과 普遍性을 가진 純粹學으로서 건설하려고 한 것, ② 모든 哲學的 諸學科의 基礎學으로서 先天的(제1차적)인 學問을 건설하려고 한 것, ③ 이 先天的인 것을 칸트와 같이 認識의 형식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直觀에 주어지는 本質에

5) David Easton, 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A.S.P.R, VoL.LYIII, No. 4. Dec. 1969. pp. 1051-1061, 金光雄, 『後期行態主義論』, 行政論叢, 제 13권, 2호,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5. pp.110 -119.

6) 원형갑, [現象學과 뉴마르크시즘], 평범서당, 1985. pp.217-237

7) 임병수. 강영계, [哲學의 흐름, 一現代哲學의 傾向一], 제일출판사, 1982. p.238

서 찾으려 한 것, ④ 따라서 당시에 세력에 있었던 新칸트學派의 學者들에게서 볼 수 있는 哲學과 실질적인 文化 內容과의 遊離에서, 哲學에 다시 실질적·적극적인 것과의 結合을 回復하려고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動機가 『事象 그 自體』라는 現象學을 대표하는 集約的 표어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것으로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막연히 쓰이고 있는 『現象學』이란 개념은 서로 同一하지 않은 대충 두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하나의 哲學的 認識論을 가리키는가 하면 때로는 넓은 뜻에서의 科學的 方法論을 의미하기도 한다.⁸⁾

또한 現象學은 眞의 定義와 그 客觀性의 성질에 대한 理論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眞에 도달하는 哲學的 方法論이기도 하다. 이른바 現象學的 還元이 그것이다. 그것은 인식대상의 內容에 대한 일체의 믿음을 일단 괄호속에 保留하여 判斷中止를 한 다음 한편으로는 認識主體者의 순수성을 確保하는 초 經驗적 還元을 수행하는 데 있다.

이 兩面의 작업을 통해서 本質直觀에 의해 대상의 本質이 의식속에 자명한 형태로 스스로 주어지는 길, 즉 絕對的 客觀性을 보장하는 眞에의 길이 마련된다.

科學的 眞은 어떤 개별적 現象을 演繹的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因果的 法則으로서의 어떤 假說을 檢證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는 달리 現象學的 眞은 어떠한 前提도 용납하지 않고 의식에 주어진 對象을 있는 그대로 敍述해 내는데 있다.

과연 훗설이 確信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自명한 절대적 眞이 가능한지, 과연 現象學이 自然科學을 포함한 모든 眞에 대한 哲學的 解明이 될 수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훗설의 現象學은 역시 그의 追從者들에게는 크나큰 啓示로 남아 있다.

첫째, 現象學은 절대적 眞을 추구하는 점에서 모든 眞의 가장 근원적 地點

8) 朴異汶, 『現象學과 文學』, 韓國現象學會 編, [現象學이란 무엇인가], 집설당, 1987, p.242-244 참조

을 찾아내려는 노력, 즉 모든 偏見에서 벗어나서 의식에 비친 認識 對象에 충실하려는 試圖라는 점이다. 우리들은 흔히 사물 自體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들이 傳統的으로 물려받은 여러가지 偏見에 의해서 歪曲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색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점을 意識할 때 그런 안이한 偏見을 경고하는 現象學은 크나큰 哲學의 빛이 아닐 수 없다.

둘째, 現象學은 認識主體者로서의 의식의 先驗性和 역동적 指向性을 발견함으로써 認識에 있어서의 主體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었으며 認識의 내용은 時空속에 위치하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의 밖에 있는 의미로 봄으로써, 人文·社會科學에 있어서의 새로운 方法論을 示唆해 주었다.

現象學의 哲學 理念은 인식의 明證的인 地盤을 찾고 한편으로는 이 地盤이 모든 認識의 최종적인 源泉임을 철저히 糾明하려는 호설 자신의 두 가지 哲學的인 근본 動機에서 유래한다.⁹⁾ 이러한 動機에는 어떤 方法的 懷擬도 그 明證性을 더 이상 否定할 수 없는 확실한 토대위에 定礎하려는 것이 그 目的이었으며 이러한 까닭으로 現象學은 모든 學問 중 가장 기초적인 學問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學問 一般의 理論的인 근거를 說明하려는데 중요한 任務과 役割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호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形而上學을 모든 학문의 基礎가 된다는 의미에서 第1哲學이라 지칭한 사실에 따라 現象學을 『第1哲學』으로 確立하려 하였다.

다. 現象學의 基本命題

호설은 우리의 意識이 언제나 무엇에 대한 意識이며 對象을 內容으로 하기 때문에 의식밖의 世界와 相關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 世界는 의식이 부여하는 意味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意識의 이와 같은 特性을 전제로 해서 現象學이 成立된다고 했다. 또한 호설에게는 主觀

9) 申龜鉉, 『現象學의 還元과 그 哲學的 意義』, 韓國 現象學會 編, 앞의 책, pp. 61-62.

과 客觀이 분리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대상없는 意識은 空虛하고 의식 없는 대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現象學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¹⁰⁾

인간의 意識活動과 그 體驗內容 및 構造등을 분석·해명하는 理論體系라 할 수 있는 現象學은 끊임없이 모든 獨斷論과 싸우면서 自明性を 깨뜨리고자 시도하며, 그런 뜻에서 理性을 深化하는 보편적 理性 批判으로서 이해되어 있다.¹¹⁾

現象學은 여러 가지 학문들의 土窟가 되어 있는 相關關係들을 분석하고, 이 다양한 관계의 意味構造를 형성하는 실험적 主觀性的 차원으로 遡及하여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現象學은 形相的이며 先驗的인 시각에서 學問들의 대상 영역과 意識作用 유형간의 相關關係에 상응하는 학문들의 위치를 지시해 준다. 이로써 現象學은 先驗的이며 形相的인 이중적 취급에서 그 학문적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 方法으로 現象學은 철학적 學問으로서 實證科學의 권한밖에 놓인 주제영역을 적절히 다룰 수 있다.

특히 現象學의 哲學的 學問을 특정짓기 위하여 훗설은 엄밀한 學問이라는 用語를 사용한다. 훗설은 『엄밀한 學으로서의 哲學』이 定礎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그의 研究 전체에 있어서 根本的인 問題로 보았다.

훗설은 자신의 現象學의 궁극적 目標를 모든 다른 學問들의 존립을 定礎하여 줄 수 있는 第1哲學으로 確立시키는 데에 두었으며, 이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現象學 자체가 엄밀한 學問性을 지닌 哲學, 즉 『개념상 確固하게 경계지어지고 충분히 그 意義가 밝혀진 問題들, 方法 및 理論

10) 車仁錫, [社會認識論], 민음사, 1987, p.109

11) W. 마르크스, [現象學], 이길우 譯, 서광사, 1987, p. 48.

을 갖춘 嚴密學¹²⁾』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現象學을 학문적 『研究哲學』¹³⁾으로 이해하였다.

요컨데, 現象學의 목적은 우리의 意識에 나타나는 바 그대로 엄밀하게 現象을 기술하는 것이며 本質을 인식하는 것으로, 說明을 排除하고 還元을 거듭함으로써 純粹意識에 도달하여 自然科學的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넓은 의미의 心的인 것과 生命的인 것의 고유한 本質을 追求하자는 것이다.

2. 現象學의 重要 構成要素

훗설의 現象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몇개의 概念이 있는 바, 意識의 指向性, 生活世界, 相互主觀性, 自然的 態度 및 現象學的 還元이 그것이다. 이러한 概念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現象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現象學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現象學의 內容과 民族共同體와의 상관성이나 접근가능성을 探索하는 의미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意識의 指向性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가지 對象을 보고 이것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認識한다. 인식된 것들은 한편으로 우리의 評價와 行爲의 기반이 된다. 行爲나 評價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12) 『嚴密學으로서 哲學』이란 哲學은 그 理論體系內에 어떤 原理와 命題라도 그것을 自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自明性的의 源頭를 認識批判으로 解明하는 學問임을 意味한다. 申龜鉉, 앞의 글, p.61

13) 研究哲學이란 말은 훗설의 現象學을 특징짓는 말로 흔히 쓰인다. 전통적인 哲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命題와 演繹들로 이루어진 體系的인 哲學과는 달리, 研究 哲學이란 의식 현상(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의 本質을 있는 그대로 記述하고자 하는 現象學의 特性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다른 科學과 哲學的 研究의 方法적 안내자의 役割을 하는 철학의 뜻도 포함한다., W. 마르크스, 앞의 책, pp.15-16

對象에 대한 價値 判斷이며 實踐的 행동이다. 대상을 두고 우리는 쓸모있든가 좋다 또는 싫다는 判斷을 내린다. 우리의 知覺과 感情 그리고 行動은 이처럼 언제나 어떤 對象에 대한 意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精神이나 意識은 主體와 客體간의 어떤 關係로 파악되며 指向性의 개념은 연구될 의식의 본질적 特性, 이른바 의식은 항상 어떤 것(Something)에 대한 意識이라는 것을 기술하는 手段이다. 훗설에 있어서 主體와 客體의 통일 매체는 바로 指向性이란 개념¹⁴⁾이며, 主·客體를 同一化시키는 계기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 반드시 存在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指向性』이라는 것이다.

훗설은 意識은 언제나 그 무엇에 관한 意識이며 언제나 그 對象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意識이 대상에 향해져 있으며 對象을 지향함으로써 그의 對象을 언제나 이미 자체내에 지닌다는 의식의 基本構造를 훗설은 指向性이라 부른다.

現象學的 태도에서의 『現象學』은 의식현상의 學이며 더 나아가서는 對象 意識에 대한 분석이다. 이 분석은 『指向論』이라고도 부른다. 의식은 언제나 무엇에 대한 意識으로서 대상에 指向하며, 指向性을 그 구조로 하고 이 구조에 대한 分析이 現象學의 중심이 되기도 하며 의식의 지향성의 本質을 밝히는 과제를 『指向論의 分析』¹⁵⁾이라고 한다.

指向論의 분석은 意識對象이 대상에 언제나 指向하는 의식안에서 그 對象性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를 밝히면서 意識의 媒介作用을 드러낸다. 지각함과 지각된 것, 인식함과 인식된 것 사이에는 聯關이 있으며 훗설은 이것을 노에시스(noesis)-노에마(noema)의 關係¹⁶⁾로 본다.

14) 이에 대한 내용은 尹明老, 『훗설에 있어서의 現象學의 構想과 指向의 含蓄』: 車仁錫, 『現象學에 있어서의 指向性과 構成』, 韓國現象學會 編, 앞의 책, pp. 9-58, W. 마르크스, 앞의 책, pp. 87-104, 파울 안센, [에드문트 훗설의 現象學], 신귀현, 배의용 譯, 이문출판사, 1986. pp. 30-46 참조.

15) 尹明老, 앞의 글, p.43

16) Noesis의 동사 Noein은 『무엇을 본다』 또는 『식별하다』의 뜻이다. 尹明老, 위의 글, p.48, 파울 안센, 앞의 책, pp.70-80 참조.

의식의 指向性은 이 노에시스(思考作用)의 특징을 가지며 또한 이것은 相 關者로서 『무엇이라고 보아진 것』이라는 노에마(思考內容)을 갖기 때문에 認識論的 主觀-客觀關係는 노에시스-노에마의 構造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現象學이 추구하는 『事象 自體』는 우리의 의식의 彼岸에 있는 超越的 存在가 아니라 意識의 對象이나 認識된 것으로서의 존재자이다. 事象은 그것이 現出 하는 主觀으로서의 의식과의 關係에서 事象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指向性은 의식을 구성하여 그 內容에 의미를 부여하며 自我는 의식의 指向性을 통해 세계로 향하게 된다.

나. 生活世界

앞에서 말한 指向的 意識이 향하는 세계가 바로 훗설이 生活世界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生活世界는 우리 모두가 科學이전의 自然的 態度를 지닌채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로써 모든 科學 및 現象學에 있어서 의미의 기반이 된다.

훗설의 生活世界¹⁷⁾는 무엇보다도 먼저 客觀主義的 自然主義에 대한 비판과의 關係에서 이해될 수 있다. 훗설이 내세우는 生活世界는 物理學的 客觀主義가 참세계로 내세우는 觀念化된 세계와 대조되는 세계로 그 是正이며 그것의 실천적인 기반이고 또한 抽象化過程이 일어나기 전의 일상적이며 구체적 인 삶의 세계이다. 즉 科學的 反省에 의하여 비로소 나타나는 세계이전의 前科學的, 前論語的, 前論理的인 主觀的 世界를 말한다.

事物世界는 人間이라는 主觀에 대한 意味體系이며, 이 의미는 사물세계안에서 인간이 취하는 態度와 觀點에 따라 다르다. 社會世界만 하더라도 個人과 個人과의 相互作用 없이 그 세계 형성될 수 없다. 이 세계가 훗설이 말하는 生活世界이다. 우리의 意圖·計劃·活動은 상호 依存과 相互作用을 통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다.

17) 生活世界에 대한 內容은 孫鳳鎬, 『生活世界』, 韓國現象學會 編, 앞의 책, PP. 131-162, 파울 안센, 앞의 책, PP.130-149, W.마르크스, 앞의 책, PP.153-204, 車仁錫, [社會認識論], 민음사, 1987. P.36. PP.119-124, 車仁錫, [現代社會科學의 方法論], 현암사, 1977.PP.187-189 참조.

生活世界 안에서 우리는 對象이지마는 이와 同時에 生活世界의 의미와 存在意義가 우리의 공동 意識生活과 우리의 知覺·經驗·推理의 作用에서 그 存在意義가 유래하는 한, 生活世界에 대하여 우리는 主觀의 位置를 점유한다. 共同 成就是 생활세계의 일부이다. 共同社會性안에서 그리고 그 成員들은 活動의 相互作用을 통하여 生活世界는 變遷과 改革을 겪는다.

쉬츠(Alfred schutz)의 現象學의 目的은 이 生活世界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의 解釋이자 本質的으로 인간적인 우리의 生活世界를 再構成하는 것이다. 개 개인의 主體的 經驗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私的인 世界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他人의 世界이기도 하다. 쉬츠도 明確히 논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生活世界는 相互主觀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他人들간의 人間으로서 그 안에서 生活하고, 共同의 힘과 일에 의하여 結合되고, 타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타자에 있어서는 理解의 對象인 것이다.

우리의 生活世界는 文化의 세계이다. 왜냐하면 이 生活世界는 우리들에 의하여 意味의 세계 즉, 우리들이 解釋하지 않으면 아니될 意味 體系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生活世界에 있어서의 우리의 行爲에 의하여 設定되는 의미의 相關關係의 體制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타인과의 共同生活은 生活世界안에서 단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生活世界의 本質적인 構成要素이다. 그러므로 社會的 世界의 모든 形態와 모든 生活의 形態가 生活世界의 體系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쉬츠는 社會적 行爲者가 그의 行爲에 結付시키는 主觀的 의미를 現象學的方法으로 把握하려고 시도한다. 이 主觀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社會的 世界의 主要문제인 他我를 이해하는 것이다. 타아의 體驗을 우리 자신의 體驗과 同一化시킴으로써 타인의 行爲 動機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 社會的 世界의 概念은 주체적 體驗을 통하여 解釋된 여러가지 人間的인 行爲에 의하여 社會科學 方法論의 基礎 確立에 기여한다.

또한 쉬츠는 社會科學의 인식양식은 生活世界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모든 學問의 意味基盤은 이 生活世界이고, 이 세계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

두의 社會世界이다. 따라서 社會科學은 이 社會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분명하게 解明하는 것을 目標로 한다.

위와같은 哲學的 課題로서의 생활세계는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¹⁸⁾

훗설은 生活世界를 主觀的이고 相對的인 세계라고 定義하고 客觀的이고 絶對的임을 주장하는 客觀主義 세계와 대조시켰다. 생활세계는 단순히 主觀的이고 상대적인 세계, 혹은 先驗的 還元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의 性格 意味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文化世界이기도 하다.

文化란 무엇보다도 自然과 대조되는 것으로 意識的인 人間 活動의 결과 전체를 일컬으며 반드시 社會的인 의의가 있다. 共同體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意識的으로 加工, 變形시킨 모든 것을 뜻한다. 文化는 인간의 產物인 동시에 人間 活動의 기반이요 背景이며 또한 그것을 위한 資料의 供給源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共同體가 어떤 人間이나 社會가 되는가는 그 사회가 이어받은 文化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계속되는 人間과 文化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人間과 文化는 발전하고 後退하며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文化에 대한 올바른 理解는 동시에 人間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직결된다. 文化世界로서의 생활세계는 단지 어떤 特定된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어떤 文化共同體안에서 共同體로 활동하는 정신적 人格體들의 종합적인 產物이다.

개념의 理解를 위해 긴 설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生活世界는 모든 科學活動의 가장 근원적인 根據領域이고 그 前提이며 背景인 동시에 相互主觀的인 文化世界라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現實은 생활세계이며 相互主觀的인 文化世界이다. 그것은 의미의 세계, 즉 우리가 解釋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미의 複合體이자 의미의 相互關係의 世界라는 것이다.

18) 孫鳳鎬, 앞의 글, pp. 149-151.

다. 相互主觀性

現象學은 觀察할 수 있는 인간행위의 外面에만 局限시키는 行態主義의 限界를 넘어서 意識의 內面으로의 접근이 可能하다는 것을 相互主觀性的의 概念으로 설명¹⁹⁾한다.

相互主觀性(Intersubject)이라는 用語는 생활세계내의 存在인 우리들 서로간의 相互關係性的의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 使用되는 것으로 相互主觀이란 意識에 내재하고 있는 社會性을 가리키며 常識的 世界(A world in common)인 자기와 타자들에 대한 經驗을 가리킨다.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他我과 社會的 關係를 맺으며 상대와 意思疏通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相互主觀性 때문이다.

나의 意識作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相互主觀性을 지니기때문에 인간적 認識行爲는 他主觀과의 共同存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훗실의 주요 발견이다. 즉 自我는 다양한 表象을 통해서 客體를 意識 指向의 목표로 삼으며, 또한 『너와 나』의 종합, 혹은 『우리』의 綜合으로써의 相互主觀性으로 自我는 他我和 연결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客觀 世界는 相互主觀적으로 同一한 세계로서 인지되고 『自我』들의 共同體가 存在하게 된다. 자아의 相互主觀的 共同體안에서 自我는 他『自我』들을 構成하며, 이 共同體는 客觀世界의 基盤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相互主觀性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主觀의 共同體 혹은 『우리』意識을 가리킨다. 이 概念에서 他我經驗, 즉 他 主觀性的의 의미로서의 他人 概念을 훗실은 相互主觀性的의 構成으로서의 感情移入法을 적용²⁰⁾하고 있다.

19) 相互主觀性에 대한 內容은 車仁錫 [現代政治와 哲學], 평민서당.1981. PP.123-129, 李圭浩 編著. [社會科學의 方法論], 현암사. 1981, PP. 203-209. 車仁錫, [現代社會科學 方法論], 민음사. 1982. PP.123-124. W.마르크스, 앞의 책, PP.135-152, 파울 안센, 앞의 책, PP.100-120 참조.

20) 이와같이 人間의 內面的 世界를 評價하려는 方法論으로는 感情移入을 통한 認識作用, 즉 연구대상의 위치에 觀察者가 想像作用으로 자신을 定置시키는 『페르슈테덴』方法論과, 他人의 生活經驗을 함께 나눔으로서의 他人의 感情과 動機를 이해하는 Edward C.Lindeman의 『參與的 觀察』이 있다. 李圭浩 編著. 앞의 책, pp. 196-199, 車仁錫, [社會認識論], 민음사. 1987. pp. 115-116 참조.

他者の意識生活은 그 본래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間接的 呈示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거기 있으며, 또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된다면, 나와 유사한 他自我를 定立한다. 他我는 곧 나의 二重化이다. 他者の表象은 他者の 身體와 그의 狀況안에서 나를 表象하는데서 이루어진다. 내가 想像으로 그려내는 타자의 精神的 삶안에 들어가는 것』이 感情移入이다. 타자도 同一한 想像作用으로 나에 대한 感情移入을 한다. 이렇게 해서 他자와 나는 『우리』가 되며, 相互主觀的 世界를 형성한다. 이것은 슈츠가 說明한 『觀點의 相互交換性』의 原理가 되는 것으로 自我의 『여기』와 他我的 『거기』가 서로 交換됨으로써 동일한 對象에 대한 동일한 認識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痛覺을 통해서 한 人間과 他人間的 相互 關係와 交通이 가능하며, 單純하고 複合的인 社會的 關聯性, 友情, 結婚, 集團 등이 주어진다. 이들은 모두 인간들 사이에서 形成된 結合體이다. 相互主觀性은 自我의 共同體化를 통해서 客觀 世界를 구성하는 高유의 領域을 가지며, 『우리』로서 客觀世界를 위한 主觀성이 된다.

나와 타인과의 社會的 關係는 원적 定型(Urtypus)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社會的 行爲는 타인의 육체적 존재만이 아니라 나의 行爲에 의해서 야기된 그의 行爲에도 指向한다. 그의 反應은 나의 行爲의 『하기 위하여』 動機가 되는 동시에 그의 行爲의 『때문에』 動機가 된다. 이처럼 모든 社會的 關係의 原形은 동기의 상호주觀적 聯關에 의한 많은 인간들과의 상호적 共同性을 相互主觀性²¹⁾이라고 부른다.

相互主觀性은 나의 自我안에 存在하고 다른 모든 人間에게도 있다. 이 相互主觀性으로 同一한 客觀世界가 구성된다. 그리고 다른 文化的 思想, 특히 社會共同體와 같은 여러가지 形도 구성된다. 間接的 呈示에 의한 他我經驗을 매개로 해서 타아안으로 들어가는 自我作用은 社會작용이며, 이것을 통해서 모든 人間的 意思疏通이 성립한다. 따라서 客觀世界안에서 共同化, 즉 社會的 共同化에 의해 단계적 秩序를 가진 社會共同體의 여러가지 유형이 구성된다.

21) 車仁錫, [現代 社會科學 方法論], 민음사, 1982.p.123

라. 自然的 態度

現象學의 世界眺望을 획득하는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契機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세계가 現實的인 것으로, 現存하는 것으로 발견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른바 『自然的 態度의 一般定立』을 행한다고 말한다. 一切의 科學들은 그들이 지닌『前提』를 되묻는 일이 없이 이러한 一般定立의 바탕위에 비로소 이룩되는 것이다.

이처럼 내앞에 있는 世界의 存在를 의심하지도 않고 當然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훗설은 自然的 態度²²⁾의 一般定立이라고 한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의 周圍世界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妥當하다. 나는 이 사람들을 人間으로서 그리고 나와 같은 自我主體로서 경험하며 理解하고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그들의 周圍世界와 나의 주위세계를 동일한 世界로 알며, 우리 모두가 多樣한 樣式으로 意識하게 되는 동일한 세계로 把握한다. 이 세계가 훗설의 말하는 自然的 態度의 『相互主觀的 世界』이다.

自然的 態度에서 의심없이 받아들여진 이 世界가 現象學의 연구대상이 된다. 훗설의 現象學的 態度는 省察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形成되었는가를 묻는다.

社會科學者들의 일차적 目標은 社會現實에 관한 知識의 체계화이기도 하다. 社會現實의 과학적 解明은 생활세계안에서 일어나는 社會的 相互作用에 대한 일반적인 經驗形態로서의 이해에 根據한다. 理解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신의 行爲와 意味와 우리와 相互關係를 맺고 있는 타자들의 行爲의 의미를 把握하는 經驗過程을 가리킨다.

슈츠에 따르면 理解는 사적인 認識形態가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經驗形態라는 것이다. 이해는 常識的인 생각이 生活世界를 인지하는

22) 이에 대한 內容은 파울 안센, 앞의 책, pp.58-62. W.마르크스, 앞의 책, pp.105-118, 韓國現象學會 編, 앞의 책, pp.105-108, 車仁錫, [現代社會科學 方法論], p. 86, 車仁錫, [社會認識論], pp. 36-37 참조.

것처럼 같은 樣式으로 얻어진 學習過程의 결과이다. 그런데 理解라는 경험형태가 『主觀的』이라는 非難은 언제나 받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타자의 행위의 動機理解는 觀察者의 私的이고 統制할 수 없는 그리고 檢證 불가능한 直觀이나 그의 사적인 價値觀에 依存하기때문에 그것이 主觀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常識的 思考의 경험형태로서의 理解를 言及했는데 이해의 認識論的 문제는 이러한 理解가 어떻게 可能한가를 묻는다. 슈츠는 恫설의 指向性·生活世界·自然的 態度·相互主觀性 등의 概念的 道具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에서 進行하는 常識的 理解構造를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現象學이 사회적 行爲에 관한 科學의 基礎를 제공해야 한다는 立場을 견지하면서 의식의 意味賦與作用을 분석한다. 그러나 그는 恫설과는 달리 『先驗的²³⁾』 純粹自我의 作用이 아니라 世間的, 社會的 存在로서의 自我의 의미부여 作用을 다룬다. 그의 現象學的 還元은 先驗的 수준이 아니라 生活世界の 일상적 수준에서 그친다. 이 일상적 水準이 自然的 態度이며, 그것은 상식적 日常世界에서 우리가 갖는 態度이다. 現象學的 還元은 이 自然的 態度의 記述에 그 目的이 있다.

마. 現象學的 還元

恫설은 처음부터 現象學이 제시하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生活世界』를 開明하기 위하여 判斷中止라든가 괄호 치기, 排除, 또는 現象學的 還元²⁴⁾ 등의 방법론적 用語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現象學의 不可缺한 요소일 뿐 아니라 現象學的 태도의 基

-
- 23) 『先驗的』이란 恫설에서는 認識을 形成하는 궁극적인 源泉, 다시 말해서 主觀으로 되돌아가려는 動機를, 칸트는 『對象에 대해서가 아니라 對象에 대한 우리의 認識方式, 더구나 선천적으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의 認識方式 일반에 관한 모든 認識』(純粹理性批判)을 先驗的이라고 한다. 두 定義에서 共通의인 것은 우리는 『대상을 직접 문제삼지 않고 대상을 認識하는 방식을 問題삼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韓荃淑, 『現象學에서의 先驗性』, 韓國現象學會 編, 앞의 책, p.87.
- 24) 이에 대한 內容은 申龜鉉, 앞의 글, pp.59-80, W.마르크스, 앞의 책, pp.46-55, 파울 안센, 앞의 책, pp.89-93, 원형갑, 앞의 책, pp.101-102. 참조.
- 25) 尹明老, 앞의 글. p. 28

本이요 根據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判斷中止나 괄호치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現象學은 모든 先入觀과 이데올로기를 『살아있는 生活世界』에 照明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훗설이 現象學을 嚴密學으로서 確立할 것을 宣稱한 후 이 嚴密學으로서의, 그리고 더구나 第1哲學으로서의 現象學의 定礎를 위하여 가장 確實한 始原으로서의 先驗的 主觀性, 즉 純粹한 에고(ego)에다 焦點을 두고 그 本質의 構造를 중심으로 探究를 하였다.

『가장 엄밀한 學』으로서 定礎되기 위하여 現象學은 그 始原으로서 의심할 수 없는 確實한 것을 구해야 했으며, 이것을 구할 方法이 현상학적 還元이요, 이로써 到達된 始原이 곧 純粹自我 내지 純粹意識으로서의 『先驗的 主觀性』이었다.

현대의 論理實證主義는 고전적 實證主義의 還元을 한걸음 더 發展시켜 우리가 考察하고자 하는 모든 對象들을 分析하여 그들을 構成하는 最終의이며 가장 單純한 요소로 還元한다. 이와 반대로 現象學的 還元은 일체의 經驗的인 對象이나 感覺 內容을 排除하고 그들의 의미구조, 즉 本質에로, 그리고 사물의 복잡한 構造에서 단순한 要素에로가 아니라 사물의 의미구조와 그들을 構成하는 意識의 指向作用과의 相關關係로 還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現象學은 純粹體驗의 본질을 기술하는 理論이기 때문에 質料的이고 기술적인 學問의 範疇에 속하며 거기에 使用되는 概念들은 본질적으로 多意的이다. 따라서 還元·判斷中止·괄호침·排除 등의 用語는 현상학적 방법을 정확히 定義할 수 없는 반면 그 방법이 適用되는 具體的인 상황을 기술하는데 적합하다. 이 狀況을 우리는 크게 判斷中止와 還元이란 두 단계로 구분²⁵⁾할 수 있으며 괄호침, 排除 등은 判斷中止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25) 判斷中止는 말하자면 이 방법의 消極的 표현이요, 先驗的 還元은 積極적 表現이다. 그러나 概念的으로 양자를 구별한다면 判斷中止는 선험적 意識으로 還元하는 것(先驗的 還元)을 가능하게 하는 條件이다. 또는 『判斷中止에 의해 가능해진 遂行成果』이다. W. 마르크스, 앞의 책, p.46.51.

現象學에도 分析하고 抽象 作用으로써 연구하는 概念的인 절차가 있다. 그러나 現象學者는 결코 개념적인 思惟 進行으로 出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른 哲學的 접근 方式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 첫걸음인 判斷 中止는 자연적인 삶의 樣態에서 대상들에 붙어 있는 遮蔽物로부터 對象을 解放시킨다는 뜻이다. 이러한 判斷中止는 어떤 사물에 관한 陳述이 眞이거나 僞라고 단정적으로 主張하지 않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사물에 관한 우리의 日常的인 판단을 排除하거나 그 妥當性은 일단 괄호 속에 묶어서 無効化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점에서 排除나 괄호침이 判斷中止의 부수적인 狀況임이 분명히 밝혀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事物의 우연적인 屬性이나 先入見을 排除하고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

이와같은 還元은 純粹意識 또는 先驗的 주관성을 認識의 근원으로 삼는 先驗的 觀念論의 確立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哲學的 의의를 갖는다.

3. 現象學的 方法論의 含蓄性

統一問題 및 南北韓關係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관심대상이 어떻게하면 相關문제를 精確하게 說明·豫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處方을 내림으로써 비정상적인 남북關係를 正常化의 길로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統一問題 研究가 進行되어 오는 동안 各적인 측면에서 시도되었으며 그 方法論의 보완가능성으로서의 現象學的 關心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파악될 수 있다.

現象學이 方法論으로서 有意味性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줄로 안다. 왜냐하면 哲學的인 觀點에서 시작된 現象學이 그 성격상 구체적인 狀況下에서 응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自 來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훗설의 주장처럼, 現象學이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正當한 근거를 제공하는 『現象學으로서 哲學』이라는 독자적인 領域을 확립하려

는 노력에서 이미 現象學은 철학이라는 흐름속에만 속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方法論이란 認識論의 관점에서 볼 때, 現象學은 그 흐름이 認識論의 반성에서 출발되고 있으며 그 방법론적 지침인 『事象 自體로』가 본질이라는 存在把握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존재의 새로운 파악은 바로 認識論의 재조명에서 가능하다. 즉, 認識論과 存在論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認識論으로서의 現象學이 방법론에 대해서 가지는 논리적 關聯性은 무시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앞으로의 課題가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關心은 序論에서는 밝혔듯이 試論의 立場에서 現象學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의 理解를 전제로 現象學의 方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節次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自然科學의 접근방법과 現象學의 접근방법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現象學이 社會科學方法論에 대해서 가지는 有意味性을 슈츠를 중심으로 概觀해 본 다음 現象學의 方法論의 諸節次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가. 行態主義의 方法과 現象學의 方法²⁶⁾

行態主義(Behavioralism)는 人間行態와 社會世界의 外面的 行態에 준거하여 測量과 計量化를 통해서 試驗하는 立證過程을 強調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것에만 研究를 根據시켜야 한다는 見解이다. 따라서 行態主義者들은 인간의 觀念·感情·動機 등이 理論的·經驗的 分析의 의미있는 單位로 사용되는 것을 反對하고, 다만 그 外面的인 행태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²⁷⁾

26) 自然科學의 方法의 代表者로서 Ernest Nagel과 C.G. Hempel 등이 있고 現象學의 方法이 대표자는 Alfred Schutz와 Maurice Natanson 등이 있다.

27) John Gunnell, Philosophy Science and Political Inquiry, General Learning press, 1975. pp. 1-33. 李圭浩, 앞의 책, pp. 193-195

그러나 現象學의 方法은 社會世界가 人間들의 相互作用으로 構成되고 또한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의 總體를 보면서 이 의미가 어떻게 形成되는 가를 考察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象學에서의 社會科學의 대상인 社會의 세계는 人間 行爲에로 환원된다. 또한 社會의 世界는 自然科學의 方法으로 計量化할 수 없는 人間意識의 世界이다. 즉 『나』와 『너』의 意識의 相互作用의 體系이다. 社會科學의 대상인 社會의 世界는 나만의 세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相互主觀의 세계는 人間 行爲의 領域이다. 행위의 문제는 自然科學의 接近法으로 解決할 수 있기에는 너무도 複合的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客觀科學의 方法이 內包하고 있는 제한된 有效性을 지적함으로써 행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提示한 現象學者가 알프레드 쉬츠(Alfred schutz)이다.

이와같이 現象學의 方法은 行態主義의 反省에서 人間과 社會世界의 살아 있는 根本世界를 探究하는 認識論的 方法論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行態論이 自然科學의 方法의 社會과학에의 適用으로 人間本質의 세계 즉, 意識이나 相互主觀性의 문제를 分析의 단위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現象學의 方法은 行態主義 方法과는 전혀 다른 方法論이라 할 것이다.

나. 現象學의 方法論의 有意味性

現象學의 方法論은 근본적으로 두가지 理念을 갖고 있는데 現象學의 還元과 構成의 理論이 그것²⁸⁾이다. 還元이란 明證性을 確保하기 위한 의식의 조작이요, 構成은 그 意識에 있어서의 대상의 意味形成이다. 다시말하면 前者는 일체의 偏見으로부터 解放되기 위해 의식을 中立化(판단중지)시키는 裝置이고, 後者는 그렇게 해서 자유스러워진 意識에서 對象과 世界를 체계로서 解釋하는 것이다. 그러나 還元을 하든 構成을 하든 그것은 의식의 遂行作用이다. 이 의식작용의 수행자는 의식의 主體로서의 自我이다.

28) 蘇光熙, 『現象學의 自我論』, 韓國現象學會 編, 앞의 책, p. 109

이러한 現象學의 方法論의 이론은 주로 슈츠에 의해 確立²⁹⁾되었으며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슈츠는 Husserl의 現象學의 構成要素를 통해 우리 經驗내에서의 行爲의 意味가 어떻게 구성되고 他人의 意識과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方法論의 理論을 再構成함으로써 社會的 世界的 構造的 分析을 시도하였다.

슈츠는 특히 社會科學의 方法론적 節次의 明確化에 관한 現象學의 적절성에 重要性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社會科學의 논리적 根據自體에 대해서 의문을 提起한다. 즉, 社會科學의 문제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 問題들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社會世界를 해석하기 위한 概念들을 어떻게 形成할 수 있으며, 이들 概念들이 世界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方法論에 대한 現象學的 비판의 趣旨를 설명하기 위해 3개의 問題領域이 提示된다. 즉 다음에서 논의될 概念의 明確化, 概念生成의 과정, 및 言語와 의미를 研究하는 새로운 方法이 그것이다.

1) 概念의 明確化(Concept Clarification)

現象學의 첫번째 方法論의 任務(imperative)는 意識의 現象的 對象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任務가 社會科學에 있어서 개념의 明確化에 유용하게 適用될 수 있을지 모른다. 슈츠 자신은 現象學의 方法을 통해 概念을 명확히 할 수 있는 可能性을 지적하였다.

많은 社會科學的 개념들은 典型的으로 不正確하며 曖昧하게 사용되는 慣習의 概念들로써 이들 개념들과 이들이 지시하는 社會現象 사이에 일정치 않거나 혹은 알려져 있지 않은 關係가 存在할 수도 있게 된다. 社會科學者들은 자기들이 概念을 生成하거나 適用할 때 따르는 규칙이나 節次들을 거의 明確히 밝히거나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生活世界와 社會科學 개념간의 關係에 問題點이 생기게 된다.

概念의 明確化에 대한 現象學的 접근이 다른 哲學의 科學的 개념의 明確化

29) 이하의 方法論 論議는 Alfred Schutz의 現象學의 方法論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좀더 자세한 內容은 Alfred Schutz, Collected Papers I, ed. by M. Natanson,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2

와 다른 점은 前者가 概念과 生活世界와의 聯關을 確立하려고 시도하는데 있다.

모든 科學들은 그들의 주제인 世界를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의미에서 素朴하다. 모든 科學들이 철저한 省察의 態度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現象學的인 철저한 懷疑의 態度를 채택하지는 않는다. 모든 科學들이 自然的 태도내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 科學의 개념과 관계되어 있는 非科學的 生活世界와의 관계가 明確히 確立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개념들의 意味에 대한 觀察者 및 관찰자의 解釋을 읽는 모든 사람들사이에서의 曖昧함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첫번째 方法論的 임무의 궁극적인 目的은 『완벽한 明確化속에서... 모든 可能的 概念的 本質을 把握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概念生成過程(The Process of concept generation)

現象學的 두번째의 방법론적 任務는 現象學的의 所與(givens)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構成(constitution)이나 再構成의 任務이며 意識의 의미부여과정을 가리킨다. 概念生成에 대한 現象學的 研究에서 문제점으로 取扱되는 것은 社會科學的 企劃(project)에 있어서의 이들 개념의 選定, 適用, 造作化 및 使用에 관한 過程이며 문제는 概念 및 그 概念의 적용을 出現시킨 人間活動과 의미를 再構成하는 것이다.

社會科學者들은 상식적 解釋의 제1차적 구성물로부터 사회과학적 해석의 제2차적 構成物로 어떻게 移動하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이 過程은 觀察者가 초점을 뒤서 선정하는 社會世界의 諸側面의 性格과 研究樣式에 따라 다양하게 된다. 상이한 研究樣式으로 이루어지는 概念生成過程의 명확화는 특정한 概念의 明確化에 대한 필수적인 보충이 된다. 問題는 概念을 規定하고 이루는 과정들이 概念들이 準據하는 生活世界內의 人間活動과 의미에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概念을 규정하는 作業의 관심사는 世界內의 행위와 概念이 존재할 경우 세계내의 行爲와 概念間의 關係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樹立될 수 없는 경우는 그것들의 不在를 論證하는 것이다.

결국, 社會科學의 研究의 役割을 이루는 일상활동들은 그 일상활동들에 대한 믿음을 궤호속에 집어 넣음으로써 그리고 日常活動들을 이들 活動들이 産出해낸 資料와 同一한 現象學的 研究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두번째 方法論의 임무 즉, 構成의 任務(Imperative of constitution)을 따름으로써 現象學的 指向을 하는 社會科學者는 실제 研究활동에서 개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概念들과 社會科學의 研究對象인 생활세계와의 연결형태를 提示할 수 있게 된다.

3) 方法論의 새로운 方向(New direction for Methodology)

슈츠에게 있어서 社會科學方法論의 최초의 임무는 日常生活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經驗을 조직하는데 따라 그 一般原理를 探究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일상생활의 실제적 觀點에서 볼 때, 슈츠의 要請은 전통적인 社會科學研究들이 소홀히 하였던 주제였으며 이에대한 探究는 方法論의 再定立을 要求하게 된다. 이는 곧 社會科學者들이 일상생활의 상식적 세계에 대한 一般原則들을 어떻게 探究할 수 있는가라는 問題로 要約될 수 있겠다.

觀察者가 자기관찰과 資料를 이해하는데 그가 常識的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할 必要性에 대한 끊임없는 強調는 社會科學的 해석이 研究過程의 狀況依存性(contingency)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밝혀주게 되며, 이러한 사회과학적 活動에 대한 계속적인 解明은 전통적 방법론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적 指向을 의미한다.

다. 現象學的 方法論의 諸段階

本 論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現象學的 흐름에 立脚하고 있는 方法論들이 따라야 할 몇가지 指針(Imperative)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間相互作用의 目的, 意味, 意思疏通 등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기술할 것. 즉, 體驗된 세계에 있어서의 思考, 行動과 人間の 社會性 및 意圖性(intentionality) 등을 자세하게 記述하며, 언어는 상황맥락적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둘째, 行爲者들이 그들의 世界內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理解하고 解明(reveal)하도록 努力할 것. 즉, 특정한 社會的 狀況下에서의 行爲자의 經驗과 行爲의 기본전제 및 使用하는 언어의 構成에 신경을 써야한다.

세째, 研究者가 使用하는 調査節次(research-procedures)나 해석에 대해서 反省的(reflexive)이거나 自意識的(self-conscious)이어야 할 것. 즉, 사용되는 기존의 資料들이 얼마만큼이나 그것들을 나타내주는가 혹은 行爲者の 目的이나 意圖에 의해서 무엇을 前提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行爲者들이 조사된 現象(researched realities)이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計劃이나 處方등을 제시하도록 努力할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재구성은 自由롭고 創造的인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現象學의 개념과 중요 구성요소가 具體的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滿足할 만한 유형도 없으려니와 學者들에 따라 그 의미 理解가 달라지고 있다.³⁰⁾ 그런데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現象學者들이 現象學의 特徵중의 하나로서 인정하는 것은 現象學의 方法論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상학적 方法論이라는 側面에 초점을 두면서 現象學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한다.

한편, 現象學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具體的으로 그 강조점이 상이하며 應用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몇단계로 제시되는 것 역시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서 提示하는 단계들이 南北韓關係와 統一問題 研究에 直接的으로 適用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方法論的 수정이 필요로 하는지는 더 많은 研究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 논의는 既存 研究 방법의 보완책의 하나로서의 序說的 試論에 불과하다는 점을 指摘하고 싶다.

現象學의 방법론의 諸段階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속에서 構成되어 진다.³¹⁾

30) 現象學의 이해에 대한 混亂은 James L. Heap and Phillip A. Roth, 『An Phenomenological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8. June, 1973, pp.354-367 참조.

31) 이에 대해서는 H.Spiegelberg,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 A historical introduction (2nd), vol. II, The Hague : Martinus Nijhoff, 1969, pp.659-698 참조.

1) 特定現象에 대한 探究(Investigating Particular Phenomena)

이 段階內에는 相互聯關되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세가지 下部段階로 構成되어 진다: 현상의 直觀的 捕捉, 分析的 調查, 그리고 現象學的 記述이 그것이다.

① 現象學的 直觀하기(Phenomenological Intuiting)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實質的으로는 곤란함을 느끼게 하는 直觀하기는, 더 이상 批判的으로 볼 수 없을 때까지 現象에 대한 陷沒(absorbed in)이 아니라 직관된 對象에 대한 注意集中(concentration)을 要求한다. 이러한 요구는 종종 현상을 開放시켜라(keep them open), 혹은 보고 들어라(looking and listening) 등 隱喻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特定現象의 獨特性(uniqueness)을 포착하기 위한 直觀하기를 위해서는 類似點과 差異點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련된 現象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② 現象學的 分析(Phenomenological Analysing)

이 단계는 다른 단계 특히 現象學的 記述과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이론적 分析이나 哲學的 分析과 현상학과와의 관계를 分明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상학적 分析은 언어적 表現에 기본적 關心을 갖지는 않는다. 물론, 現象學者들이 현상의 特定 측면에서부터 出發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의 규명을 試圖하지만 그와 같은 의미의 分析은 어떤 표현이 意味하는 現象의 연구에 대한 하나의 準備過程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現象學的 분석은 현상자체의 分析이지 현상을 의미하는 表現의 分析이 아니며, 直觀에 의해서 포착되는 現象의 구조와 要因을 추적하는 것이다.

훗설의 現象學的 분석은 특히 意圖의 行爲(Noesis)와 意圖된 結果(Noema)의 兩側面에 대한 주의깊은 體系的 분석을 의미한다.³²⁾ 결국 의도적 분석을 포함하는 現象學的 분석은 그 構成要因과 구성의 측면에서 현상의 구조에 대한 일반적 分析을 意味한다고 보겠다.

32) 파울 안센, 앞의 책, pp.70-80.

③ 現象學的 記述(Phenomenological describing)

現象學은 沈默속에서 시작된다. 현상을 適切하게 기술하려고 努力할때 좌절과 복잡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現象學的으로 본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된다. 基本的으로 敘述(Predication)을 의미하는 記述의 몇가지 特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記述은 現象의 分類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分類體系를 전제하고 있고, 두번째로 記述 특히 현상학적 記述은 선별적(selective)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現象의 모든 속성들 특히 聯關的인 속성에 대해서 網羅的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러한 선별을 통하여 현상의 決定的이며 중요한 屬性에 주의를 集中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도로 記述은 이미 本質의 고려와 關聯을 맺고 있는 것이다.

2) 一般的 屬性의 探究 ; 本質直觀(Investigating General Essence ; Eidetic Intuiting)

本質直觀이라는 語彙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종종 本質의 經驗(experience of essences), 본질에의 洞察(insight into essences)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훗설에 따르면 적절한 本質直觀은 특정 측면에 대한 先行的 또는 想像에 의해서 혹은 兩者의 조합에 의해서 행하여진다고 한다. 즉, 특정 측면의 直觀은 일반적 屬性把握에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類似性에 기초를 두고서 특정 現象들을 일련의 연속선상위에 位置시킴으로써 일반적 속성으로의 轉移過程을 經驗하게 되는데 이것을 觀念化(Ideation)라고 한다.

3) 本質의 關聯性的의 把握(Apprehending essential relationship)

本質에 관한 現象學的 본질의 構成要素의 발견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관련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本質의 關聯性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일 現象內的 關聯性和 여러 現象間的 關聯性이다.

어떤 現象內的 내적 關聯性的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關心의 그 構成 요소들이 現象에 대해서 본질적인가의 여부를 糾明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훗설은 自由變更(free imaginative variation)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特定 要素를 다른 요소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두번째의 境

遇를 상대적인 본질적 必要性(relative essential necessity)이라고 하며, 세번째의 경우를 절대적인 本質的 必要性(absolute essential necessity)이라 한다. 바로 우리의 관심은 구성요소들 사이의 可能性, 必要性, 不可能性 등의 관계를 現象學的 自由變更³³⁾을 통하여 찾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현상간의 本質的 관련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現象內的 內的인 本質 關係를 파악은 自由變更에 의해서 가능하며 그 내용은 위의 예와 同一함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본질적 관련성에 대한 洞察은 경험의 유형일 수도 있으며 훗설이 말한대로 範疇的 直觀(categorical intuition)일 수도 있겠으나 단순한 論理的 조작이 아니며 想像力에 의존한다.

위와함께 本質的 관련성의 파악은 現象의 意識內 구성에 관한 探究(Exploring the Constitution of Phenomena in Consciousness)와 현출양식에 대한 탐구(Watching Modes of Appearing)가 이뤄져야 한다.

4) 存在에 대한 믿음의 判斷中止(Suspending Belief Existence)

現象學的 還元이란 우리들의 日常生活經驗의 현상을 소박한 자연적 태도의 脈絡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現象內容의 存在 혹은 非存在에 대한 判斷을 中止함을 말한다. 즉, 現象學的 還元은 인식과정에 관한 反省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존의 믿음에 대한 懷疑라는 부정적 기능도 하지만 判斷中止를 통하여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는 肯定的 기능도 수행한다. 훗설이 判斷中止의 방법을 의미할때 아마도 後者の 기능을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還元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진정한 直觀과 분석 및 記述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還元을 통해서 우리는 實體에 관한 固定觀念을 中止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現象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든 실제적이지 않든, 아니면 의심스럽든지 간에 모든 資料를 개인적 選好(favor)나 先入觀에 좌우됨이 없이 同等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33) 申龜鉉, 『現象學的 還元과 그 哲學的 意義』, 韓國現象學會 編, 앞의 책, p.68 : 自由變更이란 還元の 한 方法으로 일종의 『思惟實驗』이다.

5) 숨겨진 意味의 解釋(Interpreting Concealed Meanings)

記述的 現象學은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指向構造에 대한 모든 연구는 대체적으로 해석적 分析과 意識行爲의 의미에 대한 기술에 焦點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석적 現象學의 목적은 直觀, 分析 그리고 記述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의미의 糾明에 있으며, 따라서 解釋者(interpreter)는 直接的으로 所與(givens)된 것을 넘어서야 하며, 이런 試圖를 통해서 所與된 것을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혹은 적어도 分明하게 所與되지 않은 것에 대한 端緒(clue)로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問題는 이런 작업이 記述的 現象學이 제거하려고 努力해왔던 일종의 說明的 假說(explanatory hypothesis)을 결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現象學의 原則들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른바 解釋的 現象學이 現象學的 權利를 主張하기 위해서는 解釋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성적 推論이 아니라, 어떤 現象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部分에 대한 期待(anticipation)의 직관적 檢證이라는 사실 혹은 숨겨진 意味의 露出이라는 사실을 內包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現象學의 方法論의 몇가지 段階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런데 위와같은 단계들은 적어도 默示的으로 현상학적 立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部分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論難의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現象學의 方法만이 또 다른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 學問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統一問題와 南北韓關係 연구에의 구체적인 應用을 위해서는 더 많은 研究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V. 民族共同體의 現象學的 接近 摸索

1. 現象學的 接近의 可能性 檢討

가. 유럽의 『危機』와 훗설의 共同體論

훗설의 現象學과 現象學 運動은 당시 유럽의 科學危機와 그에 따른 人間疏外, 그리고 인간의 物象化에 대한 反省이 그 배경이었다. 따라서 훗설의 現象學은 그가 살고있는 生活世界로서의 유럽과 密接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現象學과 유럽과학의 危機』라는 그의 著書에서 그는 유럽을 『精神的 形態』 또는 『精神的 形成』으로서의 人格적 共同體로 보았다.

훗설이 말하는 유럽은 오직 主觀, 즉 精神의 領域속에서만 그 존재와 가치가 經驗될 수 있는 정신적 周圍世界 또는 정신속에 투영된 세계이다. 유럽은 정신의 單一體(unity)이며 정신의 構造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念慮와 努力의 그릇(locus)이었다. 다시 말하면, 훗설이 意味하는 유럽은 일정한 時間과 空間에 자리잡고 있는 客觀的 世界가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는 정신생활의 흐름속에 자리잡고 있는 精神의 事件과 精神의 모습에 대한 指稱²⁾이었다.

훗설은 『유럽이라는 타이틀이 目的과 關心과 念慮 그리고 努力, 이와 동시에 目的的 行爲·制度·組織 등을 만들어 내는 精神의인 생활활동, 창조的 單一體에 대한 指稱』이라고 말한다. 훗설이 말하는 유럽은 純粹한 정신적 의미의 世界를 뜻한다.

훗설에 의하면, 순수한 精神의 또는 人間的 說明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

1) Edmund Husserl,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hilosophy, ed. David Carr,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2) 金弘宇, 『現象學과 政治哲學』, 韓國現象學會 編, 앞의 책, pp.261-262

저 인간의 精神生活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精神生活의 흐름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動機를 붙들어야 하며, 이러한 動機에 의해 形成되는 精神的 구조의 바탕을 그 發展과 더불어 理解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훗설에 있어서 유럽은 하나의 人格者가 精神的으로 묶여진 精神生活의 共同體였다.³⁾ 훗설에 의하면 『人格體들은 보다 높은 等級의 人格적 單一體들인 共同體의 構成員이다. 이 共同體는 전체로서 그 자체의 삶을 營爲하며 개인이 시간내에서 등장하거나 퇴장함에 關係없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共同體의 性質들인 道德·法·秩序, 다른 共同體 및 개별적인 人格體들과의 共同作用에서 기능하는 方式들을 가지며, 주위 환경에 대한 依存性, 規則的인 변화, 그것을 規定하는 주위 環境에 따라 발전하는 方式 또는 한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방식을 지닌다. 어떤 한 共同體의 구성원들은 그 자신이 그 構成員임을 알며 그 共同體에 의식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共同體에 影響을 주면서 存在한다.』는 것이다.

훗설은 우리가 하늘과 땅, 들과 숲만을 共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가 그것에 속해 있는 人格的 聯合體를 또한 갖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精神的인 것』이라고 特徵짓는다. 공동의 環境 世界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향적 連帶關係를 맺고 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人格體라는 것이다.

요컨대, 훗설은 다수의 人格體(person)들로 이루어진 共同體(Gemeinschaft)를 하나의 거대한 人格體로 본다. 그에게 있어서는 共同體란 다수의 人格체들의 단순한 集合體가 아니라 共同的 意識과 共同的 습득성을 갖는 일종의 主體(Subject)⁴⁾인 것으로 된다.

3) 훗설은 유럽의 精神史를 哲學精神的의 역사적 形成過程 또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哲學의 降臨으로 보고 이에따른 超國家的 유럽共同體의 實現過程으로 본다. 金弘宇, 앞의 책, p.279

4) W.마르크스, 앞의 책, p.123

훗설의 共同體 논의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가 추구했던 現象學의 궁극적인 목표는 危機에 처한 유럽의 精神世界를 새로이 건설하려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진정한 유럽共同體의 形成이었다. 그는 現象學을 통하여 유럽共同體의 生活世界를 구성하고 있는 意味의 世界를 분석하려 하였으며 本質적으로 脫物象化된 유럽의 精神世界를 再構成하는 것이었다.

그는 몇몇 유럽국가들 相互間에 敵對感이 尙存한다 하더라도 모든 유럽인에게는 하나의 共通된 마음의 요람지 또는 意識이라는 고향이 있는데 그들이 指向해야 될 目標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存在 樣式을 일깨워주며 보다 높은 단계로의 發展을 도모해 주는 것을 哲學精神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유럽의 精神的 目標를 理性 또는 哲學精神이라고 보았다. 유럽은 理性 또는 哲學精神에서 하나로 糾合되고 이를 指向하려는 의지로 통합된 정신적 單一體로서의 유럽共同體였다.

훗설의 이러한 精神은 EC(유럽共同體)形成의 정신적 基盤으로서 EC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하나의 契機가 되기도 하였다.

나. 民族共同體와 現象學의 相關性

앞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現象學에서의 他我經驗은 社會的 關係의 전제조건이며 이는 他我的 意識生活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나와 동일한 인격(person)을 他人에게서 발견하는 行爲⁵⁾이다. 또한 나와 타인간의 交通을 통해서 얻어진 社會性은 상호간의 意識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나와 타인이 동일한 周圍世界를 가지며 동일한 共同體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타인을 人格으로 經驗하고 그와의 相互交通이 성립될 때 사회적 世界가 구성되는 것이다.

社會世界는 『나』와 『너』와의 相互主觀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세계는 『나』와 『너』가 만나는 곳이며, 나의 고유한 行爲가 나의 이웃에 대해서 指向하는 곳이다. 나의 社會的 行爲는 이 세계를 『우리의 것』이라는 것과 동시

5) 李圭浩, 앞의 책, p. 207.

에 『우리』關係의 本質을 具現한다., 相互主觀的 세계, 즉 사회적 세계는 行爲의 領域이며, 이 行爲의 分析이 곧 社會科學 方法論으로서의 現象學의 主課題가 된다.

피어칸트(Alfred Vivkand)는 『우리』라는 個人的 意識에 의해서 명확하게 特徵지워진 共同體 概念의 근본적인 範疇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關係의 現象學的인 社會학의 概念을 재해석하고 있다. 共同體의 本質은 『나』가 그의 高유한 個體(person)를 초월해서 擴大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 意識에 있어서 『나』는 집단에 대한 親密한 歸屬感 이전에 退却하고 있다. 共同體의 諸關係는 이러한 상호관계에 基礎하고 있다. 社會的 關係에 있어서의 『우리』 意識안에 개개인간의 유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어칸트는 『現象學의 方法은 共同體를 구성하고 있는 內的 性向과 社會的 關係에 대한 설명을 提示할 뿐만 아니라 集團에 대한 이해도 가능케 한다』고⁶⁾ 하였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때 民族共同體와 現象學의 關係⁷⁾는 어떤 有意味性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民族共同體의 개념 정의에서 본 바와같이 民族共同體는 어떤 形態나 實體로서의 共同體가 아니라 하나의 原理 또는 媒介로서의 共同體이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意識이나 마음의 問題, 그리고 心性이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聯關係와 相互作用關係의 문제로 된다.⁸⁾ 우리에게 있어서 같은 文化, 같은 歷史와 傳統, 같은 言語, 같은 핏줄 등 民族共同體의 요건은 다분히 心的인 公有와 紐帶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精神世界로서의 韓民族共同體는 남북한 구성원들간의 相互關係와 작용에 의해 形成·維持·發展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現象學의 주요 構成要素인 生活世界나 相互主觀性 등의 개념은 民族共同體를 說明하고 그 의미

6) 李圭浩 앞의 책, p.209.

7) 共同體와 現象學의 關係는, 파울 안센, 앞의 책, p.117, W.마르크스, 앞의 책, pp. 2122-124, 韓國現象學會 編, 앞의 책, pp.207-209 참조.

8) 매키버, 『共同體의 要素들』, 慎鏞厦 編, [共同體 理論] 文學과 知性社, 1987. p. 159.

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道具로 될 수 있다.

또한 現象學이 인간의 社會世界에 있어서 相互主觀的 文化세계로서의 生活世界의 의미를 밝히려는데 그 目的이 있기 때문에 民族共同體의 의미를 현상학적 觀點에서 記述해 본다는 것은 매우 意味있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民族共同體는 南北韓의 『나』와 『너』라는 意識의 상호작용에 의한 世界이며 이는 相互主觀的이고 상대적인 生活世界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南北韓의 意味共有(文化)의 世界이기도 하다.

남북한 統一問題의 의미기반은 民族의 生活世界로서의 民族共同體이며 民族共同體는 과정에 있어서 다분히 主觀的이고 상대적인 共同의 세계이지 절대적이고 客觀的으로 懸出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南北韓간의 統一問題의 인식행위는 남북한이라는 一方의 他方에 대한 즉, 他主觀과의 공동 존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民族共同體는 남북한의 『나』와 『너』의 綜合 또는 『우리』로서 相互連結된다. 그러므로 民族共同體는 南北이 상호주관적인 共同體로서의 生活世界로 된다. 즉 民族共同體는 상호주관성의 측면에서 主觀의 共同體化, 즉 『우리意識』이 그 基盤이 되어야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

民族共同體로서 남북한은 그 안에서 생활하고 共同의 힘과 일에 의해서 結合되며, 상호 이해함에 있어서 相互 同一化 또는 共同化는 他我經驗(感情移入, 觀點의 相互交換性)을 바탕으로 雙方(他자와 나; 南北韓)이 『우리』가 되어 相互主觀的인 공동의 精神(意識)世界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렇게함으로써 南北韓은 동일한 現象에 대해 동일한 認識이 가능하게 되고 圓滑한 相互關係와 交通을 통해 하나의 民族共同體가 이룩될 수 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때 우리가 追求하는 民族共同體의 현상학적 認識·實踐의 問題는 매우 意義있는 일이다.

以下에서는 앞서 논의한 現象學의 哲學的·認識論的 方法論의 내용을 바탕으로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現象學이 示唆하는 몇가지 認識과 實踐 接近의 問題를 제시코자 한다.

2. 現象學的 觀點에서의 研究와 認識·實踐⁹⁾

가. 北韓 認識

北韓을 어떻게 認識하느냐는 問題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問題이다. 現시기 對北韓觀의 混亂이 야기되고 있는 우리의 國內狀況에서 이 問題는 統一問題 해결의 중요한 變數로 作用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지며, 동시에 北韓이라는 하나의 對象을 두고 이를 認識하는 觀點과 시각이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對北認識에 있어서 어떤 問題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北韓의 閉鎖性으로 인한 認知의 困難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內 일각에서 야기되고 있는 北韓 實相이나 現實에 대한 일종의 『神話』(myth)나 北盲症이라는 『盲兒現象』은 새로운 分析 틀을 이용한 北韓의 認識과 올바른 北韓觀 定立을 要求하고 있다.

民族共同體의 일부로서 北韓은 否定할 수 없는 형제이며 언젠가 統一을 이룩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存在이지만 우리의 體制와 生存方式을 실질적으로 威脅하는 이중적 實體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北韓의 實體(reality)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特定視角에서 脫皮하여 보다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分析 틀을 이용한 接近方法이 摸索되어야 한다.

사실 人間의 知識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價値에 偏向된 것이 대부분이며, 認識의 主體로서 人間은 자신의 經驗에서 나오는 多様な 先入見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現象이나 對象을 볼 때 다양한 先入見間의 갈등은 불가피한 경

9) 認識對象이란 그 자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對象과 對象의 관계를 올바르게 客觀的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며, 참된 認識이 참된 認識으로서 妥當하게 되는 것은 實踐的 立場에서의 檢證의 결과이다. 따라서 認識의 問題는 당연히 實踐의 問題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務臺理, [哲學概論—世界·主體·認識·實踐—], 홍윤기 譯, 도서출판 한울, 1982, p.235.

우가 많다. 그러나 이 葛藤을 어떻게 取扱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先入見을 넘어서 보다 深層的인 새로운 깨달음에 到達할 수도 있고, 각자의 先入見의 껍질속에 파묻혀 葛藤과 不和를 深化시킬 수도 있다.

독일의 現象學的 解釋學者인 가다머(Gadamer)가 提示하는 나—너 관계의 세 가지 類型¹⁰⁾은 南北韓의 先入見간의 葛藤을 認識·克服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그가 提示한 첫째 유형은 『나—너』關係에서 나는 자신의 先入見을 絶對的인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先入見은 자신의 先入見에 의해서 근거없는 하나의 偏見으로 否定된다. 이 관계에서 相對는 항상 나의 先入見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그리하여 統制 가능한 對象物로 간주되며, 따라서 나의 先入見은 絶對的인 것으로 상대방의 先入見위에 君臨함으로써 그것의 克服 可能性은 소멸된다.

『나—너』의 關係의 둘째 유형에서는, 첫째의 유형에서와 달리 나 자신의 先入見은 물론 상대방의 先入見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는 無關하게 孤立되고 分離되어 있다. 따라서 이 關係에서의 나는 자신의 先入見을 상대에게 強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의 선입견을 克服하지 못한다. 先入見의 克服이 이루어지는 셋째 유형의 『나—너』關係는 開放性에 의해서 特徵지워진다. 이 관계에서 나는 둘째 유형에서와 같이 自身の 先入見과 相對의 先入見을 모두 認定한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의 나는 自身の 마음을 열어 상대의 先入見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先入見의 限界를 극복하고 두 先入見을 넘어서 보다 높은 次元의 깨달음에 到達한다.

가다머는 이 狀態를 『地平의 鎔解』(Horizont verschmelzung)라고 부른다. 가다머가 제시한 첫째와 둘째 유형의 『나—너』關係의 問題는 그것이 새로운 깨달음을 阻害하고 既存의 깨달음에 安住하게 함으로써 생각을 통한 自己成長과 자기발전을 制限한다는데 있으며, 셋째 유형의 『나—너』關係의 價値는 葛藤간의 鎔解를 통해서 自己成長과 自己發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10) 오만석, 『先入見을 넘어서』, 韓國精神文化院報, 제26호, 1988.10, p.5 再引用.

우리의 북한에 대한 認識은 대개의 경우 위의 첫째 아니면 둘째유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南北韓間의 統一對話에 관한 수많은 提案에도 불구하고 進展이 안되는 것은 위와같은 鎔解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先入見과 이에따른 不信과 誤解 그리고 偏見에 기인하고 있다. 感情에 치우치고 偏向된 선입견이나 그릇된 認識은 또다른 그릇된 인식이나 偏見을 낳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經驗하고 있는 現象이다.

따라서 南北分斷 40년을 지나는 동안 戰後世代가 전체국민의 7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구나 우리 자신이 追求하고 겪고 있는 對北宥和政策 역시 과거의 通念으로는 도저히 合理化될 수 없는 엄청난 質的·構造的인 變化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認識은 統一에의 정지작업의 측면에서 시급히 整理되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現象學的 觀點에서 제기되는 對北認識의 문제는 첫째, 南北韓의 현 사회를 어떤 先入見 없이 政治·社會的 側面에서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分析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蘇聯의 『새로운 思考』에 의한 認識과 發想이 이와 같은 現象學的 態度에서 비롯되었음을 볼때 冷徹한 이성 에 의한 새로운 思考와 態度는 우리 南北韓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分斷意識과 냉전적 思考의 틀에서 벗어나 北韓을 한 민족으로 포용하고 民族成員으로 바라보는 『우리』, 또는 『우리』의 觀點에서 인식하는 일이다. 즉, 韓民族이라는 前提下에서 출발하는 同時에 同質性的 확인과 함께 體制差異에 존재하는 相異點을 상호 인정하는 開放的이고 客觀的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째는 觀點의 相互交換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對南政策이나 行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對南赤化戰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놓여있는 與件들의 변화에 근본적인 焦點이 맞춰야 한다는 認識. 즉 북한의 行爲을 國內外 狀況의 변화에 對應하는 反應的 視角에서 살펴보자는 것이다.

네째, 可能하다면 북한이 처한 狀況속으로 뛰어들어 하나가 됨으로써 그속

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行爲動機를 붙들어 그 動機에 의해 形成되는 정신적 構造의 바탕을 그 發展과 더불어 理解·分析하는 것이다. 現象學에서의 『感情移入』과 『觀點의 相互交換의 定立』, 또는 『參與的 觀察』이 그것이다.

이제 정부에서도 北韓關係資料의 개방을 擴大하기로 결정한 차제에 보다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태도로서 北韓의 리얼리티를 규명하여 베일속에서의 北韓이 아닌 客觀的 實體로서, 그리고 우리의 일부로서의 北韓을 肯定的으로 同胞愛的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등 認識의 地平을 넓혀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나. 北韓研究

方法論을 『學問의 研究技法(technique), 節次(procedure), 手段(instrument), 資料(data) 등과 관련된 방법들을 다루는 기술적인 次元과 그러한 방법들을 뒷받침해주는 바탕, 특히 哲學的, 認識論的 基礎가 되는 메타理論의 차원을 包括하는 것¹¹⁾』으로 보았을 때, 연구자의 立場, 觀點, 그리고 主 研究分野에 따라 接近方法上의 차이는 多樣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共感할 만한 공식적인 研究方法論이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여러가지 접근방법을 특정 研究對象에 얼마나 『適實性』있게 잘 適用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따름이다.

北韓이라는 한 對象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方法論上의 문제는 항상 提起되어 왔다. 몇명 학자들에 의해서 北韓 研究方法論에 대한 直接的 言及이 있었으나, 學問的 課題로 이에 대한 體系的 論議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고 볼 것이다.

方法論上의 多樣性은 인정하면서도 굳이 이를 舉論하는 것은, 北韓이라는 特定社會를 總體的이고 客觀的으로 연구하기 위한 基本적 土臺가 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既存 연구 方法論上의 未洽한 점을 發展的으로 補完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1) 李温竹, [北韓社會 研究—社會學的 接近—],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pp.10-13

그동안 기존 연구의 接近方法들은 대개 외국에서 共產圈 研究에 종사하던 在外學者들, 또는 國內에서 北韓研究를 나름대로 體系化하려 했던 여러 學者들에 의해 수입된 모델에 依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收入理論의 無用論이 아니라 수입모델이든 創造的 모델이든, 현 단계에서는 우선 特定 方法論을 固執하기 보다는 다양한 接近方法에 의한 本格的인 연구가 活性化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指摘해야 할 점은 기존의 接近方法上에 나타나는 偏向들이다.

構造機能主義的 接近法은 한 사회의 固有性和 歷史性を 간과한 채 하나의 독립된 有機體로서 分析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北韓社會와 다른 사회와의 聯關性, 歷史的 發展過程 및 그 本質 등에 관한 역동적인 把握을 어렵게 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全體主義的 接近法은 西歐의 學者들이 스탈린體制와 파시즘體制를 全體主義라고 規定하는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접근법을 취하는 研究들은 극단적 論理로의 발전 가능성을 다분히 內包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우리가 어떤 對象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純粹한 관찰은 存在하지 않으며 觀察者와 研究者의 知識이나 心領 또는 理論등이 觀察과 研究結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選擇에 따라 연구의 內容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事實이다.

그런데 우리가 北韓을 연구하는 데는 많은 制約이 있는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普遍妥當性을 가지고 北韓을 把握할때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에 관한 자료는 무척 規範的·劃一的이고 公式的인 것이 全部이며 北韓의 認識體系는 우리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構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北韓을 分析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現象이나 事件을 액면 그대로 分析한다는 것은 거의 無意味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에 의해 行間을 읽고 裏面의 動機를 추적하여 그 意味類型을 把握하는 해석적 설명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觀察對象의 입장에서 現象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姿勢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의 研究者 또는 觀察者는 자신의 價値(Value) 또는 선입견을 排除하고(現象學的 還元 또는 判斷中止) 상대의 主觀的인 世界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北韓社會의 內的메카니즘에 접근하여 北韓社會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準據 틀로 삼아 그 사회의 性격을 把握하고 해석하는 것¹²⁾이다. 이 접근방법이 現象學的 접근방법이다. 즉, 現象學은 관찰할 수 있는 人間行爲에만 국한시키는 限界를 넘어서 內面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相互主觀性的의 개념으로 說明한다.

現象學에서의 判斷中止·괄호치기·排除등의 技法은 現象의 본질을 선입견없이 색안경을 벗고 그대로 直觀하려는 質的 接近方法이다. 北韓社會의 特殊性을 연구하고 把握하는데 있어서는 判斷을 停止하고 對상을 그 自體로서 理解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研究方法論上的의 접근법은 어떤 價値前提的 접근에서 보다 北韓의 實體를 있는 그대로 直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對北戰略의 적절한 선택을 위한 의미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것은 正確한 分析·客觀的 分析·科學的 分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統一問題의 認識

分斷時代의 國家와 民族問題는 分斷에 의한 형식상 두개 國家의 成立과 民族統一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民族問題가 分斷에 의한 두 국가의 성립에 의해 增幅·擴大되고, 그것이 하나의 民族 內部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의식의 乖離를 增幅·歪曲시키는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民族共同體가 分斷되어 分斷으로 歸結된데 기인한다.¹³⁾

12) 李溫竹, 앞의 책, p.13

13) 박현채, 『分斷時代의 國家와 民族問題』[創作과 批評], 제16권, 1호 1988.봄호 (복간호), p.241.

그러므로 民族統一問題는 民族共同體의 自我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것은 분단이래 相互不信과 심화된 葛藤, 그리고 상대방 체제로의 感情移入의 결핍에 의해 특징지워진 複雜微妙한 難題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다. 이렇듯 복잡한 남북한 統一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現象의 올바른 認識이 필수적이며, 이는 올바른 實踐을 가능케하는 基本問題이다.

現象學은 방법론의 根本化, 즉 還元을 통해 認識過程을 반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既存의 믿음에 대한 懷疑를 통해 存在와 現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하기도 하고 진정한 直觀과 分析 및 記述을 행할 수 있는 기반을 提示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現象學에서의 相互主觀性이나 生活世界라는 개념상의 측면에서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冷戰的 思考方式과 圖式化된 固定觀念, 그리고 統一問題를 지나치게 周邊強大國의 權力關係속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이다.

冷戰的 思考方式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무조건 不純과 異端과 망상이라고 疑心하면서 定罪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남북분단이 冷戰體制의 産物이라는 점, 그리고 韓半島에서 東西 冷戰體制의 침예한 대치상태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 남북한 體制內에서 冷戰的 人間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장려되어 固着化되고, 아울러 南北韓이 상호 競爭的으로 冷戰構造를 強化시켜 온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思考와 認識方法은 南北韓 關係에서 黑白論理에 의한 2분법적 思考, 예컨대 『나는 善이고, 너는 惡이다』 또는 『同志와 敵』등으로 갈라서 보려는 態度를 낳았고, 그 나름대로의 正當한 根據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固定觀念을 형성시키면서 相互 敵對意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冷戰時代는 인류의 理性과 良識에 의해 퇴조하고 새로운 데탕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脫冷戰時代에 冷戰的 思考方式은 구태의연한 것이며, 더구나 舊時代의인 固定觀念으로 分斷狀況을 인식하고 통일문제를 연

구한다면 南北關係의 진전은 물론 統一接近도 무한정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南北韓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위와같은 思考方式이나 固定觀念은 하루속히 지양할 일이다. 남북한간의 先入見들이 지배에 의한 反目과 鬭爭은 상호 共同善을 추구하는 民族共同體 儀式으로 전환될때만 南北關係의 진정한 發展을 기대할 수 있다.¹⁴⁾

한편 우리는 統一問題를 남북한의 相互作用에 의한, 즉 相互主觀的인 生活世界의 건설이라는 觀點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分斷克服을 위한 民族共同體 形成이나 民族統一의 문제를 외부적 規定의 문제로 부터 남북한 상호간의 그리고 남북한 각각의 內的 力動性的의 문제로 把握하는 觀點上的 變化를 摸索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韓半島 분단의 解消와 統一에는 韓半島의 內的要因이 대단히 重要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평범한 眞理를 『強大國 炳症』에 사로잡혀 제대로 把握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南北韓은 『조국 분단의 解消와 統一은 우리손에 달려 있다.』는 認識을 가져야 된다. 분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은 外勢가 아닌 民族勢力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民族主義에 기초하는¹⁵⁾ 것이다. 여기서 南北韓 쌍방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깊이 있고 확실한 自立意識 또는 主體意識이다. 즉 外部世界와 그로부터의 부정적 影響力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底力과 能力을 좀더 확실하게 認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民族의 能力과 통합에 대한 안정되고 確實한 意識을 공유하고 또 평등한 조건에서 외국과 協商할 수 있는 자신의 能力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공유할 수 있게되면 民族共同體의 형성과 統一은 그 실현가능성이 提高될 것이다.

남북한의 民族共同體 형성은 어떤 物理的 現象이나 實現可能性의 차원과

14) 自由評論社編輯部 編, [分斷現實과 統一運動], 自由評論社, 1988, p.58

15) 金學俊, [韓國民族主義의 統一論理], 集文堂, 1983, p.58.

는 다른 問題이다. 그것은 남북한 住民의 합리적 의지나 南北韓 정치 리더쉽의 意志, 나아가 韓民族 全成員의 意識과 意志의 問題이다. 또한 그것은 人間 意志와 關心을 기본 領域으로 하고 있는 雙方의 相互主觀性의 問題이며 南北韓의 통일에 대한 意志와 그 相互作用의 結果로 될 일이다.

라. 統一問題 研究

위와같은 統一問題 認識과 더불어 統一問題 研究에 있어서도 現象學的 접근은 새로운 方法論의 方向轉換을 요구한다.

認識의 問題는 통상 社會科學的 용어로 獨立變數를 찾고, 이들 변수들이 어떻게 論理的으로 또는 因果的으로 從屬變數와 連繫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歸結된다. 이는 곧 認識의 시각, 즉 이론을 選擇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南北韓 葛藤研究에 있어 認識論的 位相은 4대강국의 役割關係를 중심으로 한 제3이미지적 分析視角이 지배적이다.¹⁶⁾ 물론 본단의 歷史的 淵源, 韓半島의 지정학적 位置, 그리고 南北韓 共同의 심도 깊은 강대국과의 同盟政策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認識論的 경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에의 과도한 치중은 現實認識의 奇形性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勢力均衡 決定論(balance of power determinism)은 남북한 葛藤의 부분적 현상을 說明해주지 全體를 일시에 糾明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의 地平을 넓혀 남북한 統一問題를 연구함에 있어 남북한 政治體制의 異質性, 이념적 相馳性, 國內情勢의 力動性, 그리고 政策決定者들의 認知(perception), 誤認(misperception), 定向(orientation)등의 변수들에 대한 研究가 活性化되어야 할 것이다. 즉, 南北韓 關係의 內的 意味를 分析하는데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韓國社會의 내부적 矛盾과 分斷體制는 서로가 서로를 떠받치고 있는 관계

16) 梁性喆 [南北統一理論의 새로운 展開],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p. 297.

에 있다.¹⁷⁾ 따라서 內部矛盾 극복과 分斷矛盾의 극복을 유기적인 全一體로서 동시에 극복하지 않고서는 어느 矛盾도 극복되지 않는다¹⁸⁾, 따라서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유기적인 전일체로서의 두 矛盾의 關係를 과학적으로 確實하게 把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악의 한 전제는 分斷矛盾의 두 주체를 따로따로 떼어서 把握할 것이 아니라 『分斷된 두 개의 社會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民族社會인 것』으로서 把握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위적으로 의제화된 바깥을 民族社會 안으로 內在化시켜서 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는 것이다. 이것은 現象學에서의 相互主觀의 生活世界로서의 南北韓關係 分析接近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統一問題와 남북한 葛藤研究에 하나의 제약으로 되고 있는 연구에 있어서 지나친 價値介入(value-loaded)의 問題이다. 現象學은 가치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만 현상학적 還元은 이러한 價値介入을 부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社會科學의 客觀性보다 價値偏向性에 의거 남북한 갈등에 접근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價値偏向은 현실의 객관적 인식과 그에 따른 合理的 葛藤管理의 代案 導出을 어렵게하고, 窮極的으로는 통일에의 접근을 阻害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南이 北을, 北이 南의 意圖(intentions)를 分析·評價하는데 있어서 한쪽은 平和的이고 다른 쪽은 戰爭·侵略意圖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마니교』式的 善惡兩分的인 思考方式에서 벗어나 衡平의 論理에 입각해서 서로의 政治力量, 軍事力, 社會凝集力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分析·評價하는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의도를 定義하려는 傾向을 키워가야한다.¹⁹⁾

한편, 오늘날 南北關係에 비추어 볼때 雙方의 政策을 分析하는데는 각기의 社會組織·政治組織·기타 여러가지의 개별적인 요인들을 根據로하여 政策擔當 통치집단의 基底圖를 바탕으로 그 背後에 숨어 있는 利害關係에 비추어

17) 朴哲彦 『民族의 進進과 北方政策』, [民族知性], 1989. 4월호 p. 187.

18) 白樂晴, 『民族文學과 抗日民衆의 連帶』, [創作과 批評], 1988. p. 13.

19) 梁性喆, 앞의 책, p. 7.

考慮함이 原則적으로 妥當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결코 既存 眞實體系를 깨고 北韓의 立場을 擁護하려는것은 아니며 民族共同體의 立場과 現象學的 觀點에서 오로지 南北韓 葛藤研究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 固定觀念이나 先入見, 터널視界, 구조적 歪曲 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現象學은 개념으로서 單一性이 아니고 多樣性, 實體가 아니고 關係를 중요시 한다. 多樣性이나 關係는 現象이나 經驗을 그대로 묘사하여 思索하는 것으로 그러한 現象學的 접근을 거친후 一元論이나 實體論의 흔적을 除去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多樣性和 關係性의 概念으로 나갈 수 있다.

결국, 現象學的 태도는 南北韓內의 葛藤이나 關係속에서의 葛藤·騷音·노여움을 정확히 듣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 統一政策 接近

남북韓의 統一問題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여러 統一方案을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라 크게 분류해 보면 制度圈의 統一方案과 制度圈外의 統一方案, 機能主義的·段階論的(점진적) 統一方案과 政治的·軍事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一括主義·急進主義的 통일방안, 國家聯合式 통일방안과 聯邦制 統一方案, 또 政府主導의 統一接近과 民間主導의 統一接近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南北韓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나타나는 一種의 『志操의 倫理』에 각기의 政治行爲를 定向시킨 채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의 문제에 대한 상이한 접근 方法과 서로 兩立할 수 없는 서로의 立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機能主義的·段階的 내지 漸進的 접근법을, 北韓은 包括主義的·急進主義的 접근이라는 이론 틀을 그 背景으로 統一對話政策을 구사²⁰하고 있는 것이다.

20) 安秉俊, 『統一政策의 基調와 課題』, 韓國政治學會 統一問題 특별 심포지움 發表論文, 1989, 2.1-2.2, p. 13.

機能主義은 해결의 용이한 비정치적 문제부터 먼저 解決한 뒤 信賴를 構築하고 마침내 어려운 政治軍事問題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包括主義은 먼저 근본문제라고 하는 政治·軍事問題를 해결하면 그 다음 여타 쉬운 問題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韓國은 최근까지 대체로 機能主義的인 政策을 追求해 왔다. 이 시각은 目的보다는 가용가능한 手段과 道具에 치중하여 對話와 交流를 통하여 非政治的인 문제, 즉 인도주의적인 赤十字, 經濟 및 文化, 스포츠 交流를 강조해 왔다. 이것은 결국 戰爭再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우선 平和를 定着하고 信賴를 構築하는 것을 중시하는 立場이다. 반면에 북한은 一貫性있게 包括主義를 主張해 왔다. 이 시각은 統一이라는 목적을 무엇보다 強調하면서 政治·軍事問題들을 일괄 妥結해야만 그 다음에 赤十字, 經濟, 스포츠, 文化會談이나 교류 협력이 成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冷徹하고 客觀的으로 보면 機能主義的 접근을 계속하면 北韓과 같은 閉鎖社會는 속으로부터 무너질 憂慮가 없지 않다. 반면 政治, 軍事문제가 우선될 때 南韓社會는 크게 동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南北韓體制가 큰 衝擊을 받지 않으려면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한의 분단이 持續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導出되는 사실은 統一을 위한 거대한 歷史의 수레바퀴를 움직임에 있어서 南北韓 양측은 서로에게 최소한도의 利益, 즉 적어도 現在狀態의 維持라고 하는 것을 保障해 주어야 한다²¹⁾는 것이다.

다행히 1988년부터 南北韓은 이 兩 접근시각간에 있어서 다소의 和解가 가능하다는 徵兆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名分上으로는 兩側이 모두 平和統一과 對話, 緊張緩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韓國은 盧대통령의 『7.7宣言』에서 北韓을 民族共同體의 동반자로서 受容할 뜻을 밝혔고, 『10.18 유엔 演說』에서는 北韓이 주장해 온 政治·軍事會談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여러차례

21) 신진, 『韓半島의 和解와 統一을 위한 戰略』, [平和統一], 平和統一研究所, 1988. pp. 101-105.

의 當局者間 政治·軍事會談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經濟 및 기타 기능적인 會談이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開催될 수 있다는데 쌍방이 合意하고 있다. 韓國은 軍縮 및 不可侵宣言도 토의할 의사를 밝혔고 經濟人의 북한방문을 許容했으며 교역과 기타 物的 交流도 장려하고 있다. 적어도 스타일에 있어서 북한은 美軍이 단계적으로 撤收할 수 있다는 平和攻勢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비록 작은 變化이지만 남한은 북한의 包括主義의 정책접근의 일부를 수용했고 북한도 남한의 機能主義의 정책접근의 일부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남북한 양측은 각기 自己體制에 손상이 없는 한 共同利益의 領域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南北韓이 진실로 民族的 차원에서 統一을 指向하여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機能主義와 包括主義 통일대화정책 전략간에 하나의 和解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진실로 이 두 견해간의 和解를 이룰 수 있는 것은 民族主義의 발현이며 그 趨경은 民族共同體를 구성하는 길일 것이다.

한편, 한국내에서의 統一政策의 과제는 먼저 國民의 合意를 실현하여 어떻게 北韓과도 合意를 이루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統一政策의 접근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相互性내지 相互主觀적인 『相對主義』에 의한 政策接近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즉 우리의 통일정책은 北韓과의 合意를 이룰때 그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南北韓의 각기 다른 主觀性的의 共同化에 의한 生活世界로서의 民族共同體를 형성하려 한다면 상대방의 主觀性的의 이해로부터 南北韓이 어떻게 함께 지내면서 統一을 이룩할 것인가를 探究하는 일²²⁾이다.

이러한 접근은 同伴者的의 관계에서 相互 너와 나의 結合으로서의 『우리』라는 觀點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한 政策的 接近은 주변 強大國의 『勢力均衡 決定論』의 부산물 내지는 犧牲物로서의 『바람개비 썰』 정책자

22) 國土統一院, [韓半島 統一環境과 南北韓 平和體制], 1988, p. 188.

세에서 南北韓의 主導的·主體的·主權的 접근적응이라는 『바람잡이 썰』 政策姿勢로의 轉換이 필요하다.

결국, 民族統一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問題이다. 따라서 통일의 相對性은 南北韓의 어느 한쪽 一方的 固執과 策略만으로는 통일이 가능하지 않으며 상대방이라는 實體와 意思가 存在하고 있음을 前提한 것이라고 볼때, 남북한은 可能한 한 상대방의 立場(즉 現象學에서의 觀點의 상호교환과 感情移入을 통한 他我經驗)을 理解하여 이를 前向的으로 상호 受容할때 民族共同體의 형성과 民族統一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VI. 結 論

南北韓 統一問題는 매우 복잡한 性格을 가진 現象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는 여러가지 接近方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점에서 하나의 접근방법은 복잡한 南北關係 現象의 모든 것을 解決할 수 없는 것이며 현상이 일면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있는 여러가지 統一對話 접근방법들은 모두 일면 나름대로의 妥當性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統一方案으로서의 民族共同體의 형성을 위한 접근방법 역시 多樣한 方法論이 제기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現象學的 接近은 단지 民族共同體에 관한 하나의 認識論的 接近方法論으로서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統一問題와 南北關係의 變動狀況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이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接近方法을 要請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급격히 變化·發展하고 있는 分斷狀況은 이제 종전과 다른 民族的 과제와 이를 解決할 수 있는 政策뿐만아니라 統一問題에 대한 새로운 認識論的 方法論의 定立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民族的 과제를 무엇으로 設定하고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哲學的·認識論的 측면에서의 새로운 世

界觀의 問題와 결부된다.

그러나 하나의 世界觀으로서의 思想體系는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哲學的 原理와 認識論的 또는 理論的 뒷받침이 없이는 成立될 수 없다. 統一哲學이나 統合構造 原理로서의 民族共同體의 형성 역시 哲學的·認識論的 理論의 뒷받침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政策이 이론적 提案들로부터 導出되고 이론의 뒷받침을 받을 때 그 過程이나 活動은 확고하게 中心을 잡게 된다는 것이며, 여기에 統一政策의 學術·理論的 體系定立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哲學的·認識論的 方法으로서의 現象學的 관심은 統一問題와 關連한 不完全한 思考方式에 한번쯤은 깊은 省察이 요구됨을 보여 주었고, 나아가 그러한 不完全性을 보완해 보려는 試圖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다분히 理論的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떤 研究에서나 理論에의 지나친 強調은 진리의 發見이나 지식의 蓄積에 障礙가 될 수 있고 이상적이거나 觀念的인 傾向으로 하여 實踐과의 乖離를 가져올 可能性이 없지 않다. 그러나 非理論的(Atheoretical)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統一問題, 특히 새 統一方案의 핵심내용인 民族共同體에 關한 이론적 측면의 탐구노력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때로 지루하고 無意味하게 보이는 理論的 탐구예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南北關係 현상과 統一問題에 關한 正確한 理解와 說明이 가능하게 되며 理論的 뒷받침이나 기반이 없을 때 現象에 대한 올바른 把握과 說明, 그리고 이에 대한 實踐으로서의 적실한 處方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民族共同體의 現象學的 접근이라는 본 研究는 그 意義와 必要性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로하여 問題에 대한 새로운 認識의 地平을 여는데 一助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研究는 民族共同體와 現象學的의 성격, 그리고 연구의 未洽으로 自體內에 많은 問題點과 限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統一問題에의 現象學的의 적용을 위한 보다 엄밀한 努力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本 研究는 統一問題研究, 특히 民族共同體 연구의 한 方法論, 또는 哲學的 原理의 한 유형으로서 現象學的 접근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이 방면에서의 研究와 實踐接近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問題提起를 위한 序說的 試論에 지나지 않는다.

끝으로 本 研究의 새로운 試圖가 民族共同體와 現象學에 대한 이해를 돕고 現象學이 統一問題研究의 接近方法이나 問題解決에의 새로운 認識과 發想에 어떤 示唆點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參 考 文 獻

1. BOOKS

- 姜信澤 외 共著, [政策學], 法文社, 1982
- _____, [社會科學研究的 論理], 博英社, 1981
-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고명식 譯, 時事英語社, 1988
- _____, [南北和解와 民族共同體 形成의 비전], 1988. 12
- _____, [民族共同體 形成을 통한 統一로의 前進], 1989. 5
- _____, [蘇聯의 對內外政策 主要 資料集], 1989
- _____, [韓半島 統一環境과 南北韓 平和體制], 1988.
- _____, [最近의 新데탕트 潮流], 1988.
- 金甲喆 외 共著, [統一論議의 諸問題], 대왕사, 1989.
- 김철민 編, [哲學의 基礎理論], 백산서당, 1984.
- 金學俊, [韓國民族主義의 統一論理], 集文堂, 1983.
- 백기완 외, [共同體文化], 제2집, 共同體, 1984.
- 베르너 마르크스, [現象學], 이길우 譯, 서광사, 1987.
- 변도은, [유럽共同體], 평민사, 1982.
- 브라이언 페이, [社會理論과 政治的 實踐], 조형 譯,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3.
- 閔丙天, [民族統一論], 고려원, 1985.
- 慎鏞廈 編, [共同體 理論], 文學과 知性社, 1985.
- 梁性喆, [南北統一理論의 새로운 展開], 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1989.
- 梁好民 외, [韓國民族主義 理念], 亞細亞政策研究所, 1977.
- 柳錫烈, [南北韓關係論], 正音社, 1985.

- 元亨甲, [現象學과 뉴 마르크시즘], 평범서당, 1985.
- 李圭浩 編著, [社會科學의 方法論], 현암사, 1977.
- 李東熙, [韓民族共同體論], 法文社, 1988.
- 이수은, [政治哲學 認識과 實踐의 統一], 法文社, 1984.
- 李温竹, [北韓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 임병수·강영계, [哲學의 흐름—現代哲學의 傾向], 제일출판사, 1982.
- 李相禺 編, [統一韓國의 새로운 摸索], 搏英社, 1987.
- 自由評論社 編輯部 編, [分斷現實과 統一論理], 自由評論社, 1988.
- 車仁錫, [社會認識論], 民音社, 1982.
- _____, [現代 社會科學方法論], 民音社, 1982.
- _____, [現代政治와 哲學], 평민서당, 1981.
- 파울 안센, [에드문트 훗설의 現象學], 신기현, 배의용 譯, 이문출판사, 1987.
- 韓國現象學會 編, [現象學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83.
- 韓昇助, [統一과 統一哲學], 民族統一研究會, 1988.
- Anderson, James E., Public Policy Making, Holt, Rinhart and Winston, 1979.
- Frock, Fred M., Public Policy,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9.
- Husserl, Edmund,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 An Introduction to Phnomenology Philosopy, ed., David, Evany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2nd, ed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Sussman, Marin B.(ed.) Community Structure and Analysis, New York, Crowell, 1959.
- Simon, Hebert A., Administrative Behavior, The press, Inc., 1976.
- Schutz, Alfred, Collected Papers I, ed., by M. Natansan, The hugue martinus Nijhoff, 1962.

Stein, Maurice, *The Eclipse of Community*, New York, Harper Row, 1964.

2. ARTICLES

- 金達述,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與件造成 方案』, 경원대학교 統一問題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1989. 5. 2.
- 金洛中, 『民族共同體와 民族統一』, [月刊京鄉], 1989. 2.
- 김대환, 『民族共同體의 再發見』, [統一], 1989. 2.
- 김영명, 『國內情勢와 統一與件의 變化』, 國際政治學會 創立 30周年 紀念 學術會議 發表論文, 1989. 6. 2.
- 김태구, 『統一의 方向과 統一國家의 未來像』, [北韓], 1989. 1.
- 박현채, 『南北經濟共同體로 가는 길』, 月刊朝鮮, 1989. 2.
- 신중섭, 『파이어벤드와 科學主義 終焉』, 月刊朝鮮, 1989. 2.
- 梁性喆, 『南北韓關係를 보는 새로운 視角』, 大陸研究所 政策討論會 主題發表論文, 1989. 5. 2.
- 오철호, 『行政學研究를 위한 現象學的 考察』,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 元亨甲, 『아드르노의 批判理論과 관상미학과 世界』, [民族知性], 1989. 4.
- 李洪九, 『未來를 보는 哲學과 姿勢』, 朝鮮日報 21세기 모임 宣言文.
- 장일조, 『北韓研究와 發想의 大轉換』, [月刊京鄉], 1988. 9.
- Bennet, W.L., 『Perception and Cognition : An Information Processing Framework for Politics』, Samuel L. Long(ed.), *The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Vol. I, (New York ; Plenum Press, 1981.
- Easton, David, 『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A.S.P.R, Vol. XYIII, No. 4, Dec. 1969.
- Heap, James L. and Roth, Phillip A., 『Phenomenological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8, June, 1973.

Spiegeberg, H.,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 A Historical Introduction』
(2nd), Vol II, The Hague ; Martinus NijHoff, 1969.

Suk-Ryul Yu, 『Theoretical Approach to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2, No. 4, winter 1988.

3. THE OTHERS

주요 日刊新聞, 週刊·月刊 雜誌, 기타 關聯文件 등

統一의 前段階로서 安保共同體 形成論議

—西獨 社民黨(SPD) 제2의 東方政策

內容檢討를 中心 으로—

曹 龍 男*

目 次

I. 序 論：問題의 提起

III. 安保共同體 形成을 위한
具體的 安保 및 統一政策

II. 統一의 前단계로서 安保
共同體

I. 序 論：問題의 提起

國際環境이 몇년전부터 새로운 南北關係 정립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양측은 關係正常化를 위한 이렇다할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關係개선에 관한 양측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相互敵對感과 불신은 오히려 깊어만 가고 있다. 南北關係 침체의 原因은 歷史的, 理念的, 社會經濟構造의 그리고 權力政治 측면에서 복잡다양하게 存在하나 가장 큰 原因은 자기체제에 대한 스스로 인정작업에 失敗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무릇 東西 體制 競爭에 있어 關係正常化의 전제는 다른체제의 認定인데, 다른체제 認定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의 체제가 안정되고 生命力이 있어야 한다.

*國土統一院 企劃管理官室·行政事務官

자기주민들의 생활조건 改善이라는 목표보다 教條的인 社會主義와 국수적인 民族主義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非民主的, 획일적, 그래서 국제환경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國家形態를 취하는 북한에게는 체제간 접근을 위해 외부에 자신을 露出하는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韓國의 경우도 福祉國家로 가는 문턱에서 分配와 社會正義具現이라는 면에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양측에 존재하는 敵對感과 不信은 體制內的 問題를 덮어두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勝利戰略"(Siegstrategie), "진영론적사고"(Lagermentalität) 로도, 또한 中間段階에서 구체적 접근방안을 결한 통일미래상만을 제시하는 政策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社會體制와 국가질서에 기초한, 새로운 질적인 多元主義 그리고 양측체제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도움이 되는 陣營을 초월한 目標提示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²⁾

이러한 체제를 超越해서 양측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目標로서 주민의 福祉와 平和의 定着을 들 수 있다. 만약 이 두가지 政策目標를 달성하는데 양측이 合意한다면 그것은 곧 상호적대감과 불신의 해소로 民族的 同質性이 유지되고 결국은 統一로 가는 기초를 닦는 셈이다. 반면 統一로 가는 중간단계에 있어서 南·北韓이 이 두가지 目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統一政策은 선언적 차원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고, 결국 통일은 한낱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여 그 의미를 喪失하고 만다.

이제까지 우리는 統一政策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두가지 목표중 남북한 福祉問題解決을 위해 交流協力關係 중심의 민족공동체 형성 논의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平和定着問題에 있어서는 정책적 多樣性에 대한 논의자체를 아예 回避해 버림으로써 좀더 구체적 현실정책 摸索의 관점에서 재야운동권과 북측의 일방적 平和攻勢에 脆弱點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마치 우리측이 韓

1) Kasten Voigt, Von der Lagermentalität zur Systemöffnenden Zusammenarbeit in : Deutschland Archiv 10/88 .p.1056 참조

2) 상계서.

半島 비평화구조의 모든 근원인양 떠들어대는 북측의 국제적 階級鬭爭의 관점에서 '帝國主義 走狗' 논리나 재야운동권의 民族解放 鬭爭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힘의 관계를 무시하고 南北分斷體制要因을 지나치게 평화주의적으로 解釋하는 理想的·浪漫的 平和論理는 책임있는 정치집단에 의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새로운 統一政策의 摸索으로 克服되어져야 한다.

새로운 安保 및 統一政策은 힘에 의한 전쟁방지 상태를 平和라고 해석한 기존 安保概念의 再檢討를 요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韓半島의 군비경쟁은 당연시되는 경직된 安保論理로 귀결되고, 남북간 政治問題 해결도 화해의 수단보다 軍事的手段에 더 의존하여 상호 불신과 敵對感만 더해왔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安保觀에 입각 民族共同體의 최종단계인 정치공동체의 내용을 채워가는 작업을 '安保共同體 形成 論議'라는 제목하에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러한 安保共同體 형성의 조건은 무엇이고, 이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떠한 政策들이 단순한 요구, 希望의 수준을 넘어 政治를 통해 具體化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超強大國간의 신냉전 질서하에서도 對外政策上的 자율성 획득과 유럽의 적극적 平和秩序 창조를 위해 꾸준히 努力해온 서독사민당의 80년대 제2의 東方政策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일 모델은 分斷固着化 측면이 아닌 平和構造 創出的 측면에서 재조명 받아야 한다.

지금 동·서독간에는 自由, 人權, 社會的 正義, 民族問題에 대해 첨예한 이견이 존재하는 반면 平和問題에 대해서는 상당히 意見이 접근되어 있다. 交流協力を 거쳐 군사분야에까지 和解政策의 확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平和問題에 대한 합의 노력이 어떠한 過程을 거쳐 어떤 政策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西獨사민당의 제2의 東方政策의 핵심내용인 '공동안보' 이론 검토를 중심으로 우리의 安保共同體 形成論議를 해보고자 한다.

II. 統一의 전단계로서 安保共同體

1. 統一 完成時까지 南北關係

새로운 安保 및 통일정책을 摸索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前提되어야 할 점들이 몇가지 있다.

첫째, 民族問題解決이라는 통일은 本質적으로 국제적인 역학의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強大國들의 전략적 안보 이해 관계속에서 把握되어져야 한다. 韓半島의 분단은 양대 세계 體制矛盾의 해결이라는 세계사적 과제와 密接한 관계가 있다. 동·서 陣營間의 理念·體制 對立이 지속되는 한, 또한 國際政治 질서가 그 성격상 核武器 차원의 武力階序 關係에 의해 규정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強大國과의 엄청난 힘의 차이를 감안할 때 韓半島에 있어서 평화라는 價値와 統一이라는 가치는 동시에 이룰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독의 경우 基本法에 명시된 평화, 자유, 통일이라는 目標 실현의 우선순위에 대한 論難이 많았으나, 현재까지 합의는 69년부터 東方政策 추진이후 국가정책목표 우선순위가 平和의 保障—自由暢達—民族統一 순서이다.” 韓半島에 있어서도 평화라는 國家的 課題와 統一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따라서 “選擇的 劃一的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競合的, 包括的으로 해결”해야 할것 같다.”

특히 핵전쟁 시대에 民族問題 추구를 위해 體制競爭을 벌이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평화의 유지 및 定着은 統一의 실현에 하나의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꼭 거쳐야할 필수 段階이다.

1) Karl Ernst Jaismann, Einheit-Freiheit-Selbstbestimmung. Frankfurt. 1988. pp 86~87
참조

2) 김명기, 分斷韓國의 평화보장론, 법문사 1988.p.7.

둘째, 통일은 각자 체제내의 問題點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 합의에 의한 “象徴的 架空構造”만의 형성으로는 그 의미가 없다.³⁾

통일상태를 남·북간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제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機能集團 내지 실제적 權力形態의 연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다양한 機能集團과 권력의 제형태들이 변하거나, 勢力이 弱화되는 상태가 아닌 어느 한 편이 완전히 흡수되는 식의 統一構想은 하나의 환상이지 결코 정책이 아니다.⁴⁾

우선 體制 내부에서 제세력간의 均衡을 통해 體制安定을 이룩한 후 체제간의 協力關係 내지는 민족문제 解決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꼭 “體制보다 민족”을 重視하는 急進主義者들이 주장하듯 사회, 경제구조의 既得利益을 보장하기 위한 體制擁護論이 아니라 남·북한이 전후 40여년이 넘게 동·서 갈등의 일반유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치열하게 體制競爭을 해온만큼, 우선 政治的 민주화와 경제적 分配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 多元主義에 입각한 사회질서창조 및 人權의 신장을 체제내에서 해결하는 작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統一摸索에 방해가 되는 구조를 제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선 現象을 인정함으로써만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독일식 分斷 解決 方式의 要諦이기도 하다.⁵⁾

세째, 양측체제 안정을 전제로 새로운 安保政策 摸索에 의한 안보협력관계를 남·北間에 형성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민족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앞에서 論議한 消極的 의미의 平和(전쟁방지) 달성과 체제 내부의 안정화가 달성되어 비 군사적 분야의 交流協力이 확대되더라도, 軍事分野에서 和解를 이루지 못하고 남·북상호간에 平和維持라는 당면과제에 급급하여 外勢를 도입하게 되면 통일의 길은 멀어진다는 말이다. 平和의 개념을 戰爭防止라는 측면에서 強大國으로부터 자율성의 제고라는 쪽으로 새로이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이흥구,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의 역사적, 이념적 모색, 이상우편 統一韓國의 摸索, 박영사 1987.p.175.

4) Johan Galtung, Visionen einer friedlichen Welt, in : Leviathan 31 / 38.p.331 참조

5) Hans Georg Lehmann, Öffnung nach Osten, Bonn 1984.p.122 참조

따라서 韓半島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방안은 오직 現象維持의 측면에서만 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平和共存을 실현할 수 있고 統一環境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方向에서 추진되어야 한다.⁶⁾

위의 전제들을 고려할 때 통일완성시까지의 南北關係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進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南北關係	時代	特徵
敵對關係	冷戰時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陳營論的 思考 ○ 힘에 의한 政策 追求 ○ 唯一代表性 主張 ○ 外交的 할슈타인原則 고수 ○ 修辭的인 統一政策 追求 ○ 軍事的 大量報復戰略
敵對的 協力關係	交流協力時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兩側軍事的 勢力均衡 상태에 到達 ○ 現象의 維持가 目標 ○ 人的 物的 交流 增大 ○ 交流協力에 다른 體制 瓦解를 우려 ○ 分斷固定化 作業試圖 ○ 軍事的 억지 戰略, 柔然反應戰略 ○ 軍事分野에의 和解政策 미확대도 同盟國 핵우산에 의한 軍備競爭 深化 및 핵에 의한 安保 依存關係 深化
安 保 同伴者關係	安保協力時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분야 交流協力事業 지속 ○ 軍事安保分野에 있어서 抑止 理論을 대체할 防禦中心의 새로운 代案이 摸索되고, 實現되는 단계 ○ 平和構造 創出을 위해 상대방을 敵概念에서 同伴者 概念으로 轉換 ○ 安保同盟國間의 關係에서 自律性이 제고되고 民族問題에 관한 論議가 활발해짐
統	—	完 成

6) 김명기, Op.cit. pp.164~165.

2. 安保共同體의 位相

6공화국에 들어서 民族共同體란 개념을 가장 核心으로 삼고 여러가지 통일 정책들을 推進해오고 있으나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아직 具體的인 政策들로 채워지지 않은채 논의 段階에 머무르고 있다. 人的交流를 통한 文化·사회공동체, 물적교류를 통한 經濟共同體 형성 논의는 機能主義的 段階論的 觀點⁷⁾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民族共同體의 최종단계이면서도 이제는 단계적이 아니고 동시에 推進해야만 할 政治共同體 형성 논의⁸⁾는 미래의 상만을 그리고 있을 뿐 그 중간 단계로서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現實的인 政策案을 제시하는 문제에 있어 거의 論難이 없었다.

그것은 勢力均衡에 바탕을 둔 현상유지(Status quo)적 안보개념이 그 效用성과 의미에 있어서 정책 결정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도그마”처럼 받아들여져⁹⁾ 그 安保 개념의 역기능적 측면인 대량 살상무기의 무제한적 競爭과 그 경쟁이 유발한 적대감을 도외시한 채 分斷克服 노력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強大國 중심 전쟁 억지이론의 순기능과 아울러 그 역기능도 이데올로기적 偏向性을 극복한 가운데 科學的으로 동시에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민족 내부에서 共同體 유지를 위한 戰爭防止란 목표에 비중을 두면서도, 소극적 現象維持만을 주장하는 그룹과 強大國의 불관여(Disengagement)의 실현만이 民族共同體 구성의 필수조건이 된다는 그룹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새로운 安保概念이나 정책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7) 機能主義 접근법에 대해서는 다음책 참조. Dieter Nohlen, Piperswörterbuch zur Politik 2,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 1985.p.262.

8) 이흥구 國土統一院長官 관훈클럽 招請演說중, 한국일보 1988.6.10. 참조

9) Karl Ernst Jeismann, Op.cit.p.32.

안보공동체는 政治共同體의 핵심적 요소로서 非政治分野 교류협력사업과 아울러 정치·군사분야에서 새로운 안보 개념 및 정책이 摸索되어지고 戰爭防止的이면서도 消極的·平和維持的(friedenserhaltend) 구조가 아닌 平和統一을 지향하는 積極的·平和創出的(friedensgestaltend) 구조가 형성되는 공동체로 정의해 볼 수 있다.¹⁰⁾

안보공동體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남쪽과 북쪽에서 나누어져 살고있는 韓民族을 대결하는 두개의 별개 개체로서가 아니라 相互協力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이끌어 우리내부의 葛藤과 紛爭을 해결해 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의 平和”이다.¹¹⁾

안보공동체 개념은 아직 定着되지 않은 개념으로 韓國에서는 하영선 교수가 民族共同體 구성을 위해 우선 “군사적으로 남북한 대치상태 狀況속에서 軍備縮小의 段階를 넘어서 韓半島 전체의 생존을 남북한이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이 摸索”되어지는 단계로 “生存共同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¹²⁾

서독의 경우 前 수상 슈미트가 UN연설을 통해 새로운 東西關係를 지칭하는 말로 “安保同伴者關係”(Sicherheitpartnerschaft)라는 표현을 썼고 80년대 사민당의 제2의 동방정책 기본이론으로 “共同安保”(Gemeinsame Sicherhei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東獨에서는 동서독간의 새로운 관계 모델로 “平和를 위한 責任共同體”(Verantwortungsgemeinschaft für Frieden)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¹³⁾

이제 동·서독관계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그 의미하는 바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에 미·소의 핵배치에 대한 대응 安保概念의 모색과 民族自律性 제고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強大國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치인

10) 平和維持的 구조와 平和創出的 구조의 차이는 軍事問題의 정치화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함. Knut Ipsen, Chancen des Friedens, Baden-Baden, 1986, p.53 참조.

11) 이호재, 高大平和研究所創立 개회사중 in ; 이호재편, 韓半島의 평화론, 법문사 1989.p.7.

12) 하영선, 統一過程으로서의 民族共同體形成摸索. in ; 국토통일원 국통조 88-12-96, 民族和解와 民族共同體 형성의 비전. p.42.

13)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설명함.

平和問題를 분단국가 스스로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칭하게 되어 일반국민들간에 상당히 定着되고 있는 듯하다.¹⁴⁾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된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70년대 和解政策 실패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 아직도 交流協力時代 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당장은 이 개념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나, 동·서독이 교류협력시대를 거치면서 겪은 施行錯誤를 줄이고 또 북측의 平和攻勢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강대국 중심의 安保理論이 아닌 分斷國中心의 새로운 안보·통일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安保共同體란 교류협력시대의 적대적 협력 관계를 거쳐 안보협력시대의 安保同伴者關係가 형성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안보공동체에서는 停滯의인 概念으로서 평화의 의미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시키고 民族單一體 意識을 고양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다 積極的으로 모색되어진다.

3. 安保共同體 形成의 條件

가. 敵對的 協力關係에서 安保同伴者 關係로

1) 敵對的 協力關係

歷史的 經驗에 의하면 데탕트 시기에 兩 強大國은 여전히 자기체제의 가치 및 질서를 普遍的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世界的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나, 핵전쟁시대의 인류전멸위기 可能性에 대한 共同認識下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相互 對立에 우선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14) 제도권안의 議會內 鬭爭과 場外鬭爭을 병행하는 녹색당(GRUNEN)을 제외한 서독제도권내 4개 大衆政黨들은 1984.2.9. 議會에서 독일정책(통일정책)과 安保問題에 관해 基本立場을 합의하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바 그 내용에 “平和를 위한 責任共同體”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Rudolf Horst Brocke, Deutschlandpolitische Position des Bundestagspartei Erlangen 1985, p.31. 참조

동서화해의 시기에 兩體制間—물론 중심국가는 미·소 양국이지만—의 제한된 協力關係를 “敵對的 協力”(Antagonistische Kooperation) 關係 라고 부를 수 있다.¹⁵⁾

敵對的 協力關係의 特徵을 W.von Bredow는 이렇게 설명한다.¹⁶⁾

“이런 관계하에서는 양측 모두 어느 한쪽 편의 도움없이 발생된 問題를 만족스럽게 解決할 수 없는 狀況에 직면해 있다. 양측은 협력으로써만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은 체제내적으로 강화된 制限措置를 통해 體制鞏固化를 꾀하며 외적 협력관계와 均衡을 이루려 한다. 따라서 여전히 理想的의 적대관계는 意識的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동·서 갈등에 있어서 和解政策의 전제조건은 결코 상대편 體制의 瓦解나 變質이 아니다.

자신의 체제가 鞏固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상대방과의 協力關係에 입할 수 없는 것이 동·서관계의 가장 큰 特徵이다.

두 체제가 對立關係에 있을 때 한 체제는 자기 체제가 許容할 수 있는 體制維持의 측면에서 수용이 可能한 것만에 대해 응해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데탕트시기의 和解政策은 동·서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手段이 아니고 하나의 “協力(Kooperation)과 體制鞏固化(Abgrenzung)사이의 混合形態(Mischungsform)”이다.¹⁷⁾

이러한 관계하에서는 70년대 동·서 유럽간의 解氷期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非軍事的 분야에서 광범위한 協力關係가 형성이 되나 군사적 분야에서는 첨예한 이념의 對立을 구실로 적대관계가 지속된다.

양독일국가는 동·서 갈등구조의 尖兵으로서 이러한 協力(상대방 체제인정)과 體制鞏固化(자기체제 인정)라는 辨證法的인 관계에 철저하게 따름으

15) Thomas Jager, Neue Wege in der Deutschlandpolitik? Erlagen 1988, p.41.

16) Wiclfred von Bredow, Vom Antagonismus zur Konvergenz? Frankfurt am Main 1972, p.140.

17) Wichard Woyke, Handwörterbuch International politik 3.Auf. Opladen 1986, p.116 참조.

로써 敵對的 協力關係에 이를 수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冷戰時代를 청산하고 交流協力時代에 들어선 것이다.

현재 敵對的 協力關係로 표현되는 독일분단 緩和모델의 본질은 2개의 獨逸 國家化가 유럽평화의 구조적 要因이 된다는데 있다.¹⁸⁾

東西 和解는 안정적인 勢力均衡關係에 기인하는 반면 독일의 분할 자체는 東西 세력균형에 本質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獨逸에 있어서 민족문제 해결이라는 統一問題는 늘 평화문제에 從屬될 수 밖에 없다.¹⁹⁾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敵對的 協力' 관계를 창출하지 못하고 모든 분야에서 '敵對' 關係만을 지속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를 몇번의 會談을 통해 이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國際的으로도 2개의 국가성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敵對關係를 비군사적인 교류협력분야에서마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북한은 서로의 認定을 위해 서로 각자만이 내렸던 인간, 진보, 自由와 民主化 등에 대한 解釋과 定義를 서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社會·經濟的 構造上 또 이념적으로 내재하는 敵意에도 불구하고 핵전쟁 시대에 스스로의 生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敵對關係로만 표현되는 서로의 관계를 協力과 共存關係로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것은 Egon Bahr가 일찌기 東方政策을 기획할 때 제안한 바 있는 “전부가 아니면 無라는 식의 政策” 대신에 民族問題 解決을 위해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 “漸進的 段階를 통한 政策”(Politik der Kleinen Schritte) 혹은 “相互 접근을 통한 變革”(Wandel durch Annäherung) 정책의 추진이 南北關係에도 요망된다.²⁰⁾

이 단계에서는 實質的 분단고통 緩和를 위해 자유왕래 실현 등 인도적인 차원의 각종 措置와 국민의 삶의 質을 높이는 福祉向上을 위해 각종 人的

18) Peter Bender, Das Ende des Ideologischen Zeitalter, Darmstadt 1981, p.229. 참조

19) 상계서, p.224.

20) Egon Bahr 1963.7.15 Tutzinger 연설. 이곳에서 처음으로 西獨 東方政策의 基本構想이 발표되었음. Hans Georg Lehmann, op.cit, pp.122~123 참조.

物的交流가 행해져 窮極的으로는 민족의 본질적 요소인 文化民族的 요소나 공동체 의식이 分斷狀況에도 해체되지 않고 유지된다.

2) 안보동반자 관계

1978. 5 당시 西獨 수상 슈미트는 軍縮을 위한 UN 特別總會에서 그때까지 NATO의 同盟國과의 관계에서만 적용해 써 오던 안보동반자관계(Sicherheitspartnerschaft) 개념을 처음으로 東·西 關係에 援用하여 사용하였다.²¹⁾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安보同伴者 關係다. 그 개념은 동서진영 어느 편도 獨自的으로 자기 安보와 平和를 保障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슈미트는 이 개념 充足의 基本條件으로서 政治的·軍事戰略的 세력균형, 和解政策의 지속적 추구, 政治的·軍事的 行動의 상호예측성제고 등을 들었다.²²⁾

이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게 된 背景은 동·서간의 交流協力 시대의 적대적 協力關係가 군사적 分野에까지 和解로 擴散되지 않아 軍備競爭과 그에 따른 安보威脅 인지에 따른 敵對感이 형성되어 양측이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된 데 있다.

이러한 상태의 지속은 軍備는 증강되지만 안보는 오히려 威脅받는 상태가 되고, 平和는 곧 戰爭을 준비하는 狀況으로 인식되고 만다. 더구나 발달된 무기공학을 고려할 때 핵무기 增強競爭은 곧 人類全滅을 의미하게까지 되었다.

非軍事分野 交流協力에 상응하지 않는 軍事分野에 있어서의 軍비증강에 의한 상호 억지전략의 고수 및 적대관계 持續은 平和秩序 창출에 실패하고 있으며 交流協力分野 化解정책마저도 威脅하게 된 것이 유럽에서 70년 후반 부터 밀어닥친 新冷戰 秩序의 원인이다.

21) 슈미트의 軍縮에 관한 유엔특별총회 演說중 (1978.5.25.), in : Egon Bahr / Dieter Lutz, Gemeinsame Sicherheit. Idee und Konzept Baden-Baden 1986, p.29 인용.

22) Dieter Lutz, Lexikon Rustung, Frieden, Sicherheit Munchen 1987, p.292 참조.

안보동반자 관계하에서는 이러한 經驗을 바탕으로 동·서 갈등을 “더 이상 2개의 相異한 社會體制의 대립과 利害 相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根本葛藤을 超越하는 인류의 生存과 전멸에 관한 問題”로 파악하게 된다.²³⁾

남·북한 관계도 이러한 생존에 관한 客觀的 共同理解라는 측면에서 출발할 때만 相異한 社會제도 및 體制間에 安定的인 安保 및 평화질서를 확보받을 수 있다.

핵전쟁시대에 南·北韓은 결국 양측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서로 안보동반자 關係로 서로를 묶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安保同業者 關係는 교류협력이 相互 利益과 공동영역 創造를 위해 계속되고 軍事分野의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 政治的 會談이 한쪽편만의 安保를 위해서가 아니라 共同的 安保를 위해 推進될 것을 요구한다.

이 관계하에서는 더이상 平和가 소극적 의미의 단순한 戰爭 不在 狀態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積極的 平和秩序 구축을 위한 軍縮協商이 進전되고 이제까지 軍備競爭의 주요 동인으로 간주돼 온 ‘힘에 의한 억지전략’ 安保概念을 극복할 ‘純粹한 방어위주’의 安保概念이 등장한다.

交流協力時代의 ‘적대적 협력관계’를 共同安保 이익을 위해 ‘우호적 협력관계’로 轉換시킬 수 있는 구조적 平和創出 작업은 그러나 양체제간의 근본적인 理念上의 차이를 결코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이념상의 대립이 남·북관계에 具體的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平和指向教育이 강화되고 상대방으로부터 安保威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인지모형을 상호 수정해 軍事分野에서 적대감이 줄어들도록 한다.

동·서독 학자들은 더이상 “理念上 대립이 相互信賴를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體制間 協力狀態를 “理性的 聯合”(Koalition der Vernunft) 혹은 共同安保(Gemeinsame Sicerheit)라고 불렀다.²⁴⁾

23) Marx Schmidt, Die politische Entspannung, Konsequenzen für Neues Denken und Handeln. in : Horst Ehmke 20 Jahre Ostpolitik Bonn 1986, pp.145~146 인용.

24) Egon Bahr, op. cit, p.246 참조.

이러한 理性間의 聯合이 實질히 要求되는 理由로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자처하는 그 어느 한 體制만의 主張으로는 核전쟁시대의 相互全滅의 위협성을 견어치울 수 없기 때문이다.

북측에 相異한 體制가 존재하고 있다는 現實에 대한 多角的인 인정작업은 韓半島에서 안보문제 해결시 체제를 超越한 協力을 할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인 바, 이는 또한 우리가 느끼는 安保威脅과 같은 정도로 그들이 느끼는 安保威脅도 認定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²⁵⁾

정치적 和解宣言은 반드시 實질적인 軍備縮小 協商에서 합의되고, 그것이 信賴할만한 事後 檢證措置에 의해 擔保될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 安保 동반者 관계하에서는 기존의 안보이론, 軍事戰略의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양측의 軍事戰略은 상대방에 대해서 軍事的 위협수단을 動員하여 平和를 확보하려 한다.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만 推進되는 안보는 費用面에서 문제가 되고 끊임없이 戰爭危險 요인을 안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으로부터 威脅을 부추기게 된다.

안보동반자 關係하에서 남·북한은 자기 安保利害를 경시함이 없이 가능하면 安保問題를 서로 상대방과의 協力を 통해 解決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安保協力關係를 위해 다음 인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假想의 敵을 적의 立場에서 그의 目標와 利害關係와 動機面에서 理解하려고 하는 努力은 결코 祖國에 대한 背反이 아니라 理性的의 표현이다. 동·서 關係에 있어서 體制 나름대로 正當하다고 생각하는 政治目標 설정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 더이상 ‘正義의 戰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적에 대해 이해를 하려는 努力은 平和創出의 전제조건이 된다.

25) 安保 동반者 關係 設定의 필수조건으로서 Karsten Voigt는 ① 상대방 安保에 대한 考慮 ② 자기주장과 같은 정도의 자기에 대한 상대방 권리주장 認定 ③ 상대방 同盟關係 인정을 들고 있다.

Kasten Voigt, Die Funktion von NATO und WTO, in : Die Neue Gesellschaft, Heft. 2/1985, p.138.

바뀌서 이러한 理解努力이 결핍되어 있다면 건설적 平和政策에의 능력은 마비된다.”²⁶⁾

나. 北韓 平和概念의 國際的 階級鬭爭性 克服

북한이 주장하는 ‘體制보다 民族’이란 命題下에 外勢의 철수를 포함한 大幅的인 軍縮으로 統一을 앞당겨야 이땅에 진정한 平和가 실현될 수 있다는 統一優先論은 國際적인 階級鬭爭論的 觀點에서 근본적인 이념·체제논쟁의 항구화와 제3세계론적 觀點에서 民族·民衆解放 鬭爭의 추구로 나타난다.²⁷⁾

이러한 “歷史的 發展法則”의 貫徹을 위한 世界變革運動論的 視角에서의 평화추구는 戰鬭的·革命的인 手段을 政治目的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構造的 暴力”에 對應할 “革命的 暴力”의 정당화란 형태를 띠게 되어 “構造的 暴力과 革命的 暴力 衝突의 惡循環”이 계속된다.²⁸⁾

이는 결국 수단의 排他性, 목적의 근본적 성격 때문에 平和創出을 위해 既存平和를 깨는 作業을 시도함으로써 現實的인 國際力學關係를 고려해 볼 때 強大國의 介入을 불러일으켜 消極的인 의미에서 戰爭없는 狀態로 표현되는 ‘平和’마저 維持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북한인 路線은 기본적으로 社會主義 平和觀에서 유래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전쟁이란 階級社會的 屬性의 반영물이다.

階級社會에서는 소극적의미의 평화인 “非戰爭狀態”도 “다른 국가와 민족을 非戰爭의 手段으로 억누르기 위해 새로운 戰爭을 준비하고 도모하는 전쟁과 戰爭사이의 休止”에 불과하다.²⁹⁾

진정한 平和는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資本과 勞動간의 상호갈등이 拂拭되고 人間에 의한 人間の 支配가 剔決된 狀態 즉 無階級 社會를 말한다.³⁰⁾

26) Karsten Voigt, Von der Abschreckung zur Sicherheitspartnerschaft, in : Ekkerhart Krippendorff, zur Kritik des Palme Berichts, Berlin 1983, p.34.

27) 유근일, 民主화와 平和. in : 이호재, op.cit., p.283 참조.

28) 상계서, p.284 참조.

29) Philosophische Wörterbuch 11. Bd 1 Leipzig 1974, p.429.

30) Dietmar Schoßler, Militar und Politik Koblenz, 1982, p.74 참조.

따라서 전세계에서 社會主義의 승리로서 戰爭發生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民族的 요인들이 제거될 때 “永遠한 平和”는 달성된다고 한다.³¹⁾ 階級鬭爭이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서 階級社會가 존속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平和란 不可能하다. 이런 관점에서 階級鬭爭이나 革命은 궁극적인 平和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등장한다.

위의 平和관으로부터 일반적인 社會主義圈, 특히 蘇聯版 和解政策으로서 平和共存論은 후르시초프 이래 브레즈네프시대까지 “Janus의 두얼굴”³²⁾에 비유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련의 平和共存 概念은 戰爭과 平和사이의 明白한 區分을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제3세계 民族解放戰爭 혹은 一國內에 있어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鬭爭인 人民民主主義 革命鬭爭과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의한 무력 개입 등과 같은 전쟁은 ‘正義의 戰爭’으로서 平和共存概念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

위의 전쟁들은 서방제국들에게 社會主義圈의 세력확장을 위해 국제관계를 變化시키려는 의도로 把握되어 國際的인 戰爭으로 비화되어 온 것이 전후 제3세계에서 미·소간의 전쟁사다.³³⁾

둘째로 平和共存概念은 국가간의 葛藤에만 適用되고 이념투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葛藤을 계속 증폭시킨다.³⁴⁾

和解는 국가간 뿐만 아니라 社會的 그리고 사회내에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成就되어야 한다. 社會主義와 資本主義간 적대관계 청산 불가능에 대한 명제가 이 소련 平和共存概念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新思考’를 통해 이러한 對外政策을 변경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의심할 것 없이 고르바초프이후 蘇聯에는 클라우제비츠의 命題에 따른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超強大國간의 전쟁은 결코 이제 政治的 목적

31) 상계서.

32) 상계서, p.71.

33) Wichard Woyke, op.cit., p.120 참조.

34) Dietmar Schoßler, op. cit., p.71 참조.

의貫徹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支配的이다.³⁵⁾

고르바초프는 그의 책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이제 平和共存은 더 이상 하나의 숨을 돌리기 위한 休止期間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 階級鬭爭의 形態를 벗어난 가운데 무한정 持續되어야 할 政策”이라고 표현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政治的 선언적 의미에서의 平和共存概念의 수정이 현재 서방 軍축·평화공세를 통해 既存 軍事 Doktrin의 방어중심으로의 변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西方戰略家들에 의하면 이것이 궁극적인 군사기술상 武器體系 공격성이 완전히 포기되고 軍事訓練에서 서방측을 적이 아니라 진정한 安保同伴者로 보게 될지는 아직 未知數라고 한다.³⁷⁾

북한은 고르바초프에 의해 수정되기 시작한 이러한 社會主義 宗主國 平和共存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拒否하고 있다.

金日成은 그의 교시에서 “戰爭은 그 본질에 있어서 特別한 暴力手段에 의한 어떤 階級 政策의 延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³⁸⁾

즉, 전쟁은 階級社會의 산물이고 전쟁의 根源은 搾取階級과 搾取制度의 유지를 바라는 帝國主義 勢力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勞動階級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搾取階級이 강요하는 不正義의 戰爭에 正義의 戰爭, 革命戰爭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다.³⁹⁾

金日成은 戰爭과 平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獨立도 좋고 革命도 좋지만 平和가 더 귀중하다고 하면서 帝國主義와의 鬭爭을 회피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帝國主義와 무원칙한 妥協을 추구하는 路線이 그의 侵略策動을 조장하며 전쟁의 威脅을 증대시킬 뿐이라는 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노예적 굴종이 가져다주는 平和는 平和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反對하여 鬭爭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抑壓者들의 統治를 뒤엎지 않

35) Deutschland Archiv 88년 9월호, p.964.

36) Michael Gorbatschow, Perestrojka München 1987, p.187.

37) Osteuropa 88년 6월호, p.446 참조.

38) 北韓哲學辭典, 사회과학출판사 1985, p.448.

39) 상계서.

保利害가 심히 毀損된다고 판단될 때 또 그 지역의 정부가 親蘇의 權力을 잃으려고 할 때 軍事力으로 개입해 왔다”라고 이야기 한다.⁴²⁾

또 실제 2차대전 이후 紛爭과 戰爭에 관한 한 經驗的 연구에 의하면 170여 건의 具體的인 군사적 衝突중에서 94건이 직접적으로 強大國이 개입해 왔음이 지적되고 있다.⁴³⁾

특이한 것은 2차대전후 크고 작은 戰爭들이 미국과 소련, 동구와 서구가 아닌 제3세계에서 대리전 형식으로 나타나 늘 제3세계권이 양측 큰 強大國의 전쟁터가 되어 온 점을 指摘할 수 있다.

70년대 동·서간의 和解는 유럽에 限定되어 이루어졌고 아직 제3세계, 특히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韓半島에는 그 影響이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또 韓半島에서 다음 전쟁이 각 強大國에게 死活的 상관지역으로 인식되어 핵전쟁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면, 양측의 國際關係에 있어 재량 확대 범위가 南北關係 내부문제로 현저히 제한받고 있는 狀況에서 우선 소극적 平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維持되어야 한다.

그러나 4대 주변강국의 韓半島에 대한 전략적 利害關係를 고려한 분단의 合法化라는 國際政治的 논리가 韓半島 平和와 韓半島 문제의 해결에 있어 ‘民族內部性’의 증대와 ‘自律性의 提高’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분단의 固着化를 추구하는 이상 통일의 전단계로서의 平和의 意味는 상실된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측이 平和의 概念을 消極的·戰爭抑制的 측면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남북간 武力에 의한 統一은 물론이고 平和的 統一 또한 당장 어려운 상태에서 平和統一이 달성되는 순간까지 選擇할 수 있는 方案은 ‘現象維持’와 ‘平和的 共存’ 두가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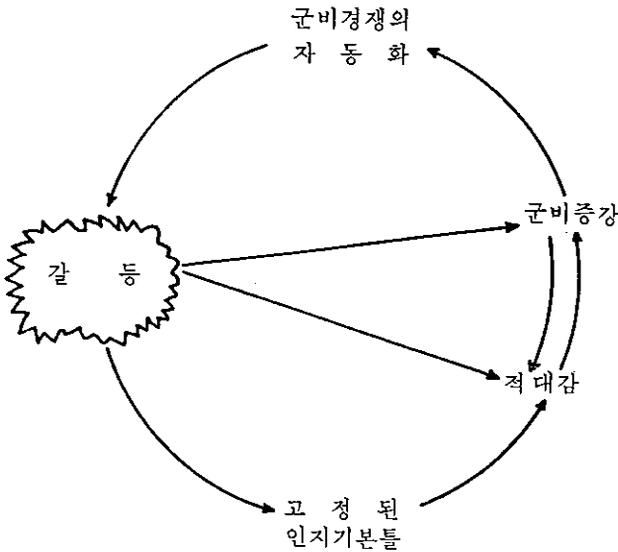
전자는 북한을 理念, 體制, 政策의 도전자 또는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存在 자체가 곧 威脅이 되는 상극적 敵對關係 속에서, 오로지 평화의 유지는

42) Johan Galtung, Es gibt Alternativen, Opladen 1984, p.59.

43) Kende / Gantzel / Fabig, Der Krieg seit dem 2. Weltkrieg. in : DGFK Heft, 16, p.21 ~37 참조.

강력한 軍事力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불안한 상태를 平和로 간주한다.

문제는 이 평화유지를 위한 軍備增強에 있다. 이러한 전쟁의 방지라는 消極的 측면에만 치중하는 安保觀은 아래 도표와 같이 “北韓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인지 기본틀(Wahrnehmungsmuster)이 固定되어 있어서 사소한 衝突에도 의심, 敵對感이 증폭되고 바로 擴大—邊到의 軍비증강으로 이어지는 惡循環的 “安保 딜레마”(Sicherheit Dilemma)에 빠질 수 밖에 없다.⁴⁴⁾



이러한 敵對感을 증폭시키고 있는 일반국민 및 政策決定者들에 내재된 인지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은 過程을 통해 형성된다.⁴⁵⁾

- 北韓의 역사적인 過誤를 중시, 이전의 行動樣式과 맞지않는 정보는 意識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北側 軍事, 外交政策의 지속적인 要素만 강조하고 變化촉진 要素 및 變化의 조짐에 대해서는 輕視한다.

44) Daniel Frei, Feindbilder und Abrüstung Munchen 1985. p. 125.

45) 상계서, p. 110~121 참조.

- 북한의 行動을 늘 “最惡의 狀態”(worst-case) 가정하에 평가한다.
- 북한의 特性과 行動에 대해 “黑白論理的 二分法”에 의해 판단한다.
- 북측과의 協商去來에 있어 “제로섬 思考”(Null-Summen-Denken)를 한다.
- 安保分野에 있어 緊張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대체정책에 대해 전혀 考慮를 하지 않는다.
- 북측도 우리측에 대해서 安保의 威脅을 느끼고 있다는 相互性의 原則을 부정한다.
- ‘힘에 의한 政治’만이 好戰的인 적에 대한 최선의 代案이라는 생각이 지배한다.

이러한 消極의 概念下의 평화유지를 위한 軍備增強은 “戰爭 없는 狀態”하의 戰爭準備로 이해되어 평화는 곧 “다른 手段에 의한 戰爭”이라는 “組織化된 非平和 狀態”⁴⁶⁾를 항구화시켜 끊임없는 經濟的 부담과 社會保障分野에의 투자경시 및 극민적 정서면에 있어서 상시 준비태세의 強調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現象維持的·消極的 평화의 기초위에 “積極的 平和”⁴⁷⁾의 개념을 포괄하는 “平和 創出的” 平和共存 概念이 남북간에 새로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平和共存 개념은 어떻게 摸索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장에서 安保 同伴者關係에 맞는 새로운 안보개념의 創出을 위해 서독 사민당의 제2의 東方政策 핵심인 共同安保理論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適用可能性과 아울러 그 限界點을 알아보기로 하자.

46) 이삼열, 批判的 平和研究란 무엇인가? in : 이호재, op.cit. p.147 참조

47) 여기서 적극적 平和란 갈통(Galtung)의 定義에 따라 構造的 暴力이 제거된 상태를 말함. Dieter Lutz, op.cit.p.112 참조

Ⅲ. 安保共同體 形成을 위한 具體的 安保 및 統一政策

1. 西獨 社民黨의 제2의 東方政策 핵심 내용인 ‘共同安保’ 理論 檢討

가. 理論成立 背景

70년대 유럽의 和解무드는 冷戰時代를 거치면서 미·소 양 강대국이 상호 상대편 同盟體制를 더 이상 힘으로써 制壓할 수 없고, 양측이 해외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介入으로 인해 歪曲된 국내 사회, 經濟 구조의 改革要求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共有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軍事戰略적으로 양측 모두가 제2의 핵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실질적인 均衡狀態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和解政策의 본질은 상호 現象維持 상태를 존중하고 비 군사적 경쟁수단을 사용 각자의 利害와 目標을 조정하여 합의 可能的 共通點을 찾아내는데 있다.”

즉 和解政策의 목표는 H.Kissinger가 적절히 표현하듯 “競爭의 現實을 共存이란 絶對命題에 一致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和解政策의 계속적 진행은 70년대 후반부터 난관에 逢着한다. 그것은 和解政策의 정수라 할 수 있는 軍備統制 協商이 한계에 부딪혀 상호 不信이 깊어졌기 때문이었다. 政治的 宣言에 걸맞는 安保分野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合意 可能的 共通點을 찾아내지 못한 양 強大國은 급기야 유럽 내 핵배치로 맞선다.

언제 發生할지도 모를 핵전쟁의 最前方에 서게된 西獨내에서는 평화운동(Friedensbewegung) 그룹과 愛國的 左派(Patriotische Linke) 그룹을 중심으로

1) Hans Wassermund, Grundzuge der Weltpolitik, Munchen 1985p.173 참조

2) Henry Kissinger의 1974 상원의교분과위원회 발언중, in : Europa-Archiv Nr 20. 1974 p.D463.

反核運動展開와 기존 同盟關係를 안보중속관계로 파악하려는 움직임 등이 나타나 制度政治圈에 獨逸問題 재조명에의 하나의 충격을 주게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존 制度圈 安保政策과 다른 새로운 代替(Alternative) 安保政策의 특징은 다음 세가지로 열거될 수 있다. 첫째, 戰爭抑止理論(Abschreckungs doktrin) 논리에서 歸結된 강화된 軍備와 核武器는 국민안전을 보장하기는 커녕 원하지 않는 戰爭에 말려들게 한다고 한다.³⁾

따라서 勢力均衡論에 입각한 기존의 모든 軍事戰略은 폐기되고 안보를 이룩하는 방법으로 이 그룹은 軍事武器에 의한 安保가 아닌 '사회적 방위'(Soziale Verteidigung)을 主張한다.

둘째로 새로운 安保政策은 양 강대국(미·소)을 그들 對外政策面에서 동시에 같은 정도로 膨脹的이고 攻撃的이라고 판단한다.⁴⁾

따라서 NATO와는 더이상 運命共同體가 되서는 안되고 西獨이 모든 불럭에서 脫皮해야 하고 오스트리아식의 中立化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기존의 安保政策이 환경과피와 經濟資源 고갈등의 문제를 야기해 국민적 정당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安保政策決定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아래로부터의 安保"(Sicherheit von unten)를 주장한다.⁵⁾

이러한 좌파들의 平和問題解決을 통한 民族問題 동시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急進的, 현상변경적 새로운 安保構想에 대해 70년대 和解政策을 주도했고 14년간 집권경험이 있는 제도권 政黨으로서 사민당은 충격적인 주장들을 제도권안으로 흡수, 既存에 이룩한 東歐圈과의 協力關係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구와의 同盟關係도 유지하는 方向에서 새로운 對應政策을 모색하는바, 그 결과 제2의 東方政策 추진을 모색하게 된다.

제2의 東方政策의 특징은 제1의 東方政策이 이룩하지 못한 핵전쟁의 문제와 平和秩序 창조와 관련한 새로운 代案을 強大國 중심이 아닌 분단국 중심,

3) Wolfgang Vogt, Streitfall Frieden, Heidelberg 1984 p.16 참조.

4) 상계서 p.26 참조.

5) Wolfgang Vogt, Sicherheitpolitik und Streitkräfte in der Legitimationskrise, Baden-Baden 1982.p.117 참조.

더 나아가 유럽중심으로 摸索하는데 있다. 이 代案摸索過程에서 안보정책 분야의 새로운 政治的 概念들로 등장한 것이 ‘共同安保’(Gemeinsame Sicherheit) 이론이다.

Egon Bahr는 핵전쟁시대의 새로운 安保理論 모색을 위한, 고인이 된 스웨덴 전 수상 팔메가 주도했던 팔메위원회(Palme K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共同安保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⁶⁾

“兩 陣營의 이념간의 차이는 도저히 共通點을 찾을 수 없고 수렴할 수 없는 信念과 世界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그 차이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現實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핵전쟁시대에 있어서 ‘信念에 기인한 戰爭’(Glaubenskrieg)은 모두에게 자살일 뿐이다. 따라서 世界平和의 유지가 각자 理念의 貫徹에 우선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共同生存이란 목표는 ‘共同安保’를 요구한다.

상호확증 파괴가 가능한 핵전쟁시대에 안보는 더 이상 敵對者를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 없고 그 敵對者와 함께만이 달성될 수 있다. ‘共同安保’는 적대자를 同伴者로 받아들이는 發想의 轉換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적은 폭력의 사용으로 더 이상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나. 共同安保의 內容

현재 NATO를 비롯한 西歐陣營의 기본 군사독트린은 戰爭抑止(Abschreckung, deterrence) 理論이다. 공동안보이론은 이 억지이론의 문제점을 解決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抑止理論과 共同安保理論은 공히 이론적으로는 戰爭防止의 독트린이다. 즉 “유사시 軍事的 行動의 목표는 戰爭을 遂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전에 억지수단을 통해 防止하고 또 전쟁이 최소한 水準에서 확대되지 않고 손실을

6) Egon Bahr / Dieter Lutz, Gemeinsame Sicherheit Idee und Konzept, Baden-Baden 1986. p.32.

가장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쟁 독트린이다."⁷⁾

이러한 두 개념간의 존재하는 共通點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存在한다.

역지이론은 이제까지 전후 유럽에서 遂行한 전쟁의 防止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4가지 점에서 問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① 勢力均衡狀態 設定 問題

양측이 다량의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狀況에서 양측이 팽팽한 실질적인 제2의 攻擊能力을 보유하고 있을 때 勢力均衡狀態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確保할 수 있는 제2의 攻擊能力 算定은 心理的, 政治的 要素가 介在되어 있어 오히려 相互 疑心을 增幅시키는 역할만 할 우려가 있다.

② 信賴의 딜레마

역지이론이 提示하듯 만약 상대방이 이쪽의 軍事手段에 의해 충분히 위협을 느끼게 하려면 武器體系의 使用가능성이 前提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기공학의 發達로 인한 可恐할 파괴력의 결과 그 使用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면 역지이론의 신뢰도도 떨어져 유사시 억지효과가 달성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다.

③ 戰爭擴散의 危險問題

역지체계가 安定的으로 그 기능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적의 다양한 戰爭挑發 形態(핵전쟁과 아울러 재래식전쟁, 게릴라전쟁)의 각 수준에 맞는 抑止手段을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多樣한 억제 수단 구비요구는 軍備競爭의 커다란 요인으로 作用하여 역지체계의 安定을 무너뜨린다.

④ 相互情報交換 不在問題

7) Dieter Lutz, Lexikon Rustung, Frieden, Sicherheit München 1987 p.24.

8) Dieter Nohlen, Piperswörterbuch 5 Internationale Beziehungen München 1984 pp. 20-22 요약

역지이론에 의하면 양측관계는 相互情報交換이 부족해 끊임없이 잠재적 적대자를 實際의인 敵으로 간주하는 게임이론의 '囚人의 모델'로 표현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最惡의 상태'(worst-case)를 念頭에 두게되어 協力보다 비합리적 威脅을 선호하게 된다.

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역지이론은 現實의인 戰爭遂行能力 없이는 결코 그 기능이 發揮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戰爭遂行能力提高를 통해 전쟁방지를 이룩하는 內的 矛盾關係에 빠지게 된다. 공동안보는 이러한 역지전략의 不安定性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및 공격용 在來武器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廢棄하고 낮은 수준에서 재래식 수단의 安定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안보는 첫째, 관계국 모두의 安全을 위해 전쟁을 공동으로 방지하는 概念으로 상대방에 대한 報復措置를 전제로 한 역지전략 개념과는 다르다.

둘째, 共同安보는 상호 공존위에 설정된 概念으로 敵對關係위에 설정된 概念과 달리 공격성의 폐기를 통한 순수한 防禦爲主 조치에 의한 安保를 뜻한다.

共同安보가 안보정책적 概念이라면 이러한 개념의 內容을 채우는 군사적, 하위전략 개념으로 사민당이 主張하는 것이 '構造的 非攻撃性'(Strukturelle Nichtsangriffsfähigkeit) 이다. 共同安보가 하나의 새로운 개념틀이라면 '구조적 비공격성'은 하나의 새로운 대체 軍事戰略 수단이다.⁹⁾

역지전략하에서는 상대편에게 '豫測할 수 없는 報復危險'을 인지시키기 위해 防禦能力과 함께 攻擊能力과 보복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비공격성 개념하에서는 攻擊的인 要素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構造的 非攻撃性'은 만약 軍事力이 조직, 무기체계, 전략면에서 군사적 攻擊을 의식적으로 許容하지 않아 純粹하게 군사적 抑制와 효과적인 방어에만 그 목표가 주어질때 存在한다고 한다.¹⁰⁾

'구조적 비공격성'은 相互疑心構造와 증강일변도의 軍備경쟁을 피하기 위

9) Dieter Lutz, Teilelement einer Politischen Konzeption, Funktion der Strukturelle Nichts angriffsfähigkeit, in : Die Neue Gesellschaft 6/88 p.548 참조.

10) Egon Bahr / Dieter Lutz, Gemeinsame Sicherheit Konvention-elle Stabilität, München 1988 p.32 참조.

해 공격적인 在來式武器와 핵수단의 排除를 통해 아주 낮은 수준에서 “在來式 戰力 安定”(Konventionelle Stabilität)을 통해 달성된다.¹¹⁾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危險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억지 전략과는 달리 공격력의 確保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시—점령시 치를 代價를 순수한 방어위주 防衛戰略(Abhaltestrategie)으로 크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¹²⁾

다른 安保理論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본 共同保安理論의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¹³⁾

- ① 共同安保는 戰爭防止 概念이다.
- ② 共同安保는 안보분야에 있어 敵對關係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나 理性的인 共存과 戰爭防止라는 필요성에 의해 理論이 구성되어 있다.
- ③ 3가지 점에 있어 敵對者와의 共同性을 강조한다. : 共同으로 느끼는 戰爭威脅性, 共同의 安保理解,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過程上的 공동성
- ④ 공동안보는 理想的, 체제 내재적 利害相反과 갈등이 미래에도 存續되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相互競爭이 군사적 수단이 아닌 平和的인 手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 ⑤ 共同安保는 현실적인 國際政治下에서 평화운동가들의 일방적인 措置나 過度한 變革을 요구하는 이상론적 安保概念에 대한 제도권내의 대응수단이다. 따라서 漸進的 過程을 통해 過渡期的 混亂要素를 피하고 현재 존재하는 構造를 이용한다.
- ⑥ 共同安保는 억지이론을 概念的으로 극복하고 軍事條約一邊到, 中立化一邊到 또는 自己民族一邊到의 安保體系의 消滅을 목표로 한다.

11) 共同安保에서는 이제까지 軍備增強의 원인을 勢力均衡理論의 역기능에서 찾기 때문에 ‘勢力均衡’이란 표현 대신 ‘安定’이란 용어를 쓴다.

12) Egon Bahr / Dieter Lutz, op, cit, p.52

13) 상계서 pp.79-80 요약

- ⑦ 共同保安은 주로 協調指向的이고 相互協商을 추진하는 정치적 수단위에 基礎하고 있다.(外交, 軍備統制 및 軍縮協商)
- ⑧ 공동안보는 그러나 戰爭防止 목적을 위한 軍事的 수단의 완전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共同安보는 군비와 병력의 최소한 수준에서 동결을 위해 노력하나 先制豫防攻撃이나 報復措置는 포기하고 순수한 방어전략 이기를 요구한다. 즉 兵力과 군조직 武器體制 전략에서 양측이 결코 군사적 공격을 許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⑨ 共同安보의 추진 수행자로서 우선 政策決定者와 정치가들을 들수 있으나 동시에 또한 社會 內部에서 전쟁을 더 이상 政治手段으로 간주하지 않는 平和推進勢力 및 기관들도 排除하지 않는다.
- ⑩ 共同安보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世界平和秩序와 相互集團安보體制 構築을 목표로 한다.

다. 共同安보理論의 具體化 : 社民黨 제2의 東方政策

사민당은 83년 이래 野黨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東歐圈내 다른 공산당 특히 東獨政府와 유럽내 平和秩序 창조를 위해 새로운 安보概念에 입각하여 協商을 벌이고 합의를 導出해 냄으로써 保守黨이 대 동구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安보分野에서 동·서간 협력 可能性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共同安보理論에 입각하여 사민당(SPD)과 東獨共產黨(SED)이 합의하였거나 協商중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非化學武器地帶에 관한 合意¹⁴⁾

1985. 7.21 양측은 西獨과 東獨, 체코를 包括하는 지대에서 化學武器를 철수시키고, 生産을 禁止하며 다른 나라로 부터 搬入을 금지하는 非化學무기지대에 관한 合意를 하였다.

(2) 중부유럽에서 非核地帶化를 위한 非核回廊(Atomwaffenfreien Korridor)

14) Deutschland - Archiv 85년 9월호 p.935 참조.

建設 協商¹⁵⁾

양측은 1986.10.21 비핵회랑에 관한 基本 立場을 協商을 통해 밝혔다. 1982년 팔메위원회가 제시한 300km 넓이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핵탄두운반수단, 핵탄두, 재래무기 및 核武器로 이중 사용 가능한 武器體系—의 폐기, 현대화 및 搬入禁止를 서로 協商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회랑은 西獨과 東獨 및 체코의 國境線을 중심으로 양쪽 150km 씩 걸려 있다.

(3) 理念論爭과 共同安保(Der Streit der Ideologie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 에 관한 原則 合意¹⁶⁾

1987. 8.27 서독 사민당의 政策委員會와 동독 共產黨의 사회과학원 사이에 平和와 理念問題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6개항에 걸친 共同宣言文을 발표했다. 서로 다른 體制의 정당간에 理念上의 차이가 서로 존제함을 인정하면서도 原子武器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시대에 동·서 陣營間의 유일한 鬭爭方法은 평화적 體制競爭이라고 합의하여, 既存平和와 共存論에 대한 수정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비록 國家間 合意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양독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契機가 되었다.¹⁷⁾

양측은 “平和와 共存과 共同安保라는 발상이 相互對立과 세계적으로 패권 및 우위를 追求하려는 노력들과 背馳된다는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합의했다.¹⁸⁾

政治論爭의 文化와 관련해서는 상호대립된 基本價値에 대한 해석에 있어 상대방 존재의 正當性을 부정해서는 안되고, 논쟁의 形態는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선전을 포기하고 體制競爭에 있어 開放된 討論을 許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¹⁹⁾

15) Deutschland - Archiv 87년 2월호 p.134 참조.

16) Deutschland - Archiv 88년 1월호 p.40 참조.

17) 서병철, 統一을 위한 東西獨關係 조망 서울 1988 p.61.

18) Aktion Suhnezeichen / Friedensdienste, Das SPD · SED-Papier, Freiburg 1988 p.11.

19) 상계서 p.15-17.

서독 사민당은 이 原則들을 통해 體制間 경쟁의 궁극적 목적이 資本主義 파괴가 아니고 양편이 改革을 통해 서서히 접근 할 수 있다는 事實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東獨共産黨은 서로 다른 社會體制와 政治勢力을 가진 두 국가가 독일에서 存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한편 두 體制가 善意的 경쟁을 통해 그 優秀性を 證明해야 한다는 선으로 理念論 爭를 후퇴 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

(4) 방어지대(Defensive Zonen)창설을 통한 재래무기 분야의 안정화

이것은 재래식 전력의 대폭적인 減縮과 先制奇襲攻擊을 한쪽편이 감행할 수 없도록 방어지대를 構成하여 불안정의 요소가 되는 武器를 그 방어지대 부터 撤收하거나 그 수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中部유럽(동독, 서독, 체코)에 國境을 따라 각각 50km씩 도합 100km의 비탱크지대를 設定하고, 아울러 MBFR 國家와 덴마크, 헝가리를 포함한 지역에 방어지대를 設定하여 그 지역에 配置된 攻擊用 武器 —장갑차, 대포, 전투용헬기, 전투기—를 完全撤收 하든가, 일정한 최저 하한선을 設定하여 그 수를 줄이려 한다.²⁰⁾

라. 共同保安理論에 대한 批判

共同保安理論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정치그룹으로 부터 批判이 가해졌다.

하나는 보수진영쪽에서 너무 국제관계 現實을 무시한 進歩的 發想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平和運動圈 그룹과 녹색당쪽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너무 미흡하다는 主張이었다.

보수진영은 NATO와 同盟關係 이외의 동구측과 安保協力關係란 궁극적으로 戰爭抑制體制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想像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한다. 소련의 自由世界에 대한 威脅이 군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한 體制守護를 취

20) Egon Bahr / Dieter Lutz, op. cit, p.449.

해 安保政策에 있어서 價値中立의 追求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²¹⁾

그러나 보수진영도 핵전쟁시대의 軍備競爭 威脅에 대한 國民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에 따라 軍事戰略적으로 기존 戰爭抑止體制를 대신할 새로운 代案을 摸索함이 없이 외교적, 경제적 協力手段의 강화로 소련과의 軍備統制 協商을 지속시켜, 억지력이 유지되는 制限된 範圍내에서 핵무기 減縮을 시도하는 生存同伴者關係(Überlebenspartnerschaft)라는 개념을 상용하고 있다.²²⁾

보수진영의 論理에 의하면 결코 生存이란 目標는 東歐와의 安保同伴者關係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힘에 의한 억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安保는 "自由실현하의 平和"를 의미하기 때문에 東歐와의 안보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는 애초 成立될 수 없다고 한다.²³⁾

두번째 批判集團인 평화운동가 그룹은 공동안보이론이 새로운 안보개념 摸索에서 地平을 열었으나 여전히 軍事적 手段과 同盟體制에 집착하고 있어 地球上에서 戰爭을 제거하고 진정한 平和를 定着시키는데 미흡하다고 한다 : "여전히 武器體系에 집착하고 敵對關係에 기초한 세력권간의 관계는 결코 安保同伴者 關係로 표현될 수 없다."²⁴⁾

따라서 이러한 共同安保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체모델인 블록으로부터 탈피, 軍事手段이 아닌 社會的 手段에 의한 방어 그리고 '일방적인 軍縮'으로만 진정한 平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동안보이론은 相互生存에 대한 이성적인 洞察속에 결코 전쟁이 運命이 아니고 정치의 延長이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작품으로, 새로운 政策手段 및 安保概念들의 개발에 의한 發想의 轉換으로 피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提示했고 또 平和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現實

21) Bundesminster der Verteidigung, Weißbuch 1983. Bonn 1983. p.122.참조.

22) Kurt Biedenkopf, Wir Konnen nicht einfach aussteigen, in : Wolfgang Heisenberg Sicherheitskontrv. Baden-Baden 1988.p.723.

23) 상계서

24) Ekkerhard Krippendorf / Reiner Stuckenbrock, Zur Kritik des Palme Berichts Berlin 1983. p.49 참조

政策을 통해 具體的으로 實現될 수도 있다는 科學的 평화학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수 있다.²⁵⁾

2. 韓半島 問題 해결시 共同安保理論 적용 限界

共同安保理論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韓半島에서 安保共同體 形成을 위한 새로운 安保 및 統一政策을 樹立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선 共同安保理論이 생성된 背景으로 서독 分斷構造와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면밀히 檢討해 보아야 그 이론의 援用性이 좀 더 명확해진다.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分斷構造의 相異性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歷史的으로 살펴볼 때 분단의 원인과 경과 樣相이 판이하게 다르다. 독일은 과거 유럽제국의 중심적 役割을 해왔으며 늘 유럽의 安定에 중요한자로 作用해왔다. 따라서 2차대전후의 分斷은 독일에 대한 強大國들의 安保理解關係의 고려에 따른 封鎖政策의 일환이었다. 또한 독일도 냉전전후시대의 主戰場이었으면서도 熱戰을 치루지 않았으나 韓半島의 경우는 민족간에 내전을 겪었다. 이러한 民族간의 相殘은 평화적 統一의 길을 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分斷意識을 民族內部에 固着化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반국민들 속에 내재화된 '친구와 적이라는 이분법적 도식'(Freund-Feind-Schema)은 모든 政治現象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하나의 강요된 틀로서 作用하여 政治協商에 있어 현실성 있는 새로운 대체수단을 摸索하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²⁶⁾

둘째는 安保政策을 결정짓는 國際環境이 두 국가사이에 다르다. 양측 모두에게 지정학상 '中間位置'(Mittellage)는 과거 끊임없이 國際環境 변화에 따라

25) Egon Bahr / Dieter Lutz op. cit. p.157.

26) Hans Niklas, Die Politische Funktion Von Feindbildern in : Anton-Andreas Guha, der Feind, Der wir brauchen. Frankfurt am Main 1985.p.104.

危機狀況과 機會를 동시에 제공해왔다.²⁷⁾

독일의 경우 2차대전후 소련이 東歐를 掌握함으로써 ‘中間位置’로서의 잇점을 살릴 수 있는 機會를 상실하고 전쟁터화의 危險이 내포된 ‘邊境位置’(-Grenzlage) 로 轉落하고 말았다.²⁸⁾

그러나 독일은 강력한 西歐編入化를 통해 經濟的 繁榮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고 새로운 東方政策을 통해 이러한 ‘邊境位置’로부터 脫皮했다. 바야흐로 독일은 지금 다시 ‘中間位置’를 회복하여 양 陣營의 중간매매자로서 평화사절 役割을 하며 국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불행히도 韓半島는 이러한 ‘邊境位置’로부터 脫皮할 수 있는 機會를 놓치고 아직까지 세계평화의 攪亂地域으로 남아있다.

또한 南北韓은 동·서독과 같이 확실한 집단적 政治, 軍事, 安保體制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각자 強大國과 복잡한 쌍무적 契約關係만을 유지하고 있어 制度上으로는 남·북 양측이 平和定着과 安保問題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으면서도 미·소 데탕트 노력이 쉽게 파급되지 않는다.

세째로 韓國은 체제간 協商의 최소한 前提條件이 되는 體制安定化면에서 서독이 도달한 福祉國家 수준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韓國社會內에는 아직도 過度하게 발달된 부분과 저발전 부분과의 차이, 分配構造의 歪曲 등으로 표현되는 “구조적이질성”(Strukturelle Heterogenitat)이 存在한다.²⁹⁾ 또한 한국에는 社會主義와 自由主義 사이에서 제3의 길인 民主主義的 社會主義 실현을 制度圈 안에서 추구하고, 理念的으로 東歐圈國家들과 협력이 가능했던 大衆政黨으로서의 社會民主黨(SPD) 세력이 제도권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째로 北韓과 東獨을 비교해보면 양국 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多元主義 원

27) Werner Link, Die außenpolitische Staatsräson der BRD, in : Hans-Peter Schwarz, Demokratie und Diktatur Dusseldorf.1988.p.406.

28) 상계서 p.407.

29) Ulrich Menzel / Dieter Senghaas, Europas Entwicklung und die Dritte Welt, Frankfurt am Main, 1986.p.202.

칙에 입각한 民主化나 人權尊重의 問題와 關係해서 共產黨에 의한 권력 독점과 ‘民主的 集中主義’ 原則이 수정되어야만하는 閉鎖社會的 公同점을 안고 있으나 對外政策的으로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독은 50년대 중반이래 國際的 階級鬭爭을 통한 民族問題解決(통일)이라는 政策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그들 自主路線에 따라 국제법적 一般원칙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現象變更의 對外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동독은 強大國들의 유럽핵배치 결정이후 독일이 핵전쟁의 주전쟁터화 하지 않고 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現實認識아래 “平和에 대한 責任共同體”(Verantwortungsgemeinschaft für Frieden) 主張을 서독보다 먼저 提起하고 나섰다.³⁰⁾

또한 東獨共產黨 11차대회(86. 4)에서 東獨書記長 호네커는 “평화공존 개념은 더 이상 階級鬭爭의 特殊한 形態가 아니며 平和定着은 모든 대외정책 目標設定의 최우선과제다”라고 공식적으로 宣言하였다.³¹⁾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통일을 民族主體力이 공격적인 帝國主義 세력을, 애국세력이 민족반역·매관 勢力을 타도하기위해 階級鬭爭을 벌이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對外政策은 따라서 社會主義에 유리하도록 勢力關係를 변화시키기 위해 資本主義 體制와의 평화적 競爭을 배제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旗幟아래 반제투쟁 및 현상 불인정 政策을 추구한다.

그러면 위에서 열거한 獨逸과 韓半島 사이에 존재하는 相異한 分단구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共同安保理論은 우리의 새로운 平和體制構築을 위한 새로운 統一政策에 援用될 수 있을 것인가?

3.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새로운 統一政策

平和體制 구축을 위한 統一政策은 기존 통일정책이 安保分野에 관한 구체

30) Egon Bahr / Dieter Lutz, op. cit. p.244 참조

31) Außenpolitik 86년 3월호 p.303.

적 남북한 접근조치제안에 있어 未洽했다는 데서 부터 出發해야 한다.

앞서 獨逸政策(統一政策)의 내용에 安保分野에서 새로운 접근가능성을 접목시키려는 서독 制度圈 政黨들의 노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통일정책이 이러한 安保·軍事分野의 내용을 마냥 排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平和라는 공통된 주제—물론 각자 平和에 대한 解釋이 다르기는 하지만—를 가지고 韓半島 軍事問題는 고도의 政治性을 띤 정치게임이라는 시각하에 이제까지 消極的 回避的 方式보다 이를 극복하고 주도하는 방향에서 정치회담 차원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더구나 北韓의 주의·주장이 疑心을 불러 일으키는 政治宣言的, 宣傳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協商의 必要性은 더욱 커진다. 協商過程을 통해야만 그들은 現實性없는 주장이 客觀的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대화가 制度化됨으로써 그 協商이 열리는 自體만으로도 緊張緩和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軍事問題 解決을 위한 회담형식은 우선 外勢를 배경한 '선 南北韓 직접 協商 후 필요에 따른 國際的 보장'형식의 유관국 직접 參與原則을 견지해야 한다.

우선 이런 軍事會談에 임하기 앞서 韓國內部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에 대한 국민적 共感帶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同盟國과의 紐帶強化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측의 상대적 自律性이 제고되는 방향에 부합된, 強大國 중심이 아닌 分斷國 중심의 새로운 安保理論 創出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武力拋棄와 平和構造 창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包括적인 暫定協定을 체결하여 軍事會談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推進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새로운 安保 概念의 定立

南北韓 安保 協力時代에는 安保同伴者 관계에 걸맞는 새로운 안보개념의 定立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安保概念은 다음과 같은 안보문제에 관한 새로운 認識으로부터 出

發해야 한다.³²⁾

- 전쟁이 더이상 政治, 經濟, 理念的 혹은 다른 目標을 관철시키기위한 수단 이 되서는 안된다.
- 핵 전쟁시대에는 共同의 안보이거나 아니면 전멸을 뜻하기 때문에 勝利 하려는 戰略에 의해서는 안보가 확보될 수 없다.
- 더 많은 무기가 더 많은 安保를 확보해 준다는 神話를 버려야한다.
- 安保를 廣義로 해석하여 외부에 덜 脆弱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능력’이 增大되어야 한다.
- 強大國으로 부터 점차 자율성을 確保하되 양불록으로 부터 이탈이 아니라 적극적인 양진영의 매개자로서 世界平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對 外交渉力이 增大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인식아래 새로운 安保概念은 만약 우리 領土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周邊國들의 전쟁에 우리가 介入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어느정도 ‘생존능력’을 갖고 우리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安保問題와, 남·북한이 모두 평상시 戰爭의 原因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고 얼마만큼 동북아 및 世界平和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하는 평화조성 문제에, 可能性을 提示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生存能力을 가능케하고 平和를 創出할 수 있는 安保概念은 방위체계를 純粹하게 防禦的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순수한 防禦爲主 防衛體系가 평화창출적인가?

상대방의 공격을 가상한 防衛體系에서 攻擊武器와 防禦武器의 구분은 애매한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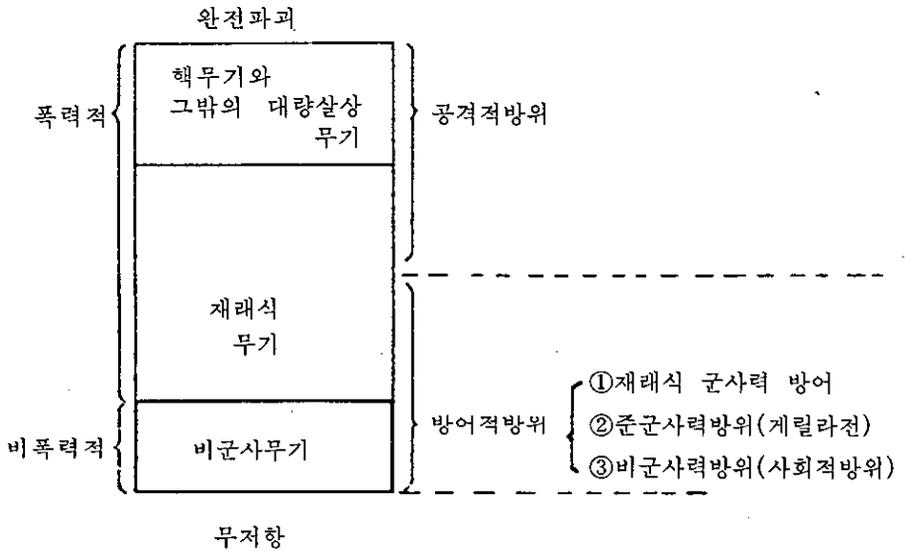
그러나 간단하게 定義해서 무기의 사정거리와 그 效果面에서 상대편 領土에 까지 투입이 되는 무기는 攻擊的이고 그렇지 않고 사정거리가 짧은 자국

32) Egon Bahr, Zum europäischen Frieden, Eine Antwort auf Go-rbatschow, Berlin 1988, pp.24~25 참조.

영토이내에 효과가 限定될 경우 防禦武器라고 定義해 볼 수 있다.³³⁾

또 무기의 配置位置와 관련하여 사정거리와 效果範圍가 크더라도 상대편 지역에 이르지 않도록 전선으로 부터 후방에 配置된다면 그 무기는 방어적이라 할 수 있다.

Johan Galtung은 공격적 防衛와 방어적 防衛의 구분을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내고 있다.³⁴⁾



위의 기준에 의하면 核武器는 그 사정거리가 아무리 짧고 그 효과가 극히 制限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공격시 大量殺傷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파괴성으로 말미암아 自國領土內에서는 결코 使用될 수 없는 武器임으로 本質的으로 방어용 무기가 될 수 없다. 또한 재래무기가 核武器의 단순한 補充手段으로 사용된다면 그 무기도 공격적이다.

방어위주의 방위는 공격자에 대해 效果的인 報復을 통해 또는 효과적인 저항을 하겠다는 意思表示를 통해 공격을 抑制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역

33) Johan Galtung, Es gibt Alternativ Opladen 1984, pp. 215~216 참조.

34) 상계서, p.214.

지전략과 一脈相通하고 있으나 武器體系가 순수 방어적으로 자국영토내에서 만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적국의 領土에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差異가 있다.

이러한 순수 방어중심 防衛體系는 그 防衛體系가 결코 상대방의 攻擊을 許容하지 않을 수 있을만큼 效果的일 때 상대방의 공격무기를 쓸데 없는것으로 만들어 軍縮協商을 가능케하고 그럼으로써 증강일변도의 무기경쟁을 誘發시키지 않게한다³⁵⁾

따라서 平和創出의이다. 그렇다면 어떤 防衛體系가 상대방으로 부터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效果的인가?

防衛體系가 상대방이 奇襲攻擊으로 부터 어떤 이득도 볼 수 없도록 혹은 奇襲攻擊이 失敗할 수 밖에 없도록 攻擊目標가 될 주요시설이 分散的으로 짜여 있고 공격자가 만약 國境을 넘어 침입했다라도 占領하는 費用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도록 순수방위능력이 向上되었을 때 可能하다.

나. 南北韓 '平和 및 福祉 具現을 위한 暫定協定' 締結 提議

현 休戰協定이 평화관계 設定措置가 아니라 交戰當事者間의 전투행위를 중지시킨 軍事協定임을 감안할 때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하고 남북한 安保協力 관계를 창출하려면 무력포기 및 제반 平和秩序 구축을 위한 어떤 형식의 協定 및 條約이 불가피하다.

한국측은 不可侵協定과 기본관계잠정협정 締結과 提議를 하고 있으나 북측이 미군의 駐屯을 합리화하고 두개의 朝鮮을 合法化하기 위한 措置라고 拒絕하는 바람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북측은 미국측과 平和協定에 여전히 執着하고 있다. 이제까지 韓國側의 제의가 너무 현상고착적이라는 印象을 줄 憂慮가 있으므로 북측이 主張하는 적극적 平和의 創出問題 內容을 포함한 協定締結을 남북간에 체결할 것을 제안해 볼 必要가 있다. 그럼으로써 북측의 미국과 平和協定 締結 論理를

35) Horst Afheldt, Defensive Verteidigung, Hamburg 1983.p.43 참조

交流協力, 安保協力 관계의 남·북간 當事者化 논리로 誘導할 수 있다. 不可侵協定 형식보다 基本關係暫定協定 形式이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 비군사분야 交流協力에 대한 包括的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므로 既存 暫定協定의 내용에 적극적 安保協力關係 의지를 담아 새로이 提議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서독의 경우를 보면 蘇聯과의 모스크바 條約을 통해 東歐圈 전체에 대한 武力拋棄를 선언했고, 헬싱키宣言에서 平和와 軍縮問題, 교류협력, 인권문제에 包括的인 합의를 한 반면 東獨과는 基本條約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규정화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체결제외한 바 있는 暫定協定의 모태가 되고 있는 東·西獨 基本條約은 전문서두에서 부터 平和의 問題에 대해 “양 독일은 平和維持의 책임을 절감하고 유럽의 安保와 緊張緩和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에서……”라고 시작하고 있다.³⁶⁾

또한 서독은 基本條約 자체가 양독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合意와 協商을 위한 하나의 道具로서 양독관계 진전에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³⁷⁾

우리의 경우도 새로운 協定은 철저히 憲法精神(平和統一條項)에 따라 暫定措置(Modus vivendi)형식을 띠어야 하며, 제목은 統一의 전단계로서 安保共同體 실현의 내용을 담고 또 兩體制를 공히 超越할 수 있는 가치인 平和와 福祉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南北韓 ‘平和와 福祉 구현을 위한 暫定協定’이 좋겠다.

그 구체적 內容은 남북한 기본관계 暫定協定에서 기 제안된 내용중 ① 互惠平等 ② 武力拋棄 ③ 內政不干涉 ④ 分斷苦痛 緩和 및 福祉具現을 위한 交流協力 사업실시 ⑤ 即 締結한 雙務的 多자간 國際條約과 협정준수 등의 조항은 그대로 살리되 몇가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36) Wolfgang Seiffert, Das ganze Deutschland, Munchen 1986,p.330.

37) Margit Roth, Zwei Staaten in Deutschland, Opladen 1981,p.64 참조.

첫째, 이 協定에 의해 成立될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關係가 아니고 民族 內部の 특수한 관계임을 條項으로 明示해야 한다.

이것은 協定の 締結이 두개의 국가를 認定하는 절차가 아니고 앞으로 民族 同質性 회복과 平和統一 완성을 위한 道具的 性格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여 북한의 두개의 朝鮮造作 논리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

서독의 브란트가 기본조약 締結후 보수파들로 부터 2개의 국가성 인정에 대한 批判을 받았을 때 “조약의 締結은 分斷의 고통을 緩和시켜 민족의 同質性을 유지하도록 努力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분단의 固定化를 지향하는 反民族的 政策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³⁸⁾

둘째, 기 제안된 暫定協定 내용중 “休戰體制의 維持” 부분을 현상유지적 관점에서 脫皮하여 平和共存 관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

“南北은 休戰體制를 平和體制로 바꾸는데 그 具體的인 절차와 방법을 南北 當事者간에 우선 合意후 이 平和體制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즉 평화체제로 轉換의 문제를 舉論하여 구체적으로 입론하되 우선 南北간에 協商을 벌여 그 意見差異를 해소하는 當事者主義에 철저해야 된다는 말이다.

세째는 國際聯合憲章 존중의 原則을 삼입하여 北韓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平和의 문제와 아울러 人權問題도 國際社會의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

다. 軍事的 信賴構築措置의 摸索

군사적 信賴構築措置의 기능은 상호 威脅의으로 인지되는 軍事的 선택수단의 자발적 拋棄와 함께 그 軍事的 수단이 自國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明確히 밝힘으로서 외부로 부터 오는 威脅을 감소시키는데 있다.³⁹⁾

38) Willy Brandt, Erklärung vor dem Deutschem Bundestag, 15, Feb, 1973 in :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12 p.143.

39) Dieter Lutz, Lexikon Rustung, Frieden, Sicherheit, Munchen 1987, p.316.

軍事的 信賴構築은 우선 相互情報交換을 통해 祕密主義를 극복하는 데서 부터 출발하는데 크게 두가지 方向에서 이룩된다.⁴⁰⁾

① 상호 軍事潛在力, 兵力規模, 配置位置 및 군사비지출등에 관한 자료를 公開하고 通知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軍事活動과 부대이동에 대해 미리 通告하는 문제

② 軍事訓練의 參加兵力이 일정한 수를 넘을 경우, 그것이 일정지역(국경선 근방)에서 일어날 경우의 그 군사훈련 制限措置에 관한 문제

韓半島에 있어서 信賴構築方案은 82. 1 미국의 軍事停戰委員會를 통해 軍事演習 상호 통보와 상호 참관인 交換問題 討議를 북한측에 제의한 이래 美國측의 꾸준한 努力이 있어 왔다.⁴¹⁾

지금 남북한 信賴構築方案과 相關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의제 및 신뢰구축내용이 아니라 會談의 形態와 節次와 相關한 사항이다. 美國側은 수석대표가 각각 美軍과 북한측으로 되어 있는 軍事停戰委會談을 통해 이 문제를 解決하려고 하고 북한측으로 軍事問題에 관한 미국과의 直接對話를 희망하고 있어 자칫하면 한국측이 排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軍事問題를 포함한 모든 對話와 協商에서 남북간 直接對話形態를 고수하고 貫徹시키기 위해서는 軍정위 수석대표를 韓國人으로 교체하여 軍정위 대표권을 인수하는 方法과 軍事問題에 관한 남북한 直接對話窓口를 개설하는 方法이 있다.

첫번째 방안은 북측이 韓國政府 地位 格上을 바라지 않고 美帝植民地, '미제주구'논리의 견지를 위해서 反對할 것이 예상되고 미국측도 작전지휘권 문제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전략 전반과 相關 있는 敏感한 問題인 만큼 신중하게 對處할 것이 예상되어 그 實効性이 적다.

따라서 남·북한 당사자 위주로 기 개설된 高位當局者會談에서 이 문제를

40) 상계서, pp. 317~318.

41) 하영선, 韓半島 軍備縮小의 현실적 모색 in : 이호재편
韓半島 平和論 법문사 1989. p.230 참조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유럽의 헬싱키 宣言과 그 선언의 後續措置로 열린 스톡홀름의 '유럽의 信賴構築과 軍備撤廢에 관한 會議' 과정에서도 보듯 政治的 宣言이 앞서야 보다 구체적 軍事的 信賴構築方案의 合意가 가능하나, 남·북회담에서는 형식자체에는 融通性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 그 자체이므로 政治宣言과 구체적 信賴構築方案을 일괄하여 타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⁴²⁾

會議議題로서는

- 일정규모 이상의 軍事活動 事前通報 및 事前通報 時限設定 問題
- 일정규모 이상의 軍事活動에 參觀인 招請問題
- 다음 해에 있을 軍事訓練計劃에 관한 年표작성 및 提供問題
- 신무기 導入 및 생산시 相互軍事情報交換 문제
- 休戰線 부근을 포함한 일정지역에서 軍事訓練 制限 問題
- 軍事責任者간에 직통전화 설치, 운용, 문제 등이 될 수 있다.

라. 軍備統制 및 軍縮協商 積極 參與

1) 協商戰略

군축은 잠재 적국 사이에 보다 안정적인 軍事關係를 定立하고자 병력과 무기를 減縮하는 措置이나, 軍備統制는 兵力과 武器體系의 총량, 질, 배치위치와 構造등의 조정을 통해 相互軍事關係에 있어서 不安定要素를 줄이려는 노

42) '유럽신뢰구축과 軍備撤廢에 관한 회의'(KVAE)는 '유럽안보와 協力에 관한 회의' 後續措置로서 35개 全體會員國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는데 스톡홀름회의시 양측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信賴構築方案에 대해 논의했다.

- ① 최소 1만3천명 이상 병력 혹은 300대 이상의 탱크가 참가하는 軍事訓練 42 일전에 통보
- ② 최소 1만7천명 이상 參加하는 軍事訓練에 參觀인 초청
- ③ 사전에 軍事活動의 年표를 작성 交換 등임. 상계서, P.232 참조와 함께 Dieter Lutz op.cit. p.1749. 참조.

력으로 軍縮보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⁴³⁾

장기적으로 軍備統制는 軍縮을 목표로 하나 단기적으로는 억지체계의 안정에 주력하기 때문에 병기의 減縮과 아울러 特定分野(예를들어 순수한 防禦武器)의 增強措置도 軍備統制下에서는 가능하다.⁴⁴⁾

아름든 軍축, 軍備統制協商을 개시하기 위한 必要不可缺한 선결요건은 軍事力의 상호공개에 있다. 상호공개는 앞질의 信賴構築方案措置로 달성될 수 있다.

북한측은 이미 3년이란 시한까지 정하여 3단계에 걸쳐 兵力을 축소하고 92년부터 10만이하로 兵力을 유지하며 이와함께 駐韓美軍 및 핵무기, 군사기지 撤廢問題를 이미 提案해 놓고 있다.⁴⁵⁾

北韓側 提案의 의도를 크게 두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다.⁴⁶⁾

첫째, 北韓이 점하고 있는 軍事優位와 赤化野慾을 暫定的으로 위장하고 남한을 가능한 ‘武裝解除’ 상태에 두기 위한 것으로 진실성이 없는 경우, 둘째, 남·북한의 軍事力關係가 일종의 均衡 狀態에 도달했고, 세계적차원에서 軍축이 실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 國內經濟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軍事費 負擔의 감소의 일환으로 眞實性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북한의 軍축, 平和공세는 어떻든 韓國이 마치 軍縮이 관심이 없고 호전국이라는 인상을 國際社會에 주면서, 진정 軍縮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軍縮이라는 용어가 풍기는 平和的 이미지를 北韓이 세계에 浮刻시키는 고도의 政治宣傳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도 어차피 協商을 벌이더라도 合意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協商에 임하므로써 軍縮問題에 대한 우리측의 積極性, 平和指向性을 부각시킨 다음 相互억지력을 유지하는데 危險水準이라고 判斷

43) 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Frieden und Sicherheit, Munchen 1981,p.83.

44) Dieter Lutz, Lexition op. cit. p.14.

45) 북측이 提案한 軍縮內容은 내외통신 1987. 7. 23일자 참조.

46) 이호재, 새로운 韓民族外交, 나남출판사 1987. p.80와 하영선, 한반도 軍備縮小의 모색 op. cit. p.235 참조

이 되지 않는 範圍내에서 실질적인 合意를 해가야 한다.

유럽에서 미·소간 혹은 NATO·WTO간 軍縮會談에서 보듯 軍備統制 및 軍縮協商은 양측의 전력을 平價하는데 서로 算定基準이 다르고 实效性 있는 사후 檢證問題에 이견이 있어 協商에 참여하는 가 자체가 의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상호 威脅의 源泉이 되는 軍事分野에 대화의 通路를 제도화함으로써 相互情報交換 기회를 늘이고 그럼으로써 危機가 增幅되어 戰爭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⁴⁷⁾ 따라서 한국측도 그 協商을 개시하는 그 自體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協商을 벌일 경우 한국측의 구체적 協商戰略을 다음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北韓側 奇襲 攻擊力의 극소화
- 優勢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비추어 북측이 더 많은 不均衡 減縮 實現
- 合意事項의 철저한 事後檢證實施 요구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南北韓간의 軍事競爭은 주로 비핵군사적 葛藤이면서도 奇襲攻擊力이 우수한 재래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軍隊를 휴전선 부근에 밀집 前方 配置하고 있어 늘 奇襲攻擊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수도 서울이 休戰線에 근접해 있어 북측에게 奇襲攻擊의 利益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奇襲攻擊의 이익이 크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強迫觀念을 낳게 되고 이것은 끊임없이 雙方에게 先制豫防攻擊에의 유혹을 갖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충돌로 큰 戰爭으로 쉽게 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은 奇襲攻擊에 동원될 수 있는 攻擊用武器와 부대 및 그 配置

47) 15년간 지속된 中部유럽의 재래식 전력 減縮을 위한 MBFR 회담의 경우도 성과는 없었지만 軍事會談分野에서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Dieter Lütz, Lestion op. cit. p.201. 참조.

상태를 우선 協商對象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減縮幅과 관련하여 보면 현 水準에서 동일한 숫자나 비율의 감축은 상호 疑懼心을 줄이고 安保體系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규모나 인구수의 한국측 優勢에도 불구하고 양측 全力 評價에 있어서는 물론 산정기준이 다르고 武器의 性能比較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제3의 權威있는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북측이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⁴⁸⁾

여기서 고려해 볼 수 있는 可能性은 고르바초프가 유럽의 '在來式 戰力 減縮 協商'(CFE)에서 채택하고 있는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단계적 혹은 한꺼번에 廢棄시키는 방식이다.

세째 어느 방안이나 合意후에는 그 이행을 確保할 수 있는 實効性 있는 철저한 사후 檢證措置 並行을 그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측의 軍縮관련 平和攻勢의 내용을 살펴보면 늘 일방적인措置를 강조하는 반면 減縮후 구체적인 檢證 可能性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히 재래식 전력은 그 특성상 핵무기와 달리 현장답사 檢證과 인공위성 撮影 등으로도 그 소재 및 숫자파악이 곤란하여 檢證시 制限된 확증 밖에는 주지 못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북측 주장의 信賴性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한 減縮 合意후 효과적인 檢證을 위해서 檢證遂行者들이 북측에 들어가 그것들의 廢棄와 일정지역에서의 撤收를 확인하고, 또 사후 人工衛星 촬영과 병행하여 검증전 짧은시간의 事前通告로 무작위로 일정지역을 추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등에 관한 具體的 案을 만들어야 한다.

2) 協商分野

協商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進行될 수 있다.

— 兵力 및 裝備의 總量 減縮 및 감축시한 設定 問題

— 非武裝地帶를 확대시켜 좀더 넓은 '防禦地域'으로 설정하고 그곳으로부터

48) 별첨 남북한 재래식 전력포 참조. 출처: IISS 1987~1988.

49) Dieter Lutz, Lexikon op. cit. o.311~316. 참조

터 기습공격용 무기, 병력을 撤收하는 問題

— 대량 殺傷手段으로 간주되고 있는 核武器, 화학무기, 개발경쟁 중지 및 擴散禁止問題

첫째, 궁극적으로 駐韓美軍 撤收를 목표로 하는 北韓의 兵力減縮提議는 그 減縮時限과 관련하여 보면 너무 촉박하고 그 縮小幅이 과도하여 실현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우선 北韓이 提案한 감군 일정은 더 연장되어야 한다. 더 長期間에 걸쳐 단계적으로 우선 남·북한 간의 兵力을 축소해 나가되 작은 수의 兵力축소는 양측이 검증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現實的이다. 각 단계마다 減軍의 이행 與否에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감군 실현이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兵力 이외에도 장갑차, 전차, 야포 및 전투용 헬기 등 相互 攻擊的이라고 판단되는 재래식 무기도 그 減縮 對象에 포함하여 서로 리스트를 작성 協商에 임해야 한다.

이 병력 및 무기의 총량적 減縮과 관련하여 問題가 되는 것이 주한미군 撤收다. 과연 미군의 도움 없이도 韓半島의 消極的 平和가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世界戰略的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美國議會內에서는 駐韓美軍 감축에 대해 公式 論議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미상원 外務委 聽聞會에서 행정부 高位官吏는 유럽에서 고르바초프가 약속한 것과 같은 信賴造成措置를 北韓이 먼저하면 美軍撤收도 가능하다고 하였다.⁵⁰⁾

撤收對象은 미 지상군, 공군 및 軍事裝備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것인지 단계적,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撤收時期와 관련된 문제는 남·북한간의 우선 軍縮協商 實現으로 相互信賴가 쌓아진 다음 그리고 소련측의 對

50) 미행정부 高位官吏는 미군철수 4가지 전제조건으로 ① DMZ 부근에 집중 布陣한 北韓 兵力 撤收 ② 고르바초프가 유럽에서 約束한 것과 같은 대남기습용 부대 및 裝備 撤去 ③ 대외테러행위 중지 ④ 핵확산금지조약의 約束 동의를 들었다.

조선일보 89. 6.14. 동아일보 89. 6.13. 참조.

應措置가 전제되어 질 때 決定해야 한다.

둘째, 양측의 奇襲攻擊力을 줄이고 防禦爲主 방위체계 確立을 위해 기존의 非武裝地帶를 확대시켜, 休戰線으로부터 양측 20km씩 40km범위의 '방어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奇襲攻擊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병력을 뒤로 철수시키거나 그 수를 減縮시키는 문제를 協商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對象武器 및 병력은 전차, 전투용 헬기, 장갑차, 야포 및 특수부대이며 軍事力의 前方配置 比率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防禦地域을 2단계로 나누어 20km 範圍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대상 무기를 撤收시키고 후방 20km 지대에서는 그 수를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도 하나의 협상 가능한 現實的 方法이다.

세째, 南北韓은 핵반사가능 裝備를 보유하고 있으나 핵탄두는 보유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⁵¹⁾

南·北韓의 핵發射 可能裝備 現況

	南 國				北 韓		
	M-110	M-109 155mm sp	Honest John	Nike Hercules	D-20 152mm	Frog 5/7	ScudB
사정거리(km)	21.6	18/24/30	40	140	17.4	70	300
발사대	?	100	12	100	?	54	15

출처 : IISS 1987~1988.

다만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駐韓 美軍이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先進核무기와 꾸준히 持續되어 온 양측의 핵개발 능력이다.

51) 하영선편, 韓半島 軍備競争의 재인식 圖書出版 人間사랑 1988.p.184,

인용 출처 : IISS 1987~1988. PP.208~209.

양성철, 北韓의 政治變動과 平和問題

in : 이호재, 韓半島平和論 P.3449. 참조

북한은 끊임없이 駐韓美軍과 그 보유 核撤收를 겨냥하여 비핵지대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우선 북측이 保有하고 있는 核開發施設에 대한 검증문제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 미체결문제등을 포함한 北韓側의 核擴散禁止條約 違反 與否등을 먼저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핵문제를 反美鬭爭에 이용하고 있는 北韓에 대해서 핵문제를 남·북당사자 問題化해야 한다.

한편, 化學武器의 경우 최근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사용과 리비아공장건설 波紋에서도 나타났듯이 製造原價가 저렴하고 殺傷力이 커 제3세계 국가들이 戰爭억지력을 확보키 위해 注目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무기분야도 역시 南·北韓의 開發能力은 충분하다고 보여 이의 중지가 協商 對象에 포함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별첨

南·北韓 主要 在來式 戰力表

1987년 기준

區 分	韓 國	北 韓
兵 力		
總人口(만명)	4,216	2,115
定規兵力(만명)	62.8	83.8
陸 軍	54.2	75
海 軍(海兵隊)	5.3(2.5)	3.5
空 軍	3.3	5.3
豫備兵力(만명)	484	500
戰 車(대)		
M-47 / 48	350 / 950	
T-34 / 54 / 55 / 62		2,700
PT-76		175
T-62Lt / 63Lt		300

區 分	韓 國	北 韓
裝甲車(대)		
M-113 / 577	450	
Fiat 6614	400	
KIFV(MICV)	200	
BA-64		140
BTR-40 / 50 / 60 / 152		1,400
BMP-1(MICV)		150
航空機(대)		
F-40D / E	65	
F-5E / F	260	
F-16	20	
C-46 / 47 / 123 / 541	34	
UM-1 AM-1S 500MD	350	
RF-5A	10	
OV-10G / A-37-B	23	
IL-28		80
SU-7		30
MIG 15 / 17		280
MIG 19		100 / 60
MIG 21		150
MIG 23		40
AN-2 / 24 IL-12 / 14		242
Mi 4 / 8 500MD		206
海軍武器(대)		
潛水艦	1	27
驅逐艦	9	
巡洋艦	6	2

區 分	韓 國	北 韓
Corvette함	11	
快速艇(미사일)	11	34
快速艇(포함)		167
快速艇(魚雷)		136
哨戒艇	127	65
上陸艇	46	135
掃海艇	9	

出處：IISS, 1987~1988.

南北交流協力 誘導方案에 關한 研究

—誘導戰略 構想을 中心으로—

崔 常 喆*

目	次
I. 序 論	IV. 分野別 南北 交流協力 誘導 方案
II. 南北 交流協力の 理論的 背景	V. 結 論
III. 南北 交流協力 誘導戰略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해방과 더불어 韓半島는 타의에 의한 民族分斷¹⁾의 쓰라림을 받아들여야 했고 또한 同族間의 戰爭을 통해 南北間에 극복하기 힘든 갈등의 벽과 불신의 「이미지」가 심화되었으며, 그 위에 國際的 冷戰「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이 韓民族의 異質化를 촉진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南北對話事務局 對話連絡部·5級相當

- 1) 이에 관해서는 金俊熙, “分斷國家理論에서 본 韓半島의 將來,” 民族統一論의 展開(서울: 형성사 1983) PP.133-73; 金學俊, “分斷史의 再照明,”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李洪九外, 서울: 박영사 1985) PP.25-62; 趙淳昇, “韓國分斷의 起源,” 民族統一論의 展開, ibid., PP.177-223 參照

이로부터 南北 쌍방은「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斷切로 인해²⁾ 자연히 발생하는 異質化 現象과 함께 南北統合의 고임돌이 되는 民族同質性(National Homogeneity)이 심각한 정도로 破損됨으로써 統一의 同化力(Identitive Power)이 약화되었다.³⁾

현재 南北은 다같이 思想·制度·理念을 완전히 초월하여 共感할 수 있는 새로운 理念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1980年代에 들어와 이루어진 部分的인 相互接觸과 交流의 경험은 政治現實的 次元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쌍방 각기 現存體制의 테두리내에서 Ideology의 土着化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⁴⁾

그러나 最近 國際情勢에 있어서의 New Detente Mood는 政治的 多極性(Political Multi-Polarization)이라는 새로운 構造的 變質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도 紛爭問題 解決에 점진적 安定化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開放的인 協商構造가 점차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寄與할 수 있게 되고있을 뿐만 아니라⁵⁾ 나아가 分斷國家에 있어서의 民族共存 可能性을 추구하는 根據를 제공하여 주고있다.⁶⁾⁷⁾

2) Karl W. Deutsch 教授는 美國 南北戰爭의 원인을 Communication의 斷切로 인한 誤解와 敵對感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서울: 박영사 1984) PP.178-84; 李相禹, “統一의 意味變化와 새로운 理論的 課題,” 「國際政治論叢」 제18집(1978) P.135; idem, 統一韓國의 摸索(서울: 박영사 1987) PP.1-15

4) 尹謹植, “冷戰體制와 民族分斷史,” 「社會學科」 제1집(서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5) PP. 1-24; 李相禹, supra note 3), ibid.; 黃性模, 「南北韓民主的 統合모델에 관한 研究」(서울: 국토통일원 1980) PP.9-10

5) 金雲泰外, 韓國政治論(서울: 박영사 1986) PP.692-95; 李克燦, 정치학(서울: 법문사 1987) PP.572-78

6) 金雲泰外, ibid., PP.701-705

7) 過去 東西獨獨의 緊張緩和와 關係改善은 「1民族 2國家」(ein Volk zwei Nationen)의 共存方式을 적용한 대표적인 例라 할 것이다.

【尹謹植, “A Comparative Study on East-West German and South-North Korean Relations,” in *EAST ASIAN REVIEW*(Vol. II No.2 summer 1975) PP. 120-44】

이러한 緊張緩和의 이른바 Non-Zero Sum Game의⁸⁾ 상황으로부터 세계는 相互對峙나 葛藤보다도 相互交流와 協力(Functional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통해⁹⁾ 각기 利益을 추구해 나가려는 開放的 體制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한반도 주변의 政治情勢도 이같은 世界秩序를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른바 強大國 體制의 New Detente Mood가 韓半島의 分斷狀況을 어떤 형태로든 脫冷戰의 潮流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外的條件이 되고있음을(Koreanization of the Korean Questions)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러한 世界情勢의 변화와 더불어 韓半島의 內的狀況도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고 있음은 명백하다.

韓國은 기본적으로 漸進的·段階的인 南北關係 改善을 통한 「統一成立의 조건이 개선되는 過程으로서의 統一」¹¹⁾이라는 現實的 接近方法을 제시하여 왔는데¹²⁾ 「過程으로서의 統一」이란 남북간에 積極的 相互作用(Positive Interactions)의 다양한 전개를 전제로 「對話를 통한 和解」, 「和解속의 交流와 協力」, 「相互模倣을 통한 同質化」(Identification)를 거쳐 점진적으로 社會·經濟·文化的 統合(Social·Economic·Cultural Integration)을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統合의 必然化」로 진행되는 一連의 過程(Process)인 것이다.

이와같은 相互作用으로 交流(Exchange)와 協力(Cooperation)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¹³⁾ 무릇 南北 交流協력이 歷史的 契機過程 속에서 社會體制 反映으로

8)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85) PP.118-19

9) 「機能的 國際協力」이란 非政治的 分野(經濟·社會·文化·教育 등)에 있어서의 國際協력을 의미한다.【李克燦, op. cit., P.603】

10) 安秉俊, “國際權力政治와 韓半島 統一,” 분단과 통일 그리고 民族主義, P.77

11) Johan Galtung, “Divided Nations As a Process ; One State, Two States, and In-Between,” 「統一政策」 제1권 제1호(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75) PP.24-60

12) 金東熙, 「南北韓 社會文化交流 綜合對策」(서울 : 국토통일원 1974) PP.19-20

13) 「交流」란 統合의 初步的 段階로서 남북 쌍방의 接觸(Contact)試圖와 接觸의 유지·확대를 포괄하는 非政治的 相互作用關係를, 「協力」이란 이와같은 교류가 쌍방간의 共同關係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며, 「接觸의 試圖」라함은 일정한 분야에서 特定한 接觸이 시작되는 것을, 「接觸의 維持·擴大」라함은 이러한 시도된 접촉이 타분야로 擴散되어가는 일련의 過程을 지칭한다.

【具本泰, 「南北接觸을 위한 理論의 定立」(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72) P.18】

서의 의의를 갖는 동시에 分斷된 民族이 반드시 거쳐야 할 歷史的·社會的 產物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 誘導方案의 모색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社會構造의 特殊性을 반영하면서 體制統合 實現에의 접근방향으로 摸索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실적 여건에서 南北 交流協力の 개념은 統一概念에 대한 새로운 정립에 근거를 두며, 이는 民族統一(National Unification)이라는 全體的 合一과 구별되는 측면에서의 民族統合(National Integration)의 概念定立을 필요로 하고 있다.¹⁴⁾

이러한 觀點에서 本研究은 향후 바람직한 各 分野別 南北 交流協力 誘導方案에 관하여 특히 그 誘導戰略의 構想을 中心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2. 研究方向 및 前提

南北 交流協力は 物質的·精神的인 이동작용으로서 相互補完性의 原則下에 國家利益의 추구하고 統一問題 解決의 漸進的 接近이라는 명확한 目的設定을 大前提로 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결국 南北間의 제반 交流協力は 段階的·漸進的 概念으로서 南北 統合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되며, 또한 그러한 성과로써 얻어지는 特定分野에서의 경험은 그 波及效果(Spillover Effect)로 해서 보다 더 高次元의 南北問題 解決의 基本 Model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은 다각적인 南北 交流協력이 韓半島 緊張緩和 造成에 긍정적 波及效果를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民族의 一體性(National Identity)을 도모하는 民族統合의 한 과정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社會科學 一般理論을 기초로 南北 交流協力の 理論의 背景 究明과 一般的 誘導戰略

14) 閔丙天, 「北韓의 統一戰略을 감안한 收斂理論의 韓半島 適用方案」(서울: 국토 통일원 1976) PP.5-6; 吳基松, 「南北統一과 民族主義에 대한 再考察」, 「統一政策」 제6권 제2호(1980) PP.101-11; 李相禹編, 統一韓國의 摸索, PP.1-15; 陳德奎, 「韓國의 民族概念과 民族의 統合」, 統一韓國의 摸索, PP.62-77

의 構想으로부터 示唆를 얻어 보다 구체적인 분야별 向後 南北 交流協力 誘導 方案을 提示하는데 主眼點을 두었다.

이와같이 統一에의 接近過程에서 남북 쌍방간의 交流協력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때 이에 관한 研究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對內外 變數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첫째, 強大國의 힘에 의한 政治가 國際社會의 政治的 現實과 價値로 존재하는 한 南北關係 역시 韓半島 주변 強大國간의 力學關係에서 發生되어 韓半島에 미치는 外的狀況을 고려해야 한다.¹⁵⁾

둘째, 현재 그리고 미래의 北韓의 行態와 性向 및 政策決定에 대한 精確한 分析과 判斷은 우리의 對北 交流協力戰略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條件이 된다는 인식에 필요하다.

셋째, 韓國內部 政治指導層의 統一指向 努力과 국민의 南北 統合力量이 긍정 적인 方向으로 結合될 때 南北 交流協力の 實現可能性은 더욱 可視化된다는 內的狀況을 고려해야 한다.

✓ 한편 交流協力は 기본적으로 相互作用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前提條件을 갖는다.

첫째, 交流協力は 相互依存의 또는 共生的(interdependent or symbiotic)인 작용으로 一方에 대한 損失이 他方에도 똑같은 정도의 損失을 주는 相互 依存 關係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둘째, 交流協力は 衡平的 또는 均衡的(symmetric or equitable)인 作用으로 交互作用에서 쌍방이 다같이 똑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셋째, 交流協力は 制度形成的 또는 制度超越的(institution-building or institution-transcendence)인 作用으로 특정한 어느 一方만이 아니라 雙方이 다같이 속하는 制度를 形成하는 方向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15) 金 應,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狀況의 背景,” 統一韓國의 摸索, PP.159-61 ; 李相禹, “하나의 韓國을 向한 우리의 길 : 課題의 性格과 政策方向,” 統一韓國의 摸索, PP.10-12

雙方間의 交互作用에서는 무엇보다도 衡平의 原則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만약 相互間의 交流나 協力에 있어서 非衡平이나 不均衡의 狀況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紛爭이 유발되며 흔히 말하는 協商的 去來나 去來의 狀況은 성립되기 곤란한 것이다.

이러한 前提下에 고도의 交流協力戰略이 강구되어 南北 雙方間에 수용될 수 있는 基本原則이 확립되어야 하며, 交流協力이나 이를 위한 協商過程은 絶對主義的 價値觀 보다는 相對主義 原則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실제 交流協力の 進行方式이나 절차상에 있어서는 葛藤과 調和의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本 研究에 있어서의 南北間 諸 分野 比較·分析이 計劃的 比較가 제한된 「파슨스」(Talcott Parsons)의 靜態的 社會體系論에 입각, 기술되었기 때문에 發展論的 視角을 缺如했을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南北 交流協力の 具體的 誘導戰略 部門이 상당히 一般論的인 構想위에 수립되어 있으며 韓民族共同體形成段階에서 필요한 誘導戰略은 開發되지 못했음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이다.

II. 南北 交流協力の 理論的 背景

—南北統合政策 및 統合理論의 構成—

1. 南北統合政策 構想

가. 南北統合政策 構想原則

統合을 위한 政策을 구상함에 있어서 統合이 전쟁과 같은 적대적인 異民族에 대한 鬪爭의 성격이 아니며 그 목표가 同一民族間의 異質性을 극복하여 완전한 合一的인 社會를 형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政策的 構想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原則의 適用이 根本的인 前提로 되어야 한다.

첫째, 統合은民族主義의 理念的 價値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¹⁶⁾¹⁷⁾ Ideology의 南北對立을 超克하는데는 하나의 民族은 하나의 統合된 民族國家(Nation-State)로 이어진다는 새로운 民族主義의 理念的 創造가 요청된다.¹⁸⁾

이러한 理念을 바탕으로 하여 그밖의 政治·經濟·社會體制에서는 民族社會의 對等的 構成員의 福利增進과 國際社會에의 平等的 參與 그리고 民族文化의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南北統合은 일체의 폭력적인 武力行爲를 排除하는 平和主義的인 方法으로 接近해야 한다.¹⁹⁾

平和指向의 성격은 南北韓 異質的인 體制의 現實性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한 體制가 발전적으로 統合되어 새로운 體制가 對等한 次元에서 형성하게 되는 문자 그대로의 對等한 統合의 실천인 것이다.

統合된 民族社會 속에서는 어느 일방의 體制가 우월적인 속성을 행사하고 다른 體制가 이에 從屬되게 되는 不平等한 상황의 조성을 前提하는 것 보다는 對等한 참여와 對等한 歸結 그리고 對等性에의 合理的인 一體性을 구축해가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셋째, 平和定着과 民族統一의 실현은 主體的·獨自的·自發的인 것으로 推進되어야 한다.²⁰⁾

16) 李相禹, supra note 15), ibid., PP.8-10 (著者は 汎民族的 理論體系로서 「韓民族主義」를 제시하고 있다) ; 李洪九,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의 歷史的·理念的 照明,” 統一韓國의 摸索, PP.165-75 ; 陳德奎, “韓國의 民族概念과 民族의 統合,” 統一韓國의 摸索, PP.44-77 ; idem, “分斷社會의 民族主義論,”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1985) PP.154-56

17) 張起雄, “南北韓 雙 體系(Pair System)에 관한 研究,” 「統一政策」 제5권 제3호 (1979) P.35에서 著者は 「우리의 民族統合과 祖國統一에 관한 論議의 始發點은 民族主義의 基本原理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言及하고 있다.

18) Supra note 14), ibid.

19) 李相禹, “民族統一의 課題,”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 P.195

20) 李洪九, “이데올로기의 時代와 民主主義,” 「이데올로기와 社會變動」(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편,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P.187-208 ; idem, “統一-理念으로서의 民主와 自由,” 統一韓國의 摸索, PP.19-43

이것은 統合의 發展過程이 外勢의 영향력이나 그의 主導的 試圖에 의한다기 보다는 韓國民族의 獨自의이고 主體的인 노력에 의해서 추구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韓國民族의 自發的인 抱負의 실현에는 外勢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克服할 수 있는 民族的인 自覺意識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南北統合政策 內容

현재 南北은 각기 獨自의 統合政策을 제시하고 있는 바, 北韓의 統一政策은 일종의 急進的인 統合을 모색하면서 궁극적인 효과의 결실을 社會主義的인 통일 실현에 두고 있는 반면, 韓國은 실제로 段階的인면서 統一 그 자체의 실현에 앞서 統一條件의 成熟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²¹⁾

그러나 이 두가지 統一政策이 상대방에 대한 實際的인 統合의 場으로의 誘導에 진지한 統一-接近 方針이라고 하는데는 실질적인 說得力을 缺如하고 있다.²²⁾ 즉, 각 체제는 상대방의 統一-方案이 그들 각자의 國際的 地位格上에 의한 主導權 장악을 전제로 한 것이며 統一에 대한 일종의 對內外的인 名分論理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점을 補完하는 의미에서 韓半島 兩體制의 統合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政策的 考慮로서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同 方案은 統一의 前段階的인 構想임과 동시에 統合의 궁극적인 指向을 前提로 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은 南北 兩體制를 현존의 상태에서 相互認定하는 現實的인 접근으로 시작한다. 즉 南北韓 當事者가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協定」을 체결하는데 同 協定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 ① 현존 南北韓 體制의 相互認定
- ② 각 체제내부의 政治·經濟·社會·文化領域에 대한 일체의 獨自的 決定權의 인정과 相互不干涉主義

21) Johan Galtung, supra note 11), ibid. : 金東熙, op.cit.

22) Cf. infra notes 50), 51)

- ③ 南北韓 敵對關係의 完全解消를 위한 軍事關係 協約締結(同 協約에서는 각 體制內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위해 필요한 程度의 軍事力만을 保有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
- ④ 兩體制 代表者會議의 設置(南北韓 양체제 대표에 의해서 常設的으로 共同關心事에 대한 의견을 개선하는 代表者會議를 設置하되 各 體制에 아무런 拘束의 效果를 가지지는 않게함)
- ⑤ 對外的 協力體制方案의 論議·摸索

이와같은「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協定」의 체결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敵對感을 해소하면서 相互協力 가능성을 모색, 어느정도 效果의인 단계가 가능해지면「南北 相互交流協力を 위한 研究」의 단계로 이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南北間 相互訪問, 學術資料의 交換, 文字·言語에 대한 共同研究와 같은 非政治的·非 Ideology의 問題를 연구하게 하고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兩體制的 해당 전문가들로 하여금 研究協議會를 구성하는 등 南北韓 社會·文化統合(Social·Cultural Integration)을 통한²³⁾ 社會共同體(Social Community)와 文化共同體(Cultural Community)의 形成 및 經濟分野에서의

23) 社會的 統合은 국경을 넘는 communication과 相互往來의 增加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현상이 高潮에 달하여 國家單位의 社會內에서의 Communication과 相互往來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면 그때는 汎國家的 社會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社會的 統合의 程度를 측정하는 指數로서 Richard Savage와 Karl W. Deutsch는 相互往來의 흐름(Transaction Flow)의 상대적 증가를 토대로 RA(Relation Acceptance) Index를 고안해 냈었던 바 이 RA Index는 國家間 總去來量을 기초로 각 대상국별 期待值를 계산한 후 實際去來量을 이와 비교하여 期待值로부터의 偏差를 산출하여 相對的 去來比重을 測定하는 것으로 Deutsch는 실제로 이 Model을 사용, Europe統合問題를 분석하는데 좋은 成果를 냈었다.

【Richard Savage and Karl W. Deutsch, "A Statistical Model of the Gross Analysis of Transaction Flows," *ECONOMETRICA*(Vol.28 No.3 July 1960) PP.55-72 ; Karl W. Deutsch(et al.), *France, Germany and the Western Alliance*(New York : Charles Schibner's Sons 1967) PP.218-39 ; Sang-Woo Rhee, "Theme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Messages : A Study on Pattern Shifts 1948-68,"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Vol.4 No.2 April 1973) PP.7-37】

交流·協力を推進·實現시킴으로써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통한 經濟共同體(Economic Community) 形成의 基盤을 다져 나아간다.²⁴⁾

이러한 漸進的 段階의 結실에 의하여 南北間 往來가 어느정도 가능해지고 실제적인 政治統合意識이 형성되면 그 다음의 中國적 단계인 「民族統合을 위한 基本關係 協議」를 진행하게 한다. 同 協議에서는 同一民族으로서의 밀접한 相關성을 相互補完·發展시킨다는 기조하에 南北 政治體制의 統合(Political Integration)을 통한 政治共同體(Political Community)를 形成함으로써²⁵⁾ 韓民族 共同體(Korean Commonwealth)의 完成이라는 最終段階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은 그 자체가 民族統合을 통한 實踐的 可能性을 기조로 하면서도 어느 一方의 勝利와 他方의 敗北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雙方 競爭體制의 성격을 확보하면서 相互 分斷狀況 때문에 당하고 있는 內外的인 고통을 경감해 주자는데 그 具體的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24) Joseph S. Nye는 Relu Balassa의 정의를 채택하여 經濟的 統合을 「다른 國家에 속하는 經濟單位間의 差別을 없애는 것」이라 규정하고, 그 단계로는 弱한 것부터 強한 것까지 다섯단계 즉, 自由貿易地域⇒關稅同盟⇒共同市場⇒經濟同盟⇒全面的 經濟統合으로 구분하고 있다.

【Joseph S. Nye, *Peace in Parts :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 Little & Brown 1971) PP.28-29】

25) 政治的 統合은 통합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그 結果가 가장 큰 통합으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狀態條件이 충족되었을 때를 말한다. 즉 ① 최소한 어떤 初步的인 機構를 갖추고 있고 ② 政策形成에서 相互依存的이며 ③ 서로가 同一體意識과 共同的 義務感을 느낄 것 등이다.

이러한 政治統合이란 두개 이상의 정치단위가 하나의 政治單位로 합쳐지는 것을 意味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單一 政策樹立機關이 형성되어야 하며(機關統合 : Institutional Integration), 對內外政策이 한가지로 되어야 하고(政策統合 : Policy Integration), 주요사태 판단에 대한 共通된 態度를 가질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態度統合 : Attitudinal Integration) 나아가서는 구성원간에 하나의 共同體에 속한다는 紐帶意識이 형성되어야 한다(安全共同體 : Security Community)

【Joseph S. Nye, *ibid.*, PP.36-37】

2. 南北統合理論 摸索

가. 統合理論 概說

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은 國家主權에 의하여 나뉘어진 社會集團間에 생활영역의 交叉에서 야기되는 社會機能의 統合必要性 때문에 국경을 넘는 橫的인 連繫가 생기게 됨을 前提로²⁶⁾ 平和秩序를 전쟁이나 기타 폭력의 使用排除라는 消極的 方法(Negative Peace)으로써가 아닌 共同體 形成의 人間本性的 속성을 活用하는 積極的 方法(Positive Peace ; Institutionalized Peace)에서²⁷⁾ 이룩해 보려는 사고에서 배태된 積極的 平和理論이다.²⁸⁾ ²⁹⁾ 따라서 統合理論의 핵심은 機能統合에 있고 이런 점에서 機能主義(Functionalism)와 밀착하게 되어 있다.³⁰⁾

D. Mitrany에 의해 제창되어온 機能主義 統合理論에서³¹⁾ 가장 중요한 두개의 命題는 첫째, 서로 交互作用을 하고 있는 사회간에 機能的 相互 依存關係가 생기면 共通의 統合利益이 생겨나고 이 共同利益은 두 사회를 불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統合促進(Regional Integration ⇨ International Integration)의 가장

26) Inis L. Claude는 이를 「水平的 接近法」(Horizontal Approach)라 稱한다.

【Inis L. Claude Jr., *Swords in Plowshares : The Problem and Progr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New York : Random House 1971) P.379】

27) 「消極的 平和」(Negative Peace)가 단순히 非戰狀態를 뜻하는 반면, 「積極的 平和」(Positive Peace) 또는 「制度化된 平和」(Institutionalized Peace)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制度가 확립되고 相互協調를 통하여 共榮을 이룩할 수 있는 體制가 확립된 狀態를 의미한다.

【李相禹, 「機能主義 統合理論과 南北關係改善方案 研究」(서울 : 국토통일원 1976) P.14】

28) 尹炳益, “南北韓 交流·協力을 위한 機能主義의 接近,” 「統一論叢」 제4권 제2호(서울 : 국토통일원 1984) P.108

29) 統合理論의 先驅者로서는 David Mitrany, 그밖에 Ernst Haas, Philip Jacob, Leon Lindberg, Joseph S. Nye Jr. 등의 學者들을 들 수 있다.

30) 尹炳益, supra note 28), ibid.

31) 이에 관한 最初의 著書로는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1943)이 있고 이후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1953)이 있다.

큰 要因이 된다는 것이며, 둘째,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機能的 協調關係는 다른 차원에서의 協調關係를 誘發한다는 이른바 分岐理論(Ramification Theory)이다.³²⁾

이러한 두가지 命題下에서 Mitrany는 理念的 制約이 적은 분야에서 이루어진 협력은 보다 큰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雪球效果(Snowball Effect)³³⁾를 낳는다고 보고 이를 國家間에 적용시키면서 현실적인 統合推進戰略으로써 『非政治的·技術的 次元의 協調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政治的 統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漸進論을 주장한다.³⁴⁾

共同體 統合에 대한 이 機能主義의 입장은 根本的으로 人間은 合理性을 가지고 있어 向上과 發展을 할 수 있으며 鬭爭과 對立보다는 調和와 平和를 더 원하는 존재라고 믿는데서 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機能主義는 두 統合單位의 經濟·社會統合은 물론 나아가 政治統合도 가능하다고 본다.³⁵⁾

32) 『機能主義는 정치적인 分割地域을 國際的 활동과 國際機構로 영킨 그물로 뒤덮고 그러는 동안 모든 나라의 국민들의 利益과 生活이 점차로 統合되게 하는 方法이다.』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Chicago : Quadrangle Books 1966) PP.31-38】

33)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더욱 커져가는 식의 膨脹效果를 意味한다.

34) David Mitrany, op. cit., P.97 ; idem,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XXIV(July 1948) PP.3-59 參照

35) 機能主義의 統合論者에 의한 統合(integration)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分斷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는 人間集團이 共同體를 만들어가는 過程과 協同體가 된 후 그것을 維持하는 方法의 問題」로 요약되고 있다.

【Ernst B. Haas, *Beyond the Nation-State*(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P.29 ; Leon N. Lindberg, *The Political Dynamo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6 ;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New York : Rinehart & Winston 1965) P.4 ; Karl W. Deutsch(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1957) P.5 ; Philip E. Jacob and Henry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Philip Jacob and James V. Toscano(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 Lippincott 1964) P.4 ;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Vol.5 No.4 1979) P.377】

이러한 政治統合의 경우도 두 統合單位間的 政策統合이 機關統合이나 態度統合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있다.³⁶⁾

新機能主義(Neo-Functionalism)는 機能主義 統合理論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政策的 統合을 가미한 이론으로서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政策目標을 정해 놓고 促進시키는 機構의 創設을 의식적으로 試圖하여 「部分 統合의 擴張論理」(The Expansive Logic of Sector Integration)에 따라³⁷⁾ 波及效果 (Spillover Effect)가 큰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즉, 新機能主義의 政治統合은 機能主義가 政策統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政策統合과 더불어 機能統合도 병행되어야 높은 共同體 意識이 생겨 통합이 굳어진다고 보는 것이다.³⁹⁾

聯邦主義(Federalism)는 機能主義 입장과 달리 社會 構成員間的 人間關係는 근본적으로 갈등관계이기 때문에 社會는 強制性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政治的 統合時에도 機關統合이 우선되어야 政策統合이나 통합체 구성원의 態度統合이 가능하다고 본다.⁴⁰⁾⁴¹⁾

1960年代부터 등장했었던 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은 처음부터 資本主義와 共產主義 兩體制의 接近可能性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理論으로서⁴²⁾ 同 理論의 中核은 현대의 대표적인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라는 양 체제가 어느 정도의 장기간의 지속적인 接近過程을 통해 Ideology의 制約을 벗어나 점차

36) Joseph S. Nye Jr., op.cit., PP.36-37

37) Ibid., PP.28-29

38) 李相禹, supra note 27), ibid., P.31 ; Ernst B. Haas, supra note 35), ibid.

39) 尹正錫, “機能的 接近論과 分斷國의 統一問題,” 「統一政策」 제6권 제3·4호(1989) P.184

40) Joseph S. Nye, op.cit., PP.36-37

41) Ibid., PP.28-29 ; 尹炳益, supra note 28), ibid.

42) 1957年 Raymond Aron이 收斂理論에 관한 最初の 著書인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를 발간한 이래 Jan Tinbergen은 1961年 4月 Soviet誌에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ing Pattern?”이라는 論文을 발표하고 이어 1962年 “Dix-huit Leçons sur la société industrielle”(産業社會에 관한 18 講義)를 발표함으로써 同 理論이 注目을 받게 되었으며, G.F. Kenan, W.W. Rostow, J.K. Galbraith, Z.Brzezinski 등의 학자들이 同 理論을 支持하였다.

공업화·도시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相互類似化(Simulation)되는 방향으로 收斂됨으로써 결국은「單一的이며 現代的인 産業社會」로 출현한다는 것이다.⁴³⁾

「커뮤니케이션」理論(Communication Theory)은 Communication 능력을 갖춘 人間集團이 다른 인간집단과 Communication을 통한 相互依存性을 높이면 지역간의 경계도 희미해지고 統合의 기초가 형성되어 共同體의 형성을 통해 民族統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바 이러한 共同體의 형성이나 지속은 Communication에 의해 相互同化(Assimilation)되는 과정에 따라 강도가 결정된다고 본다.⁴⁴⁾

「게임」理論(Game Theory)은 Game形態의 갈등을 Zero Sum Game과 Non-Zero Sum Game으로 구분하고⁴⁵⁾ 葛藤의 協商이「要求의 交叉」(Intersection of Demands)로 전환되어 葛藤相對者들에게 각기「部分的 勝利」를 고르게 안겨주며 어느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는 解決樣式을 개발하고 있는 바⁴⁶⁾ 이러한 대표적인 解決樣式을 제공한 것이 Rapoport의「囚人の 딜렘마」(Prisoner's Dilemma)와「치킨의 게임」(Game of Chicken)이다.⁴⁷⁾

「치킨의 게임」이 南北 交流協力에 理論的 活路를 제공하는 것은 南北 當事者들이 협동하지 않으면 모두 파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南北間의 葛藤關係 解決은 相互協同 밖에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며,「囚人の 딜렘마」게임도 적대적인 두 행위자 사이의 相互作用 Pattern을 協同段階

43) 金東熙, op. cit., PP.29-30 ; 具本泰, op. cit., PP.10-11 ; Zbigniew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 USA/USSR*(New York : The Viking Press 1968) 參照

44) Karl W. Deutsch는 그의 著書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Cambridge : The M.I.T. Press 1966) 및 *The Nerves of Government*(New York : The Free Press 1966)에서 Communication 理論 모델에 대한 기초를 제시함과 동시에 *France, Germany and the Western Alliance*(supra note 23) 및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supra note 35) 등의 發表를 통해 그의 Model을 經驗的으로 立證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5) 李相禹, 國際關係理論(서울 : 박영사 1979) PP.181-215

46) 具永祿, 國際政治의 分析(서울 : 법문사 1972) PP.199-203

47) Loc. cit.

에서 變節段階로, 이어 다시 協同段階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선명히 보여줌으로써 南北 交流協力戰略 樹立에 理論的 基準을 提示하여 주고 있다.⁴⁸⁾

南北 交流協力の 理論的 背景 가운데 또 하나의 주요한 흐름은 平和共存論으로 이는 南北의 對立關係를 平和共存關係로 전환시켜 그 바탕위에서 통합을 모색하자는 주장으로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北韓의 韓半島 武力赤化統一政策과 이른바 「리차드슨의 相互敵對感의 增加過程」(The Richardson Process of Mutually Increasing Hostility)⁴⁹⁾에 의한 惡循環의 葛藤過程에 대한 認識인데 同 理論의 核心은 相互間 信賴回復이 될 때까지 暫定的 平和共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 南北統合理論 構成：南北 交流協力の 理論的 根據

南北 交流協力論은 統合促進的 機能이라는 점에서 分斷國의 葛藤解消理論으로서 D.Mitrany의 機能主義 理論, A. Rapoport가 주장한 「게임」理論과 Z. Brzezinski 등이 발전시키고 있는 收斂理論 및 平和共存理論 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本稿에서는 이러한 一般의 統合理論을 수용·적용함으로써 南北 交流協力에 대한 確信과 可能性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고자 한다.

分斷國問題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政治現實的·法的·社會機能의 問題 등을 多角的·綜合的 側面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分斷國問題

48) 南北對話의 경우 南北韓은 이미 7·4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會議·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해 第1期 協同段階를 거쳤으며 이후 계속된 장기간의 對話膠着(1973.8.28-1979.2)의 第1期 變節段階를 거쳐 1979年度의 南北變則對坐와 1984-1985年間 第2期 南北對話期의 南北韓 體育會談·赤十字本會談·經濟會談·國會會談 豫備接觸 등 第2期 協同段階와 이후 對話中斷期(1986.1-1988.7)의 第2期 變節段階를 거쳐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南北體育會談 개최 등 남북대화에서 나타난 쌍방의 好意的 反應은 「囚人の 딜렘마」 Game에서 보여주는 第3期 協同段階로 접어들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9) 예컨대 北韓이 軍備를 강화하고 動員體制를 갖추에 대응하여 韓國도 相對的으로 軍備와 동원체제를 強化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간의 刺戟은 上昇作用을 일으켜 暴力에 의한 衝突을 초래케될 可能性이 높아지는 것이다.

【金學俊, 反外勢의 統一論理(서울: 형성사 1983) P.132】

의 해결을 위한 當面課題는 분단 쌍방간의 社會機能 統合實現에 앞서 平和共存關係를 실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쌍방간의 非敵對的 共存關係가 일단 실현된 이후 비로소 사회 제 분야의 多方面的 交流協力이 진행되어 社會機能間的 접근이 加速化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東西獨關係 定立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체계화된 「分斷國 一般理論」은⁵⁰⁾ 機能主義 統合理論의 分斷國 問題解決을 위한 理論의 限界性을 補完하는 유효한 接近方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⁵¹⁾

機能主義의 觀點에서 보는 政治的 統合은 남북의 주민들이 國家라는 공간을 넘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고 南北 兩政權과 主權이 自發性을 가지고 보다 큰것에 溶解되어야 함이 상정되나 현재로서는 이 目標를 상정하기 보다 相互 交流協力을 통해 社會·文化·經濟的 統合을 해나갈 수 있는 過程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南北關係에서는 더욱 統合의 條件과 前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⁵²⁾

機能主義 統合理論에 대한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同 理論을 韓半島에 적용시켜보려는 試圖을 하고 있으며⁵³⁾ 그 중 한 試圖은 統合에 도움

50) 金俊熙, “分斷國家 一般理論에서 본 韓國統一問題의 法的性質,” 「統一政策」 제1권 제2호(1975) 參照

51) 尹炳益, “分斷國家의 統合理論에서 본 多角的인 南北交流提議 評價,” 「統一政策」 제2권 제1호(1976) 參照

52) Richard L. Walker 美 South Carolina教授는 韓國政府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별 效果를 나타내지 못하는 制約要因으로서 ① 多元的 社會(Pluralistic Society)에서 非政治的 事項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북한과 같은 共產社會에서는 국가독점하에서 政治的 事項으로 받아 들여진다는 點 ② 공산당 1黨支配體制는 그들의 국민이 그들의 統制를 벗어나는 순간 dogma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點 ③ 北韓과 같은 閉鎖社會에서는 모든 Communication에 대한 開放을 軍事的 威脅程度로 두려워 하고 있다는 點 ④ 南北韓間에는 극히 異質的인 두 형태의 生活方式(Ways of Life)이 존재한다는 點 ⑤ 1950-60年代의 Europe 統合을 활성화 하였던 蘇聯이라는 共通의 敵이 남북한간에는 없다는 點을 들고 있다.

【Richard L. Walker, “Korean Unification : The Functional Approach What Prospect?” 「統一政策」 제6권 제3·4호(1980) PP.243-44】

53) Johan Galtung, supra note 11), ibid.

이 되는 條件(統合主體의 屬性)과 統合을 추진하는 行爲自體와 관련되는 命題들을 검토하고 統合條件의 改善策과 推進行爲戰略을 연구하고 있는 바⁵⁴⁾ 本稿에서 同 研究方法에 따라 먼저 統合主體의 屬性, 즉 南北韓이 가진 統合條件變數들을 Philip Jacob의 見解에 따라 몇가지로 整理해보겠다.^{55,56)}

綜合條件變數	南北韓의 境遇
(1) 地理的 隣接性 (Proximity)	○ 해당
(2) 同質性 (Homogeneity)	○ 種族: 동일 ○ 言語: 동일 ○ 血統認識: 동일 ○ 宗教: 현재 상이 ○ 價値觀: 상이 ○ 教育程度: 한국우위 ○ 社會階層: 상이 ○ 富·收入: 한국우위 ○ 態度 ⁵⁷⁾ : 상이 ○ 特質 ⁵⁸⁾ : 상이
(3) 相互作用 (Transactions)	○ 무역·교통 등 전무 ○ 制限的인 Message 交換·接觸이 있었음
(4) 認識上的 近接性 (Cognitive Proximity)	○ 현재는 낮으나 統一을 前提한다면 상당히 높아질 것임
(5) 機能的 利益 (Functional Interests)	○ 분명히 있음(南北統一이 가져다 주는 機能的利益은 아주 높음)

54) 李相禹, supra note 27), ibid., PP.33-82.

55) Philip Jacob and Henry Teune, op. cit., PP.18-19

56) A. Etzioni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6개 統合條件變數를 제시하고 있다.

1. 單位體 性質(① 개인적 성질 ② 분석적 성질) 2. 環境的 性質(③ 비사회적 성질 ④ 사회적 성질) 3. 體制的 性質(⑤ 공통된 성질 ⑥ 통합과정 이전의 통합 정도) 【Amitai Etzioni, op. cit.】

J.S. Nye는 Structure Condition으로 ① Symmetry or Economic Equality of Units ② Elite Value Complementarily ③ Existence of Pluralism ④ Capacity of Member States to Adapt and Respond를 그리고 Perceptual Condition으로 ① Perceived Equity of Distribution of Benefits ② Perceived External Cogency ③ Low Visible Costs등 7가지를 들고있다. 【Supra note 24), ibid., P.86】

57) 忠誠心·所望·恐怖 등에 대한 心理的 反應을 의미한다.

58) 어떤 特殊集團에 固有한 社會的 慣行 등을 지칭한다.

綜合條件變數	南北韓의 境遇
(6) 社會的 特性 ⁵⁹⁾ (Communal Character)	○ 相反됨(아직은 未成熟 段階, 北: 공격적·호전적 南: 방어적·평화지향적)
(7) 構造的 틀 (Structural Frame)	○ 적용시킬 수 없음(南北 政治構造의 反對性)
(8) 主權—從屬地位 (Sovereignty-Dependency Status)	○ 각기 完璧한 主權行使
(9) 政府機能의 效率性 (Governmental Effectiveness)	○ 南北政府 公히 效率性을 가지고 있음
(10) 統合經驗 (Previous Integrative Experience)	○ 있음(과거 2000여년간)

여기에서 統合의 10個 可能條件에 대한 綜合評價를 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判定이 가능해진다.

첫째, 전반적으로 統合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이 거의 같다. 10個 條件中에 統合에 有利한 것은 5가지이고 不利한 것이 5가지이다. 둘째, 統合에 有利한 條件은 모두 自然的 條件 즉, 地理的 隣接性·同質性·認識上의 近接性·機能的 利益·統合經驗 등이고 不利한 것은 모두 人爲的인 것 즉, 南北間의 政治 行態가 빚은 결과이다. 셋째, 따라서 統合의 與件은 남북간의 政治的 決斷으로 얼마든지 改善할 여지가 充分히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59) 社會的 特性은 그 사회고유의 態度表示·價值觀 및 行爲 Pattern에 대한 最頻數的 分布(Model Distribution)로 측정한다. David C. McClelland는 이러한 사회적 특질을 歸屬動機(Affiliation Motive), 成就動機(Achievement Motive) 및 權力動機(Power Motive)로 인식하고 있다.

【David C. McClelland, *The Achieving Society*(Princeton : Van Nostrand 1961)】

결국 南北社會는 統合을 촉진시키는 모든 自然的 條件을 갖추고 있으나 다만 南北間의 異質的 政治로 인하여 統合의 條件은 악화되어가고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統合은 政治的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즉, 兩側이 統合하려는 政治的 決斷만 가진다면 가능할 수 있고 統合보다 다른 價値를 더 앞세운다면 統合은 不可能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統合推進時 해야할 行爲는 어떠한 것인가를 Etzioni의 假說을 援用하여 整理해보겠다.⁶⁰⁾

行爲變數	南北韓의境遇
(1) 統合推進體의數	○ 현재는 추진체의 수가 적음
(2) 統合單位間의 힘의均衡	○ 쌍방이 비슷하면 통합추진은 용이하지만 실제 남북은 서로 강해지려고 할 것임
(3) 外部힘의作用方向 ⁶¹⁾	○ 美·蘇중 어느쪽이 남북통합에 더 힘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統合方向과 成功度가 달라짐
(4) 統合推進의 同化力	○ 同化力(Identitive Power)이 높을수록 통합은 가능한데 남북의 경우는 높다고 봄
(5) 功利性	○ 經濟分野와 일부 學術分野에서는 통합에서 오는 功利性이 있음
(6) 強制力	○ 平和統一의 명분하에서는 強制力 發動에 否定的일 것임
(7) 統合調整機構	○ 超國家的 機構가 있으면 추진은 쉬우나 그 性格이 問題임 ○ 북측이 주장하는 大民族會議는 해당이 안됨
(8) 統合行爲의 優先順位	○ 同意에 의한 共同體의 存在 ⁶²⁾ 技術協力分野 ⁶³⁾

60) A. Etzioni, op. cit., PP.64-93 ; 李相禹, supra note 27), ibid., PP.33-50

61) 統一問題와 外部 強大國의 影響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論文 參照 李相禹, “平和統一의 狀況變數 分析,” 「統一政策」 제1권 제1호(19075) ; Johan Galtung, supra note 11), ibid., PP.43-60

62) K.W. Deutsch(et al.), supra note 35), ibid., P.71

63) David Mitrany, supra note 32), ibid., P.97

行爲變數	南北韓의 境遇
) 軍事同盟 ⁶⁴⁾ 經濟統合 ⁶⁵⁾ 등의 우선 주장이 있음 ○ 남북은 7.4 共同聲明·平和統一 3大原則의 적용이 그러하나 北韓이 拒否하고 있음
(9) 聯合體와 構成單位間의 關係 ⁶⁶⁾	○ 한국이 北韓의 聯邦案을 拒否하는 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음
(10) 構成單位의 代表權	○ 해당안됨

여기에서도 南北統合에 適用可能한 變數는 統合推進體의 數· 統合單位間의 힘의 均衡· 同化力· 功利性· 統合優先順位 등 5가지이나 이것들도 장차는 변화하여 통합행위에 도움이 못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統合前提條件變數나 統合行爲變數를 南北統合에 많이 적용되도록 條件을 개선해 나가고 統合行爲를 위한 戰略도 開發해나아가야 機能論的 統合理論의 有用性을 찾게 될 것이다.

다. 南北統合의 假說

앞에서 南北統合政策 構想原則 및 內容과 南北 交流協力の 理論的 背景이 되는 統合理論 構成을 摸索해 보았는 바, 이러한 바탕위에서 南北統合의 假說

64) Henry A. Kissinger, "For an Atlantic Confederacy," *THE REPORTER*(February 2 1961) PP.16-20

65) A. Etzioni, op. cit., P.55

66) 이것은 統合이 어느정도 進行되어 完全한 共同體까지는 이르지 못한 中間形態로서의 聯合體(Union)라는 機構가 形成되었을 때 그 聯合體와 構成單位와의 關係에 관한 命題로서 韓半島에 있어 南北關係는 아직 이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 없으나 다만 앞으로 南北關係를 추진해 갈 때 形成할 中間統合體 運營에 대한 豫備知識으로서의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이 假說의 要旨는 聯合體의 運營이 民主的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구성단위인 한국과 북한의 구성체가 될 共同機構 사이에 민활한 Communication과 충분한 代議構造가 確立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을 다음과 같이 設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⁷⁾

《命題 I》南北統合은 統一과 區別된다.

- 分斷國 再統一은 武力的 方法과 平和의 方法이 있다.
- 武力的 方法에 의하면 「先 統一 後 統合」의 方式이 된다.
- 南北은 다같이 平和的 方法을 취한다.
- 平和的 方法에 의하면 「先 統合 後 統一」의 方式이 된다. 그러나 北韓은 平和的 方法이지만 先 統合보다도 先 統一을 주장한다.
- 統合은 統一以前에 相互接觸과 交流를 통해 協力體制를 실현하고 構成員들이 同一體意識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統合은 民族的 次元에서 이룩될 성질의 것이다.
- 統一은 統合狀態를 政治的으로 완전히 統合시키는 것이다. 즉 統一은 政治的 統合의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政治現實的 次元의 영향하에 論議된다.
- 韓國의 統一政策은 「統一成立의 條件이 개선되는 과정으로서의 漸進的 統一」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南北의 社會 및 經濟·文化的 統合段階를 거쳐서 政治的 統合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命題 II》統合은 相互接觸·交流를 통해 協力體制를 이루고 同質化되어야 한다.

- 統合은 일방에 의한 吸收가 아닌 相互融合을 前提로 하여 相互利益과 同質化를 中心論理로 해야 한다.
- 그러나 어느 段階에 가서는 統合의 性格이 北韓의 韓國化 方向으로 作用되어야 한다.
- 따라서 交流協力戰略도 段階的으로 달리 構想되어야 한다.

67) 여기에서의 假說(Hypothesis)은 단지 어떤 假定을 명제화 시켰을 뿐 아직 檢證되지 않은 理論이다. 命題(Proposition)은 主張·陳述·提案·議論·論點의 뜻을 가진다.

○ 《交流協力 戰略段階의 圖式은 다음과 같이 設定된다.》

1. 初期接觸段階(平和定着段階) : 對話를 통한 和解
2. 基礎交流協力段階(平和共存段階) : 和解속의 交流와 協力
3.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統合指向段階) (相互模倣를 통한 同質化)
4. 韓民族共同體 形成段階(統合完成段階) : 統合의 必然化

《命題Ⅲ》 南北統合으로 향하는 交流協力の 4단계중 제2, 제3단계에서는 機能論的 統合理論 · 收斂論 · Communication理論 · 平和共存論 등의 개념이 部分的으로 適用된다.

- 南北 交流協力は 상호간에 雪球效果 · 波及效果(機能論), 類似化(收斂論), 同質化(Communication Theory)를 가져올 수 있다.
- 그러나 이들 統合理論들은 西歐라는 同質社會의 통합에 적용된 것인 만큼 普遍性은 없다. 특히 統合主體의 主權問題를 무시한 이론이라서 異質體制인 南北韓에서 主權을 무시한다는 것은 適用의 限界性을 가질 것이다.
- 北韓이 交流協力過程에서 南北融合보다는 對決을 의도하고 交流協力を 중단시키거나 虛點 · 脆弱點을 없애기 위한 補強作用(Reinforcement)을 한다면 戰略的으로 한국에 有利하지만은 않다.

《命題Ⅳ》 統合은 단순한 國土의 統一만을 目標로 한것이 아니고 民族의 統一을 目標로 한다는 의미에서 社會 · 文化的 및 經濟的 統合까지 進行되는 과정에서 그 推進力은 民族의 論理가 基底로 되어야 한다.

III. 南北 交流協力 誘導戰略

1. 南北 交流協力 誘導戰略 構想

가. 南北 交流協力 誘導戰略 構想의 大前提

韓國은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締結」(1982.1.22) 제의를 통하여 「相對方 體制의 認定, 內政不干涉, 休戰體制維持, 相互 交流協力을 통한 社會開放 推進」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南北關係에서 北韓의 實際的 存在를 統一國家를 이룩할 때까지의 過渡的·暫定的 關係로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반면 北韓의 입장은 아직도 交流協力 相對者로서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즉 현실의 客觀的 理解에 바탕을 둔 相互 現實認定⇒存在認定⇒體制·政權認定이라는 도식의 성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南北 交流協力 戰略構想에 先行해서 논의되어야 할 大前提條件의 실정이 문제되는 것인 바, 그것은 첫째, 統一自體에 대한 우리의 基本構想을 설정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政策的 決定은 ① 어떤 形態의 統一을 國家政策 目標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② 그다음 그 目標達成을 위하여 어디까지 우리가 讓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⁶⁸⁾

현재 韓國政府가 취하고 있는 公式態度는 「先 平和定着 後 統一」政策이다. 즉 統一보다 더 급한 것이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 防止와 制度化된 平和의 確保라는 입장이다. 平和定着과 統一推進은 時系列上으로 相互 連結되지 않는 서로 다른 政策目標이고 따라서 그 政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行爲選定 基準도 다르다. 統一을 政策目標로 할 때는 소위 機能主義統合理論이 제시하는 統一促進條件의 확보와 促進行爲를 따라야 하겠지만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背馳되는 行爲를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平和定

68) 李相禹, supra note 27), ibid., P.81

着이 對北政策으로 되어있는 한 統一을 겨냥한 南北關係의 改善策은 그 限界性을 면할 수가 없다는 論理에 빠지게 된다.⁶⁹⁾

둘째 문제는 南北 交流協力을 실제적으로 實行하여 소기의 效果를 成就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宣傳的·政治手段의 次元에서 추진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設定하는 일이다. 直·間接的 接觸과 對話⇒合意⇒協約締結⇒協約遵守 制度化⇒交流協力⇒和合·統一의 과정은 일방의 유도과 노력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相對的·逆動的 過程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韓이 실제로 對話⇒交流協力⇒統一實現이라는 段階的·漸進的 過程을 희망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① 歷史的 現實을 직시하고 현실의 認定에 根據해야 한다. 이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接觸試圖⇒交流協力實踐⇒同質性 回復⇒統一理想의 實現이라는 契機的 段階를 밟아야 한다.⁷⁰⁾ 즉 交流協力は 相對方의 準備狀態와 現實的 處地를 감안한 提議만이 그 반응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相對方의 深部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의 限定的 接觸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즉 相對方이 두려워하는 것은 避해야 한다.⁷¹⁾
- ③ 秘密主義·秘密原則이 쌍방의 諒解下에 遵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共產

69) Loc. cit.

70)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보면 北韓이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에 의거한 南北調節委員會會議과 南北赤十字會談을 중단한 이후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새로운 南北接觸⇒第1次 南北經濟會談⇒第8次 南北赤十字會談에 호응해오기 위해 준비하는데 소요된 期間이 무려 12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12년이라는 기간에 北韓에서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投資와 建設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政策轉換이 일어났음을 엿볼 수 있다.

71) 예컨대 1972.8.30-10.24間 南北赤十字會談이 서울과 평양에서 3회에 걸쳐 개최되는데 소요된 期間은 1971.8.12日 大韓赤十字社의 會談提議를 기준으로하여 第1次 本會談이 열리기까지 豫備接觸(5次), 豫備會談(25次), 實務會談(16次), 常設連絡事務所 設置, 直通電話 架設 등 1年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經驗에서 향후 전개될 제반 交流協力的 實踐方法을 배워야 할 것이다.

主義者와의 會談이나 交流協力에서는 더욱 필요한 사항이다.⁷²⁾ 지난 40여년간의 北韓政權의 實利追求에 있어서 드러난 양상은 대부분 國內外 宣傳效果和 群衆結束의 方便으로 볼 수 밖에 없는 政治集會 形式의 聯合勢力 形成이었고 따라서 政治宣傳爲主의 聯合勢力 構築이라는 형식적 선전대결 이후에는 實質的 對話의 成立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豫測할 수 있다.⁷³⁾

- ④ 양측의 利害關係가 合致되는 範圍內에서만 실제적인 交流協力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분야를 포함하는 廣範한 對象設定 보다도 特定分野의 特定主題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提起하는 方法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 ⑤ 異質體制間의 交流協力は 政權當局者의 政治的 協商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政治協商은 아니라 하더라도 政治的으로 利害關係가 합치되어 쌍방간 合意·協約이 이루어지고 合意事項의 遵守與否가 制度化되지 않고서는 實質的 交流協력이 성립될 수 없다.

結論的으로 統一의 問題는 事實性和 當爲性 그리고 實踐性이 民族共同體的

72) 1972年 南北對話의 經驗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南北調節委員會會議과 赤十字會談을 성공시킨 것은 무려 5個月에 걸친 南北韓側 責任者와 實務擔當者間의 秘密接觸·秘密相互訪問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과거의 경험에서 나타난 현상은 實質的 南北會談이 展開된 時期에는 극소수의 當局者만이 참석하였다. 즉 北韓에서도 「南北調節委員會會議」, 「總理會談 開催를 위한 實務代表接觸」, 「南北韓體育會談」, 「南北赤十字會談」 등은 최하 2인에서 최고 6명정도까지 대표를 내보냈었다. 그러나 그들은 宣傳的 政治會談에서는 大規模 聯合戰線 形式의 代表者會議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實質會談에서는 政權次元의 소규모 精銳分子에 의한 非公開會議을 주장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통일접근 방법과 對話의 特徵이지만 반면에 外形上으로는 政治宣傳의 效果爲主의 民族的 聯合勢力 形式(각 정당·사회단체, 각계각층 및 해외동포 連席會議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實質的 會談過程에는 정권대표인 소수 정예분자의 非公開 接近法을, 形式的 會談에는 선전위주의 大規模 偽裝團體의 「聯合戰線」方式을 취하는, 말하자면 對話戰略上的 2重構造 내지 兩面性을 띠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인 것이다.

73) 崔平吉, “北韓의 南北對話 展開樣相 分析”, 「統一論叢」 제4권 제1호(1884) P. 20

一體感의 바탕위에서 어떻게 調和的으로 타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糾明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統一의 當爲性과 交流協力 擴大의 必要性은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原狀復舊의 의미에서 보다 分斷國家主義를 초월하는 統一民族主義에 바탕하는 現代的 民族國家를 건설해야 한다는 民族史的 召命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南北 交流協力 誘導 基本戰略

南北韓에 兩極化된 社會文化的 異質性은 民族分裂의 보다 深層的인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社會文化的 異質性은 南北社會의 統合의 單一化라는 관점에서 볼 때 政治·經濟制度的 相異性에 따른 異質化보다 가일층 심각하고 어려운 統合條件이 될 것이다. 分斷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南北韓의 社會文化的 異質性을 극복하지 못한 政治的 統合은 진정한 意味의 統一이 될 수 없으며 社會的 混亂을 가져오는 結果로 될 것이다.

따라서 南北 交流協力は 相互信賴를 유지하는 가운데 兩極化된 社會文化的 異質性을 좁히는데 기여하고 나아가서 혼란없는 南北 社會統合이 이루어질 수 있는 方向으로 그 目標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漸進的 統一接近 方式이라는 점에서 交流協力は 극히 特定한 分野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또한 軍事나 外交 및 財政政策 등 上部構造의인 문제보다는 사소하고 구체적인 下部構造의 問題부터 다루는 것이 유용하다. 이와같은 機能主義的 相互作用의 接近法에서 南北 交流協력과 接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戰略上의 特性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交流協력과 接觸은 비교적 理念的 葛藤이나 對立과 관련이 적은 분야 환언하면 그와같이 對立이 深刻하게 表出되지 않는 分野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交流協力は 實用的(pragmatic) 分野에서부터 착수되어야 한다. 이것은 交流協력이 非政治的 分野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南北 相互間의 交流와 協力は 쌍방이 똑같은 정도로 利益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

려 반대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損失을 입을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基礎해야 한다.

셋째, 비교적 交流協力の 波及效果가 큰 분야부터 착수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왜냐하면 初步的 段階에서의 交流協力 經驗이 다음 단계에 影響을 주어 쌍방간에 交流協力の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南北 交流協力は 남북간 對立과 葛藤을 최소화하고 쌍방의 共同利益을 추구한다는 기본목표아래 互惠平等的·相互對等的 交流協력이 가능한 非政治部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漸進적으로 相互 名分과 實利에의 접근으로 平和的 共存의 기반위에서 南北 政治統合을 통한 政治共同體(Political Community) 形成의 必要性和 歷史的 必然性を 提高시킴으로써 南北統合·統一問題에 實質적으로 접근한다는 基本戰略下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戰略의 초점은 異質體制間의 交流協力を 통한 韓國 內部體制的 損傷, 나아가 社會葛藤이 확산되지 않고 單一民族의 相互紐帶性 認識을 통해 南北社會의 異質化 解消와 同質性(Identitive Power)의 回復에 두어야 한다.

다. 南北 交流協力 誘導 接近戰略

1) 交流協力 接近原則

- ① 交流協力の 實行이 相互 同等한 立場에서 進行되어야 한다는 「相互 同等의 原則」
- ② 交流協力の 內容은 상호의 未備點과 脆弱點을 補完할 수 있어야 한다는 「相互 補完性의 原則」
- ③ 交流協力の 成果가 民族全體의 繁榮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相互 有益性의 原則」
- ④ 交流協力の 結果 어느 일방만의 不利益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相互 衡平의 原則」
- ⑤ 交流協력으로 인하여 相對方 體制的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共存性」 내지 「體制不干涉의 原則」

⑥ 交流協力の 進行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는 「漸進性的 原則」

2) 交流協力 接近形態

南北間 交流協力を 논의하는 對話의 形態는 分類基準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해볼 수 있다.

먼저 接近方法에 의한 구분으로서 南北 쌍방이 直接接觸하는 「直接型」과 第3國을 仲介하여 接觸하는 「間接型」 그리고 양자를 병행하는 「混合型」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初期間接型으로부터 점차 直接型과 混合型的 方法을 취해 나가는 것이 適當할 것이다.

參加國家에 의한 구분으로서 南北 兩 當事者만 참가하는 「南北韓型」과 南北을 제외한 「第3國型」 그리고 「混合型」으로 유형화되며, 交流協力 主導機關의 성격에 따라서 「當局會談型」(정부 및 기관주도), 「非當局會談型」(사회단체 주도), 「混合型」(양자혼합)이 있으며, 交流協력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자의 水準에 따라 「政治水準 會談型」(최고당국자간 접촉), 「實務水準 會談型」(각료급 실무자간 접촉), 「混合型」(양자혼합)으로 나뉘볼 수 있다.

交流協力 初期에는 「直接型」보다는 중개적 立場의 第3國에 의한 「間接型」이 적절하다고 고려되며 交流協力 첫단계는 雙方 實務陣間 접촉하는 實務水準 會談形式에서부터 漸進的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段階別 南北 交流協力 誘導戰略

交流協力の 段階設定은 전술한 바와 같이 交流協力の 最高目標인 韓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것이다. 交流協력을 통한 漸進的·機能的 對北戰略의 수행은 南北問題 解決의 基本論理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南北 交流協力は 성격상 대체로 交流協力 準備過程과 本格的인 交流協力過程 그리고 社會統合過程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交流協力の 段階를 初期接觸段階(交流協力 接近段階)⇒基礎交流協力段

階(交流協力 推進段階)⇒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本格 交流協力段階)⇒民族共同體 形成段階로 설정하여 段階別 誘導戰略을 고찰해보겠다.

가. 初期接觸段階(交流協力 接近段階)

이 時期는 실제 交流協력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南北이 對話를 통한 和解의 정신에 입각해서 交流協력이 準備되는 시기로서 이 단계의 戰略은 交流協力の 先行條件을 구축하고 交流協力 通路를 設置·保存하는데 주력함으로써 戰略目標인 交流協力 基盤造成을 위한 信賴霧圍氣 構築에 기여해야 한다.

交流協力の 先行條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人的往來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範圍를 어느정도 정해야 하는 바, 이 경우 交流協力 對象內容의 南北間 優越에는 무관하게 範圍를 광범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人的往來나 交流可能한 分野의 문제부터 解決해 나아가는 方向이어야 한다.

이 段階는 時期的으로 어느 一定期間이라고 못박기 어려울 정도로 짧을 것인 바, 그것은 交流協력에 대한 北韓의 태도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北韓은 交流協力の 段階性을 거부하고 急進의이며 包括的인 실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政治·軍事·外交·經濟·社會·文化의 분야별에서 뿐만 아니라 한 분야내의 內容別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다.

交流協力 實施戰術上 그 범위를 相互理解增進과 異質性 克服에 설정하도록 交流計劃을 논의하도록 할 것이나 實際合意는 雙方 共同關心事의 確認으로 그치는 것이 좋으며 交流協力の 側面役割을 할 수 있는 言論·遞信分野에서 部分的 人的交流가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對內的으로는 韓國社會의 脆弱性을 除去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對外的으로는 共產圈 내지 非同盟圈과의 交流·接觸을 적극화시켜 交流協力の 內實化를 기하는 동시에 對北 迂迴接近方式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基礎交流協力段階(交流協力 推進段階)

基礎交流協力段階의 시작은 準備段階의 쌍방 合意如何에 따라 交流協力 內容마다 時期的 差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前段階에서 정해진 共同 關心事의 범위내에서 對象內容의 優劣關係에 따라 優先順位가 戰術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단계의 戰略目標인 民族同質性 維持·發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單一民族意識을 鼓吹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民族同質性에 대한 북한측의 이해를 촉구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民族的 同質性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병행하여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南北의 民族傳統文化의 保存을 강조하고 그 발전에 대한 논의에 北韓側을 참여시키도록 誘導해야 한다. 이 단계의 交流協力 內容은 戰略目標에 따라 歷史·民俗傳統藝術 그리고 제한된 범위의 Sports, 技術·科學分野가 되어야 할 것이다.

基礎交流協力段階에서는 北韓의 社會·文化的 側面的 脆弱點을 발견해내고 우리측의 傳播內容에 대응한 受容態도와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비록 북한에서의 民族理解와⁷⁴⁾ 傳統에 대한 見解가 우리와 같지 않지만 그들이 南北 對話上에서 民族을 찾는 이상 民族的 視角에서 最大公約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本格 交流協力段階)

이는 南北間에 交流協력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交流量이 확대되고 相互 社會開放이 촉진됨으로써 두 사회가 相互模倣을 통해 社會·經濟·文化的으로 상당히 同質化 되어가는 交流協力の 中間段階로서 戰略目標은 北韓 社會·經濟·文化體制의 韓國體制로의 收斂化에 있게 된다.

이 段階에 와서는 基礎交流協力段階까지의 동등량의 互惠的 交流에의 均衡

74) 『은세계가 다 共產主義化 하려면 아마 상당한 時日이 걸릴 것이므로 일정한 시기까지는 民族的인 것을 살려야 한다.』【김일성담화,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1964】는 표현에서 처럼 「民族」도 공산화의 최종적 목표인 無階級社會까지의 方便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破壞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⁷⁵⁾ 交流의 最高目標 達成時까지 北韓의 自由化 可能性을 破綻시키지 않고 交流協力を 지속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北韓의 民族主義勢力과 自由主義的 知識層의 犧牲防止에 유의하고 아울러 統合後 南北住民이 共感할 수 있는 새로운 理念의 定立과 남북사회 再組織의 들을 創造하는데 힘을 기울임으로써 對外的으로 南北 同質化 過程을 國際的으로 認知케 하며 각종 國際機構에서 共同步調 내지 單一活動을 推進시켜야 한다.

이 단계는 交流協力の 내용에 따라 戰術的 制限은 가해질 수 있겠으나 範圍上으로는 거의 無制限이 된다. 즉 광범한 學術·藝術·體育·觀光交流協力を 推進시키면서 統合에 대비한 南北 單一教育·文化體系形成 論議도 이루어 지도록 한다.

라. 韓民族共同體 形成段階

南北의 社會·經濟·文化的 統合이 必然化 되어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統合이 政治的 統合以前에 오면 政治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Motive로 作用할 것이며, 만약 政治統合 以後에 온다고 해도 南北統合 後 즉, 韓民族共同體 形成後 民族發展에 박차를 가하는 힘으로 될 것이다. 이 단계가 바로 交流協力の 最高目標 達成段階인 것이며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는 時期이다.

以上에서 論議된 事項을 綜合·整理해보면 아래 圖表와 같다.

75) 交流의 均衡破壞는 收斂論的 立場에서 優越體制로의 接近과 文化變容理論에서 根據를 찾아볼 수 있는 바 Game理論에서 말하는 Non-Zero Sum Game을 Zero Sum Game으로 轉換시키는 것을 말한다.

區分	平和定着	相互交流協力		韓民族共同體 形成
統合基本 戰略段階	○ 平和定着段階	○ 平和共存段階	○ 統合指向段階	○ 統合完成段階
概 念	○ 韓半島 現狀維 持에 대한相互 認定の 表示 ○ 戰爭再發의 制度的 抑制	○ 制度的으로 相互敵對關係解 消 ○ 多角的 交流協 力關係形成	○ 大韓民國의 優位性を 바탕 으로 한 準統合 關係의 形成	○ 韓民族 同質性 의 價値가 溫存 되는 南北統合
戰略目標	○ 戰爭再發 抑制 ○ 緊張緩和 ○ 平和關係 定立	○ 平和共存 ○ 民族同質性 回復	○ 北韓體制 收斂 化로 統合 主導 權 確保	○ 民族共同體로 統合政府 樹立
交流協力 過 程	交流協力準備期 (當面目標 設定)	本格交流協力期 (中間目標 達成)		民族統合期 (最高目標 達成)
交流戰略 段 階	○ 初期接觸段階	○ 基礎交流協力段 階	○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 韓民族共同體 形成段階
交流段階 性格 및 戰略目標	○ 對話를 통한 和解 * 交流基盤造成	○ 和解속의 交流 와 協力 * 民族同質性 回復	○ 相互 模倣을 통한 同質化 * 北韓體制的 收斂化	○ 統合의 必然化 * 民族同質化 維持發展

IV. 分野別 南北 交流協力 誘導方案

1. 政治分野 交流協力 誘導戰略

가. 誘導方向

南北 政黨·政治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民族問題를 포함한 南北間 懸案問題를 허심탄회하게 討論하며 적절한 問題解決方途를 모색·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推進하되 政府當局과의 긴밀한 協議體制 維持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南北 政治人 交流協力の 具體的 內容과 方法에 대해서는 南北國會會談을 통해 協議·決定토록 하며 政黨人士들의 交流는 所屬政黨 議員들을 중심으로 하여「親善訪問」次元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1段階 示範事業 性格의 議員 相互親善訪問이 성공적으로 進行되면 招請訪問 回數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議員 懇談會·討論會」交換開催도 추진하는 한편 교류협력 進進상황에 따라「南北議員親善協會」,「IPU 등 國際行事에서의 南北 共同步調」를 취해 나가는 방향으로 發展시켜 나간다.

나.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南北議員 相互 親善訪問	○ 南北의 議員들이 상대측 지역을 訪問하여 쌍방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우리側의「國會」北側의「最高人民會議」本會議에 交換參觀함으로써 남북의 政治現場을 직접 比較·體驗케 함.
議員 合同懇談會 討論會 交換開催	○ 남북 정치인들이 民族의 懸案問題와 將來問題에 대해 함께 討議하는 契機로 活用함.

區 分	內 容
南北議員親善協會 設置	○ 남북간 議員 親善訪問과 懇談會 및 討論會 교환개최의 정례화로 상호간 信賴의 바탕이 構築되면 「南北議員親善 協會」 설치로 「政治共同體」 形成基盤을 造成함.
IPU 등 國際行事に 서의 南北共同步調	○ 남북이 國際行事に 함께 참가하는 機會를 이용, 共同步調 를 취해 나감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民族力量 浪費를 防止하고 民族的 自尊을 高揚시킴.

다. 段階別 協商戰略案

1)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議員 相互親善訪問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議員間 親善訪問 次元에 力點을 두며 本格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쌍방 議會內에 專擔機構 設置·運營 * 우리側은 國會內 「外務統一委員會」가 專擔
② 契 機	○ 3. 1節, 8.15 등 民族的 主要行事時 ○ 國會(9月), 最高人民會議(4月) 本會議 開催時
③ 期 間	○ 4泊 5日
④ 人員規模	○ 쌍방 各 50名 內外
⑤ 訪問方式	○ 相互 同數同時交換方式 및 輪番制交換方式
(3) 協商方法	○ 南北 議員들로 구성된 「南北國會會談」을 통한 協議

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議員 合同懇談會 및 討論會 交換開催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民族의 將來問題와 관련한 雙方 議員間의 허심탄회한 討論과 親善의 場을 마련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雙方 議會內에 專擔機構 設置·運營 * 우리側은 國會內 「外務統一委員會」가 專擔
② 契 機	○ 民族的 主要行事時
③ 場 所	○ 雙方 議會(우리側 「國會」, 北側 「最高人民會議」)內 뿐만 아니라 第3의 場所도 考慮
④ 人員規模	○ 雙方 各 25名 內外
⑤ 方 法	○ 各 分野別 分科討論 後 綜合討論 및 懇談會 並行
(3) 協商方法	○ 南北 議員들로 구성된 「南北國會會談」을 통한 協議

3)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議員親善協會」設置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相互 信賴構築 바탕위에 「政治共同體」 形成基盤 造成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雙方 會議(우리側 「國會」, 北側 「最高人民會議」)
② 設置場所	○ 雙方 議會內
③ 方 法	○ 各 分科別 親善 小委員會를 構成한 後 전체적으로 「南北 議員親善協會」를 構成
④ 人員規模	○ 雙方 全 議員 包含
(3) 協商方法	○ 「南北國會會談」이 원만히 進行되면 南北 議員들간의 合意로 「南北議員親善協會」를 設置함.

나) IPU 등 國際行事에서의 南北 共同步調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相互 單一民族이라는 同質性的 共感帶 構築을 基盤으로 單一「政治共同體」形成基盤을 造成하는데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쌍방 議會(우리側「國會」, 北側「最高人民會議」)
② 契 機	○ IPU 行事를 비롯한 議會關聯 各種 國際行事時
③ 方 法	○ 南北 議會(議員)間 共同步調 * 各種 共同提案(發議) · 相互對決 止揚
(3) 協商方法	○ 「南北國會會談」에서의 原則的 合意 後 雙方 議會議員 全員の 同意를 求함.

2. 經濟分野 交流協力 誘導戰略

가. 誘導方向

南北 經濟交流協力は 쌍방 經濟人間의 親善訪問 次元에서의 단순한 人的 交流보다는 궁극적으로 民族 共同繁榮과 福祉增進을 위한 物資交易 · 合作投資 · 共同事業實施 등을 誘導 · 促進하는 方向에서 推進되어야 한다.

純粹理論的 側面에서 南北 經濟交流協力は 經濟的 補完性 · 產業部門別 費用 隔差 등으로 그 利益이 클 것으로 豫상되지만 現實적으로 雙方 體制的 差異 · 市場의 歪曲 나아가 양 지역의 특수한 對內外 政治 · 經濟狀況이 制約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側面을 고려해 볼 때 南北 經濟交流協力は 經濟的 優位나 對比가 적으면서도 經濟的 必要性을 充足시켜주는 分野, 經濟改善에 波及效果가 크고 實益을 短期에 줄 수 있는 分野, 非軍事的 · 非戰略的 品目으로서 紛爭發生

要因이 적은分野 즉, 人的要素가 적고 物的要素가 많은 분야에서부터 相互非刺戟的인 방법으로, 예컨대 一方的인 援助나 協調가 아닌 相互協力の 형태로 우선 推進되어야 한다.⁷⁶⁾

示範的 親善訪問 性格의 經濟人 交流가 定着될 경우 중단되고 있는 南北經濟會談을 再開하여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 設置·運營에 合意, 본격적인 交流協力 基盤을 조성한 후 商品展示會 交換開催·購買使節團 派遣 등 物質交流를 誘導·隨伴하는 方向으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資源共同開發과 관련한 資源調查團 交換·合作企業設立 등 合作投資와 共同事業 推進을 유도하면서 物資交易과 經濟協力を 制度化하는 方向에서 經濟政策諮問團 派遣·商社의 交換常駐·貿易代表部 交換設置事業 등을 推進한다.

나.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南北經濟人 親善訪問團·產業視察團 交換	○ 南北 民間團體 經濟人을 中心으로 한 適正規模의 訪問團을 構成, 상호 主要 產業團地·經濟團體·研究所 등 交換 訪問 實施로 南北經濟人 信賴雰圍氣를 造成함.
南北經濟人 合同懇談會·討論會 開催	○ 相對方의 理念·體制를 자극하지 않는 純粹經濟分野 相關 問題에 關한 南北經濟人 合同懇談會 및 討論會를 정례적으로 開催함.
商品展示會 交換 開催	○ 日常生必需品를 비롯한 各分野 商品의 交流可能性을 打診하기 위한 相互 商品展示會를 交換開催함.
購買使節團·資源調查團 交換	○ 各分野 商品購買使節團 및 鑛物資源 賦存與否調查團을 相互 交換함.

76) 鄭暢泳, 「南北韓 經濟關係 進展과 政策課題」(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 연구센터 1986) P.82; 李宗夏·尹錫範·朴振根·鄭暢泳, 「南北韓 經濟交流 推進方案에 關한 研究」(서울: 국토통일원 1981) P.163;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分野 交流協力 實踐方案研究」(1984) P.21

區 分	內 容
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 設置	○ 南北經濟會談을 통해 쌍방간 經濟交流協力問題를 專擔하 게될 共同機構를 設置함.
相互 經濟政策 諮問團 派遣	○ 상호 信賴가 造成된 以後 상대방 經濟體制 및 制限 政策에 諮問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諮問團을 派遣함.
商社의 交換常駐	○ 大規模 人的·物的 交流協力에 대비한 民間레벨 商社의 상대방 지역 常駐를 推進함.
貿易代表部 交換設 置	○ 쌍방 經濟交流協力 業務의 效率的 遂行을 위한 對內外 單一窗口로서 정부당국 차원의 貿易代表部를 設置함.
南北 合作企業 設立	○ 南北 單一 經濟共同體 形成의 前段階 基盤造成을 위한 多角的 合作企業의 設立을 推進함.

다. 段階別 協商戰略案

1)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經濟人 親善訪問團 및 產業視察團 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 經濟人間的 信賴構築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 방향 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4個 民間經濟團體(全國經濟人聯合會·韓國貿易協會· 大韓商工會議所·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② 構 成	○ 引率團·親善訪問團(產業視察團)·支援協力團·取材記者 團
③ 選 拔	○ 民間經濟 4個團體에서 推薦하는 人士中에서 選拔
④ 規 模	○ 200名 內外 * 基本的으로 多數規模 原則

區 分	內 容
⑤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⑥ 期 間	○ 6泊 7日
⑦ 方 式	○ 同數 同時交換方式 原則 * 필요시 相互主義에 입각 輪番制交換方式 並行
⑧ 視察對象	○ 쌍방이 推薦하는 주요 産業團地·觀光地·經濟團體·研究 所 등
(3) 協商方法	○ 南北經濟會談을 통한 協議·決定

나) 南北經濟人 合同懇談會 및 討論會 開催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純粹經濟分野를 중심으로 南北間 經濟交流協力の 可能性을 打診·導出해내는데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4個 民間經濟團體(全國經濟人聯合會·韓國貿易協會·大韓商工會議所·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② 構 成	○ 引率團, 參加團(主題發表者·討論者), 諮問團(經濟官僚·專門經濟學者), 支援協力團, 取材記者團
③ 選 拔	○ 民間經濟 4個團體에서 推薦하는 專門經濟人 중에서 選拔 * 對共產圈 貿易商談 經驗者와 經濟官僚 및 學者出身 專門 企業人 參加誘導
④ 主 題	○ 相對方의 理念이나 體制를 자극하지 않는 純粹經濟分野 * 第1次 合同懇談會 및 討論會 主題(例示) ○ 大主題: 民族의 共同繁榮과 福祉增進을 위한 經濟的 紐帶 回復方案 ○ 小主題: • 南北間 求償貿易 推進方案 • 南北間 經濟交流協力 活性化 方案 • 南北間 對外經濟分野에서의 協力方案

區 分	內 容
⑤ 規 模	* 主題發表 內容은 相互 事前交換 ○ 쌍방 各 25名씩 總 50名 規模
⑥ 場 所	○ 相互主義에 따라 서울·平壤 輪番開催를 原則으로 하되 필요시 第3國도 考慮
⑦ 時期·期間	○ 時期: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期間: 5泊 6日
(3) 協商方法	○ 南北經濟會談을 통한 協議·決定

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商品展示會 交換開催, 購買使節團·資源調查團 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相互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基礎的 物資交流協力を 誘導하 면서 本格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4個 民間經濟團體(全國經濟人聯合會·韓國貿易協會· 大韓商工會議所·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② 對 象	○ 純粹한 自國生産 生必需品을 비롯한 相互購買·交易 可能 商品爲主 展示 ○ 交易可能 鑛物資源 賦存與否 調查團 交換
③ 往來節次	○ 「板門店」經由原則 * 쌍방 合意 第3國 經由 航空·船舶利用 可能
④ 身邊保障	○ 쌍방 政府當局 發行 身邊保障覺書 交換
(3) 協商方法	○ 南北經濟會談을 통한 協議·決定

나) 「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設置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間 經濟交流協력과 關聯된 諸般 問題를 政府 當局 次元에서 專擔할 共同機構 設置에 合意를 誘導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名 稱	○ 「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
② 構 成	○ 共同委員長(副總理級) 各 1名 共同副委員長(長官級) 各 1名 ⇒ 總 14名 委員(長·次官級) 各 5名
③ 機 能	○ 南北間 物資交流·經濟協力事業에 관한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 ○ 南北 交流協力 基本方向 및 方法·對象·規模에 대한 綜合計劃의 協議·決定 ○ 經濟去來機關間 提起되는 제반 紛爭問題의 協議·調整 ○ 南北 交流協力 發展時 提起되는 其他問題의 協議·決定 및 그 履行保障
④ 分科委員會 構成	○ 「共同委」의 圓滑한 運營을 위해 「物資交流分科委」와 「經濟協力分科委」를 構成 * 필요시 쌍방 合意에 따라 「特委」·「小委」構成
⑤ 共同事務局 設置	○ 「共同委」 및 「分科委」의 運營支援 ○ 事務局長 및 適正數의 事務員으로 構成
(3) 協商方法	○ 南北經濟會談을 통한 協議·決定

3)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相互 經濟政策諮問團 派遣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쌍방 經濟政策에 대한 勸告·諮問으로 「經濟共同體」形成 基盤 造成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
② 規 模	○ 團長 1人, 副團長 1人을 包含한 20名 內外 * 經濟官僚·專門經濟學者·民間經濟團體의 專門經營人을 網羅
③ 任 務	○ 相對方 經濟政策 樹立·實行·分析·評價와 關聯한 政策 諮問 役割 ○ 相互 經濟政策 補完分野 助言·諮問 ○ 南北 單一 綜合經濟政策 遂行의 可能基盤 造成
(3) 協商方法	○ 南北經濟會談 및 南北 經濟團體間 協議를 통한 協商

나) 貿易代表部 交換設置 및 商社交換常駐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 單一經濟體制 形成을 目的으로 對內外 窓口의 一元 化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쌍방 政府當局의 委任에 의하여 「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 委員會」가 主軸
② 設置場所	○ 貿易代表部는 서울·平壤에 設置함을 原則으로 하되 商社는 필요시 쌍방 協議로 第3의 都市에도 常駐可能
③ 機 能	○ 全般的 南北 經濟交流協力事業의 調整役割 ○ 對內外 窓口 一元化 機能遂行
(3) 協商方法	○ 南北經濟會談을 통한 協議·決定 後 雙方 政府當局間 最終決定

다) 南北合作企業 設立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 單一「經濟共同體」形成의 前段階 構築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
② 對 象	○ 相互 協力可能 部門別 合作企業
③ 規 模	○ 雙方 協力事業 當事者間의 協議로 決定
④ 形 態	○ 單獨經營 및 合作形態(株式會社型 및 公社型)
(3) 協商方法	○ 南北經濟會談 및 雙方 經濟團體間 協議를 통한 協商

3. 言論 · 出版分野 交流協力 誘導戰略

가. 誘導方向

南北間에 언론의 概念 · 機能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⁷⁷⁾ 한편으로는 쌍방 言論人의 相異한 價値觀 및 報道姿勢가 南北 交流協力 전반에 걸쳐 否定的 影響을 미칠 수도 있음을 상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나 言論이 社會文化의

77) 北韓의 言論은 『黨의 昉스 · 레닌주의적 主體思想과 革命理論 그리고 獨창적인 革命戰術의 方針을 대내외에 널리 宣傳하여 唯一의인 主體사상체계에 기초하여 黨의 두리에 人民大衆을 반석같이 묶어 세우고 대중을 黨政策 貫徹에로 힘있게 組織動員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戰爭政策을 粉碎하는 유일한 思想宣傳의 武器』【김일성 저작선집】이다.

이것은 『新聞은 集團의 宣傳者일 뿐만 아니라 集團의 組織者이기도 하다』는 Nikolai Lenin의 견해가 『新聞은 大衆과 黨과의 傳導帶』라는 Joseph V. Stalin의 견해가 오늘날 북한언론에도 그대로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뉴스는 事實의 도움에 의한 煽動이다』(蘇聯 Tass通信 社長 N.G.Falgunow말) 【崔楨鎬, “北韓의 言論政策”, 北韓(서울 : 북한연구소 1977. 3)】라는 말처럼 보도뉴스조차도 宣傳과 煽動 그리고 集團의 組織의 武器인 북한언론은 「黨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대로 행동하는」人間을 만들기 위한 人間改造의 手段으로써 북한의 體制統合에 기여해오고 있는 것이다.

中樞神經的 機能을 하며 體制統合에 寄與하는 점에서 共通點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 中樞神經的 機能이 남북간의 他分野 交流協力を 促進시켜 주는 尖兵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言論·出版分野 交流協力は 남북관계 進行的 證言者 役割을 하며 타분야 交流協力擴大의 觸媒役割을 함으로써 相互 信賴回復을 위한 霧圍氣造成에 가장 寄與할 수 있는 방향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1段階 範圍事業인 「言論人 相互親善訪問」이 성공적으로 進行될 경우 그 回數를 늘려가며 점차 「契機別 招請訪問取材」도 비정치적 행사로부터 政治的 行事に까지 범위를 擴大해 나간다.

이와같이 남북 언론인간 교류협력이 擴大되어 쌍방지역 출입이 빈번해질 경우 「南北言論人 交流協力推進協議會」間에 合意書를 採擇, 상대측 지역의 記者常駐 및 支社設置를 추진하되 초기에는 各社別 支社·支局設置 보다는 常駐特派員團의 共同事務所 設置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言論人 相互親善訪問과 契機別 招請訪問取材가 整理化될 경우 「TV·放送프로그램 共同製作」 등 共同事業 分野에서의 교류협력도 積極 推進한다.

나.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言論人 相互親善訪問	○ 相互體制나 理念에 영향을 주지 않는 範圍內에서 상대측 言論人을 同時交換 또는 輪番方式으로 招請하여 자기측 언론기관 施設·活動 등을 紹介하고 觀光·視察을 周旋하는 기회를 통해 相互 親善圖謀와 理解增進을 꾀함.
契機別 招請訪問取材·隨行取材	○ 쌍방 地域內에서 進行되는 國際規模 行사와 民族的 名節·慶祝日 등의 주요 契機에 상대측 言論人을 招請, 取材를 保障함.

區 分	內 容
報道資料交換	○ 電送寫眞·記事資料 등을 隨時 또는 定期的으로 交換할 수 있는 通路를 마련함.
放送프로그램交換	○ 相互 錄音·錄畫테이프를 交換, 각자의 放送施設을 통해 放送·放映함으로써 理解의 幅을 넓힘. ○ 프로그램內容은 가급적 政治宣傳의 內容을 排除하고 民族 同質性 維持·發展에 도움이 되는 內容으로 함.
定期刊行物交換	○ 一般圖書 및 學術刊行物を 除外한 정기간행 雜誌類를 交換하되 初期에는 等價交換 또는 同等量 交換부터 시작 하여 궁극적으로는 自由購買를 實施하도록 함.
圖書·出版資料交換	○ 南北 出版團體나 圖書館間 圖書·出版資料의 直接交換을 實施함.
日刊新聞交換	○ 一定量의 新聞을 쌍방 物物交換 形式으로 實施함. ○ 初期에는 相互交換形式으로 하되 合意에 의해 物量을 늘려가며 終局的으로 自由講讀에 目標을 둠.
메스컴 製作技術者 交流協力	○ 메스컴 製作의 技術의인 면에 있어서의 諸般 經驗과 技術을 相互 交換하고 諮問할 수 있는 通路를 構築하는데 重點을 둠.
放送프로그램 共同製作	○ 南北間 放送프로그램 交換事業의 進展에 따라 상호 放送人에 의한 共同製作을 試圖함으로써 放送人間의 親善圖謀는 물론 共同製作物의 世界市場 進出을 꾀함.
言論人 常駐取材 및 支社設置	○ 各 메스컴별 特派員 常駐取材 및 言論支社 設置로 남북간 單一 社會共同體의 形成基盤 造成可能性을 提高시킴.

다. 段階別 協商戰略案

1)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가) 言論人 相互親善訪問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相互 言論人 親善訪問을 통해 親善과 理解增進을 圖謀하 면서 本格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議會」
① 主 管	* 構成：言論界·學界 關係專門家 · 共同會長 各 1名 · 共同副會長 各 1名 ⇨ 總 34名 · 委員 各 15名 * 新聞·放送·定期刊行物 分野
② 時 期	○ 南北 雙方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③ 期 間	○ 6泊 7日
④ 訪問內容	○ 招請側 言論機關 訪問, 施設見學 및 活動現況 聽取 ○ 遺跡·名勝地 觀光 및 産業施設 視察 * 部分的 取材並行
⑤ 人員規模	○ 新聞·放送·通信·定期刊行物發行 등 各 미디어別로 構成·交換 * 모든 미디어를 統合, 單一訪問團 構成도 考慮
⑥ 規 模	○ 100名 內外
⑦ 訪問方式	○ 相互 同數同時交換方式 또는 輪番制交換方式
(3) 協商方法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諸般問題의 協議·決定

나) 契機別 招請訪問取材 및 隨行取材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契機別 相互 招請訪問取材와 隨行取材를 實施하여 信賴雰圍氣를 造成함으로써 本格 交流協力 基盤을 構築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
① 主 管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
② 時 期	○ 雙方에서 主催하는 國際規模行事· 民族의 名節 및 慶祝日 등 其他 合意時期
③ 期 間	○ 6泊 7日
④ 訪問內容	○ 招請行事 參觀· 取材 ○ 遺跡· 名勝地 觀光 및 産業施設 視察 * 部分的 取材竝行
⑤ 人員構成	○ 各 미디어別로 構成· 交換 또는 綜合視察團 構成· 訪問을 原則으로 하되 招請側 意思尊重 * 特定· 言論社間 招請交換訪問 包含
⑥ 規 模	○ 100名 內外
⑦ 方 式	○ 相互 同數同時交換方式 또는 輪番制交換方式 * 訪問取材時 取材範圍· 深度· 記事送稿의 諸般 難點 事前 充分히 考慮 * 隨行取材時는 數次에 걸친 各 分野 南北會談을 통해 確立된 先例準用
(3) 協商方法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諸般問題의 協議· 決定

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報道資料·放送프로그램 交換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間에 言論關聯資料를 定例的으로 交換할 수 있는 常設窓口를 設置하는데 力點을 두고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交換內容	○ 政治宣傳的 內容이 排除된 電送寫眞·記事 등 報道資料 ○ 放送錄音·錄畫테이프 * 傳統藝術·名勝古蹟·文化財·天然紀念物·自然風景 등의 內容 爲主
② 交換量	○ 雙方 合意의 適正數量
③ 交換窓口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 * 該當 言論社間
④ 交換方式	○ 同數同量 同時交換原則
⑤ 交換方式	○ 「과우치」便으로 「板門店」을 經由하여 相互交換함을 原則으로 하되 쌍방 合意에 의해 第3國 經由도 考慮
(3) 協商方法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諸般問題의 協議·決定

나) 新聞·圖書出版·定期刊行物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初期에는 特定分野 刊行物 目錄을 具體的으로 明示하여 交換하되 점차 그 範圍를 擴大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社會 文化共同體 形成基盤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交換內容	○ 雙方 合意하는 日刊新聞(朝·夕刊) ○ 各 分野別 一般 定期刊行物 (週刊·月刊·季刊·年刊) * 一般圖書 및 學術刊行物을 除外한 雜誌類 中心

區 分	內 容
② 交換量	○ 쌍방 合意의 適正數量
③ 交換窗口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 * 該當 出版團體·圖書館間
④ 交換方式	○ 等價交換 및 同等量 交換方式
⑤ 交換方法	○ 「파우치」便으로 「板門店」을 經由하여 相互交換함을 原則으로 하되 쌍방 合意에 의해 第3國 經由도 考慮
(3) 協商方法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諸般問題의 協議·決定

3)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매스컴 製作技術者 交流協力·放送프로그램 共同製作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매스컴 製作의 技術經驗을 相互交換·諮問하고 放送프로그램을 共同製作함으로써 單一 社會文化共同體 形成基盤 造成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 * 該當 言論社間
② 內 容	○ 매스컴(TV·放送·新聞) 製作技術要員 相互交流 ○ 製作技術·經驗交換 및 技術諮問 ○ 政治性を 排除한 放送프로그램 共同製作·放映
③ 規 模	○ 매스컴 各 分野別로 雙方이 合意하는 適正規模
④ 方 法	○ 쌍방이 合意하는 一定期間 相對側에 滯留하면서 諸般 製作技術·情報交換 및 合同 프로그램製作·放映
⑤ 方 式	○ 쌍방 合同勤務方式
(3) 協商方法	○ 南北言論人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諸般問題의 協議·決定

나) 言論人 常駐取材 및 支社設置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言論人의 自由로운 相對方 地域 常駐取材 및 特派員 派遣과 支社設置로 南北社會 同質性 回復誘因 提供과 單一 社會文化共同體 形成의 前段階를 構築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言論人 交流協力推進協議會 * 雙方 政府當局의 委任
② 內 容	○ 相對方 言論人의 自國內 常駐 및 取材保障 ○ 言論人 特派員 派遣·常駐 可能한 支社의 設置保障
③ 場 所	○ 初期에는 서울·平壤으로 限定하되 점차 範圍擴大
④ 常駐人員 規模	○ 쌍방이 合意하는 適正規模 * 新聞·放送·通信 등 全 매스컴 分野 考慮
⑤ 取材 및 記事送稿	○ 相對方 地域에서는 個別取材 및 個別送稿 ○ 直通電話 및 「과우치」 利用 送稿 * 記事 事前檢閱 嚴禁
⑥ 常駐記者 生活 및 犯法事件 處理	○ 住居·事務室은 指定提供 ○ 「과우치」供給 및 現地調達 ○ 携帶品은 生活用品 및 取材道具 ○ 犯法時 追放, 相對方에 引渡
(3) 協商方法	○ 南北言論人 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諸般問題의 協議·決定

4. 宗教分野 交流協力 誘導戰略

가. 誘導方向

北韓이 사실상 전면적인 宗教의 自由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⁷⁸⁾ 南北 宗教人間 會談과 交流協力を 주장하고 있는 점에 留意하여 宗教人 交流協力は 相互 體制에 위협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純粹하게 宗教와 信仰의 領域에 속하는 문제에 국한하여(非政治性的의 原則) 慎重하게 추진해야 한다.

眞正한 의미에 있어서 宗教分野 交流協力이란 쌍방 Ideology의 超克을 통한 人間化(Humanization)의 노력에서 民族分斷의 아픔을 解消해 나가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北韓이 宗教가 있는 것으로 假裝하고 政治的인 性格을 띤 對外 宗教活動을 하고 있으며 또한 憲法上의 規定⁷⁹⁾을 들어 信仰이 허용되고 있다고 力說할 것이기 때문에 南北 宗教交流協力は 종교의 有無만을 따져서 實行與否를 결정하기 보다는 多角的인 交流協력을 進行해 나가는 過程에서 北韓 宗教活動을

78) 北韓에서는 『宗教는 과학과 진보의 敵이며 우리 人民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을 위한 自覺的이고 意識的인 鬭爭을 방해하는 障礙物』【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평양 : 로동당출판사 1959) P.2】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迷信이나 封建殘滓보다 더 해로운 것」이며 「돈 있고 권세 있는 놈들이 人民을 搾取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써먹는 阿片」으로 규정한다. 【북한중앙방송 1979. 9.28 보도】

뿐만 아니라 우리 歷史上의 종교적 영향과 우리 民族의 宗教性조차도 唯物史觀的인 立場에서 否定하고 있는 바 김일성은 『우리가 지난날의 文化 가운데 佛敎文化를 다 否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宗教가 들어와서 우리 文化를 發展시켰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사실은 儒敎가 들어왔기 때문에 民族文化의 발전에 큰 支章을 받았다고 하겠다.』(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후비대로 교양하자」)고 宗教의 害毒性을 지적했다.

79) 北韓憲法(1972.12.28) 第4篇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第54條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活性化 시키는데 目標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⁸⁰⁾

1段階 示範事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宗教人 親善交換訪問이나 南北 宗教人 合同儀式開催 回數를 점차 擴大해 나가며 교류협력 進進상황에 따라 宗教聖地巡禮, 聖書·經典 등 共同翻譯·編纂事業, 宗教人間의 敎理討論會 開催 등의 사업으로 擴大·推進해 나간다.

나.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南北宗教人 對話	○ 쌍방 各 宗教別 現況을 중심으로 한 敎理內容과 民族的 問題解決과 관련한 宗教人的 바람직한 姿勢·使命을 主要 議題로 함.
宗教人 親善交換 訪問	○ 南北 宗教人이 各기 相對側 教會·寺刹 등을 親善交換 訪問함.
南北韓 宗教人 合同儀式 開催	○ 宗教紀念日(聖誕節·復活節·釋誕日·開天節 등)을 契機로 남북 종교인들의 合同宗教儀式을 開催함.
宗教聖地巡禮	○ 남북의 종교인들이 相對側 地域에 있는 有名聖地를 상호 交換巡禮함.
聖書·經典 등 共同翻譯·編纂 事業	○ 各 宗教別 敎理解說資料 交換을 통해 남북한 敎理解釋의 差異 解消와 敎理解說 共同研究를 통한 聖書·經典 등 翻譯·編纂事業을 共同推進함.

80) 특히 基督教의 경우에는 현재 Europe에서의 Christian과 共產主義間的 對話에서 처럼 人間化的 問題 등이 論議될 성질의 것이다. 동구공산주의자와 서방기독교도간의 대화는 양자 모두 基督教의 傳統위에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양자의 接近이 可能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時事問題研究所, 基督教과 共產主義(서울 : 1976. 5) P.377】

다. 段階別 協商戰略案

1)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宗教人 對話·親善交換訪問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상호 非政治性的 原則에 입각, 종교인으로서의 民族的 問題解決에 寄與할 수 있는 信賴方案 摸索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 各 宗教別 代表團體
② 內 容	○ 聖誕節·復活節·釋誕日·開天節 등 宗教紀念日
③ 視察對象	○ 상대측 教會·寺刹 및 有名 觀光地
④ 期 間	○ 6泊 7日
⑤ 人員規模	○ 쌍방 合意 適正數
⑥ 交換方式	○ 相互 同時交換方式 ○ 相互 同數宗教人 同行方式
(3) 協商方法	○ 南北宗教人會談을 통한 相互協議

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宗教人 合同儀式開催·宗教聖地巡禮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남북 宗教人間의 基礎的 交流協力 基盤의 조성으로 타분 야 交流協力を 促進시켜 주는 분위기 조성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 各 宗教別 代表團體
② 時 期	○ 聖誕節·復活節·釋誕日·開天節 등 宗教紀念日
③ 期 間	○ 3泊 4日

區 分	內 容
④ 人員規模	○ 남북 各其 100名씩 * 各 宗教別 聖職者(信徒包含)
⑤ 方 法	○ 相互 同時交換方式 ○ 相互 輪番招請方式
(3) 協商方法	○ 南北宗教人會談을 개최 相互協議

3)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聖書·經典 등 共同翻譯·編纂事業推進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 宗教人間의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深層的 單一 文化 共同體 形成의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 함.
(2) 協商方法	
① 主 管	○ 南北 各 宗教別 合同代表團體
② 內 容	○ 各 宗教別 教理(聖書·經典 등)의 共同翻譯 ○ 教理 共同編纂
③ 場 所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南北內의 場所 * 필요시 第3의 場所 考慮
(3) 協商方法	○ 南北宗教人會談을 통한 相互協議

5. 文化·藝術分野 交流協力 誘導戰略

가. 誘導方向

南北 交流協力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볼 때 文化·藝術分野 交流協力は 南北 間 緊張緩和와 民族同質性을 回復·發展시키고 單一民族意識을 鼓吹하는데 力點을 두고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南北 雙方的 文化·藝術이 각기 相異한 理念·價值體系를 反映하고

있기는 하나⁸¹⁾ 南北韓 文化·藝術의 共同領域을 일단 傳統文化·藝術에서 찾을 때 交流協力の 方向은 기본적으로 傳統文化·藝術分野 交流協力を 통한 民族同質性的의 回復과 民族共通性的의 유지·발전을 圖謀하는 것이며 또한 쌍방 體制에 危害要素를 避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1段階 示範事業이 성공적으로 推進될 경우 「相互視察團交換」·「民俗 및 舞臺藝術 交換公演」은 서울·평양 交換實施·公演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交流協力 進展狀況에 따라 「古代作品 및 遺物展示會」·「共同研究事業」으로 擴大·實施해 나간다.

나.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相互文化·藝術人 接觸	○ 쌍방 各分野(文學·音樂·美術·演劇·映畫·舞踊·寫眞·建築·國樂·演藝 등) 文化·藝術人을 중심으로 相互 關心事에 대한 討論의 場을 마련함.
關聯資料·技術 交換	○ 자료나 技術교환의 通路는 文化·藝術人 相互 訪問團交換 時 병행시킬 수 있을 것임. ○ 여기에서는 文化·藝術關係 全般的인 資料(刊行物·필

81) 北韓에서의 文學·藝術은 『勞動者들을 共產主義의으로 教養하며 온 사회를 革命化, 勞動階級化 하는데서 큰 役割을 맡고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 평양종합인쇄공장 1972) P.462】는 말에서 보듯이 「共產主義의 새 人間形成」·「住民의 思想教養手段」·「黨政策 宣傳手段」의 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文學·藝術政策은 다소간 變遷이 있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藝術作品의 性格은 黨性·階級性·人民性을 가져야 하며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1968) P.579】 ② 民族文化遺産의 繼承을 통해 社會主義의 愛國主義를 教養해야 하고(1966.10 黨代表者大會 김일성연설) ③ 藝術의 大衆化를 기하고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P.462】 ④ 創作方法에서 社會主義의 寫實主義에 입각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1968) P.290】 作品의 計劃生産을 推進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政策을 통해 形式은 民族의이나 內容은 社會主義의인 이른바 社會主義的 民族文化를 形成하려는 것이다.

區 分	內 容
	음·테이프)와 技術(映畫攝影·舞踊按舞·照明·寫眞製作術) 交換이 주요내용으로 됨.
文化·藝術訪問團 交換	○ 文化·藝術交流協力 專擔機構에서 선발된 訪問團이 南北 通行 一般慣行에 따라 상호 往來하며 방문대상은 博物館·史蹟址 등 초청측에서 推薦하여 決定토록 함.
作品交換展示 및 交換公演	○ 同時 혹은 輪番交換方式에 의한 古代作品 및 遺物交換展示와 民俗藝術團·舞臺藝術 交換公演을 實施함.
南北 共同研究 事業	○ 古代遺物·考古學·古典文學·美術史 등의 共同研究와 國樂의 保存·發展을 위한 共同研究를 推進함.

다. 段階別 協商戰略案

1)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가) 相互 文化·藝術人接觸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民族文化·藝術을 중심으로 相互 關心事에 대한 討論의 場을 마련하면서 이를 推進하게 될 常設專擔機構 設置에 合意를 誘導함으로써 南北文化·藝術 交流協力を 制度化시키는데 力點을 두고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會談名稱	○ 「南北文化·藝術人會談」
② 代表團 構成	○ 우리側 「藝總」과 北側 「文藝總」에서 選拔하는 關係專門 文化·藝術인과 專門學者
③ 規 模	○ 쌍방 各其 7名씩
④ 專擔機構 設置	○ 名稱：「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 ○ 分科：· 10個 分科委員會(文學·音樂·美術·演劇·映畫·舞踊·寫眞·建築·國樂·演藝) · 關係 文化·藝術人 各 10名으로 構成
(3) 協商方法	○ 設置場所：豫算·事務室建築 등 諸般問題에 相互 協議 ○ 「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決定

나) 關聯資料 및 技術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文化·藝術關係 全般的인 資料 및 技術의 相互交換으로 本格交流協力 基盤造成에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
② 交換內容	○ 資料：刊行物· 필름· 테이프 ○ 技術：映畫攝影· 舞蹈按舞· 照明· 寫真製作術
③ 交換方式	○ 相互 同時交換方式
④ 交換量	○ 相互 同等量交換原則
(3) 協商方法	○ 「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決定

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文化·藝術訪問團 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쌍방 文化·藝術訪問團의 定例的 交換으로 本格 交流協力 基盤造成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會談名稱	○ 「南北文化·藝術人會談」
② 構 成	○ 各 分野別 適正數의 關係 文化·藝術人
③ 規 模	○ 쌍방 各其 100名 內外
④ 時 期	○ 文化·藝術과 關聯된 適切한 契機(年 2回 程度)
⑤ 期 間	○ 6泊 7日
⑥ 訪問內容	○ 相對側이 推薦하는 文化·藝術關聯 場所·施設(博物館· 史蹟址· 國立劇場 등) 訪問·見學
(3) 協商方法	○ 「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決定

3)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作品交換展示 및 舞臺藝術 交換公演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政治性이 排除된 純粹한 文化·藝術作品 交換展示·公演을 통해 單一 文化共同體 形成基盤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
② 範 圍	○ 美術品 交換展示·필름 및 테이프 交換 ○ 國樂·演劇·映畫·舞踊·音樂 등
③ 規 模	○ 쌍방 各其 100名 內外
④ 時 期	○ 舊正, 端午, 仲秋節 등 民族名節·紀念日
⑤ 期 間	○ 6泊 7日
⑥ 場 所	○ 서울·平壤 交換展示 및 公演
⑦ 方 式	○ 相互 同數同時交換 또는 輪番制 交換方式
(3) 協商方法	○ 「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決定

나) 南北 共同研究事業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民族 同質性 回復을 위한 單一 文化共同體 形成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
② 內 容	○ 古代遺物·考古學·古典文學·美術史 共同研究 ○ 國樂의 保存·發展 共同研究 등
③ 方 式	○ 雙方 同數 合同研究方式
④ 場 所	○ 서울·平壤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시 第3의 場所 考慮
(3) 協商方法	○ 「南北文化·藝術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決定

6. 體育分野 交流協力 誘導戰略

가. 誘導方向

餘他 分野의 交流協力과는 달리 體育交流協力は 國民的 關心이 크게 집중되고 勝負意識에서 의의의 敵對感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交流協력이 가져올 反作用을 考慮하여 漸進的 段階로 推進되어야 한다.

즉, 상대방의 理念이나 體制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政治的 性格을 상징하는 國旗揭揚·國號表示 등을 하지않도록 하며 親善交換競技 開催時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한 쌍방 선수단간의 衝突로 相互 感情惡化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國歌演奏 등 政治性을 止揚하면서 상대방 선수들에 대한 應援團 構成·活用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

스포츠분야가 비교적 政治的 摩擦이 적고 이미 國際體育行事時 南北體育人間의 接觸事例가 빈번했던 點을 감안하여 南北 交換競技 開催 등을 통하여 交流協력을 先導·擴大해나가는데 觸媒役割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1段階 示範事業이 원만히 進行될 경우 南北體育人 親善交換訪問 및 親善競技 交換開催를 점차 擴大해나가고 交流協力 進行狀況에 따라 國際競技 單一팀 構成·參加事業으로 그 범위를 擴大·推進해나간다.

나.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體育情報·資料 交換	○ 各種 競技種目的 記錄·世界體育情報交換·技術發展을 위한 訓練成果 등 體育關聯 資料를 定例的으로 交換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雙方 體育情報·資料 交換協定 締結을 誘導함.
體育人士 相互 交換訪問	○ 상호 體育人 接觸을 통해 쌍방 綜合體育大會 開催時 또는 각 競技團體主管 研究세미나·國際會議 開催時 상대방

區 分	內 容
	체육인사 및 관계인의 參觀를 招請함.
親善競技 交換 開催	○ 상호 感情誘發이나 極限對決을 止揚하고 현실적 實現性이 있는 種目인 民俗競技(씨름·널뛰기·그네뛰기·활쏘기)부터 段階的으로 개최하고 이어 쌍방간 水準이 비슷하고 가급적 身體接觸이 적은 球技(排球·卓球·배드민턴) 및 記錄競技(陸上·水泳·射擊)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成熟段階에 이르면 蹴球같은 人氣種目이나 레슬링·拳鬪 등 鬪技種目 및 籠球·핸드볼 등과 같은 球技種目 순으로 推進해 나감.
共同協力事業	○ 民俗競技 共同開發研究·共同體育施設의 마련(「民族體育센터」)·南北綜合體育大會나 種目別 競技大會의 共同開催와 국제대회에서의 合同應援團 및 國際大會에 參加할 南北單一팀 構成 등의 事業을 推進함.

다. 段階別 協商戰略案

1)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 體育情報·資料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相互 定例的 體育情報·資料 交換을 내용으로 하는 情報 資料 交換協定 締結을 誘導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쌍방 올림픽委員會(NOC)
② 內 容	○ 體育分野에 관련된 情報·資料·種目別 記錄(各種 競技種目 記錄·訓練成果)의 相互交換
③ 交換方式	○ 同量 同時交換方式
(3) 協商方法	○ 南北體育會談을 통한 쌍방 NOC間 協議

나) 南北 體育人士 相互交換訪問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相互 體育交流協力の 持續을 위한 制度的 實踐機構로서 南北體育交流協力 專擔機構 設置基盤을 造成하는데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雙方 올림픽委員會(NOC)
② 交換人士 範圍	○ 關係 體育人 및 代表者 交換原則
③ 規 模	○ 쌍방 各其 100名 * 體育關係機關 當局者·競技團體 指導者·選手 등
④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全國體典
⑤ 期 間	○ 6泊 7日
⑥ 方 法	○ 親善訪問團 同時交換訪問方式 또는 輪番交換方式
(3) 協商方法	○ 雙方 NOC間 協議 後 政府支援 要請

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體育交流協力 專擔機構 設置方案

區 分	內 容
(1) 名 稱	○ 「南北體育共同事務局」
(2) 設置場所	○ 非武裝地帶「民族스포츠크터」內에 設置
(3) 目 的	○ 南北體育交流에 관한 諸般 事業의 運營·管理
(4) 機構構成 및 任務	○ 構 成 共同事務局長(南北 各 1名), 事業部, 企劃運營部, 審判部, 連絡部 등 4個部를 南北 同數로 構成 ○ 任 務 * 事業部: 對內·對外로 區分하여 南北體育에 관한 諸般 共同事業 擔當

區 分	內 容
(5) 構 成 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劃運營部：親善競技 및 單一팀 豫選戰 등 南北 體育交 流協力에 관한 企劃·運營 主管 * 審判部：競技審判事務를 擔當하고 單一팀出戰 豫選戰 및 選手選拔業務 擔當 * 連絡部：南北 體育交流協力과 關聯된 남북간 제한 連絡 業務 擔當
(6) 運營豫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韓올림픽委員會(大韓體育會)와 北韓올림픽委員會(北韓 體育指導委員會)의 協議에 따라 雙方 同數로 構成 ○ 쌍방 同額으로 共同支援하되 獨立採算主義 原則에 따라 運營

나) 南北 親善交換競技 및 示範競技 交換開催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相互 特色的 種目的 親善 및 示範競技 交換開催를 통해 民族同質性 回復基盤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體育共同事務局」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봄·가을(全國體典)
③ 場 所	○ 서울·平壤原則
④ 期 間	○ 4泊 5日
⑤ 規 模	○ 쌍방 各 200名 內外 * 選手團·任員團·支援協力團·取材記者團
⑥ 種目選定	○ 種目選定基準(非接觸性·審判用易性·水準同等性)에 의거 ○ 南北 特色競技(우리側：跆拳道, 北側：巧藝競技)를 示範競技로 開催

區 分	內 容
⑦ 大會運營	○ 審判：南北의 심판중 國際競技聯盟 公認審判으로 審判 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
	○ 유니폼 및 標識：各各의 유니폼 색깔만으로 區分
	○ 儀式：國歌·國旗 등은 쌍방 合意下에 省略하고 쌍방 NOC 및 競技團體旗만을 揭揚
(3) 協商方法	○ 雙方 NOC 間 協議 後 政府支援 要請

3)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民俗競技 共同開發研究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 純粹 傳統民俗競技 開發·保存에 重點을 둠.
(2)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體育共同事務局」
② 內 容	○ 씨름競技規則 統一問題, 跆拳道 普及問題, 國弓·擊球·車 戰놀이 開發問題 등
③ 方 式	○ 相互 合同研究方式
④ 場 所	○ 서울·平壤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시 第3의 場所 考慮
(3) 協商方法	○ 雙方 NOC 間 協議

나) 南北單一팀構成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各種 國際體育競技에 南北單一팀으로 參加함으로써 單一 民族共同體 形成의 基盤을 造成하는데 重點을 둠.
(2) 協商內容	
① 主 管	○ 雙方 NOC(* 필요시 別途機構設置)
② 討議議題	○ 呼 稱：KOREA

區 分	內 容
③ 會談時期	○ 團 旗：五輪旗 또는 韓半島 地圖
④ 場 所	○ 團 歌：「아리랑」
⑤ 其他節次	○ 團 服：앞면에 團旗模型 附着
(3) 協商方法	○ 選手選拔：種目別 優秀選手選拔原則
	○ 選手·任員構成：多數選手 選拔側에서 團長·監督 少數選手 選拔側에서 副團長 코치 맡음.
	○ 南北韓 多角的 體育交流 以後 適切時期
	○ 서울·平壤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시 第3國도 考慮
	○ 南北赤十字會談 등 既存會談經驗事例 準用
	○ 雙方 NOC間 南北體育會談을 통한 協議·決定

7. 學術分野 交流協力 誘導戰略

가. 南北 學者交流協力

1) 誘導方向

南北間 學術交流協力の 目標은 당면적으로는 交流協力基盤 造成과 民族同質性 維持·發展에 寄與하고 장기적으로는 南北 社會文化體系의 再統合에 의한 單一 文化共同體 形成에 貢獻하는 方向으로 設定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하여 南北學術交流協力は 우선 南北學者間의 親善關係 形成으로부터 출발해서 相剋의 Ideology를 가진 남북주민들의 感情的 對立을 解消시키는데 精神的 架橋役割을 하며 나아가 異質化된 文化體系의 同質化를 學問的으로 모색하는 理論과 技術의 交流協力を 통해 學問·産業發展에 寄與 하여야 할 것이다.

現實的으로 북한의 研究實態 및 研究水準에 대한 情報接觸의 기회가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學術研究的 次元에서 사전에 關聯資料의 支援 및 交換을 실시 하되 실질적인 南北關係의 現實狀況과 남북간 學問的 體系性의 相異性과 水準

性的差異를 고려하여 가급적 論爭의 여지를 排除하고 상호존중의 차원에서 學術研究 次元의 交流協力은 思想·理念·體制 등과 무관한 분야의 共同研究 및 共同調査에 局限시켜 推進한다.

또한 學者間的 共同事業은 民族同質性 回復 및 民族 共同利益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推進하되 학문의 自律性和 中立性을 존중하여 교류협력의 具體的 方案은 學者를 중심으로한 共同推進機構에서 擔當하되 事前 政府當局과의 충분한 協議下에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段階 示範事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交流協力 進展 및 共同研究事業의 성과에 따라 國語·民俗學研究, 民族史蹟址 探查로 점차 擴大해나감과 아울러 交換教授制를 운영하며 社會·文化共同體, 經濟共同體로의 段階 進入 保障時는 社會科學分野의 積極的인 交流協力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學問研究의 특수성을 감안, 人的交流와 함께 冊子·論文의 交換, 상대측 論文集 寄稿 등의 事業도 並行實施해나간다.

2)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學術代表團 相互交換	○ 각 分野(國學一般·科學技術·教育·行政·保健醫學·國土開發·經營管理 등) 學術代表團의 定期的 相互訪問을 통해 相互 共同關心事에 대한 理解를 提高시킴으로써 親善과 信賴 雰圍氣를 造成함.
學術技術 情報·資料交換	○ 論著·年鑑·特許公報·標準規格書·實驗器機目錄·實驗報告書·氣象情報·防疫情報 등 제반 科學技術 情報·資料를 相互 定期的으로 交換함.
國際學術會議 相互招請	○ 南北이 개최하는 國際學術會議에 상대측 該當分野의 專門 學者를 招請함.
國語研究學術會議 交換開催	○ 國語學者를 중심으로 民族語의 醇化·發展을 목적으로 한 관련 學術會議를 서울·平壤으로 輪番開催함.

區 分	內 容
民族史 共同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歷史·考古學 등 相關학자로 民族史蹟址 探查班을 常設化하고 既存遺跡 및 遺物의 發掘·研究를 위한 상대측 訪問 및 새로운 遺跡發掘時 共同探查를 實施함. ○ 南北의 史學界 重鎮人士로 구성되는 民族史研究所를 서울 平壤에 共同으로 設置하고 韓民族의 古代·中世史를 중심으로 資料交換 및 다양한 共同研究 프로그램을 마련함.
民俗學 共同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學·民話·古文·民俗劇 등 民族文化와 민족의 생활에 대한 共同研究를 통해 民族의 矜持를 높이고 民族의 一體感 내지 同質性 回復·發展을 圖謀해 나감.
非武裝地帶 生態系 共同調查研究 交換教授制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關聯學者들이 共同調查團을 구성하여 非武裝地帶 內의 動植物 生態·資原分布·氣象條件 및 地質 등에 관한 調查·研究를 실시하고 同 結果物을 世界學會에 報告함. ○ 非政治的인 醫學, 農·漁業技術, 建築·土木·應用科學 등 實生活과 밀접한 關聯이 있는 學問分野를 중심으로 매년 일정한 人員을 交換하고 상대측 地域에서 研究 및 講義活動을 實施함.
南北氣象情報센터 設置·運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의 氣象學 研究家를 중심으로 情報交流센터를 共同으로 設置하여 韓半島 氣象에 관한 研究資料·매일의 氣象 觀測事項 등을 常時交換함.

3) 段階別 協商戰略案

가)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1) 學術代表團 相互訪問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加급적 學問別 代表交流보다는 綜合學術代表團 相互訪問으로 유도함으로써 상호 多角的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해 나가는 方向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 * 分野別 「分科委員會」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③ 規 模	○ 쌍방 各 50名 內外
④ 期 間	○ 6泊 7日
⑤ 內 容	○ 쌍방 共同關心事 論議 ○ 상대방의 關聯 學術團體·施設 訪問
(다) 協商方法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2) 學術情報·資料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가능한 한 原則的인 基準을 設定한 상호교환의 制度化를 圖謀하는데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內 「資料分科委員會」 * 分野別 該當 學術團體
② 交換範圍	○ 學問別 교류우선순위에 따른 順次的 交換에서부터 점차 학술 전반에 걸친 廣範한 情報·資料의 交換으로 擴大
③ 交換方式	○ 同量 同時交換方式
④ 交 換 量	○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쌍방 同等量交換原則

區 分	內 容
⑤ 交換通路	○ 學者交流時 交換, 쌍방 圖書館協會 約定에 따른 交換, 資料交換所 設置(資料分科委)
⑥ 交換內容	○ 國文學分野: 古典翻譯物· 古典影印本· 研究業績 ○ 民俗學分野: 民俗資料(慣習· 風俗· 信仰· 技術· 道具· 衣食住· 民俗藝術 및 娛樂 등) ○ 國史分野: 史學 및 影印本· 研究業績 ○ 考古學分野: 遺跡· 遺物發掘報告書, 研究業績 ○ 純粹科學: 各種 實驗報告書· 研究業績 ○ 應用科學: 年鑑· 特許公報· 標準規格書· 實驗器機 目錄
(다) 協商方法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나)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1) 國際學術會議 相互招請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쌍방이 개최하는 國際學術會議에 상대측 該當分野의 關聯 學者를 招請함으로써 多角的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 * 分野別 「分科委員會」
② 時 期	○ 남북의 學界가 主管하는 國際學術會議 開催時
③ 期 間	○ 6泊 7日
④ 人員規模	○ 쌍방 各 50名 內外 * 會議參加者· 支援協力團· 取材記者團
⑤ 選拔方法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가 推薦하는 各 분야 關係專 門學者를 中心으로 選拔

區 分	內 容
⑥ 日程內容	○ 學會·大學當局·研究所 등이 주관하는 國際學術會議에 參加 및 主題發表·討論
(다) 協商方法	○ 상대측 關聯 學者團과의 懇談會 並行開催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2) 國語研究 學術會議 交換開催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쌍방 國語學者를 중심으로 國語文字와 관련된 諸般 規範 統一을 목적으로 純粹 學術的 研究分野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 * 該當 分科委員會(「國語學研究分科」)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한글날)
③ 期 間	○ 6泊 7日
④ 人員規模	○ 쌍방 各 50名 內外 * 會議參加者·支援協力團·取材記者團
⑤ 選拔方法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가 推薦하는 各 분야 關係專 門學者를 中心으로 選拔
⑥ 內 容	○ 國語研究(純粹學術的 分野) : 國語學 研究業績·方言採 集·貴重文獻의 影印資料交換·國語系統論 研究 ○ 國語政策的 分野 : 南北 國語規範 統一案 作成
⑦ 方 式	○ 學術會議(세미나·워크샵·研究發表會)를 통한 研究實績 의 公開發表 및 向後 研究方向 提示
(다) 協商方法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다)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1) 民族史 共同研究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南北 合同으로 民族史에 대한 올바른 共感帶를 形成하는 基盤을 造成하는데 力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 * 該當 分科委員會(「民族史研究分科」)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開天節)
③ 期 間	○ 6泊 7日
④ 規 模	○ 쌍방 各 20名 內外
⑤ 內 容	○ 民族史蹟址探查班 運營 ○ 民族史研究所 設置·運營
⑥ 方 式	○ 南北 合同研究方式
(다) 協商方法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2) 非武裝地帶 生態系 共同調查·研究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南北 合同으로 非武裝地帶 生態系를 共同調查·研究함으로써 상호 多角的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하는데 重點을 두고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 * 該當 分科委員會(「生態系研究分科」)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③ 期 間	○ 6個月
④ 規 模	○ 쌍방 各 30名 內外 * 團長: 1名(大學學長級)

區 分	內 容
⑤ 研究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者：15名(動物·植物·自然·氣象·地質 등 各分野 3名씩) * 支援協力團：9名(事務所管理·醫療·通信·連絡·物品 調達) * 研究補助員：5名(8分野別 助教級 各 1名) ○ 地域內 共同調査·採集：1個月(사무소 중심) ○ 相互 각기 資料分析 : 4個月(소속학교·연구단체) ○ 研究論文 共同作成 : 1個月(사무소)
⑥ 調査方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調査班 特別標識 附着 및 自由通行 ○ 軍協調에 의한 特別案内 * 軍事機密地域 保護 및 爆發物 事前探知 ○ 研究結果發表는 兩側 合意下에 實施 * 필요시 關聯 世界學會 報告
(다) 協商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3) 民俗學 共同研究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民俗文化나 民族生活에 관한 共同研究를 통해 單一 文化 共同體 形成基盤 造成에 寄與하는 방향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 * 該當 分科委員會(「民俗學研究分科」)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③ 期 間	○ 1個月
④ 規 模	○ 쌍방 各 20名 內外
⑤ 研究內容	○ 社會構造·慣習·風俗 ○ 技術道具·衣食住 등 物質文明 內容

區 分	內 容
(다) 協商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藝·民畫·民俗樂 등 民俗資料 ○ 傳來信仰·娛樂·口碑傳承 文學 ○ 研究結果 發表는 兩側 合意下에 實施 <li style="padding-left: 2em;">* 필요시 關聯 世界學會 報告 ○ 南北學者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나. 南北 學生交流協力

1) 誘導方向

學生들로 하여금 統一後繼世代 育成次元에서 남북의 실상을 직접 比較·體驗케 함으로써 南北 單一民族的 紐帶感 回復·維持發展의 필요성을 提高시키는 일면 平和統一 基盤造成에 기여하는 方向에서 健全한 統一觀·民族觀 등을 올바르게 定立시키는데 力點을 두고 추진한다.

學生交流協력이 남북간 相互主義나 相互尊重의 바탕위에서 持續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葛藤의 소지가 많고 학생의 本分에 맞지않는 政治·軍事·理念問題와 관련된 교류협력은 원칙적으로 排除시키면서 학생신분과 처지에 적합하면서 우리 民族의 同質性을 增進시킬 수 있는 「國土縱斷大行進」·「體育競技」 등을 開發·推進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南北 學生交流協력에 필요한 制반 節次問題·便宜提供·身邊安全保障問題 등에 대해서는 쌍방 當局間의 協議와 合意가 先行되어야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學生交流協력을 推進한다.

2)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親善體育競技 交換開催	○ 과거 京·平戰의 의미를 되살려 南北 大學生 體育選手들이 상대측을 訪問, 蹴球·排球·卓球 등 球技種目的 交換 競技開催를 통해 民族의 一體感을 高揚시킴.
修學旅行團 交換	○ 智異山·雪嶽山·妙香山·金剛山·白頭山 등 상대측 지역의 名勝古跡地를 觀光하는 修學旅行團을 定例的으로 交換함.
祖國巡禮大行進	○ 南北의 大學生들이 각기 相對方 地域을 相互 巡禮함으로써 쌍방의 實상에 대한 理解와 相互親善을 圖謀함.
學生文化·藝術行 事 交換開催	○ 大學生으로 구성된 音樂·美術·演奏·舞蹈 등 분야에서 의 公演 및 展示會를 交換開催함.

3) 段階別 協商戰略案

가)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1) 相互 親善體育競技 交換開催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南北 學生間의 상호 親善體育競技를 통해서 信賴感을 구축할 수 있는 제반 霧圍氣를 造成해 나가는데 力點을 두는 방향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 * 該當 分科委員會(「體育分科委」)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 春·秋季
③ 場 所	○ 서울·平壤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시 第3의 場所 考慮
④ 期 間	○ 5泊 6日
⑤ 規 模	○ 쌍방 各 200名 內外

區 分	內 容
⑥ 競技種目 ⑦ 大會運營 (다) 協商方法	<p>* 選手團, 任員團(監督·코치), 支援協力團(醫療·通信·連絡·物品調達 등), 取材記者團</p> <p>○ 蹴球·卓球(南·女)·排球(南·女) 등 球技種目 優先</p> <p>○ 國歌·國旗 등은 쌍방 協議下에 省略</p> <p>○ 유니폼은 쌍방이 合意하여 색깔만으로 區分</p> <p>○ 競技進行에는 國際競技聯盟規定 適用</p> <p>○ 審判은 南北 審判要員中 國際競技聯盟 公認審判으로 審判 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p> <p>○ 「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p>

나)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1) 修學旅行團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相對方 地域을 상호 旅行함으로써 理解增進 및 民族 同質性 回復·維持 필요성을 느끼게하는 契機로 삼는데 중점을 두고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內 「交流分科委」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春·秋季)
③ 期 間	○ 6泊 7日
④ 規 模	○ 쌍방 各 200名 內外 * 學生·引率團·支援協力團·取材記者團
⑤ 內 容	○ 쌍방이 推薦하는 名勝古跡地
⑥ 方 式	○ 同數 同時交換方式
(다) 協商方法	○ 「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다)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1) 學生 文化·藝術行事 交換開催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상호 信賴感을 바탕으로 民族同質性을 維持·發展시키는 前段階 基盤造成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內 「文化·藝術分科委」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學生의 날, 文化의 달)
③ 期 間	○ 6泊 7日
④ 場 所	○ 서울·平壤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시 第3의 場所 考慮
⑤ 規 模	○ 쌍방 各 100名 內外(*引率團·支援協力團·取材記者團)
⑥ 內 容	○ 民族傳統 文化·藝術行事 中心
⑦ 方 式	○ 同數 同時交換方式 또는 輪番制交換方式
(다) 協商方法	○ 「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2) 祖國巡禮大行進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가) 協商方向	○ 상호 信賴感을 바탕으로 民族同質性을 維持·發展시키는 前段階 基盤造成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推進함.
(나) 協商內容	
① 主 管	○ 「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 * 「祖國巡禮大行進推進委員會」 構成
② 時 期	○ 쌍방이 合意하는 適切한 契機
③ 期 間	○ 14泊 15日
④ 規 模	○ 쌍방 各 200名 內外(* 引率團·本隊·支援團·取材記者團)
⑤ 選拔方法	○ 全國大學別 選拔方式

區 分	內 容
⑥ 方 式	○ 同數 同時交換方式 또는 輪番制 交換方式
⑦ 區 間	○ 우리側 : 板門店 ⇨ 新義州 ⇨ 白頭山 ⇨ 元山 ⇨ 板門店 ○ 北 側 : 板門店 ⇨ 釜山 ⇨ 漢拏山 ⇨ 木浦 ⇨ 板門店
(다) 協商方法	○ 「南北大學生交流協力推進協議會」를 통한 協議

8. 遞信分野 交流協力 誘導戰略

가. 誘導方向

1950.6.25 以後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에 郵便物交換은 中斷되어 있는 狀態이지만⁸²⁾ 理論적으로 볼 때 南北韓 공히 萬國郵便聯合(UPU)에 加入會員

82) 分斷以前 南北間 郵便物 交流狀況은 다음과 같다.

區 分	內 容
《進行狀況》	○ 1946. 1.16 : 美蘇共同委員會 豫備會談에서 南北郵便物 交換協定 締結 ○ 1946. 3.15 : 第1次 南北郵便物交換 開始(開城驛) * 그후 1948年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함께 法的根據가 消滅된 以後에도 郵便物交換 繼續 ○ 1950. 6.22 : 第165次 交換을 끝으로 中斷됨
《交流內容》	○ 取扱範圍 — 「38郵便物」로 指稱 — 처음에는 封書와 葉書 및 1946. 3月까지 積載된 登記 郵便物에 限해 取扱 — 1946. 6月부터 登記郵便物 追加交換 決定 ○ 交換場所 — 1946年 1-20次까지 38以南의 開城驛 및 開城郵便局 — 1947-50年 21-165次까지 38以北의 礪峴(京畿道地域) ○ 總 交換物量 — 北行 : 1,922,180通 — 南行 : 963,751通

【國土統一院, 「南北韓 郵政實態 比較 및 書信交流方案 研究」(서울 : 國土統一院 1986) PP.9-11】

國이어서⁸³⁾ 남북간에는 通常郵便物에 대한 單一 郵便領域이 自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셈이므로 相互 郵便物交換 履行義務가 賦課되어 있다.⁸⁴⁾

遞信分野 交流協力에서 核心이 되는 것은 電信·電話 및 郵便物交換인데 그간의 南北會談의 經驗으로 보아 쌍방간 合意만 본다면 필요한 機關間的 電信·電話交流는 다각적으로 實現될 수 있을 것이다.

向後 南北對話를 통해 남북간 郵便物 直接交換의 可能性을 계속 追求함과 아울러 國際郵便을 통한 書信往來의 門戶를 開放하는 方向의 直·間接 方法을 병행하여 推進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나. 推進內容

區 分	內 容
人的往來	○ 遞信交流의 人的往來는 교류협력 合意를 위한 遞信關係代表의 왕래나 郵便集配員의 往來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人的往來로 보기는 어려움.
郵便物交換	○ 우편물교환은 封緘便紙와 葉書 두가지 만을 試驗적으로 推進해 보는 것이 적합함. 우편요금은 國內郵便料金에 準해서 各其의 郵票를 添附하도록 함.
南北 共同事業	○ 체신분야 교류협력 共同事業으로 南北共同郵票製作, 電信·電話交換問題, 3-5種 郵便物 交換問題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83) 韓國은 1900.1.1, 北韓은 1974.6.6 각기 萬國郵便聯合에 加入하였다.

84) 國際郵便物 交換은 萬國郵便聯合(UPU) 憲章과 協約規定에 의거, 聯合의 諸領域에 있어 中繼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으며 이는 國家가 아닌 事實上的 實體(de facto Identity)에도 開放되어 있다.

따라서 國際郵便 側面에서 남북 우편물교환은 UPU 憲章 및 協約의 實踐의 節次的 問題로서 第3國을 中繼하여 우편물은 교환할 수 있는 門戶가 開放되어 있는 셈이나 현재 遞信部告示에 의해 北韓은 國際郵便物 發送禁止地域으로 制限되어 있다.

다. 段階別 協商戰略案

1) 初期接觸段階 協商戰略

가) 南北遞信當局者會談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쌍방 遞信當局間 會談을 통해 「南北郵便物交換協定」 締結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1) 協商內容	
① 會談名稱	○ 「南北遞信當局者會談」
② 場 所	○ 板門店(우리側 「平和의 집」, 北側 「統一閣」)
③ 代表團 構成	○ 쌍방 郵政局長을 首席代表로 하는 5名以內의 代表
④ 議 題	○ 남북간 郵便物交換 推進과 이에 隨伴되는 諸般問題 * 南北郵便物交換協定 締結誘導
(3) 協商方法	○ 南北遞信當局者會談을 통한 協議

2) 基礎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國內郵便方式에 의한 南北 郵便物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萬國郵便聯合(UPU) 規定 및 協約에 따른 남북 우편물교환의 當爲性을 강조함으로써 圓滿한 合意를 유도하는 方向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쌍방 遞信當局
② 取扱範圍	○ 第1段階: 書信(1種) 및 葉書(2種)에 局限 ○ 第2段階: 印刷物·小型包裝物 등으로 점차 擴大
③ 郵便料金	○ 쌍방 國內郵便料金 適用
④ 使用郵票	○ 南北間 郵便物交換 目的에 符合되는 圖案의 郵票

區 分	內 容
⑤ 住所表記	○ 發送人 및 受取人 住所表記는 쌍방 行政區域 名稱使用
⑥ 交換方法	○ 板門店에 「南北 郵便物交換所」 設置 · 運營
⑦ 交換回數	○ 週 1回 交換을 原則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交換回數 增大
⑧ 配達保障	○ 最善의 方法으로 受取人에게 配達하고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附箋을 添附하여 次期 交換便에 發送
⑨ 資料提供	○ 離散家族 住所 등 우편교류에 필요한 諸般 資料提供에 상호 最善의 協調
(3) 協商方法	○ 南北遞信當局者會談을 통한 協議

나) 國際郵便方式에 의한 南北 郵便物交換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南北 郵便物의 직접교환과 並行하여 國際郵便 方式에 의한 門호를 開拓함으로써 多角의 交流協力 基盤을 造成 하는데 重點을 두고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쌍방 遞信當局
② 取扱範圍	○ 第1段階 : 書信 및 葉書 ○ 第2段階 : 印刷物 · 小型包裝物 등으로 점차 擴大 * 特殊取扱郵便物(登記 · 保險 등) 除外
③ 適用料金	○ 현행 國際郵便 4개지역 料金體系에서 最低料金地域인 第1地域料金 適用
④ 送達方法	○ 第3國 中繼運送 * 航空郵便物 : 서울⇒東京⇒北京⇒平壤 * 船便郵便物 : 釜山⇒요코하마(日本)⇒낙호드카(蘇聯) ⇒平壤
(3) 協商方法	○ 南北遞信當局者會談을 통한 協議

3) 擴大開放 交流協力段階 協商戰略

가) 遞信分野 共同事業推進 協商對策

區 分	內 容
(1) 協商方向	○ 체신분야에서의 南北 共同事業 推進으로 民族同質性的 認識과 單一 社會共同體 形成基盤을 造成해 나가는 방향으로 推進함.
(2) 協商內容	
① 主 管	○ 쌍방 遞信當局
② 共同郵票 製作	○ 南北 공히 사용할 수 있는 適切한 各種 郵票의 共同製作 · 販賣
③ 電信 · 電話 交換	○ 郵便物과 함께 쌍방간 電信 · 電話의 自由通信 · 通話를 推進
(3) 協商方法	○ 南北遞信當局者會談을 통한 協議

V. 結 論

以上에서 本稿는 韓民族共同體 形成을 이룩하기 위한 南北統合의 諸條件과 統合 可能性에 관한 문제들을 檢討해보았으며 이러한 南北統合에 유용한 理論을 援用해서 南北 交流協力 誘導方案에 관한 具體的 戰略을 세워보았다.

南北 交流協力 推進의 基調는 民族의 紐帶回復과 相互 理解增進을 통한 緊張緩和라는 當面目標과 나아가 民族統合을 통한 韓民族共同體 形成이라는 長期目標의 追求에 있다. 우리가 最高目標로서 추구하는 民族統合의 달성은 同一言語의 使用과 同一歷史의 共有라는 單一 民族意識에 그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北韓의 民族에 대한 見解가 우리와 같지 않고 歷史와 傳統文化에 대한 理解가 다르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韓民族共同體 形成에 障礙要因으로 되고있는게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韓民族共同體 形成은 多角的 南北 交流協力을 통한 當면목표를 달성한 후 政治·經濟的인 優位確保와 情勢與件이 成熟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問題이기도 한 것이다. 말하자면 政治的 統合前에는 單一 民族共同體를 形成하기가 不可能할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北韓을 單一民族이라는 鎔鑪에 溶解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져오는 端緒는 體制超越의인 어떤 새로운 理念形成이 胚胎될 때인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理念은 南北 모두에게 共感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統一完成段階에 가면 이 새로운 理念에 따라 南北社會 再組織의 模型이 마련될 것인 바, 本研究에서는 「韓民族共同體의 形成」을 새로운 理念으로 提示하고자 하는 것이다.

南北 交流協力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問題는 相互 敵對感의 解消와 不信關係의 清算이다. 交流協력이 곧 自己에 대한 侵略이 되고 統一이 곧 自己의 抹殺이 되지 않을까하는 被害意識과 疑懼心이 亂舞하는 狀況아래서는 아무리 純粹한 交流協力이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政治的 性格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려 오히려 南北間 敵對意識만 助長하게 되는 深刻한 逆效果만 자아낼 수 있으므로 南北雙方은 상대방의 體制維持를 인정하고 同族에 대한 侵略意志를 拋棄함으로써 相互不信과 被害意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統一 促進을 위한 순수한 交流協力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향후 非政治的이고 비교적 始作하기 쉬운 分野에서부터 段階的이며 漸進的으로 接近할 수 있는 交流協力方案이 보다 具體的이며 多角的인 측면에서 深層的으로 構想되어야 할 것이다.

本研究가 이러한 深層的 構想의 必要性을 提起함으로써 향후 南北關係에 있어서 《「和解的 竝存」으로부터 「誠實한 共存」에로의 關係改善》(Eine Entwicklung aus dem Friedlichen Nebeneinander zu einem gewissen Miteinander)이 이루어 지는데 一助를 擔當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 결코 무리한 일로 되지는 않기를 期待하면서 結論을 맺는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單 行 本〉

1. 具永祿, 國際政治의 分析, 서울: 법문사 1972
2. 金相俊, 國際政治理論, 서울: 삼영사 1979
3. 金雲泰外, 韓國政治論, 서울: 박영사 1986
4. 金學俊, 反外勢의 統一論理, 서울: 형성사 1983
5. _____,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서울: 박영사 1984
6. _____, 韓國民族主義의 統一論理, 서울: 집문당 1983
7. 李相禹, 統一韓國의 摸索, 서울: 박영사 1987
8. 李克燦, 政治學, 서울: 법문사 1987
9. 梁好民外, 民族統一論의 展開, 서울: 형성사 1983
10. 李洪九外,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 서울: 박영사 1985

〈論文·論文集〉

1. 高永復, “南北韓 社會體制의 變化와 統一問題”, 「統一政策」 제6권 제3·4호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80
2. 郭台煥, “韓半島 統一모델과 紛爭解決의 테크닉”, 「統一政策」 제1권 제1호 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75
3. 具範謨, 「南北協商案 檢討 및 國內外 與件이 이를 強要할 境遇의 對備策」, 서울: 국토통일원 1971
4. 具本泰, 「南北接觸을 위한 理論의 定立」, 서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5. 金東熙, 「南北韓 社會文化交流 綜合對策」, 서울 : 국토통일원 1974
6. 金淵洙, 「東西獨關係를 모델로한 南北韓間 社會文化分野의 交流協力對策」,
서울 : 국토통일원 1984
7. 金榮國, 「非政治的 分野의 南北交流 可能性과 國際的 仲介 및 保障方案」,
서울 : 국토통일원 1971
8. 金載浩, 「南北韓 社會團體交流에 관한 對備策」, 서울 : 국토통일원 1974
9. 金俊熙, 「分斷國家로서의 韓半島의 本質」, 서울 : 국토통일원 1976
10. _____, 「分斷國家 一般理論에서 본 韓國統一問題의 法的 性質」, 「統一政
策」 제1권 제2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75
11. 金學俊, 「韓半島 平和의 國際的 條件」, 「統一政策」 제5권 제3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79
12. 都興烈, 「南北韓 社會文化 및 藝術分野交流方案」, 서울 : 국토통일원 1985
13. _____, 「非政治分野의 交流實踐戰略」, 서울 : 국토통일원 1973
14. 閔丙天, 「北韓의 統一戰略을 감안한 收斂理論의 韓半島 適用方案」, 서울
: 국토통일원 1976
15. 朴淳達, 「南北韓 關係에 適用할 各種 게임理論 모델의 開發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77
16. 宋榮大, 「韓半島平和定着의 諸條件에 관한 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77
17. 吳基松, 「南北統一과 民族主義에 대한 再考察」, 「統一政策」 제6권 제2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80
18. 禹在昇, 「機能主義 理論과 南北 再統合」, 서울 : 국토통일원 1972
19. _____, 「統合理論의 比較研究와 韓國統一의 接近方法」, 서울 : 국토통일원
1972
20. 尹謹植, 「冷戰體制와 民族分斷史」, 「社會科學」 제1집, 서울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5
21. _____, 「A Comparative Study on East-West German and South-North Korean
Relations, in *EAST ASIAN REVIEW*, Vol. II No.2 Summer 1975

22. 尹東鉉, 「南北交流協力 誘導方案」, 서울 : 국토통일원 1976
23. 尹炳益, 「南北韓 交流·協力を 위한 機能主義의 接近」, 「統一論叢」 제4권 제2호, 서울 : 국토통일원 1984
24. _____, 「分斷國家의 統合理論에서 본 多角的인 南北交流提議 評價」, 「統一政策」 제2권 제1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76
25. 尹正錫, 「機能的 接近論과 分斷國의 統一問題」, 「統一政策」 제6권 제3·4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80
26. 李相禹, 「機能主義 統合理論과 南北關係 改善方案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76
27. _____, 「平和統一의 狀況變數分析」 「統一政策」 제1권 제1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75
28. _____,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與件造成에 관한 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80
29. _____, 「Theme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Messages : A Study on Pattern Shift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 No. 2 April 1973
30. 李榮一, 「平和統一의 政治理論 序說 : 先 平和 後 統一의 理論的 理解를 위하여」, 「統一政策」 제1권 제1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75
31. 李昊宰, 「改善된 分斷과 現實의 統一論」, 「月刊朝鮮」 통권 23호, 서울 : 조선일보사 1982. 2
32. 李洪九, 「이데올로기의 時代와 民主主義」, 「이데올로기와 社會變動」, 서울 : 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편 1986
33. 張起雄, 「南北韓 軋體系(Pair System)에 관한 研究」, 「統一政策」 제5권 제3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79
34. 鄭大圭, 「南北交流에 관한 理論的 考察」, 「統一政策」 제6권 제2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80
35. 鄭暢泳, 「南北韓 經濟關係 進展과 政策課題」,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경제연구센터 1986

36. _____, 「南北韓 經濟交流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87
37. 陳德奎, 「分斷體제의 狀況과 民族統一의 摸索」, 서울 : 국토통일원 1981
38. 崔聖俊, 「段階的 統一政策의 具體化方案」, 서울 : 국토통일원 1973
39. 崔楨鎬, 「北韓의 言論政策」, 「北韓」, 서울 : 북한연구소 1977.3
40. 崔平吉, 「北韓의 南北對話 展開樣相 分析」, 「統一論叢」 제4권 제1호, 서울 : 국토통일원 1984
41. 洪承勉, 「南北同質化的 諸問題」, 서울 : 국토통일원 1978
42. 黃性模, 「南北韓 民主的 統合모델에 관한 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80
43. 國土統一院, 「南北韓 郵政實態 比較 및 書信交流方案 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86
44. _____, 「南北接觸의 類型定立」, 서울 : 국토통일원 1973
45. _____,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서울 : 국토통일원 1984
46. _____, 「北韓의 社會變動과 開放化 誘導方案」, 서울 : 국토통일위 1984
47. _____, 「南北韓 經濟分野 交流協力 實踐方案研究」, 서울 : 국토통일원 1984
48. Galtung, Johan.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4 1979
49. _____. "Divided Nations As a Process : One State, Two States and In-Between", 「統一政策」 제1권 제1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75
50. Walker, Richard L. "Korean Unification : The Functional Approach What Prospeect?" 「統一政策」 제6권 제3·4호,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80

2. 北韓文獻

1.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2. _____,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3.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 동경 : 구월서방 1970
4.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2), 평양 : 평양종합인쇄공장 1968
5. _____, 김일성저작선집(3), 평양 : 평양종합인쇄공장 1968
6. _____, 김일성저작선집(5), 평양 : 평양종합인쇄공장 1972

3. 外國文獻

1. Brzezinski, Zbigniew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 USA/USSR*, New York : The Viking Press 1968
2. Claude, Inis L. Jr. *Swords in Plowshares : The Problems and Progr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4th ed.), New York : Random House 1971
3. Deutsch, Karl W. *France, Germany and the Western Alliance*, New York : Charles Schibner's Sons 1967
4. _____.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Cambridge : The M.I.T Press 1966
5. _____.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1967
6. _____.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85
7. Etzioni, Amitai. *Political Unification*, New York : Rinehart and Winston 1965
8. Haas, Ernst B. *Beyond the Nation-State*,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9. Jacob, Philip and Henry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Philip Jacob and

- James V. Toscano(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 Lippincott 1964
10. Kissinger, Henry A. "For an Atlantic Confederacy", *THE REPORTER*,
February 2 1961
 11. Lindberg, Leon N. *The Political Dynamo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12. McClelland, David C.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 Van Nostrand 196
1
 13. Merton, Robert K. "Manifest and Latent Function", i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Free Press 1957
 14.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 Quadrangle Books 196
6
 15. _____,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
NATIONAL AFFAIRS* XXIV, July 1948
 16. Nye, Joseph S.Jr. *Peace in Parts :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
anization*, Boston : Little Brown 1971
 17.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 *DDR Handbuch* Band
1, 2 Koeln : Wissenschaft und Politik 1985

北韓의 協商戰略戰術에 관한 研究

— 南北 赤十字 · 經濟 · 國會會談

準備接觸을 中心으로 —

金 雄 熙*

目	次
I. 序 論	IV. 北韓의 對南 協商戰略의 體系
II. 共產主義 協商戰略戰術의 理論的 背景	V. 南北對話에 나타난 北韓의 協商戰術 形態
III. 共產主義 協商과 그 類型	VI. 結 論

I. 序 論

1. 問題提起

오늘날 世界는 開放社會와 閉鎖社會, 資本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 그리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상호 대화와 協商은 現實的으로 세계도처에서 進行되고 있다. 이러한 對話와 協商은 體制와 理念을 달리하는 국가와 국가사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동맹국들 사이, 동일국가내에 있는 集團과 집단 사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사이 등 수없이 많고 다양한 次元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人類의 歷史는 대화와 협상의 역사라고 볼

* 南北對話事務局 對話企劃部 · 5級相當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어느 國家도 이러한 對話와 協商은 回避할 수 없는 것이다.¹⁾

國土가 分斷되고 민족사회가 두개의 이질적인 정치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體制로 分열된 南北韓間의 協商은 南北對話로 나타났다.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國際關係의 脫냉전을 圖謀하는 美·蘇대탕트에서 비롯된 周邊情勢의 새로운 變化는 南北關係의 變化를 要求하였고 이에 따라 南北對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美·蘇화해의 움직임으로 인해 分斷以後 최초로 대화시대로의 진입을 可能하게 하였던 70년대의 南北對話는 선전전, 심리전, 정보전의 次元에서 이용하려는 北韓側의 기도로 말미암아 形式的인 대화이상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對話있는 대결시대라는 한정된 개념에 머물고 말았다.

한편 1980년대 中盤의 제2기 남북대화는 北韓의 政治協商的 대화전술에 대한 보다 積極的인 對應으로 直接的인 接觸과 인적·물적 교류의 契機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한차원 成熟된 形態로 나타났다.²⁾

祖國光復 40年, 國土分斷 40년이 되는 해였던 1985년에는 南北赤十字會談,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여러분야에 걸친 南北對話가 활발히 進行되었고, 비록 制限된 지역과 인원이지만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환과 같은 對話의 實質的 成果를 가져 옴으로써 南北關係의 획기적인 變化의 契機가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86을 구실로 진행되고 있던 여러분야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南北關係의 進展을 바라던 온 民族에게 커다란 失望을 안겨주었다.

제6공화국 출범이후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준비접촉과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그리고 북경아시아경기대회의 單一팀 構成·出戰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開催되었으나 이들 회담 역시 팀스피리트훈련 問題와 밀접

1) 유석렬, 北韓政策論(서울: 법문사, 1988), p.386.

2) 國土統一院, 南北對話白書(서울: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1988), p.365.

북한 在野人士: 拘束을 이유로 北韓側에 의해 또다시 一方的으로 연기되고 말았다.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南北間에는 여러분야의 會談이 進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및 평화정착에 별다른 進展이 없었으며 아직까지 냉전구조적 대결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상호적대와 不信의 벽만 確認되었다.

이와 같이 南北間의 접촉과 대화가 南北關係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南北對話에 대한 쌍방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이 아무리 소중한 最高의 價値라 할지라도 결코 暴力이나 武力이라는 수단은 용납될 수 없으며, 南北對話를 통해 雙方間에 개방과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여 平和的方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7·7선언』에서 더욱 明白히 具體化 되었다.

『7·7선언』은 北韓을 競爭과 對決, 그리고 적대적 對象이 아니라 相互信賴, 和解, 協力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追求하는 民族共同體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남북간의 積極的인 交流·開放·協力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경제부문의 共同體로 統合해 가며, 이를 바탕으로 政治的 共同體로 發展시켜 궁극적으로 한 국가로의 民族統一을 實現한다는 統一理念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對話는 우리 민족이 함께 잘사는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原初의이며 또한 重要的 方法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北韓은 統一問題를 共產主義 계급투쟁이론에 입각한 革命의 問題로 認識하고 있다.

北韓은 南韓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革命이라는 이름의 남조선혁명이 먼저 遂行되고 이에 따라 美軍撤收, 大韓民國 政府退陣, 人民政權 수립이 이루어짐으로써 韓國의 인민정권과 북한정권이 合作하여 祖國統一을 完遂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北韓은 南北對話를 그들의 남조선혁명을 遂行하기 위한 조건과 환

경을 조성하려는 수단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이 대화부정적인 態度를 보이고 있지만, 統一을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만 성취하기 위해서는 共產主義 집단인 北韓의 存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協商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北韓을 대화와 協商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北韓社會의 民主化와 개방 그리고 交流·協力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 民族構成員 全體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하여 民族自尊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對北 協商戰略戰術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시기 여러분야의 南北對話에 나타난 北韓의 협상관, 협상태도 그리고 協商戰術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體系的인 분석이 先行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觀點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전개한 對南 協商戰略戰術을 考察하는 데 본 研究課題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研究方法과 範圍

一般的으로 共產주의자들은 協商을 소위 혁명적 외교유형으로 또는 戰爭의 다른 形態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協商이란 共產主義實現을 위한 혹은 資本主義社會의 파괴를 위한 一時的이며 戰術的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共產主義 국가는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武力과 暴力에 의한 革命的인 방법을 使用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方法으로 그들의 目的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교활한 協商을 통해 그들의 戰略的 目的을 성공적으로 達成하였다.

따라서 지난시기 여러분야의 南北對話에서 北韓이 구사한 協商戰略戰術을 이론적이고 體系的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北韓의 協商戰略戰術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革命을 통한 세

계적화에 그 目標을 두고 있는 共產主義 理論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스탈린의 혁명철학과 전략전술 그리고 혁명의 퇴조기에서 展開되는 타협과 협상의 理論的 기초로서 統一戰線戰術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理論的 바탕위에서 導出된 共產主義者들의 협상관, 협상태도 및 그 유형들을 考察해야 한다.

셋째, 北韓의 協商戰略은 그들의 대남혁명전략 구조속에서 把握되어야 하며 南北對話에서 北韓이 獲得하고자 하는 協商戰略의 目標과 그들의 協商戰略에 影響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또한 北韓이 南北對話에서 구사한 協商戰術의 形態를 회담별로 유형화시켜 體系的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南北間에는 여러분야에 걸쳐 會談이 있었지만 北韓의 협상전술은 南北赤十字會談(예비회담 25회 및 본회담 10회) 南北經濟會談(5회) 그리고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準備接觸(7회)을 중심으로 하되, 각 회담과 關聯된 南北韓이 상호 주고받은 서한 및 회담장에서의 발언문 및 발언내용에 대한 分析으로 그 範圍를 한정하고자 한다.

II. 共產主義 協商戰略戰術의 理論的 背景

1.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理論的 土臺

가. 마르크스의 社會革命論

마르크스의 社會革命論은 唯物史觀에 입각하여 계급혁명을 통한 共產主義 社會建設에 있다.

마르크스는 政治經濟學 비판의 서문에서 『법률상의 여러관계와 國家의 여러 형태란 人間精神의 일반적인 발전으로 해석될 수 없고 經濟學에서 찾아야

한다』³⁾고 주장함으로써 社會構造를 설명함에 있어 經濟的 要因을 강조하는 唯物論的인 입장을 취하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社會의 하부구조는 生産力과 生産관계이며 상부구조는 道德, 政治, 法律, 藝術, 이데올로기 등으로 形成되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關係는 하부구조의 變化에 따라 상부구조의 變化가 필연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科學과 技術이 發展함에 따라 生産력과 生産관계는 矛盾을 일으켜 그 다음의 段階로 넘어 간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마르크스는 人類歷史를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變化에 따라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봉건주의사회, 자본주의사회 그리고 공산주의사회로 區分하고 그 變遷過程을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 正當化 시켰다.

『사회적 물질적 生産력은 그 발전의 특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기초의 生産관계 또는 여태껏 作用하고 있었던 所有관계와 矛盾되게 된다. 이 關係는 生産力の 발전형태로부터 그의 질곡으로 변한다. 이 때에 社會革命의 시기가 始作되는 것이다. 經濟的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全體的인 거대한 상부구조는 다소 급격히 變形된다. 사회질서는 그 안에서 一切의 生産력에 發展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다 발전되기 전에는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또한 새롭고 보다 높은 生産관계는 그의 物質的 條件인 生産조건이 舊사회 그 자체의 태내에서 成熟하기 전에는 결코 出現하지 않는다』⁴⁾

마르크스는 人間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人間의 의식은 그 物質的 環境에 의하여 規定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여 歷史의 필연적 과정을 證明하였다. 사회는 生産력과 生産關係의 대립적 통일로 존재하며 生産력의 성장에 따라 生産관계는 변할 수 밖에 없고 生産關係가 변하면 이 새로운 生産관계를 토대로 모든 意識構造가 변한다. 즉, 하부구조에 따르는 상부구조의 必然的 崩壞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과정에서 階級鬭爭은 必然的인 것이다.

3) K.Marx, Preface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Selected Works I(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65), p. 361.

4) Ibid., p. 362.

資本主義社會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階級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歷史的 사명감을 갖는 진정한 계급이라 생각한 마르크스는 『억압받는 계급이 역사에 있어 기능적 實體로서 나타난다면 궁극적인 目的에 도달될 수 있다. 하지만 抑壓받고 搾取 당한 개인들이 그들의 계급적 狀況 즉, 階級意識이 없다면 궁극적 目的에 도달될 수 없다』⁵⁾고 하였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階級の 궁극적 目的이란 계급혁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階級革命은 계급의식을 전제하지 않고는 사실상 不可能하다.

資本主義가 성숙함에 따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트 階級狀況을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경제적인 조건은 먼저 대중을 勞動者로 바꾸어 놓았다. 資本의 支配는 대중에게 공통의 狀況과 공통된 利益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대중은 이미 자본에 대항하는 하나의 계급이었지만 階級 自體를 위한 階級은 아니었다. 투쟁속에서 대중이 함께 모여 계급자체를 위한 계급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 이때 대중이 지키는 利益이 계급의 이익이 된다』⁶⁾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資本主義社會에서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며 더욱 더 貧困해진 프롤레타리아트 階級の 계급의식은 그들의 利益을 인식하고 政治的 鬭爭을 위해 團結할 때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레닌의 前衛黨論

레닌은 마르크스의 고전적인 社會革命論에 구체적인 戰略과 戰術을 접목시킨 실천가였다.

레닌은 革命이란 資本主義가 고도로 성숙된 시기에 일어나는 폭발적 해방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長期化된 階級鬭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後進國이야 말로 이러한 階級鬭爭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舞臺라고 주장

5) K. Marx, The Poverty of Philosophy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63), p.173.

6) Ibid., pp. 188-189.

하였다.

레닌의 이와 같은主張은 마르크스의 사회혁명론과는 매우 相異하다. 즉,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성숙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資本家 계급을 타도하여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것은 歷史의 必然性이며 이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레닌이 러시아의 現實을 바라볼 때 러시아는 매우 後進國인 農業國家였다. 이러한 후진농업국인 러시아가 資本主義 社會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發生할 수 있는 고도로 성숙된 資本主義 國家로 발전할 때까지는 매우 오랜 세월을 必要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레닌은 마르크스의 自然發生의인 역사법칙을 변형시켜 階級意識을 가진 전투적인 직업혁명가가 結束한 黨을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혁명』을 의도적으로 야기시켜 暴力鬭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은 노동자계급의 利益을 가장 잘 代表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위요, 人類를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 이끌고 갈 가장 進步的인 혁명적 組織이다. 또한 黨은 마르크스의 理論으로 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守護하고 發展시키는 사명을 擔當하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위해서는 당에 끝까지 服從해야 하며 당의 지도를 떠난 革命은 있을 수 없다』⁷⁾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닌의 당 이론은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客觀的인 革命의 條件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수의 직업혁명가가 대중에게 革命意識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위로부터의 革命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革命을 영속적인 것이라고 規定했기 때문에 그의 교의의 대부분은 鬭爭의 原則이나 組織에 대해서 強調하였다.⁸⁾

레닌은 처음부터 民主社會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정당보다도 戰鬭組織으로

7) R.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New York : Penguin Books, 1975), p.185.

8) 이용필, 『마르크스주의의 소비에트적 適用』, 北韓과 共產戰略(자유아카데미, 1976), p.34.

서의 政黨을 생각했으며 그러한 정당은 사상적 및 軍事的 政黨이어야 하며 당의 목적은 테러에서부터 화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破壞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있었다.

根本적으로 레닌의 당개념은 革命이 살아 있는 민중의 要求에 의해서가 아니라 歷史的 必然의 法則에 의해서 促進된다는 관념을 전제로해서 성립된 것이다.

革命에 의해서 實現될 것은 먼 역사적 장래의 일이며 이러한 將來를 實現하기 위한 것이 黨의 使命이다.

歷史的 과업을 遂行하는 당은 대중의 자연발생적 要望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적 또는 歷史의 이론적 이해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며 이러한 意味에서 黨은 전위라 할 수 있다.

先進的 이론에 의해서 인도되는 黨만이 先進戰士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것이며 의식분자의 集團인 黨만이 진정한 意味에서 革命的인 것이다.

그래서 레닌은 共產黨을 職業的 혁명가의 組織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革命家の 組織으로서의 共產黨은 위로부터 아래로 엄중히 중앙집권적으로 軍隊와 같은 규율을 가진 組織이어야만 한다. 레닌에 있어서 규율이 要求하는 것은 批判에 의한 黨論의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기회주의자의 움직임을 根絶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위당은 進歩된 歷史的 科學的 知識을 체득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意見의 競合을 不許한다.⁹⁾

이와 같은 戰鬪的 집단으로서의 공산당이 明確한 歷史의 進路를 따라서 活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레닌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黨의 개념안에는 정의의 理念, 人道的 目的, 다른 사람들에 대한 義務의 觀念이 포함되지 않는다. 共產黨에 있어서 革命은 職業이며 歷史의 집행자로서 正當化된다.

9) Ibid., p.36.

다. 스탈린의 戰略戰術

共產主義 革命에 있어서 戰略戰術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내린 사람은 스탈린 이었다.

스탈린은 『戰略이란 그때 그때의 革命段階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의 主要 攻擊方向을 결정하고, 여러 세력을 최선의 계획으로서 배치하고 作成된 計劃을 해당 혁명 단계의 전체 기간을 통하여 완전히 遂行하기 위한 活動이다』¹⁰⁾라고 정의하고, 『전술이란 혁명운동의 만조 또는 간조, 革命의 昂揚 혹은 쇠퇴 등 비교적 단기간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행동방침을 決定하는 것이고, 전투와 組織의 낡은 形態를 새 形態로, 낡은 구호를 새 구호로 바꾸는 것과 그러한 여러 形態의 것을 統合시키는 등 目標達成을 위한 鬭爭하는 方法』¹¹⁾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스탈린에 의하면 戰略의 任務는 革命勢力과 直接的인 예비군(농민, 중간계층, 다른 國家들의 勞動者運動, 植民地 및 從屬國家들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의 比率을 正確하게 評價하고 또 間接적 예비군(반대측 階層에 있어서의 적대의식과 葛藤)을 자신들의 운동의 利益을 위해서 活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²⁾

스탈린은 가장 重要的 戰略的 과업은 첫째, 적의 가장 脆弱한 部分에 대해서 決定的 순간에 主力을 집중하는 것이며, 둘째로 決定的 打撃을 위한 正確한 순간 포착, 세째로 모든 可能的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채택된 행동방향의 일관적 追求, 네째로 후퇴가 不可避할 경우 秩序있는 후퇴를 실행할 수 있는 예비군을 機動的으로 活用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¹³⁾

한편 戰術은 주로 프롤레타리아의 鬭爭形態 및 組織形態와 관련되고 있다. 戰術은 프롤레타리아의 모든 투쟁과 조직형태에 熟達하고 또 그것은 힘이 주

10) J.V.Stalin, The Foundations of Leninism(Peking : Foreign Language Press, 1965), p. 84.

11) Ibid., p.86.

12) 이용필, 共產主義 理論批判(서울 : 대왕사, 1980),p. 239.

13) Ibid., p.240.

어진 倍率에 의해서 전략적 成功에 대비하여 最大結果에 도달하도록 적절히 사용되게 하는 技術적 리더십의 임무인 것이다.

따라서 戰術의 임무는 첫째, 주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혁명노선으로 유도시키는 鬭爭과 組織의 形態에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로 原則的 任務의 해결이 다른 모든 原則的 임무들의 完遂를 가능하게 만드는 試사술의 特定한 고리를 發見하는 것이다.

2. 共產主義 協商論의 理論的 基礎로서 統一戰線戰術

가. 統一戰線戰術의 意味

統一戰線 戰術은 1917년 10월 러시아 볼셰비키 革命을 계기로 서구선진사회에 전파되던 혁명투쟁이 各國에서 되조하기 시작한 1920년을 前後하여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 전위에게 科學的인 이념과 技術을 供與하기 위하여 組織된 코민테른에 의하여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國際共產主義 革命을 위한 技術로서 統一戰線 이론의 공식화는 제3차 코민테른(1921.6)에서 『技術에 관한테제』를 發表하고, 1922년 12월 5일 제4차대회에서 『통일전선에 관한테제』가 채택되면서 確立되었다.

제4차 대회에서 『統一戰線에 관한 테제』는 統一戰線戰術을 엄중하게 실천하도록 모든 共產黨 및 공산주의단체에 要求한다고 宣言하면서 다음과 같이 統一戰線戰術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統一戰線戰術이란 共產主義 전위가 階級의 가장 중대한 利益을 위해 鬭爭하는 勞動者階級의 일상투쟁에 있어 지도에 임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 이러한 鬭爭가운데서도 共產主義者는 배신적인 社會民主主義 指導者와도 交涉할 容의가 있다』¹⁴⁾

또한 共產主義國家의 事典에는 통일전선전술의 정의를 『勞動者階級 黨의

14) 강인덕, 『共產主義의 統一戰線에 관한 研究』(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77), p. 15.

영도밑에 일정한 혁명계급에 해당하는 革命의 勝利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共同의 원수를 반대하여 무슨 政治的 聯合을 말한다』¹⁵⁾고 規定하고 있다.

위 概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統一戰線戰術의 運用은 당초부터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해당하는 革命의 勝利』를 目的한 것이며 따라서 革命情勢의 變化에 따라 打倒해야 할 주목표를 바꾸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聯合해야 할 勢力은 그때 그때마다의 打倒目標에 따라 選擇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國際共產主義 運動思想에 나타난 統一戰線은 革命情勢의 進度에 따라 戰術的 運用이 아닌 戰略的 運用으로 擴大된다.

이렇게 볼 때 革命의 신화를 믿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鬭爭과 妥協을 並行해야 함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 集團이 單獨의 힘으로 安定되고 強力한 政府에 對抗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鬭爭一邊到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자들이지만 때로는 鬭爭보다 妥協을, 前進보다는 後退를 더욱 중요시 하는 傾向이 있다.

그것은 革命의 成熟이 자동적으로 도래되는 것이 아니며, 革命情勢는 꾸준하게 持續的으로 發展하는 것도 아니며 革命의 시기는 정세에 따라 그 高低를 이루기 때문이다.

革命의 情勢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자신의 힘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共產主義者들이 使用하는 戰術이 바로 統一戰線戰術인 것이다.

나. 統一戰線戰術의 대두 背景

레닌은 1917년 10월의 볼셰비키혁명 이후 強力한 資本主義 열강이 포위 攻撃을 가해오자 이들로부터 소비에트 政權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 그는 세계도처 특히, 유럽 社會主義 革命의 불꽃이 點火되지 않고서는 自國의 安全이 崩壞될 것이라고 보았다.

레닌은 이같은 問題意識에 『부르조아 民主主義와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관

15) Ibid., p.3.

한 테제』등 일련의 戰術的 宣言을 통하여 유럽혁명과 식민지 民族의 獨立鬪爭을 백방으로 시도하였다.

그의 이같은 戰略構想은 유럽혁명의 뒷받침 없이는 러시아 革命은 成功할 수 없다는 情勢 分析에서 出發하였다.¹⁶⁾

1919년 3월 모스크바에서 結成된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은 부르조아 階級에 대한 鬪爭 뿐만 아니라 계량주의자, 중간주의자, 反戰사회주의자 등에 대한 鬪爭도 決議하는 등 일련의 유럽정세에 대하여 樂觀的 情勢判斷을 하고 있었다.¹⁷⁾

레닌이 提案한 『부르조아 民主主義와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관한 테제』, 부하린의 『共產主義 인터내셔널의 강령』, 트로츠키의 『全世界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共產主義 인터내셔널의 宣言』 등 일련의 문서들은 한결같이 프롤레타리아 主導에 의한 革命의 可能性을 제시하였고 漸次的으로 레닌의 革命理論이나 트로츠키의 民族問題 등에서 中國問題를 다루는 등 樂觀的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코민테른이 이같이 樂觀的인 路線을 채택하게 된것은 아무렵 유럽에서 戰爭의 혼란에 편승하여 叛亂 및 罷業騷動이 도처에서 波及되었는데, 1918년초부터 5월까지 헬싱키에서는 『社會主義 勞動者 共和國』, 11월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出現하였으며 또한 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지에서 혁명적 共產黨이 組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18년 11월 독일에서 드디어 革命이 일어나고 빌헬름 황제의 政府가 무너지는 등 유럽에 있어 革命的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¹⁸⁾

그러나 코민테른이 결성된 제1차대회(1919년)에서 제3차 대회(1921년)에 이르는 期間의 歐洲情勢는 러시아 볼셰비키 革命指導者들이 예측했던 낙관

16) R. N. Carew Hunt, op. cit., p. 193.

17) Masimo Salvadori, The Rise of Modern Communism, 사상편집실역(서울: 문명사, 1972), p.56.

18) 김창순, 『國際共產主義 運動』,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비판(서울: 문명사, 1972), p.56.

적 정세로부터 점차 悲觀的 情勢로 역전되는 시기였다.

1919년 독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 誕生으로 共產主義革命運動은 일단 좌절되고 말았으며, 헝가리에서도 社會民主主義와 共產主義者가 연합하여 헝가리 共產主義 政府가 수립되었으나 단명으로 끝났으며, 1920년 이탈리아에서는 共產主義者들의 조종에 의한 勞動者들의 공장점령기도가 失敗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총파업 역시 共產革命으로는 발전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0년 12월 독일 獨立社會民主黨 左派와 독일공산당간의 合黨으로 출범한 통일공산당이 다음해 3월 총파업을 지령하였으나 중부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만 동 지령이 이행되었을 뿐 여타지역에서는 外面하여 叛亂으로 擴大시키려던 그들의 기도는 挫折되고 말았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革命의 패배는 코민테른 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鬭爭方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1921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린 제3차 코민테른에서 採擇한 『전술에 관한 테제』는 바로 이와 같은 유럽혁명의 敗北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술, 과도적 戰術(後退와 革命의 재 준비단계)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는 혁명의 퇴조기에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되었다.

동 테제에서 유럽혁명의 실패원인에 대해 『英國에서의 共產黨運動은 대중정당으로 發展하는데 실패하였고, 중부 및 서유럽의 대중적 공산당은 革命的 宣傳煽動에의 적당한 방법을 작성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으나 중간주의를 극복하지 못해 失敗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당이 중간주의적 傾向에 의해 분열되었고, 독일에서는 통일독일공산당이 充分한 준비도 없이 비공산주의 대중과의 精神的 接觸조차 기피하면서 경솔하게 鬭爭에 돌입한 결과 괴멸되었다』¹⁹⁾고 솔직하게 敗北를 自認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각 공산당은 과도기라는 정세의 성격상 鬭爭을 위한 準備에 모든 努力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공산주의적 勢力과의 協調와 壓力을 同時に 強化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강인덕, 共產主義와 統一戰線(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0), p.38.

이같은 全面的 혁명전략의 轉換에 대하여 레닌은 『공세적 戰術에서 포위전술로, 즉 공공연한 무장투쟁을 대신하여 浸透로 바꾸게 되었다』²⁰⁾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 各國에서의 共產主義 革命의 退潮라는 情勢認識은 必然的으로 코민테른 執行部로 하여금 戰略戰術의 轉換을 採擇하게 하였고 그 具體的 슬로건은 『革命』이 아닌 『대중속으로』를 내세웠다.

이렇게하여 제3차 코민테른 대회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사상 새로운 段階, 즉 프롤레타리아 統一戰線의 創設을 위한 基礎를 마련하였다.

統一戰線戰術의 登場은 革命의 고조기가 아니라 革命의 退潮期에 형성된 이론으로 일단 대중속에 浸透하는 광범한 戰術로 이해될 수 있다.

다. 統一戰線戰術의 戰略的 基調

共產主義 革命이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權力의 獲得이며 폭력에 의한 부르조아 政權의 타도이고 資本主義的 국가기구의 破壞이며 나아가 전세계의 共產主義 社會建設에 目標을 두고, 이를 위해 共產主義者들은 끊임없이 모든 戰略과 戰術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戰線이라는 妥協의 戰術은 결코 비혁명적 이거나 漸進的인 것이 아니다.

스탈린은 제7차 코민테른 大會(1935.7)에서 『統一戰線의 참된 目的은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제2단계를 目的하는데 있으며 제2단계란 통일전선의 目的이 달성된 뒤 統一戰線에 가담했던 同盟者에 대해 戰爭을 개시하는 것』²¹⁾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해 妥協과 浸透라는 이중적 정치전을 통하여 볼셰비키 政權의 안정과 勢力擴大 政策을 꾀하는 統一戰線의 戰術인 것이다.

統一戰線戰術은 혁명의 한 방법이며 이는 결코 平和的 漸進이 아니다. 그

20) Ibid., p.29.

21) W. S. Sworakowski, World Communism : A Hand Book 1918-1965 (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University), p. 87.

것은 적에 포위된 共產主義的 전위가 반혁명적 社會民主主義, 배신적 지도자에 대한 투쟁에서 사용되는 革命戰略戰術인 것이다.

따라서 統一戰線戰術은 어떤 시기에 걸쳐 進行하는 선동의 방법이며 또한 대중적·혁명적 動員方法인 것으로 일정한 혁명적 단계, 즉 革命情勢를 發展시키고 革命力量을 擴大하기 위한 각 전략적 단계마다 그때 그때의 情勢에 비추어 자기들의 전략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당이나 社會團體 또는 개별적 인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形態가 있다. 즉 비불세비키적 社會民主主義者가 거느리고 있는 黨이나 組合을 상대로 하지 않고 그 조직원인 노동대중을 끌어들이는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과 조직의 지도층과 먼저 妥協하는 『위로부터의 統一戰線』이 있다.

1)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

統一戰線戰術의 目的이 共產主義 革命遂行을 전진시키는데 있다면 당연히 革命指導는 불세비키 共產主義者가 掌握하고 결정적 시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社會主義政黨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이나 기타 좌익 세력들을 불세비키적 共產主義 指導者의 산하에 집중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反 불세비키적 社會主義 지도자의 力量을 弱화시키고 그들을 孤立化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을 形成하는 目的이다.

코민테른 제5차대회(1924년 6월)에서 採擇한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은 다음과 같이 規定되고 있다.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은 극히 있을 수 있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극히 있을 수 있는 순간이란 혁명적 共產主義 勞動者가 階級的 의식의 부족때문에 적에게 加擔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集團에 대해서 조차 그들의 무기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 鬪爭中에 극히 희박한 그러한 순간이다』²²⁾

22)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 II (Frank Class and Co., Ltd., 1971), PP.151-152.

다시말해 더 이상 煽動해도 共產主義者의 산하로 오지않는, 같은 勞動者大衆에게 무기를 돌리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순간, 즉 무장폭력을 展開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勞動者大衆이 적에게 가담하여 離脫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어디에서나 노동대중을 공산주의지도자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展開하는 戰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革命을 計劃하는 사람들이 타도해야 할 적의 力量을 最大限 弱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工作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그리고 安全하게 政權奪取가 可能하다.

또한 동 테제는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의 運用範圍가 어떤 시기나 場所를 막론하고 반드시 共產主義者의 지도하에 전개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공장에 있어서의 共產主義者, 社會民主主義的 비공산당의 노동자, 공장평의회, 노동조합 및 전산업 중심지 또는 지역내의 産業등에 걸친 모든 勞動者를 포용하는 공산당지도하의 統一戰線이다』²³⁾

이렇게 볼 때 혁명전략적 조종으로서 勞動大衆을 煽動의 방법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戰術』이 보다 직접적임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哲學과 理論은 노동계급이 革命의 주체라고 하는 이상 노동자들이 그들의 煽動대로 끌려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戰術의 基本이 되어야 함은 논리적 歸結이다.²⁴⁾

그러나 共產主義 歷史는 아직까지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에 의해 동원된 勞動大衆에 의해 共產主義 革命이 成功하였다는 예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勞動階級이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革命意識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위로부터의 統一戰線

23) Ibid., p.153.

24) 강인덕, 共產主義와 統一戰線, op. cit., p.50.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제11차 총회(1931년 3월-4월)는 각국 共産黨에 대해 자본의 攻撃, 모든 形態의 부르조아독재, 제국주의전쟁과 反蘇 軍事介入에 적극적으로 反對하여 鬭爭할 것을 지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歐洲諸國의 共産黨은 勞動者의 파업과 시위를 組織하고 指揮하였다.

또한 코민테른 執行委員會 제12차 총회(1932년 8월-9월)는 資本主義의 상대적 안정은 끝났으므로 階級鬭爭을 더욱 격화시켜야 하며 모든 共産主義者는 대중 속에서의 자기 行動을 強化하고 정당화하고 직접적인 要求를 제시하는 勞動者들과의 統一戰線 結成을 목표로 鬭爭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統一戰線의 擴大와 반사회민주당 투쟁노선을 우선 修正하였다.

뿐만 아니라 1933년 11월-12월에 開催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제13차 總會에서는 이 반사회민주투쟁 路線의 修正을 일보 전진시켜 파시즘과의 鬭爭을 위한 綱領을 채택하고 각국 共産黨은 社會民主主義 勞動者 대중과의 공동노선을 結成하고 지도부의 次元에서 단결하라고 지령하였다.

이러한 지령이 나오게 된 動機를 당시의 상황과 건주어 볼 때 그 不可避性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1933년 2월 라이히스타트의 화재를 계기로 독일 共産黨을 불법화하고 반공산주의 運動을 강화한 히틀러의 나찌독일 誕生으로 말미암아 歐洲에서의 共産主義運動은 일대 타격을 받는데 비해 각국 共産黨의 반파쇼 運動은 프랑스에서 공산당과 사회당 간에 반파시스트 共同行動이 結成(1934년 7월) 되어 일시 人民戰線이 선을 보였던 것을 除外하고는 오스트리아에서의 슈츠분트 봉기의 失敗(1934년 2월)스페인에서의 반란좌절(1934년 10월)등 이렇다할 進展이 없었다.

이와 같은 情勢로 인해 코민테른 제7차대회(1935년 7월 25일-8월21일)는 집행위원회의 실제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統一戰線』戰術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인 파시스트를 반대하는 데로 초점을 모아 社會民主主義 指導者와 반파쇼 統一戰線을 호소하게 되었다.²⁵⁾

이와 같이 하여 總體的인 통일전선전술로 부터 『아래로 부터의 統一戰線』

25) Ibid., p.57.

으로 바꾸었던 코민테른은 제7차대회를 계기로 다시 『위로부터의 統一戰線』으로 再轉換 되었고 이에 따라 투쟁상대였던 社會民主黨은 반팻쇼 투쟁의 동맹자로 둔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코민테른은 共產黨과 社會民主黨間의 統一戰線이 暫定的이며 戰術的인 것임을 항상 明白히 하였다는 사실이다.

Ⅲ. 共產主義 協商과 그 類型

1. 共產主義의 協商概念

一般的으로 협상이란 個人이나 集團 또는 國家가 상호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 공통된 利益을 절충, 타협하는 相互作用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協商은 당사자나 당사국이 協商을 통해서 어떤 共通利益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목시적인 利害를 가질때 可能하며 그리고 協商을 거부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有益하다는 판단이 서야 當事자들이 서로 접촉을 갖게 되는 것이다.²⁶⁾

그러나 共產主義 理念을 標榜하고 있는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協商은 窮極的으로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이고 공산혁명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戰術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 協商概念은 일반론적인 협상개념과 同一할 수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이 平和的인 協商을 標榜하는 것은 그들의 자체역량이 미약할 때 나타난다.

레닌은 『政治에서 妥協이라 함은 다른 정당과의 合意에 도달하기 위하여

26) 한배호, 『共產主義者와의 協商』, 分斷國의 對話(동아일보사, 1979), p.14.

일부 요구조건을 讓步하는 것, 자기의 要求條件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²⁷⁾이라고 規定하고 『鬭爭하는 당은 情勢에 따라 不可避하게 妥協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⁸⁾고 協商에 대한 必要性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진실로 革命的인 黨의 任務는 온갖 타협을 거부한다고 하는 不可能한 일을 宣布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妥協을 통하여(그 타협을 피할 수 없는 한)자기의 원칙, 자기의 계급, 자기의 혁명적과업, 革命을 준비하며, 大衆을 혁명승리로 準備시키는 자기의 사업에 充實性을 觀察하는 能力을 가지는데 있다』²⁹⁾고 주장함으로써 결코 協商은 혁명적 요구를 영원히 拋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에 불과하며 同時に 協商을 革命的目標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手段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스탈린은 독일군이 1941년 6월 22일 蘇聯의 영토를 침공함으로써 蘇聯의 運命이 危機에 처하게 되자 『戰線에서 우리 軍隊가 퇴각하고 경제가 파괴될 環境에서 戰爭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誕生한 소비에트공화국의 存續을 위협에 처하게 함을 의미한다. 소비에트정권을 공고하게 하고 적의 侵犯으로부터 나라를 防禦할 만한 붉은 軍隊를 創立하기 위해 어떠한 강화조건도 접수해야 하며 따라서 독일에 양보해야 한다』³⁰⁾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강화조약은 독일에 대한 反擊을 위한 暫定的 後退에 불가한 것이었다.

한편 모택동은 『共產黨人發刊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政治方針에 있어서 重要的 部分으로 되는 것은 한편으로 부르조아지와 提携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과 鬭爭한다는 政治方針이다... 여기서 提携한다는 것은 부르조아지와 統一戰線을 말한다. 그리고 鬭爭한다는 것은 부르조아지와 提携하고 있을 때 思想的·政治的·組織的으로 進行하는 平和의 이며

27) 레닌, 『妥協에 대하여』, 戰略과 戰術, 강좌편집위원회 역음(서울: 학민사, 1988), p.157.

28) Ibid., p.157.

29) Ibid., pp. 157-158.

30) 유완식, 共產主義 協商戰略戰術 基調(國土統一院, 1987), p.7.

피를 흘리지 않는 鬪爭을 가리키는 것이며, 부르쵸아지와 분열하게 될 때에는 곧바로 武力鬪爭으로 轉化한다는 것이다』³¹⁾

中共과의 鬪爭에서 패배한 장개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中共은 戰爭에 지면 平和共存을 요구했으며, 그 實力이 강하게 되면 평화적 협상을 결렬시키고 武力叛亂을 일으켰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와의 平和協商이 곧 우리에게 대한 무력반란의 準備였다. 이것이 즉 그들이 말하는 辨證法의 이른바 矛盾統一과 대립물전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反共作戰을 할적에는 적의 전쟁사상과 行動法則을 잘 觀察함과 동시에 그것을 把握하여야만 비로소 우리측의 戰略·戰術의 正確性 여부를 判斷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共產黨의 平和協商이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쟁의 한 방식이다』³²⁾고 述懷하였다.

非共產圈國家 또는 집단간의 협상은 相互共存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共同利益의 最大化 및 相互 侵害의 最小화를 圖謀하기 마련이지만 계급투쟁사관에 입각한 傳統的 共產主義 이념을 絶對化하고 있는 共產黨 또는 共產國家는 非共產國家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영구적 공존을 부정하고, 協商 상대방을 조만간 타도와 말살의 對象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眞實性있는 共同利益의 도모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協商에 있어서의 그들의 양보는 향후 反擊을 위한 일시적 후퇴에 불과한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의 協商에 대한 이같은 態度는 資本主義에 바탕을 둔 기존 國際政治 秩序의 파괴와 共產主義에 의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조를 사명으로 하는 共產主義 理念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의 協商은 공산혁명이라는 窮極의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에 不過하다.

따라서 特定の 자기 완결적인 目標을 위한 協商은 무의미하다. 共產主義者

31) 박동운, 『革命戰略과 協商戰術』, 공산권연구, 1979년 7월호(極東問題研究所, 1979), p.22.

32) Ibid., p.22.

들에게 있어서 窮極의이고 전체로서의 목표, 즉 공산혁명속에서 特定の目標에 대한 協商만이 있을 뿐이다.

2. 共產主義 協商의 類型

가. 協商 一般論的 類型

協商은 利害衝突이 있을 경우 交換 또는 共同利益의 實現에 관한 合意에 도달할 目的으로 明白한 提案이 표면상 提示되는 과정이다.³³⁾

따라서 協商이란 협상당사국들이 어떤 公同이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目的적 가정하에서만 可能하다. 즉 協商國들이 協商에 임하는 것이 協商을 거부하는 것보다 有益하다는 判斷을 내릴 때 당사국들이 서로 反應함으로써 協商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協商理論의 권위자인 Ikle교수는 協商類型을 協상당사자가 갖는 目標나 目的에 따라 ① 연장협상 ② 정상화협상 ③ 재분배협상 ④ 혁신협상 ⑤ 合意에 관계없이 부수효과를 노리는 協商으로 분류하였다.³⁴⁾

1) 延長協商

延長協商이란 現存하는 協商의 時限을 연장하기 위한 目的에서 하는 協商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協商의 실례로는 관세협정의 延長이나 해외군사기지의 使用權 갱신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다.

2) 正常化協商

正常化協商은 어떤 상황이나 國家間的 關係正常化를 위한 目的에서 하는 협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戰爭狀態를 終熄시키기 위한 휴전회담이나 外交關係를 다시 正常的으로 수립하기 위한 협상, 戰后 강화조약과 같은 協商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전쟁당시 유엔군대표와 중공·북한대표단간에 가졌던 휴전

33) F.C.Ikle, How Nations Negotiate(New York : Harper, 1964), 이영일, 이형래공역, 協商의 戰略(서울 : 한일문고, 1972), p. 16.

34) Ibid., p.38.

협상과 韓日會談은 正常化를 위한 協商의 한 形態라고 볼 수 있다.

3) 再分配協商

再分配協商이란 攻勢的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수세에 있는 國家에 대해 새로운 分配關係를 이루려는 目的에서 協商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協商에서는 共通的인 利益보다는 상위적인 이익의 조정관계가 더욱 큰 比重을 차지하며 公세적인 당사국의 要求가 거부될 경우에는 最惡의 경우 당사국간에 軍事的 衝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協商의 대표적인 예로는 中공과 越盟간의 전쟁에서 中공이 캄보디아에 侵入한 월맹군의 撤收를 요구했으나 월맹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發生한 것으로 그 후에 協商을 통해 紛爭을 解決한 경우를 들 수 있다.

4) 革新協商

革新을 目的으로 하는 協商은 새로운 制度나 機構를 創設하거나 또는 새로운 協定을 가짐으로써 協商當事國間에 새로운 關係나 의무를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協商의 경우 협상당사국간에 반드시 均等한 이익분배가 실현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相互間에 共通利益에 목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再分配協商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5) 附隨目的協商

合意에 관계없이 부수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協商은 協商의 實質的 합의유도보다는 舌戰이나 情報蒐集 또는 協商當事者의 무력행사를 留保 혹은 저지, 단념시키는 結果를 얻어내기 위한 協商을 가리킨다. Ikle는 이러한 부수효과를 노리는 協商目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수효과로서 ① 協商 상대자와 接觸을 유지하는 효과 ② 協商 相對者의 무력행사의 留保·抑制·斷念의 효과 ③ 協商 상대방으로부터 必要的인 정보입수의 효과 ④ 自國의 國家행채(전쟁준비와 같은)를 隱匿·偽裝시킬 수 있는 효과 ⑤ 다양한 심리전적인 선전 효과 ⑥ 제3자에 대한 衝擊의 效果를 들고 있다.³⁵⁾

특히 共產主義者들은 그 協商의 目標合意와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이러한

35) Ibid., pp. 55-70.

附隨的 效果만을 노리고 協商을 하는 事例가 많다.

나. 共產主義 協商論的 類型

共產主義의 協商形態는 소위 혁명적 외교유형이며 이는 全體主義 國家의 정치적 가치체계와 倫理의 소산이다. 즉 國際政治秩序의 파괴와 共產주의에 의한 새로운 世界秩序의 創造라는 概念에 바탕을 둔 협상행위이다.

世界의 現狀維持를 타파하는 것이 그들의 一次的 目標인 만큼 共產主義者들은 비정상적인 외교나 協商行爲만이 그들의 目標을 달성케 하는 方法임을 굳게 믿고 있다.

이점은 蘇聯이나 中共 그밖의 共產主義 國家의 協商態度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의 協商類型을 다음과 같이 ① 내전기의 協商 ② 열전기의 協商 ③ 냉전기의 協商 ④ 대화기의 協商으로 分類할 수 있다.³⁶⁾

1) 내전기(內戰期) 協商

內戰期の 協商은 自體勢力이 미약할때와 어느 정도 成長했을 때, 對敵 공격이 가능할때의 協商으로 구분된다.

自體勢力이 미약할때 적의 攻撃을 피하기 위해 화평담판을 하며 協商을 進行하는 중에는 적의 성급성과 表面的인 위약을 유도하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이때 成長發展을 위해 外廓團體를 包攝 活用한다.

내전기에 이들은 당건설, 무장폭동, 통일전선 등의 目標을 내걸고, 적의 攻撃을 예방하고, 이틈에 성장발전하여 敵陣을 교란시켜 적지내부에 自體勢力을 부식시킨다. 적지에 후방유격근거지를 擴充하여 무장준비를 掩蔽하고 輿論을 煽動하여 적의 攻撃을 막을 수 있는 方向으로 유도한다.

또한 自體의 孤立을 막을 수 있는 반고립화를 促進함과 동시에 여론과 外勢의 支持를 얻어 적을 孤立시키며 平和와 戰爭을 並用하는 이중전술을 展開한다.

36) 김하룡, 共產側의 협상테크닉 分析(國土統一院, 1973), p.4.

2) 열전기 協商

적과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熱戰을 展開하는 열전기의 協商目標은 自體內의 제반여건을 克服하여 自體團합을 위해 反帝國主義의 鬭爭을 強化하며, 군사적으로 패배한 상황을 協商으로 만회할 것을 시도한다.

3) 냉전기 協商

냉전체제하에서의 協商은 國力과 國際的 지위 신장을 위해 국제 프롤레타리아 革命 創出을 促進 強化하며 緊張緩和와 국가지위향상을 위해 가능한 방도를 講究한다.

또한 적에 대한 극과 극의 相反된 利害造成으로 理念的, 歷史的, 感情的 대립으로 대하면서도 擴戰방지와 緊張緩和를 위해 協商場을 긴장고조의 危險을 除去하려는 정보 탐색장소로 活用하려는 努力을 경주한다.

4) 대화기 協商

대화기의 協商에서는 國力과 國家의 지위를 신장할 수 있는 諸般 交流를 시도하며, 인민전쟁정신의 고취로 자체내부의 結束을 망라하고, 國際革命의 결정적 시기의 유도를 試圖하고, 적의 主導權과 經濟力에 대한 취약점을 克服하려는 努力을 전개하고 이념보다는 實利를 우선 追求한다.

또한 대화기의 협상에서는 平和共存의 口號로 적의 敵愾心의 둔화를 유도하고 토착혁명의 과시로 自主性을 과시하며, 등거리 外交를 유도하고 外勢의 擴大 包攝을 시도한다. 동시에 消極的으로 協商을 誘導하여 적의 양보를 얻도록 노력하고, 自體의 호전성과 군사적 準備를 僞裝하며 적을 고립시킬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한다.

3. 共產主義 協商戰術의 諸 形態

가. 蘇聯의 協商戰術

蘇聯의 協商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³⁷⁾

37) 박일성, 共產主義 協商戰術(國土統一院, 1983), p. 50.

첫째, 協商은 투쟁이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것으로 全世界를 資本主義와 共產主義가 對決하는 양대체제간의 분열대립 현상으로 인식하는데서 出發한 것으로 따라서 蘇聯의 對外行動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주장하는 社會發展, 階級鬭爭, 힘의 關係 등 제법칙에 服從하는 것이며 社會주의 進영의 最終勝利는 既定事實로 전제하고 協商은 그 過程을 앞당기는 手段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둘째, 協商은 武器이다. 協商은 자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 내지 武器로 보는 시각으로 蘇聯은 協商中에 서방측처럼 目標의 修正과 같은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목적만 달성하려고 한다. 따라서 目的과 手段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셋째, 힘을 重視한다. 蘇聯은 協商을 左右하는 것은 무엇보다 힘이라고 생각한다. 蘇聯의 外交活動의 理論的 기초는 國內的, 國際的, 社會的인 힘의 상관관계로 보는 것이다.

넷째, 理致와 倫理를 존중하지 않는다. 蘇聯은 그들 協商의 目的達成을 위해서 합리적 이거나 道德的인 면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의 利益이 되는 제안만이 建設的인 提案이라 主張하는 것이다.

蘇聯이 수많은 협상테이블에서 전개한 협상전술의 形態는 다음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³⁸⁾

1) 脅迫

協商을 하면서도 武力을 행사하겠다고 威脅하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낸다. 힘을 背景으로한, 즉 軍事力을 脅迫으로 使用하여 그들의 目標를 達成한다.

2) 時間의 效果的 利用

時間의 戰術에는 지연, 반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蘇聯의 협상가들은 참을성이 많고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몇백번이고 동일한 것을 되풀이한다. 즉 그들은 매일같이 아무런 결론도 유도할 方法도 없이 會談테이블에 계속해

38) Ibid., p.83.

서 놀리 않을 뉘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協商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그들의 대본을 지칠줄 모르고 反復한다.

3) 린케이지 戰術

이것은 어떤것을 다른것과 聯關시켜 흥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領域에서 얻은 양보는 다른 영역내에서의 양보를 獲得하는데 기여토록하여 광범하고 여러가지 協商을 關連시켜 推進하는 것이다.

4) 바자르(Bazaar) 戰術

바자르는 페르시아어로서 아랍의 백화점에서 消費者에게 物件값을 터무니 없이 높게 불러놓고 흥정하는 商術을 의미한다. 즉 蘇聯은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要求를 제시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讓步하는 手法을 구사한다.

5) 原則合意 戰術

상대방이 반대할 수 없는 價値들, 즉 平和, 安定, 友好, 善隣, 協力 등의 原則을 제시하고 이에 합의를 유도한다. 그리고 적절할때에 이 原則을 適用, 상대방의 主張을 무력하게 만든다.

6) 뽑아먹기(Cherry Picking) 戰術

이것은 건포도가 든 빵이나 케이크에서 건포도만 뽑아먹는 식의 제멋대로의 戰術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提示하는 여러가지 提案中에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合意를 보고 나머지는 일체 무시해버리는 協商戰術이다.

나. 國共協商時 中共의 協商戰術

中共의 協商戰術이 잘 나타난 國共協商은 1940년부터 1946년 國民黨 政府의 敗色이 확실해 질때까지 7차례나 걸쳐 이루어졌다.

國共協商은 제1차 協商에서 제3차 協商까지는 國공간의 軍事協商이 主內容이었고, 제4차 부터 7차 協商은 주로 美國의 仲介에 의해 國공간의 和平建國을 陰謀하는 政治協商으로서 여기서 中共측은 美國의 錯覺을 교묘히 유도

하여 美國의 中立的 態度를 시도하였으며 중·미간의 離間을 조장하기 위해 新民主主義路線, 聯合정부론 등 各種 戰術로 소생발전을 圖謀하고 국민당 정부를 공격할 수 있었다.³⁹⁾

中國共產黨이 7차례의 국공협상에서 전개한 協商戰術은 다음과 같다.⁴⁰⁾

1) 僞裝讓步

일방적 利益을 獨占하여 오로지 讓步할 제스처만 쓰고 실제로는 촌보도 양보치 않는다. 중경회담의 11개조항(平和中國 建設案) 중 제1항(3民主主義 실천)과 제2항(장개석 통치주도권 추종)을 宣稱하였지만 나머지 9개항에서 위 2原則을 顛覆시켰다.

2) 主要問題의 固守

政治權力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毛澤東의 武力第一主義에 입각, 군사적 문제는 절대 讓步하지 않고 계속 擴大 主張한다.

1937년 國共合作 초기에 중공군은 3개사단이었는데 1944년에는 12개 사단의 擴充을 요구했고, 1945년에는 계속해서 48개사단을 要求하였으며 결국 국공군 배율은 4대 1로 分配하도록 주장한 것이다.

3) 國家分斷 陰謀

中共은 表面上 統一中國 建設을 主張하면서도 實質的으로는 변구정부의 인정과 中共의 合法性 認定 시도로 현상유지를 目標로 國家의 分斷을 획책하였다. 제 3차에서 제7차 協商까지에서는 항상 中共의 合法性 認定을 主張하고 성·현단위 總選을 主張한 바 있다.

4) 事實의 歪曲

中共이 지배하고 있는 地域에서 마치 3民主主義·民主主義가 잘 實行되고 있다고 과장선전하였는데 이는 중립주의자들을 包攝하기 위한 戰術이며 協商 結果는 국부측의 무성의라 主張하고 輿論을 중공측에 유리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39) 정석홍, 『國共協商』, 海外協商經驗事例(國土統一院, 1987), p. 23.

40) Ibid., pp.36--38.

5) 모략·중상

抗日戰爭中에 中共側은 ① 국부측이 日本과 休戰協商을 한다는 虛偽事實을 流布하여 곤경에 빠뜨리고 ② 中共支配地域 擴大를 위해 국부지역을 襲擊하고도 그 責任을 국부측에 전가하는 허위선전을 했으며 ③ 會談戰爭中에도 중공은 국부측이 회담에 대한 誠意가 不足하다고 非難하고 ④ 美國은 장개석 일방에 유리한 仲介를 하며 또한 美國은 中國을 侵略하는 帝國主義者이며 장개석은 그 앞잡이라고 비난하였으며 ⑤ 日本軍 降服 접수 방해는 민족반역자라 비난하고 掃共작전은 內戰 挑發이라고 민주연맹등 외곽단체를 活用하여 煽動하였다.

6) 일보일진

만약 中共이 提示한 要求條件이 합의점에 도달할 것 같으면 다시 同一한 提案을 追加 提議한다. 이런 戰術은 제3차 協商時 임조합은 4군 12개사단을 要求하였다가 다음에 5군 16개사단을 奇襲 要求하였던 바 있다.

7) 威脅恐嚇

協商이 挫折될 때 中공측은 회담 결렬도 불사한다고 완강한 態度로 辱說을 가하였는데 이같은 方法은 주의를 集中, 會談을 主導, 지연진술을 合理化하고 선전효과를 增大하여 이같은 方法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強要하는 霧圍氣를 造成한다.

8) 태연한 違約

中共의 협상에 대한 觀點은 임시 變通의 手段에 不過하며 곤경 모면수단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時間을 지연시키고 相對의 關心을 희석시키려는 陰謀로서 政治協商案의 違約, 1차협정 불이행, 협상조인을 무시하는 것 등은 이에 속한다.

9) 分散戰術

이것은 重要 關鍵문제를 各 條項에 分散시켜 적의 경제심을 피하거나 鈍化시키는 속임 戰術인 것이다.

10) 지연작전

本質 問題의 協議를 延宕시키고 주요문제토의를 回避하려는 戰術로 주는 때는 중경회의에서 첫 4일은 의사절차만을 討議하자고 提議함으로써 時間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11) 奇襲作戰

會談中에 政治協商을 提議하고 협상회담중에 軍事行動을 展開하여 적을 수동적 位置로 몰아넣고 相對의 주의를 分散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戰術이다.

다. 休戰協商時 共產側 協商戰術

北韓의 1950년 6월 25일 奇襲南侵으로 韓國戰爭이 발발한 뒤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 시작되어 575회의 公式的인 會議를 거쳐 1953년 7월 27일 調印됨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中共과 北韓은 휴전협상에서 典型的인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戰術을 전개하였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⁴¹⁾

1) 霧圍氣 制壓戰術

共產軍은 자기측에 유리한 地域을 협상장소로 선정하고 유엔군측 協商代表를 威脅·恐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提案한 장소(원산항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를 拒否하고 개성으로 提案하였으며 회담시 중무장 군인이 유엔군측 會談代表를 시종 包圍하였다.

2) 結論이 內包된 提案 戰術

공산군측은 議題를 그들의 基本的 目標에 유리한 結論으로 構成되도록 미리 의제순위 및 의제내용을 組立한다. 공산군측은 의제로 ① 38선을 雙方의 군사분계선으로 設定하고 적대행위의 基本的 條件으로 비무장지대 設定 ② 韓半島로부터 전 外國軍 撤收를 提議하였다.

3) 事件造作 戰術

41) C.T.Joy, How Communists Negotiate(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4)
參照

共産軍側은 協商에서 有利한 狀況造成이나 對外的 宣傳을 위해 事件을 造作한다. 共産軍側은 유엔군 비행기가 회담장지역을 爆擊했다고 거짓 主張을 하였다.

4) 엉뚱한 要求條件 提示

共産軍側은 엉뚱한 提案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어느 제안을 철회하면 자기들도 讓步하겠다는 手法을 使用한다. 共産軍側은 中立國 감시위원단에 폴란드, 체코와 함께 中立國이 될 수 없는 蘇聯을 提議, 이는 유엔군측의 비행장 신설 및 복구금지 主張을 철회시키기 위한 哄정의 對象이었다.

5) 要求條件 倍加 戰術

共産軍側측은 상대방이 그들의 要求를 간단히 들어주면 더욱 攻撃的이고 더 많은 것을 要求한다. 유엔군이 공중정찰안에 대해 讓步한다는 것을 알자 비행장 新設 및 服務問題에 대한 유엔군제안에 反對意思를 더욱 強力히 하였다.

6) 遲延戰術

協商進展의 지연은 상대방의 立場을 弱化시키는 傾向이 있다. 공산군측의 협상지연으로 의제합의에 17일간이 所要되었고 軍事分界線 問題로 3개월 所要, 포로송환문제로 15개월의 기간이 所要되었으며 休戰協商 自體가 2년이 넘게 걸렸다.

7) 合意事項 破棄 戰術

合意事項에 대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그 範圍를 縮小하거나 아예 破棄한다.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포로들의 送還意思 심사원칙에 동의하고 모든 포로들에게 공산군측 復歸를 促求하는 書翰까지 유엔군측에 提供하였으나 심사결과가 그들에게 불리하자 포로심사를 반대했다고 主張했다.

IV. 北韓의 對南 協商戰略의 體系

1. 北韓의 對南革命戰略과 協商戰略

가. 統一에 대한 基本認識

統一問題에 대한 北韓의 認識은 必然的으로 全 韓半島의 共產化라는 그들의 目標에 基礎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立場은 韓半島 全域에 걸쳐 共產主義 政治 및 社會體制가 實現되는 狀態를 統一이라고 보면서 그 性格을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⁴²⁾

첫째, 統一問題를 一次的으로 『민족해방혁명』이라는 觀點에서 부터 그 性格을 規定짓고 있다. 민족해방혁명이라는 論理는 南韓이 植民地 狀態下에 있다는 前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즉, 남과 북이 합하여 하나의 國家를 建設하자는 것이 아니라 흡수주의적인 思想에 基礎하고 남한지역을 미제의 식민지 중속지역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統一問題는 어디까지나 외래침략으로 부터 빼앗긴 領土와 人民을 찾는 革命이라는 統一哲學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統一問題를 共產主義的 世界觀에 立脚하여 치열한 階級鬭爭으로 간주하고 和解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이란 立場에서 解決을 시도하고 있다. 요컨대, 金日成이 『祖國을 統一하기 위한 鬭爭은 민족해방투쟁인 동시에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사이,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날카로운 階級鬭爭이다』⁴³⁾라고 主張하고 있듯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南韓의 자본주의적 요소와 반혁명역량을 타도하기 위한 階級鬭爭을 치열하게 展開하여 승리하는 것을 통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42) 강성운, 『北韓의 平和統一論과 南朝鮮 革命論』, 안보연구, 제14집 (東國大 안보연구소, 1984), pp. 32-33.

43) 『金日成著作選集』 제5권, pp. 198-199.

세째, 統一問題는 『민족내부문제로서 어떠한 外勢의 介入도 許容할 수 없는 朝鮮인민의 내정문제』⁴⁴⁾라는 것이다.

통일문제가 民族內部問題라는 主張은 韓半島의 問題를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로 區分하고 統一問題는 남과 북의 문제이며 平和問題는 美國과의 問題라는 전략적 主張에 利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性格에 입각하여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統一問題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韓半島의 共產化란 통일목표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남조선에서 美帝의 침략자를 몰아내고, 그 植民地統治를 청산하여 현 군사파쇼 獨裁를 뒤집어 엮고 革命의 勝利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成果로 南韓에서 革命이 성공하여(공산혁명) 남조선에 참다운 民主政權이 서면 共和國 북반부의 社會主義 역량과 南半部の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祖國의 統一은 實現될 것이라는 統一에 관한 戰略的 觀點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北韓의 통일관은 全 韓半島의 共產化라는 통일상을 가지고 방법상 統一問題는 南朝鮮革命의 問題와 合作統一問題로 區分하여 南朝鮮革命의 完遂를 통해 朝鮮革命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統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나. 對南 革命戰略의 構造

1) 對南戰略의 目標

한 國家의 對外政策은 政策決定者가 다른 國家 혹은 國際的 實體를 相對로 자국의 특정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資源과 能力을 동원하여 展開하는 戰略이나 計劃된 행동방침이며⁴⁶⁾, 對外政策의 目標는 정책결정자가 대외정책을

44) 『金日成著作選集』 제4권, p. 187.

45) 강성운, 『北韓의 統一戰線과 南韓革命論』, 안보연구, 제17집 (東國大 안보연구소, 1989), pp. 187-188.

46) J.C.Plano and Roy Olt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ictionary(California : ABC-Clio, 1982), pp. 7-8.

遂行하여 외부 환경속에서의 他國의 행위를 유지 내지 變更시킴으로써 이루어내려는 본래사태와 본래 狀況을 의미한다.⁴⁷⁾

한 國家의 對外政策의 목표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區分될 수 있다.⁴⁸⁾

첫째, 一般的으로 한 國家의 필요성이 蓄積되어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은 正當化되어 가치가 되며 이 價値는 다시 體系化되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즉 형성과정 시각이다. 따라서 對外政策의 目標은 국가이익상의 실리적목표, 가치목표, 그리고 이데올로기상의 명문적목표 등의 性格을 지닌다.

둘째, 目標의 重要性에 따라 最高目標과 中間目標로 區分될 수 있다.

셋째, 目標를 達成하기 까지의 예정된 시간에 따라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北韓은 1980년 10월 勞動黨 제6차 大會에서 採擇한 당 규약 전문에서 『朝鮮勞動黨의 당면 目的은 共和國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完遂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社會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建設하는데 있다』⁴⁹⁾고 規定함으로써 그들의 目標가 전 韓半島의 共產化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金日成은 그의 비밀교시(1968.7.8)에서 『祖國統一은 분단된 國土와 民族의 單純한 再 統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革命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反帝,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의 革命을 完遂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업이다. 남조선혁명과 북조선혁명은 서로 불가분리의 聯關性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一定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⁵⁰⁾고 言及하였다.

따라서 北韓의 祖國統一과 南朝鮮革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

47) R.C.Snyder, H.W.Bruck and Burton Sapin(ed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New York : Free Press, 1963), p.82.

48) 최중기, 現代 國際關係 理論(서울 : 박영사, 1983), p.281.

49) 북한개요 (國土統一院, 1986), p. 339.

50) Ibid., p. 298.

다.⁵¹⁾

첫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다 같이 조선혁명의 一環으로 祖國統一을 위한 鬭爭은 곧 南朝鮮革命을 위한 鬭爭으로 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祖國統一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뿔뿔해야 뿔 수 없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聯關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南韓의 共產化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祖國統一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은 다같이 조선혁명에 기여한다는 共通性이 있고 또한 주한미군과 韓國의 反共政權을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에도 共通性이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革命鬭爭이라는 데 있어서도 공통성을 지닌다. 즉 金日成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主體思想, 주체적 戰略·戰術에 입각하여 駐韓美軍을 撤收시키고 南韓의 자유민주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革命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一致한다.

세째,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은 각기 그가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 그리고 그를 直接 遂行하는 主體가 서로 다르며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差異가 있다. 즉, 南朝鮮革命은 南韓地域에서 그리고 祖國統一은 전 韓半島地域에서 수행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도 南朝鮮革命은 남한의 지하당과 그 주위에 뭉친 노·농동맹군과 각계각층 인데 비하여, 祖國統一에서의 주력군을 南北韓 전역의 노·농동맹군이고 그것을 지도하는 黨도 金日成이 직접 이끄는 北韓의 勞動黨이 된다는 점 등에서 差異가 있다.

더우기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基本的으로 南朝鮮革命은 暴力的 方法에 의하여, 祖國統一을 南朝鮮革命을 이룩하여 人民政權(共産黨이 主導하는 聯合政權)을 수립한 후 이 政權과 北韓의 공산정권간에 형식상의 평화협상 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合作통일의 平和的 方法에 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北韓의 對南戰略의 당면 目標은 그들의 혁명역량을 保存·蓄積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南朝鮮革命을 遂行하는 것

51) 장수련, 『北韓의 對南戰略』, 민주통일론(國土統一院, 1988), pp. 97-98.

이며 最終目標은 전 韓半島의 공산화혁명에 있는 것이다.

2) 對南 戰略의 基調

北韓은 全 韓半島의 共產化라는 최종목표와 南朝鮮革命이라는 당면목표를 達成하기 위해 소위 3대 혁명 力量路線을 對南戰略戰術의 基調로 삼고있다.

北韓의 3대혁명 力量強化는 1964년 2월 당중앙위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勞動黨의 대남전략기조로 確定되었는데 이는 6.25남침과 4.19당시 南韓革命의 失敗 原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戰略指針을 提示하기 위해서 採擇한 것이다.

즉, 金日成은 『남한혁명역량은 조선혁명을 위한 주체적 力量의 한 구성부 분으로서 祖國統一의 대사변을 앞당기며 그를 달성함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수행한다』⁵²⁾고 전제하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經驗은 아무리 北半部에 강력한 혁명역량이 準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南韓에 革命力量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祖國統一의 유리한 機會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⁵³⁾고 언급하였다.

남한혁명의 전략기조인 3대혁명역량 政策은 金日成이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할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演說에 集約되고 있다. 그는 祖國의 統一과 朝鮮革命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革命力量을 準備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우리조국의 통일, 즉 朝鮮革命의 全國的인 勝利는 결국 3대역량의 準備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共和國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建設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政治·經濟·軍事的으로 더욱 더 強化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南朝鮮의 革命力量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團結을 強化하는 것이다』⁵⁴⁾

52) 백종천, 『北韓의 軍事政策과 對南關係』, 北韓軍事政策論 (경남대 極東問題研究所, 1983), p. 294.

53) Ibid., p.295.

54) 『金日成著作選集』 제4권, p.239.

北韓의 3대혁명역량 強化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⁵⁾

첫째, 南朝鮮 혁명역량강화란 北韓에 社會主義 建設을 잘하여 혁명기지를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더욱 強化하는 것을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北韓地域을 南韓共產化 革命을 위한 革命기지로써 상정하고 政治的으로 體制를 공고히 하고 經濟的으로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確立과 建設로 전쟁물자의 生産과 비축을 증강하여 軍事的으로는 4대군사노선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北朝鮮의 革命力量強化를 그들은 3대혁명역량중 가장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南韓을 攻擊하기 위하여 強化하고 있는 南侵力量으로 規定하고 있다.

둘째, 南朝鮮 革命力量強化라는 것은 南韓內에서 共產 및 親共勢力을 부식시켜 韓國의 政治的 安定을 흔들고 또한 經濟 및 社會分野에서는 秩序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소위 人民民主主義 革命的 興件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北韓은 이같은 南朝鮮革命力量을 決定的인 시기에 南北革命力量의 戰略·戰術的 配合을 實現키 위하여 必須的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南朝鮮 革命力量強化는 戰略·戰術的 配合의 次元에서만 必要한 것이 아니다. 北韓의 南侵 구실과 介入의 名分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南韓의 革命勢力의 組織과 強化를 重要時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그들이 強化 비축해 온 北朝鮮 革命力量을 결정적 時期에 남조선 혁명역량을 지원한다는 구실하에 韓國에 投入할 수 있기 위해서는 南韓內에서 스스로 革命力量이 成長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北韓이 스스로 主役이 되어 南韓에 革命力量을 가장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人民民主主義 革命的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國際的 革命力量強化는 한마디로 國際環境의 條件을 소위 南朝鮮革命에 유리하게 조성해 나가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에서 北韓이 中間목표로 가장 重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제침략자들을 南韓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즉,

55) 고병철, 北韓外交論(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77), p. 37.

駐韓美軍의 撤收를 實現함으로써 南韓의 軍事力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美·日과 南韓을 離間시키고 국제무대에서 南韓의 地位를 低下시킴으로써 反韓戰線을 形成, 국제적으로 南韓을 고립화시키고 北韓의 支持勢力을 擴大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3대혁명역량강화는 北韓의 對南 戰略·戰術의 基調가 되며 또한 이것이 그들의 戰略·戰術 構造의 土臺가 된다고 하겠다.

3) 決定的 時期 造成

北韓은 韓半島의 共產化를 위해서는 먼저 폭력적 方法에 의한 南韓革命을 決定的 時期에 감행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政權이 말하는 決定的 시기란 단순한 시간적 의미보다는 韓半島 内外의 諸般與件과 南北韓의 能力을 감안하여, 그들의 주도하에 전 韓半島의 共產化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모든 手段과 方法을 確保할 수 있는 時期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적 時期가 包含하는 意味는 北韓의 대남적화 戰略과 戰術의 次元에서 다함께 把握해야 한다.

北韓은 決定的 時期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1966년 10월 5일 제 2차 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 金日成의 基調演說속에서였다.⁵⁶⁾

여기서 金日成은 『南朝鮮에서 반혁명을 타도하고 革命의 勝利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革命力量을 準備해야 한다. 革命力量의 준비가 없는 혁명적 대사변을 접할 수 없으며 적들의 日常的 반혁명 공세에도 對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어서 『현단계에서 南朝鮮革命의 基本方針은 적들의 彈壓으로부터 혁명역량을 保存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成長시킴으로써 革命의 決定的 時期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결국 決定的 시기란 그들의 전략기조로서의 3대혁명역량과 密接히 關聯되는 것으로 革命力量이 모두 갖추어진 革命의 성숙기 또는 무력적화의 絶對的好期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北韓이 韓國보다 壓倒的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며 남한정세가 극도로 혼란되고 國際與件이 유리하게 展開될 때를 말한다. 그리

56) 백종천, op. cit., p. 301.

하여 김일성은 革命의 勝利를 위해서는 客觀的 情勢가 造成되는 동시에 革命의 주관적 조건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이 말하는 소위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客觀的 情勢와 主觀的 條件이 革命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때에 武力으로 전면남침을 감행하여 南韓을 赤化시키겠다는 意圖이다.

따라서 決定的 時期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南韓을 겨냥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⁵⁷⁾

첫째로, 소위 남한내의 혁명역량을 부단히 蓄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공산주의 주력군의 形成, 즉 共產主義에 同調하는 青年學生들, 지식인, 군인, 소자산계급을 묶어 革命勢力化 한다는 것이며 특히 國軍의 瓦解를 策動하고 있다.

둘째로, 이른바 적들의 탄압으로 부터 革命力量을 保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革命의 核心을 키우며 대중을 甦醒시키고 組織化하여 이른바 造成된 주·객관적 條件에 맞게 대중투쟁을 벌여 적의 攻擊氣勢를 약화시키고 한편으로는 革命力量을 보존하고 增大시키는 것이다.

세째로, 革命의 결정적 시기를 積極的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暴力的인 方法과 비폭력적인 方法등 各種의 투쟁에 革命群衆을 衝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 南朝鮮革命의 與件造成을 위한 協商戰略

北韓의 대남혁명전략 구조에 나타난 바와 같이 南朝鮮革命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으며 최종목표인 全韓半島의 共產化革命을 위한 全段階로서 그리고 地域革命(南半部革命)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南朝鮮革命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北韓의 革命力量, 南韓의 革命力量 및 國際的 革命力量 등 이른바 3대혁명 力量을 대남적 화혁명 基調로 삼았다.

57) Ibid., p.302.

北韓의 協商戰略 역시 南朝鮮革命의 興件을 造成하기 위한 대남혁명전략 속에서 理解될 수 있다.

즉, 北韓의 對話의 대상은 남조선혁명에서의 두 鬭爭對象인 美帝(미군철수)와 반공정권이며 對話의 目的은 남조선혁명의 선결조건인 駐韓美軍 撤收와 반공정권의 타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그들 戰略目標上의 투쟁대상과의 직접대화과 함께 이를 反對하는 勢力과의 統一戰線 形成을 위한 對話에도 주력해 왔다.

金日成은 『우리혁명에는 두가지 전도가 있다. 우리나라가 平和的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의 전도요 큰 戰爭으로 인하여 帝國主義勢力이 급격히 약화되는 조건하에서 나라의 統一이 實現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전도』⁵⁸⁾라고 主張하였다.

평화적방도란 南韓社會에서 이른바 人民民主主義 역량과 남조선혁명 역량이 團合하여 合作의 方法으로 統一하거나 아니면 韓國의 現 政權이 제3의 要因에 의하여 容共 내지는 연공정권으로 交替된 후 南北 쌍방이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통일을 實現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北韓의 暴力的인 지원없이는 도저히 實現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金日成은 1968년 2월 『무장을 들어야 政權을 잡을 수 있다. 모든 鬭爭 形態 가운데 가장 積極의이며 決定的인 행태는 組織的인 暴力투쟁, 武裝鬭爭, 民族解放鬭爭이다』⁵⁹⁾이라고 했다.

1968년 7월 8일 대남공작 部門 일군들 앞에서 행한 비밀교시를 통해서 『조국의 平和의 統一에 관한 우리의 主張은 결코 美帝와의 鬭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朝鮮革命을 책임진 공산주의자로서 祖國을 통일하기 위하여 언젠가 다시 한번은 꼭 붙어야 한다는 確固한 戰爭觀을 가져야 한다』⁶⁰⁾라고 강조하여 平和의 방도도 결국 暴力的인 方法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

58) 허종호, 主體思想에 기초한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理論(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64-270.

59) 內外通信 제354호(1983.10.21)

60) 유석렬, 南北韓 關係論(서울: 정음사, 1987), p.55.

고 規定했으며, 平和統一 方案을 제시하는 目的이 革命與件을 造成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기 때문에 金日成이 標榜하고 있는 祖國統一의 平和的 방도란 한낱 그들의 僞裝平和 口號에 지나지 않고 결국 혁명의 수행을 위하여는 오로지 非平和的 暴力的 방도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確實하게 해 주고 있다. 다만 그들이 平和的 방도로 대화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赤化統一을 위해서 非平和的 방도를 사용할 수 없는 戰略的 狀況에 처해있든지, 그러한 방도를 使用할 만한 能力이 없을때 戰略的 狀況과 能力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狀況을 내세워 對話 및 交流를 一定期間 동안 수락하고 韓半島 緊張緩和를 위한다는 目的으로 비현실적인 提案을 통하여 韓國의 對北韓 적대감을 弱화시키는 한편 비평화적 방도에 의해 赤化統一의 與件을 造成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또한 北韓은 南韓革命力量을 강화하고 혁명의 결정적 勝利를 保障하기 위하여서는 勞動階級의 영도적 役割아래 노농동맹을 강화하고 그에 基礎하여 各계各층의 群衆을 網羅하는 統一戰線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⁶¹⁾

北韓이 南韓의 革命을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統一戰線의 형태로서는 南韓의 제정당 사회단체 各계各층 세력들과 공통적 이해관계를 表面에 내세워 남한혁명 遂行에 이용하는 것이다.

一次的인 공격목표는 남한혁명에 가장 큰 障礙要因으로 설정하고 있는 駐韓美軍과 反共政府로 규정하고 이른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統一戰線 形成에 있어서 南韓內 혁명역량의 핵심세력은 勞動者 농민들이며 그 보조세력으로서 청년, 학생, 지식인, 도시소자본가, 민족자본가로 보고 있는데 北韓이 評價하고 있는 各계各층별 特性은 다음과 같다.⁶²⁾

첫째, 勞動者는 소위 혁명의 영도계급으로서 量的으로 성장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積極性和 完강성이 점차 強化되어가며 특히 남한내에서 그 투쟁조직

61) 『金日成著作選集』 제4권, p.87.

62) 김갑철, 北韓의 政治協商提議에 대한 對處方案研究(國土統一院, 1980), pp. 16-17.

이 自主化되어 가고 있는 傾向을 特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活動範圍은 經濟鬭爭의 테두리에 限定되고 있으며 行動統一이나 타계급과의 연대성이 不足하고 合法的 契機를 찾아 鬭爭에 유리하도록 이용하기에는 부족감이 있으므로 決定的으로 정치세력으로서의 鬭爭力量이나 전위조직화가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脆弱點으로 들고 있다.

둘째, 農民들은 共產革命의 推進에 있어서 동맹자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계급적 제한성과 분산성으로 인한 脆弱性을 克服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問題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째, 청년, 학생, 인테리계급은 비록 부르조아 인테리의 範疇에 속함으로 기본적 핵심대열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韓國社會의 特殊性 때문에 共產革命의 선구적 교량적 役割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다. 즉, 학생계층은 그 사회적 力量이 방대함으로 해서 組織化가 용이할 뿐 아니라 勞動者 농민들을 각성시켜 혁명투쟁으로 이끄는 役割을 擔當하게 하고 青年, 學生, 인테리 등의 民主化鬭爭을 階級鬭爭으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 戰略 戰術的 意味를 갖고 있다.

北韓은 南北對話를 이룬바 統一戰線戰術의 一環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노동당의 南北對話 주관부서의 名稱마저 統一戰線部로 되어있다. 北韓의 對話戰術은 基本的으로 반미구국 統一戰線 및 반파쇼 民主化 統一戰線에 의한 폭력혁명선동의 一環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다.

1972년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赤十字會談을 시작했던 시점, 1980년 초 北韓이 南北總理會談豫備接觸에 흥미를 갖던 시점, 1985년의 赤十字, 經濟, 國會會談에 응해왔던 시점, 그리고 1988년 이후 國會會談 準備接觸, 남북고위 당국자회담, 남북체육회담 등에 呼應했던 시점등은 그들이 말하는 韓國內의 指導層과 對話維持를 희망한 상층 統一戰線 구사의 시기이며, 그밖의 대부분의 南北對話 期間은 대화진행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對話보다는 이른바 하층 통일전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北韓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어디까지나 남한에서 民族解放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름의 南朝鮮革命이 먼저 遂行되고 이에 따라 大韓民國의 合憲

政府가 暴力으로 전복되어 그자리에 人民政權이란 이름의 容共政權이 수립되면 이에 비로소 南韓의 인민정권과 北韓의 金日成 政權사이 平和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北韓은 여러분야에 걸쳐 進行된 南北對話를 이용하였으며 우리의 政黨·社會團體 및 재야인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대화공세를 전개, 소위 그들이 統一戰線戰略을 획책하여 南朝鮮革命 與件을 造成하고자 하는 것이 北韓의 협상전략의 목표인 것이다.

2. 南北對話에서의 北韓의 協商態度

지난 70년대의 南北對話 그리고 제2기 남북대화라 할 수 있는 80년대의 南北對話에서 北韓은 南北對話를 통해 南北間의 信賴를 造成하고 緊張을 緩和하며 남북관계의 實質的 進展을 외면한 채 그들의 소위 南朝鮮革命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남북간에 수없는 對話가 있었지만 아무런 成果를 가져오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南北赤十字會談은 韓半島 分斷의 정치적 해결이 무한정 지연되는 狀況下에서 分斷으로 인한 고통은 離散家族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점을 考慮, 이 문제를 인도적 견지에서 南北赤十字 機關의 주선으로 우선적으로 解決해 보자는데 趣旨가 있었다.

따라서 南北赤十字會談의 任務는 본회담 의제에서 나타나듯이 ①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 ② 上逢과 방문 ③ 서신왕래 ④ 재결합 ⑤ 기타 인도적 문제 등의 具體的 실천 절차와 方法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인도주의 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解決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인도주의 事業은 統一問題와 分離하여 다룰 수 없으며 오로지 통일문제의 一部로 推進해야 한다』⁶³⁾는 입장에서 雙方間에 합의된 의제항목의 討議는 거부하고 의제토의의 先行條件으로 이른바 『法律的, 社會的

63) 離散家族白書(대한적십자사, 1976), pp. 63-64.

環境의 改善』이라는 것을 主張했다.

北韓側의 이른바 『조건환경론』은 大韓民國이 ① 反共法, 國家保安法을 包含한 一切의 反共關係法을 廢止하고 ② 一切의 반공활동 금지, 反共團體와 機關活動의 禁止 및 解散 ③ 離散家族事業 참가차 北韓으로부터 南韓地域에 오는 離散家族 親戚當事者, 協調者, 關係者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의 自由는 물론 신체 및 소지품에 대한 不可侵權을 保障하고 ④ 離散家族, 親戚 相互問의 심인사업은 赤十字 機關이 介入함이 없이 當事者들이 協調者와 關係者의 도움아래 직접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게 하자는 것이다.⁶⁴⁾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人道的問題 해결을 위한 赤十字會談을 政治的인 問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南韓의 內部를 混亂시키고 이에 편승하여 統一戰線 戰略을 획책하려는 저의를 보여주었다.

또한 南北共同聲明 發表 이후 南北關係의 變化를 상호검토 하는 한편 남북 조절위원회의 構成 및 發足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協議·解決하기 위한 目的으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가 開催되었다.

그런데 1차회담에서 北韓은 南北雙方이 공동성명에서 통일 3원칙에 合意한 이상 南韓은 ① 對內的으로 반공정책을 拋棄, 共產主義를 용납해야 하고 ② 統一과 관련하여 더 이상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擁護하지 말아야 하며 ③ 유엔도 外勢이기 때문에 유엔은 어떠한 형태로도 韓半島 統一問題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④ 駐韓美軍은 즉시 撤收해야 하고 ⑤ 國軍의 전력증강은 물론 軍事訓練도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⁶⁵⁾

北韓의 이같은 主張은 共同聲明에 의거한 南北關係의 개선보다는 공동성명의 統一 3원칙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른바 南朝鮮革命 路線을 合理化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北韓은 1973년 南北對話를 전면 中斷하고 남북직통전화마저 단절시킨 가운데 1979年初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을 내세워 政黨·社會團體 주

64) 남북대화백서, p. 164.

65) Ibid., p.66.

도의 會談을 주장했는가 하면, 같은 시점에서 平壤에서 개최예정인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에 한국선수단의 參加를 저지할 目的으로 단일팀 構成을 구실로 한 남북탁구회담에 나오기도 했다.

특히 10.26사태 직후1980년에는 一時的인 정치공백기에 편승하여 大韓民國 정국혼란을 가중시키고 南韓의 이른바 民主化를 側面 지원하겠다는 허황된 발상하에 남북총리회담 豫備接觸을 진행시켰으며 동 접촉을 일방적으로 中斷시킨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내놓고 이를 創設하기 위해 駐韓 美軍撤收를 主張하고 現政權을 반대하는 내외동포들만이 모이는 民族統一 촉진대회를 소집한다는 위장된 提議를 하였다.

1984년 부터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의 再開,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豫備接觸 그리고 IOC중재하의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南北對話가 활발히 進行되었다.

北韓은 제8차 南北赤十字會談 결과 남북간에는 최초로 민간차원에서 離散家族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相互 交換하는 成果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여전히 남조선혁명 노선 追求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다.

北韓은 제23차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남북단일팀 參加를 위한 체육 회담을 進行시키는 과정에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開催된 공산 11개국 체육관계자회담에 參加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불참결정에 加擔하였다.

北韓側의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北韓側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構成하여 출전하자고 한 것은 共產圈 國家들에 동조하여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不參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놓고 동 대회에 남북한이 單一팀으로 參加하지 못하게 되는 責任을 大韓民國에 전가함으로써 동 대회 불참명분을 獲得하고자한 底意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70년대에 시작되어 中斷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는 비록 制限된 人員과 地域이지만 151명의 離散家族 故鄉訪問團과 예술공연단을 相互 交換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남북경제회담에서는 『남북간 물자교역 및 經濟協力 推進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設置에 관한 合意書』採擇에 쌍방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그러나 北韓體制가 아직까지 사회개방을 할 수 있는 準備態勢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또한 南北交流와 協力을 할 경우 南韓에 비해 지나치게 뒤떨어진 그들의 經濟力 노출과 이에 대한 住民들의 비판의식 고조등을 무마시킬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南北間의 인도적문제와 交流와 協力次元의 會談을 통해서 그들의 南朝鮮解放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判斷한 結果 1986년 1월 20일 南韓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進行中인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中斷시키고 말았다.

한편 제6공화국이 出帆한 이래 開催된 남북한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豫備接觸,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準備接觸 그리고 남북체육회담이 開催되었다.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준비접촉에서는 그들이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일방적으로 作成하고 그것을 토대로 討論을 進行하자고 주장하다가 제7차 준비접촉에서는 論議되고 있던 남북불가침문제와 南北間 교류협력문제보다 팀스피리트훈련 問題를 우선 討議하자고 억지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南北 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제1차 예비접촉에서 北韓側은 처음부터 실무절차문제를 討論하는 것을 외면한 채 팀스피리트 軍事訓練 中止, 북한출판문단속 등을 계속해서 擧論하였으며 제2차 예비회담에서는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軍事訓練과 關聯하여 이른바 다음과 같은 內容의 긴급조치를 제안하였다.

『첫째로, 대화부정적인 팀스피리트 89合同軍事演習을 당장 중지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公式發表한다.

둘째로, 팀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에 動員된 모든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들을 즉시 復歸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海外로부터 南朝鮮에 投入된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들의 철수 ② 海外에서 기동중에 있거나 출동태세에 있는 미 육해공군부대들과 무장장비의 南朝鮮 경내로 搬入되는 것의 즉시 정지 ③ 이미 動員된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原狀復歸시킨다.

세째로, 군사연습은 外國軍隊의 參加없이 南朝鮮 軍隊로만 하고 규모도 줄이고 또 名稱도 고쳐야 한다』⁶⁶⁾

이같은 北韓의 태도는 남북총리간의 會談을 성사시키기 위한 實務節次 討議에는 전혀 관심이없고 팀스피리트훈련 中止를 통한 駐韓美軍撤收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은 南北間의 공식대화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사회의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대협』, 『전민련』, 『전노협』 등의 단체와 개별인사와의 接觸을 시도하였으며 마침내 문익환목사를 平壤으로 불러들여 이를 그들의 정치공작적 次元에서 惡用하였으며 우리정부의 문목사 拘束과 關聯하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과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의 南北對話에 임하는 態度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0년대의 南北對話에서 北韓이 이를 심리전, 선전전, 정보전으로 利用함으로써 形式的인 對話以上の 진전을 보지 못하고 대화있는 대결시대라는 한정된 概念에 머물렀다.

1980년대의 南北對話 역시 北韓은 여전히 南朝鮮 革命路線의 追求라는 낡은 태도에 얽매어 남북직접회담과 경제회담 등 人道的問題와 交流·協力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 이라는 그들의 입장에 입각하여 南北對話를 政治的으로 利用하고자 하였다.

결국 北韓의 協商戰略의 기본입장은 南朝鮮革命을 유도하고 窮極的으로 韓半島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南北對話를 이용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3. 北韓의 協商戰略에 影響을 미치는 요인

北韓이 窮極的 目標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半島 共產化 統一

66) 南北高位當局者會談 제2차 예비회담 회의록(國土統一院, 1989), pp.23-24.

에 있다. 그리고 당면한 目標은 南朝鮮解放에 두고 있다. 北韓이 南北對話를 제의하거나 또는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일는데 대한 政策決定은 그들이 남북 대화를 진행시킴으로써 南朝鮮解放을 위한 여건 내지 분위기 조성에 유리하다고 判斷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北韓의 南北對話提議나 수락에 대한 政策결정에 影響을 미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北韓이 표방하고 있는 政治 이데올로기적 側面, 즉 김일성 주체사상은 모든 政策決定의 基本指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北韓이 아무리 閉鎖的인 정치체제이지만 周邊情勢의 흐름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側面, 셋째, 北韓內部的 政治的, 經濟的 葛藤 요인을 무마시키려는 대내적 요인 그리고 넷째, 南韓의 政局 다시말해 南朝鮮解放을 위한 분위기가 남한사회에 성숙되고 있는가 하는 요인들이 바로 북한의 협상전략의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가. 金日成 主體思想

共產主義 國家의 國內·國際政治行爲 패턴에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強力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정치이데올로기가 國內政治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形成, 指導 및 제약을 가한다. 즉 共產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모든 政策은 金日成 主體思想이라는 단일이데올로기에 基盤을 두고 展開되며 물론 對外政策도 그 例外는 아니다.

民主國家와 달리 全體主義國家에서는 공식이데올로기가 對外政策의 目標을 규정짓고 政治的 行爲의 수단을 선택하는 指針을 提供한다. 물론 全體主義 국가들 또한 다른 주권국가와 마찬가지로 安保라든가 經濟的 번영 등과 같은 國家利益을 극대화하려 한다. 그러나 全體主義國家의 지도자들이 對外政策을 공식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 포함시키려는 반면 비전체주의국가에서

그같은 시도가 深刻하게 이루어지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全體主義 國家의 強力한 이데올로기적 傾向을 감안한다면 이데올로기 構造에 있어 나타나는 強調點의 變化는 곧 對外政策의 變化에 反映된다고 類推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과 같은 全體主義 國家의 對外政策분석에는 공식이데올로기의 變化와 對外政策패턴의 變化를 連繫시키는 方法이 대단히 有用性을 가진다.

主體思想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김일성 부자의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考案된 독특한 全體主義 이데올로기이다.

그리고 一種의 主意主義(Voluntarism), 노동계급의 집단주의(Collectivism), 극단적인 엘리트주의를 그 哲學的 基盤으로 삼고 있다. 정통마르크시즘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矛盾을 사회혁명의 원동력으로 간주하는 반면 主體思想은 사회발전의 主動因(prime mover)으로서 인간집단인 올바른 意志를 強調하고 인민을 올바른 의지로 인도하는데 있어 指導者의 重要性을 역설한다. 주체사상의 이론구조에서 指導者는 全能한 存在로 神格化되고 人民은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에게 無條件的인 服從을 強要당한다. 이것은 必然的으로 극단의 엘리트주의로 흐르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더구나 主體라는 概念 그 자체가 집단적인 우리를 의미하고 있어 다른 外래적 指導者나 사상 체계보다 『우리의 指導者』를 따라야 할 것을 強力히 示唆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主體思想은 마르크시즘의 根本的 理論이나 마르크시즘이 가지고 있는 普遍性과는 이탈되고 있다.

결국 주체사상은 절대적 實體인 指導者에게 인민의 忠誠이 강제되는 世俗的 宗教(secular religion)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社會主義 혹은 共產主義 같은 보편적 이데올로기보다 절대왕조의 정치사상에 가깝다.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共有하는 공통점은 프롤레타리아 유토피아를 建設한다는 政治的 目標과 그것을 達成하는 手段으로 노동계급의 組織化를 기도한다는 것 뿐이다.⁶⁷⁾

67) 이상우, 『金日成 主體思想과 北韓의 外交政策』, 北韓과 오늘의 세계 (서울: 법문사, 1986), pp. 38-39.

이러한 特色을 가진 北韓의 이데올로기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몇가지 측면에서 分析할 수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는 프리즘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北韓의 政策樹立者들이 내외정세를 인지하고 判斷할 때에 客觀性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意味한다. 둘째, 이데올로기는 對外政策의 전략적 目標設定, 특히 統一戰略 설정에 적지 않은 影響을 주고 있다. 셋째, 北韓의 戰術的 適應도 이데올로기와 聯關된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는 北韓의 외교스타일을 決定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北韓의 獨善的 태도와 유연성의 不足이 그 代表的 예이다.⁶⁸⁾

따라서 北韓이 對南協商戰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金日成 主體思想은 바로 戰略的 지침으로 作用한다.

나. 對外的 要因

1970年代에 있어서 남북한관계의 변화를 촉발시킨 일차적요인은 무엇보다 國際環境의 變化였다.

1970年代 초의 國際環境의 변화를 가져 온 요인중의 하나는 핵 교착이라는 現實에 대한 美國과 蘇聯의 相互認定이었다.

닉슨행정부는 美國과 蘇聯이 핵무기의 대등성을 確保했다고 생각하고 소련과의 對峙를 追求하기로 결정하였다. 蘇聯의 브레즈네프체제 역시 美國과의 核武器 대등성을 받아들임에 따라 美·蘇 兩國의 對峙는 成立될 수 있었다.⁶⁹⁾

또한 1969년 7월 미국 닉슨대통령의 새 中共和解決定 發表는 북한에게 큰 충격이었다. 美·中共은 1970년 말부터 具體的인 和解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여 美國은 71년 3월 15일 미국인의 中공여행제한 조치를 철폐했고, 4월 7일 中共은 美國 탁구선수단 14명을 招請,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어 4월 10일

68) 고병철, 『이데올로기와 北韓의 對外政策』, 北韓과 오늘의 世界 (서울: 법문사, 1986), p. 31.

69) 김학준, 南北韓 關係의 葛藤과 發展 (서울: 평민사, 1985), p. 104.

中共은 美國記者 4명을 탁구단 취재명목으로 入國시켰고, 4월 15일 닉슨大統領은 중공과의 5단계 직접교역을 선언했다.⁷⁰⁾

이와 같이 美·蘇·中이 相互共存的 關係로 轉換하면서 대탕트를 摸索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美·蘇를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서 일본·서구가 새로이 가세하는 다극체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또한 美國의 아시아지역에서의 役割縮小를 前提로 한 닉슨독트린은 日本의 군비강화와 역할증대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세력구조의 改編은 韓半島의 冷戰構造를 變化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같은 70년대의 國際情勢의 변화에 편승하여 특히 닉슨독트린 발표로 인해 미국은 韓半島를 포함한 아시아 全域에서 주둔군을 撤收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 北韓은 駐韓美軍을 撤收시킬 수 있는 길은 南北對話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1980년대 中盤의 國際情勢는 開放과 和解의 秩序로 재편되는 전환기적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

1985년 執權한 蘇聯의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改革과 開放政策을 내세움으로써 신대탕트의 國際秩序를 가져오게 하였다.⁷¹⁾

蘇聯은 美國과 4차례의 頂上會談을 갖고 군비경쟁을 調節하는 軍備縮小에 이해관계가 일치, 마침내 중거리핵전력 廢棄協定(INF)의 체결을 가져왔다.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선언은 中·蘇關係 개선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시대의 開幕에 積極的으로 對應하는 蘇聯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1988년 9월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도 유엔총회연설에서 소련외교의 탈이념화를 선언하는 등 蘇聯은 國際社會에서 平和共存과 동반자적 協力關係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表明하였다.

한편 東北亞 情勢變化에 있어 중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中國은 21세기 中盤까지 經濟的으로 선진국에 도달하는 目標을 내세워 積極적인 對外開放

70) 유석렬, 北韓政策論, op. cit., p.354.

71) 南北對話白書 p. 373.

政策을 追求하고 있다.⁷²⁾

4대 現代化 政策을 표방한 등소평은 1982년 이후 實用主義 노선을 대외전략에 까지 適用시켜 자주독립외교노선을 천명하고, 1984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체제 개혁 및 정치개혁을 斷行하였다.

특히 中國은 1984년에 심천, 주해, 산둥 등 4개 경제특구를 포함하여 14개에 이르는 경제특별개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1985년에 와서는 全體海岸都市를 開放하는 등 本格的인 개방경제정책을 實施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蘇聯과 中國이 改革과 개방정책을 標榜, 국제정세의 흐름이 신데탕트의 氣流를 이루는 국제상황속에서 북한이 國際적으로 孤立되지 않기 위한 정치적 제스츄어로서 南北對話는 北韓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다. 對內的 要因

北韓은 南北對話를 대내적 측면에서 이용, 즉 그들의 政權維持 또는 經濟的 難局을 극복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70년대 南北對話는 北韓의 직면하고 있는 經濟的 어려움을 다소나마 克服하는데 이용되었다.

北韓은 1960년대를 통해 소위 4대군사노선에 입각하여 무모한 軍事力增強을 추구해 온 나머지, 1961년에 시작된 제1차 7개년 經濟計劃의 目標를 中途에 수정하고 3년이나 期間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計劃完遂에 失敗함으로써 심각한 經濟難局에 직면하고 있었다.⁷³⁾

따라서 國家豫算 지출액의 30%선을 상회하는 國防費를 순수경제 부문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처해 있었다.

南北對話는 한국군의 장비현대화 計劃에 制動을 걸면서 南北間 軍事力水準을 凍結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節減되는 재원을 經濟部門에 投入할 수 있는 與件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北韓은 對話를 택했던 것이다.

72) Ibid., p.375.

73) 南北韓 比較叢書(國土統一院, 1982), p. 48.

80년대에 와서 1983년 蘇聯의 KAL기 墜落事件에 대한 擁護的인 態度와 버마암살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北韓의 國際的 位相은 매우 격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北韓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만회하기 위해 1984년 1월 이른바 3자회담 開催를 主張하였으며 3월에는 남북체육회담을 提議하였고 1985년에는 南北赤十字會談이 再開되고, 南北經濟會談,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豫備接觸이 열리게 되었다.

北韓이 이와같이 여러분야의 會談에 임한 그들의 내부적 상황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버마사건으로 실추된 國際的 평화이미지 부각과 더불어 沈滯된 北韓經濟를 打開하는데도 있었다.

經濟的 難局을 打開하기 위해 外國先進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려는 일환으로 1984년 9월 合營법을 發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北韓의 政策 전환은 韓半島의 緊張高潮 狀況이나 北韓의 暴力集團 이미지 때문에 서방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없게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北韓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시키는 한편 北韓의 평화이미지 浮刻을 위해 南北對話를 受諾하였던 것이다.

라. 南韓情勢 要因

北韓의 對話攻勢는 남한정국의 안정여부에도 매우 密接하다. 즉, 北韓은 韓國內에 展開되고 있는 정치정세에 따라 이를 이용, 이른바 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統一戰線 戰術은 북한이 애국적 민주세력이라고 일컫는 남한내의 反政府 批判勢力에 접근, 이들과 糾合하여 暴力에 의해 남한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北韓의 이러한 戰略은 그동안 韓國政府의 강력한 반공정책과 국민들의 반공정신 때문에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971년 제7대 大統領選舉 당시 야당은 전통적인 정치적 금기를 깨뜨리고 統一問題를 주요 선거쟁점으로 삼자, 北韓은 이를 利用할 수 있다고 믿고 南北對話를 개시했다. 北韓은 1971년 8월 南北赤十字會談을 수락하고 이를 이용, 合法的인 方法으로 南韓內의 反政府 비관세력에 접근하여 이들과 통일전선 형성을 기도했다.

北韓의 이러한 의도는 남북적십자회의에서 북한이 반공법의 철폐와 南北韓 무제한 자유방문·여행·서신교환과 完全한 身邊保障을 받는 軍中 海陸 事業의 임무를 띤 赤十字 요해해설인원의 交換派遣을 주장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이 없는 무제한 자유방문 및 서신교환을 통해서 間諜들에게 南韓의 社會를 혼란시켜 政府나 國民들의 總和團結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또 신변보장을 받는 赤十字 요해해설인원으로 假裝한 間諜 및 組織員들을 南韓의 이른바 애국적 민주세력들과 糾合하여 韓國의 반공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1980년의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實務接觸을 提議한 北韓은 10.26사태 이후 混亂한 南韓情勢를 이른바 혁명의 고조기적 局面으로 보고 對話를 통하여 남한 국민대중의 대북 경계이완과 감상적 통일논의의 유도로 국론분열을 피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韓國의 安保統一問題를 재야세력의 전략에 活用케 하여 정국을 극도로 혼란시킴으로써 韓國의 정치발전여량을 分散 또는 弱화시키고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霧圍氣를 造成하고자 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의 南北對話에 있어서도 北韓은 對話를 통해 이른바 南朝鮮革命의 霧圍氣를 造成하고자 했다. 북한은 1985년 이후 韓國社會가 극도로 불안할 것으로 보고 그들이 말하는 決定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北韓은 韓國政治의 脆弱時期 選擇, 선진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經濟·社會的 마찰과 대립요인의 확대 등 國力의 分散과 社會的 不安이 深化되는 情狀을 北韓의 對南戰略에 매우 유리한 機會로 보았다.

北韓은 그동안 주적타도를 위하여 다른 적들과 糾合한다는 통일전선 形成을 對南戰略의 主軸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韓國의 徹底한 반공교육과 주민들의 반공정신 때문에 남파된 間諜들이 발을 붙일 수 없어 失敗를 했다. 그리하여 北韓은 統一戰線形成의 一環으로 남한주민들에게 北韓의 同族愛와 平和를 사랑하는 人道主義的 集團의 이미지를 浮刻시켜 남한주민들의 대북경계심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러한 戰略目標를 가지고 北韓은 南北對話를 통해서 實質的인 成果를 쌓기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態度를 보여줌으로써 平和的

이미지를 內外에 보도하기 위한 外形的 전시효과를 創出하고자 하였다.

또 北韓은 反共政策과 國家保安法 등이 철책된 자유로운 狀況에서 南韓주 민들과의 直接接觸을 위하여 赤十字會談을 통하여 자유왕래가 가장 중요한 先결적이고 중핵적 問題라고 主張했으며, 예술단교환으로 남북한동질성 과시 와 接觸의 機會를 마련하고자 했다. 北韓은 南北對話를 정치회담으로 유도하 여 南朝鮮革命의 先행조건인 國론분열과 統一戰線形成의 霧圍氣를 造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한편 제6공화국 이후 여소야대의 우리정국을 利用, 國論分裂을 획책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提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民主化 흐름에 있어 노사분규 학원소요 등이 매우 頻繁하게 발생하자 『전대협』, 『전민련』, 『전노협』 등의 團體나 개별재야 인사에게 대화공세를 積極的으로 전개, 마침내 문목사를 平壤으로 밀입북시켜 이를 그들의 政治的 工作次元에서 이용하는 한편 統一戰線戰術을 획책하는데만 血眼이 되었다.

V. 南北對話에 나타난 北韓의 協商戰術 形態

1. 南北赤十字會談과 北韓의 協商戰術

① 主導權 掌握戰術

南北赤十字會談은 1971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 최두선총재가 特別聲明을 發表하고 이를 통해 南北韓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人間적 고통을 덜어주고 窮極的으로 그들의 再結合을 주선해 주기 위해 南北赤十字會談을 開催할 것을 북한적십자회에 제의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북적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은 1971년 8월 14일 平壤放送을 통해 한적총재에게 보내는 書翰에서 『원래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 친우들간에 安否를 전하고 서로 상봉하도록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主張해 온 間

題의 하나인데 이번에 귀사에서 이것을 接受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단히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⁷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南北赤十字會談이 대한적십자 총재가 提議함으로써 성립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北韓에서 끊임없이 제의했던 것을 남한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말해 離散家族의 인도적 고통을 덜어주는 南北赤十字會談의 시작은 결국 北韓의 주도적인 努力에 의한 결과임을 北韓은 主張하고 있다.

또한 中斷된 赤十字會談의 재개를 위해 1984년 10월 4일 유창순 대한 적십자사 총재는 北側에 『南北離散家族들간에 소식을 받고 再會의 길을 트는 것은 離散家族을 비롯한 우리겨레 전체의 간절한 念願인 동시에 우리 南北赤十字會談이 수행해야 할 嚴肅한 사명으로,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⁷⁵⁾라고 밝히고 南北赤十字會談을 再開할 것을 促求하였다.

이같은 대한적십자의 提議에 대해 北韓赤十字會 손성필 위원장은 1984년 10월 29일 南北赤十字會談 再開에 呼應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음으로써 마침내 11년동안 중단되었던 南北赤十字會談은 다시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北韓은 제8차 본회담에서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9월, 40년만에 分斷歷史에서 처음으로 있는 남녘땅 수재민들에 대한 구제물자 인도·인수사업을 轉換點으로 그동안 대결분위기로 얼어붙었던 우리나라에는 和解와 團합의 기운이 감돌고 對話의 봄이 태동하기 시작되었다』⁷⁶⁾고 함으로써, 적십자 회담 재개의 始發을 수재물재를 南韓에 提供했던 사실에서 찾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事業을 위한 그들의 끊임없는 努力의 結果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제8차 본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볼 때 南北雙方은 1985년 1월 22일 서울에서 開催하기로 合意하였으나 1984년 11월 23 板門店 총격 사건과 『팀스피리트-85』구실로 北韓側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연기 하는 등 매우 不誠實

74) 南北對話史料集 제2권 p.41.

75) 南北對話 제36호, p.88.

76) 南北對話史料集 제11권, p.212.

한 態度로 일관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사실을 歪曲하여 마치 南北赤十字會談이 그들의 매우 積極的이고 主導的인 노력에 의해서 開催된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② 結論이 내포된 제안 전술

一般的으로 회담의 議題, 場所, 時間等은 사전에 雙方間에 討議되어 이에 대한 結論은 나중에 합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그들의 提案內容이 協商戰略 目標에 유리한 결론이 되도록 하였다.

大韓赤十字社 최두선총재의 1971년 8월 12일 對北提案文은 『첫째 : 南北間의 가족찾기 운동을 具體的으로 協議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南北赤十字社 代表가 한자리에 마주앉아 會談할 것을 提議한다. 둘째 : 本會談의 節次上의 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10월안으로 제네바에서 豫備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한다』⁷⁷⁾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한 答信으로 북적의 1971년 8월 14일 提案文은 의제로서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 친구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호상방문을 實現하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 친구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實施하는 問題 ③ 귀하가 提議한 家族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 주는 問題를 제시하고 회담 場所는 판문점, 회담날짜는 9월중(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連絡方法은 通信, 라디오, 텔레비존⁷⁸⁾ 등으로 매우 具體的인 內容을 담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南韓側의 提案文과 北韓側의 提案文은 매우 相異하다. 다시말해 남한측의 제안문은 協商에 대한 지극히 一般論的인 입장을 취한 반면 북한측의 제안문은 매우 具體的인 면서도 이미 그 內容에 結論을 전제하고 또 그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77) 南北對話史料集 제2권, p.37.

78) 南北對話史料集 제2권, pp.42-43.

③ 要求條件 倍加 戰術

1972년 7월 10일의 제21차 豫備會談에서부터 남북적 쌍방은 본회담 대표단 構成問題를 討論하기 시작했다. 한적은 우선 대표단규모와 關聯하여 대표단은 한쪽에서 각기 7명으로 構成하고 수행원은 각기 20명, 그리고 각기 必要한 수의 지원인원을 대동할 것을 제의했는데 이에 대해 북적이 代表團을 쌍방에서 각기 적십자기관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는 5-7명씩으로 構成할 것을 提議하여 우선 각기 7명씩의 代表로 代表團을 구성하기로 合意하고 제22차 豫備會談에서 雙方은 본회담수석대표는 각기 赤十字機關의 責任者 또는 副責任者로 한다는데 合意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代表團 規模에 대해서 南北雙方이 일단 합의점에 이르자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赤十字會 代表團은 우리들이 解決하여야 할 과업이 가지는 歷史的인 의의와 우리나라의 現實的 要求로부터 出發하여 본회담 의정 토의사업과 그 토의과정에 제기되는 問題들을 現地에서 迅速 正確히 그리고 圓만히 處理, 協力, 保障하기 위하여 雙方이 본회담 대표단에 자문위원을 동행케 하는 것이 必要하다』⁷⁹⁾고 대표단에 자문위원단을 대동할 것을 主張하였다.

北韓은 代表團에 자문위원단을 包含시켜야 하는 이유로서 『정부, 최고인민회의, 정당, 사회단체 代表들로 構成되는 자문위원들은 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비롯한 모든 條項들을 그리고 赤十字의 性格 및 인도주의적인 협조정신에 따라 본회담의정문제 討論과 그 實行에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견을 正確히 反映함으로써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들과 雙方 인민대중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會談이 進行되도록 本會談 대표단의 事業에 積極 努力할 것입니다. 우리측의 이 提議는 南北共同聲明의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 合意事項들이 圓만히 實行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赤十字會 代表團이 제기한 이 자문위원 問題는 赤十字 인도주의의 보편성과 공평성, 그 協調精神에

79) 南北對話史料集 제3권, p.479.

비추어 볼 때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⁸⁰⁾라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측은 豫備會談의 早速한 종결을 위해서는 讓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제23차 豫備會談에서 한적은 쌍방은 각기 자기측의 必要性에 따라 자기측 代表團의 자문에 응하게 될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任命하여 代表團을 수행케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음으로써 代表團 構成問題를 매듭지었다.

그러나 北韓은 代表團에 자문위원단을 포함시키자는 그들의 主張이 관철되자 또 다른 要求를 하였다. 그것은 本會談의 운영형식에 관한 事項으로 자문위원단의 發言問題를 提起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측은 더이상 北韓측의 要求를 들어 줄 수 없음을 明白히 함에 따라 南北雙方은 제25차 예비회담에서 합의서를 통해 諮問委員團의 發言問題는 유보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側은 그들의 要求의 하나가 일단 관철되면 또다른 要求를 내세워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요구들은 會談의 成果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회담의 性格을 變質시키고 문제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얽어매는 것들이다.

④ 지연전술

제6차 豫備會談에서부터 쌍방은 본회담 議題를 결정하기 위한 討議를 시작했으나 이 의제토의는 豫備會談의 成敗를 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되었다. 왜냐하면 南北赤十字會談의 目的을 赤十字 인도주의사업 본연의 事業領域인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에 두지 않고 政治的 目的으로 이용하려는 북적측의 기도가 본회담 의제 討議過程에서 적나라하게 表面化되어 이회담을 純粹한 赤十字會談으로 進行시키려는 한적측의 입장과 正面으로 衝突하여 膠着狀態가 무한정 長期化되었기 때문이다.⁸¹⁾

80) 南北對話史料集 제3권, p.479.

81) 南北對話白書, p.43.

北韓은 심인사업대상에 離散家族의 概念에 포함될 수 없는 『친우』 문제를 包含시키고 고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제문안에 『자유로운 내왕』이라는 表現의 명기를 주장, 離散家族찾기사업의 여러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無條件 當事者들이 마음대로 南北을 오고가게하자는 것으로 이는 赤十字會談을 통해 離散家族의 고통을 인도적 차원에서 덜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政治的 煽動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마침내 南北雙方은 본회담 의제에 대해 제13차 의제문안 실무회의에서 합의하고 제20차 예비회담에서 採擇하고 그리고 제1차 本會談에서 確認한 議題는 다음과 같다.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訪問과 자유로운 상봉을 實現하는 問題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實施하는 문제
-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再結合問題
- ⑤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問題

議題問題를 타결하기 위해 雙方은 제6차 예비회담 부터 다음해인 1972년 6월 16일의 제20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의제에 완전히 合意하기까지 도합 15회의 豫備會談 全體會議과 13회의 非公開 實務會議를 열어야 했으며 전체 예비회담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개월의 時間을 本會談 議題에 관한 討議에 消耗해야 했다. 또한 赤十字會談이 시작된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北韓이 赤十字會談을 그들의 政治的 目的에 利用하려는 意圖로 인한 지연전술의 結果이다.

⑤ 範圍擴大戰術

議題를 合意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問題點은 심인사업의 대상, 즉 그 範圍였다. 한적은 赤十字會談을 제의할 때, 『離散家族』으로 그 範圍를 한정하였

다. 그러나 북적은 赤十字 事業對象 범위를 처음부터 家族·親戚을 비롯하여 親友까지 광범위하게 提案하였다.

북적측의 廣範한 事業對象을 끈질기게 主張하게 되자 한적은 제11차 예비 회담에서 『親戚』을 사업의 對象에 포함시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심인사업의 對象에 결코 『離散家族』의 概念에 포함될 수 없고 그 범위조차 애매한 『친우』문제는 결코 合意될 수 없었다.

결국 한적측의 꾸준한 說得에 의하여 북적이 事業對象에서 『친우』 문제를 留保함으로써 事業對象에 관한 妥結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北韓은 제3차 本會談에서 의제 제1항 討議와 關聯한 提案에서 가족 친척의 범위와 關聯하여 『우리는 北과 南에서 그리고 日本에서 사는 흩어진 거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와 要求를 無條件 反映하여 모든 問題를 해결해 나가는 原則的 立場을 천명한다』⁸²⁾고 하면서 재일교포문제를 事業對象으로 包含시킬 것을 처음 주장하였다.

북적은 제4차 본회담에서 재일교포문제를 具體的으로 提起, 『재일조선인 공민들은 절대 다수가 남반부에 家族·親戚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政治的 이유로 인하여 父母·兄弟를 비롯한 家族·親戚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땅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반세기 以上이나 소식이 두절된 채 家族·親戚들의 生死與否를 알지 못하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不幸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南北人民들이 겪고 있는 不幸과 고통을 덜어주는 問題와 마찬가지로 切迫한 當面問題의 하나이다』⁸³⁾라고 強辯하였다.

따라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範圍는 남조선에 家族·親戚을 두고 있는 재일조선인 總聯合會 산하 재일조선인 공민들을 반드시 包含시켜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제5차 會談(73.3.20-23, 平壤)에서는 『그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82)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230.

83)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302.

알리는 事業의 對象에는 全體의 재일조선인민들을 包含시키자는 것이다』⁸⁴⁾고 主張함으로써 재일교포 全體를 事業對象으로 擴大할 것을 계속 主張하였다.

이러한 北側의 主張에 대하여 한적측은 지금 우리가 討議하고 있는 것은 議題 제1항『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므로 재일교포문제는 제5항『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問題』에서 다룰 事項이라고 說明, 南北 離散家族찾기 事業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비단 재일교포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흩어진 모든 同胞問題도 다같이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⁸⁵⁾

이와 같이 北韓이 가장 離散의 고통을 안고 있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친척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實質의인 解決策을 찾기도 전에 사업대상의 範圍를 친우 그리고 재일동포 등으로 擴大시키는 것은 赤十字會談을 하루속히 성사시켜 離散家族과 親戚들의 고통을 解消시켜야 하는 本質의인 問題解決 보다는 事業對象의 範圍를 지나치게 擴大시킴으로써 赤十字會談의 本然의 態度에서 離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⑥ 原則提示戰術

北韓은 제2차 본회담에서 南北赤十字 團體들의 共同事業의 모든 고리들에서 崇高한 인도주의 정신이 철저히 具現되기 위해서는 5개의 의제토의에서 이른바『자유로운 원칙』과『民主主義 原則』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들이 말한『자유로운 原則이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래왕과 상봉, 서신 거래와 가족의 재결합이 最大限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어떠한 條件이나 制限도 가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民主主義 原則이란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자신의 問題를 스스로 判斷, 處理할 수 있도록 充分한 의사표시의 자유가 保障되어야 한다는 것』⁸⁶⁾을 意味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위에 섬으로써만 진정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不幸을

84)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402.

85) 南北對話白書, p.129.

86)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p.148-149.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또한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풀어 줄 수 있으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도주의 精神을 가장 훌륭히 具現하는 길이라고 北韓은 主張하였다.

北韓의 이러한 원칙론 주장으로 제2차 本會談에서 南北雙方은 『쌍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反映하여 南北赤十字會談의 議題로 設定된 모든 問題들의 解決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原則과 자유로운 原則, 남북공동성명의 精神과 同胞愛 그리고 赤十字人道主義 精神을 徹底히 具現한다』⁸⁷⁾라고 원칙론에 合意를 하였다.

제3차 本會談에서 北韓은 제2차 本會談에서 合意한 原則에 基礎하여 보다 具體的인 原則을 提示하였다.

『첫째로, 우리의 會談事業에서 主體的인 입장을 徹底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기된 모든 問題에서 民主主義 原則과 자유로운 原則을 徹底히 貫철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會談事業을 통하여 南北間의 相互 理解와 信賴를 두터이 하고 民族의 和睦과 대단결을 圖謀하는 原則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問題들의 討議에서 赤十字 인도주의 원칙을 徹底히 具現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흠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事業이 응당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事業을 舉族的인 온 인민적 사업으로 推進시켜 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具現하는 것입니다.』⁸⁸⁾

그들이 제시한 5개 原則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역시 『자유로운 原則』과 『民主主義 原則』이라고 볼 수 있다.

의제1항인 『南北으로 흠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原則』과 『民主主義 原則』에 입각하여 離散家族이나 친척들의 의사 표시와 활동상 완전한 民主主義와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고 北韓은 主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原則은 남한에서는 반공정책과 반공단체들의 活動, 反共教

87)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139.

88)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p.228-230.

育, 反共宣傳等으로 인하여 共產主義에 대한 그릇된 見解와 感情이 조장되고 있으며, 民主主義와 自由가 保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 접촉과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造成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위 『조건 환경론』과 연결되고 있다.

결국 北韓側이 제시한 原則, 특히 『자유로운 原則』과 『民主主義 原則』은 赤十字會談에서 상정된 議題를 早速히 타결시킬 수 있는 方法이라기 보다는 『조건·환경론』을 유도하여 우리측의 反共關聯 法規, 反共教育等を 撤廢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⑦ 前提條件(條件·環境論)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본회담의 합의에 따라 本格的으로 의제5개항을 討議하게 되는 제3차 본회담은 1972년 10월 24일 平壤에서 열렸다.

제1,2차 본회담은 祝祭의 霧圍氣속에서 行事 위주의 會談이었지만 제3차 本會談은 이미 合意된 의제5개항을 타결지을 수 있도록 의제 하나 하나를 討議·解決해 나가는 事實上의 첫 會談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반세기만에 적십자인 손으로 分斷의 障壁을 뚫은 그 동안의 흥분과 감격을 가라앉히고 議題의 實質的 討議에 들어간 이 뜻깊은 會談은 커다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北韓은 의제1항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생사와 주소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자면 그를 위한 條件과 環境을 造成하는 具體的인 措置들을 講究해야 한다는 소위 『조건·환경론』이란 뜻밖의 前提條件을 내세웠는데 이를 제7차 본회담까지 계속 主張함으로써 事實上 議題妥結을 外面하였다.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條件·環境論』의 이유는 『南北사이에는 現實적으로 思想과 理念, 제도상 차이가 있으며 오랫동안 격폐되어온 탓으로 誤解와 不信도 적지않게 쌓여 있으므로 이러한 形便에서 만일 思想과 理念·制度上 차이를 超越하고 화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條件과 環境을 마련함이 없으면 南北間의 連繫를 擴大 深化하려고 한다면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은 해소되

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增大될 것이며 민족적 대단결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반목과 對立이 激化될 것이고 그리하여 赤十字事業은 쌍방이 確約한 대로 祖國統一의 디딤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平和統一偉業을 위대롭게 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⁸⁹⁾이라는 것이다.

北韓은 南韓의 현 정권하에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露出로 인하여 迫害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當事者들과 協調者들 및 關係者들이 자유롭게 活動할 수 없다는 事實을 고려하면서 南韓에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고통을 푸는데 장애로 되는 모든 法律的, 社會的 條件을 除去하며 當事者들과 協調者들 및 關係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活動할 수 있는 條件과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要求하였다.

『첫째, 思想·理念·制度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接觸하고 連繫를 가지거나 南北을 래왕하는 사람들을 處罰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비롯한 現行法規들을 撤廢한다.

둘째, 戰爭과 공포분위기를 造成하고 민족적대립과 반목을 鼓吹하는 모든 活動을 금지하며 그러한 團體들을 없애고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緩和함으로써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인도적 事業을 원만히 保障한다.

셋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을 찾기 위하여 南北을 래왕하는 當事者들과 겨레들의 고통을 풀기 위하여 事業에 나선 協調者들 및 關係者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 등 모든 活動의 自由와 便宜를 保障하며 그들의 인신과 휴대품들에 대한 不可侵權을 認定한다.

네째, 政黨, 社會團體, 公共機關 및 個人들이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事業을 積極 協調할 수 있도록 모든 條件을 保障한다』⁹⁰⁾

또한 北韓은 南韓에서 남북간의 接觸과 래왕을 沮害하는 法律的 社會的 制 조건을 없애는 同時에 完全한 民主主義와 자유로운 環境과 條件을 마련하기

89)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234.

90)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484.

위한 하나의 措置로서 赤十字 요해해설 人員을 서로 派遣할 것을 主張하였다.

相對側 地域에 派遣된 赤十字 요해 解說人員들의 임무는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어떻게 빨리 解消할 것인가? 南北사이에서 造成된 不信과 오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解消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들과 人민들의 생활형편 등을 解說함으로써 오랜 세월 分열로 인하여 격폐된 感情과 思想, 理念, 制度上 差異로 인한 不信과 誤解를 풀고 團結과 和解를 圖謀하여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을 빨리 찾아내는 사업에 마음놓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赤十字 요해 해설인원들은 民族的인 관심속에 그리고 거족적인 참가와 지원밑에 赤十字事業을 成果的으로 推進시킬 수 있게 할 것』⁹¹⁾이라고 말하였다.

赤十字會談의 本質的인 問題인 議題를 다루는 제3차 본회담부터 『條件·環境論』을 내세워 제7차 본會談까지 그들의 主張을 계속 되풀이 함으로써 會談은 아무런 進展을 가져오지 못했다.

『條件·環境論』은 제2차 본회담서 北韓이 主張한 原則 즉, 『자유로운 原則』과 『民主主義 原則』을 提起하였을 때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다시말해 이러한 原則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南韓의 社會的, 法律的, 制度的 條件과 環境이 造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主張하는 『條件·環境論』은 赤十字會談을 지연시키고 아무런 成果를 결코 원하지 않는 北韓의 計劃的이고 意圖的인 것이다.

⑧ 留保戰術

北韓이 南北對話에서 展開한 여러형태의 전술중에서 유보전술은 매우 便利한 것이다. 즉 그들의 事實상 억지주장이 觀測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마치 讓步한 것처럼 하면서 留保하는 것으로, 會談이 進行되는 過程에서 會談이 그들이 의도하는 데로 진척되어가지 않을 때, 여러가지 事정상 그들이 곤경에 처할 경우, 또한 會談의 難關을 造成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과거에 留保하였던 問題를 다시 提起, 會談의 순조로운 進行을 遮斷하는 것이다.

91)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235.

제25차 豫備會談에서 南北雙方은 『本 회담 기타 進行節次와 本會談 日時에 관한 合意』를 하였다.

그 合意內容 中 『會談運營形式』의 3항은 『雙方은 諮問委員의 發言問題에 관하여 討議를 進行하였으나 合意에 到達하지 못하여 보류키로 하였다』⁹²⁾라고 되어있다.

北韓이 본회담을 進行시키는 과정에서 소위 『法律的, 社會的 條件環境論』, 『赤十字 了解 解說人員 派遣』 主張 等 不誠實한 對話姿勢로 일관함으로써 회담은 膠着狀態에 逢着하였는데 그들의 主張이 南韓側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자 留保되었던 『諮問委員의 發言權問題』를 提起하여 더욱 會談을 膠着시켰다.

제6차 본회담에서 北韓側은 『자문위원들이 發言할 수 있게 하자는 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 赤十字會 대표단의 提議가 보류됨으로써 現在 그들이 회담에서 應당한 놀음으로 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적십자 대표단은 豫備會談에서 保留하기로 한 諮問委員들의 發言問題를 合意할 때가 되었다고 認定하면서 이번 會談에서 이 問題를 合意할 것』⁹³⁾을 主張하였다.

그리고 그 正當性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會談에서 發言하는 것은 나라의 分열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具體的 討議事業에 參加하며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기여해야 할 그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풀여 주어야 할 精神的 要求에 비추어 보아 지극히 正當한 일입니다.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赤十字會 代表團은 회담장내에서 자문위원들의 發言을 통하여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염원을 보다 더 生動하고 具體的으로 요해할 수 있으며 實質的 對策을 討議·解決함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確信』⁹⁴⁾한다고 主張하였으나, 자

92) 南北對話白書, p.51.

93)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116.

94) 南北對話史料集 제4권, p.116.

기측 자문위원단은 자기측 대표단의 諮問에 응하기 위해서 構成된 것이라는 한적측의 說得에 『자문위원단 발언문제』는 合意되지 못하였다.

北韓側이 또다른 留保戰術을 使用한 事例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北韓側은 赤十字事業의 範圍對象에 離散家族과 친척 그리고 친우를 처음부터 設定하였다. 그러나 한적측의 끈질긴 說得으로 마침내 제12차 豫備會談에서 친우를 사업대상에서 削除, 議題를 다음과 같이 修正提議하였다.⁹⁵⁾

-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을 찾아주며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서신거래를 實施하는 問題
-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再結合 問題
- ③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그리고 議題에 대한 부연설명 3번째 項에서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에서는 南北으로 흩어진 친우문제를 討議할 것을 豫見하고 있으며 墳墓 등과 기타 分열된 우리나라의 赤十字團體가 맡아서 遂行하여야 할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討議할 수 있을 것입니다.』⁹⁶⁾라고 하였다.

北韓側이 修正提示한 의제안에는 일단 친우문제가 削除되었으나 그들은 의제 제3항인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에서 친우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一方的인 解釋을 하였다.

70년대 會談이 中斷된 이후 11년이 지나 재개된 會談에서 北韓側은 그동안 留保된 친우문제를 다시 提起하였다. 목적은 제9차 본회담에서 의제5개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유왕래의 방도』이외에 『기타방도』를 제시하였는 바, 제3항에서 『친우의 소식을 알아내고 알리며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訪問과 相逢, 서신거래를 實現하는 方法은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경우와 같이 한다』⁹⁷⁾고 提示하였다.

이같은 北韓側의 提議에 대해 한적은 『친우 問題는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

95) 南北對話史料集 제2권, p.695.

96) 南北對話史料集 제2권, p.695.

97) 南北對話史料集 제11권, p.541.

들과 친척들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것이며 귀측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70년대 예비회담 과정에서 귀측에 의해 提起되었다가 이미 의제토의대상에서 除外하기로 되었던 것⁹⁸⁾이라고 하였다.

사실 한적측은 제12차 예비회담에서 북적이 친우문제를 議題에서 除外시켰을 때 북한측이 친우문제를 完全히 撤回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側은 『기타 人道的으로 해결할 問題』에서 친우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일방적인 解釋下에 議題에 挿入하는 것을 留保하였던 바, 그들이 회담 전술상 必要할 경우 언제든지 留保된 問題를 다시 提起하여 會談 雰囲気을 무겁게 만들었다.

⑨ 엉뚱한 提案 戰術

北韓은 제10차 本會談을 앞두고 엉뚱한 提案을 하였다. 北韓赤十字會 중앙 위 위원장 손성필은 1985년 11월 5일 인도주의 회담에 좋은 雰圍氣를 造成하고 南北關係의 改善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구실아래 『북남적십자회담을 위하여 雙方 代表團이 平壤과 서울을 오갈 때 가장 빠르고 편리한 交通수단의 하나인 비행기를 利用하도록 하여 당면하게는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때 우리 代表團이 먼저 示範的으로 비행기로 서울에 가도록 할데 대하여 귀측에 정중히 提議하면서 이 問題에 대한 實務的 討議를 위하여 板門店에서 관계자들의 接觸을 가질 것⁹⁹⁾을 提議하였다.

이에 대해 大韓赤十字社 金相浹 總裁는 1985년 11월 7일 대북서한을 통해 『서울과 平壤에서 開催된 南北赤十字 本會談 進行過程에서 雙方間에 利用하여 온 交通수단이 별다른 不便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서울과 平壤에서 開催되는 南北赤十字 本會談에 參加하는 雙方代表團의 交通편의 提供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北韓은 서울에서 開催된 제10차 本會談에서 『雙方 代表團이 비행기를 이용하여 平壤과 서울을 오갈데 대한 우리의 提議는 지금 北과 南사이에

98) 南北對話史料集 제11권, p.563.

99) 南北對話史料集 제11권, p.455.

여러 갈래의 對話가 이루어지고 또 래왕하는 인원과 그 回數도 전례없이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現實的 要求를 反映한 가장 正當한 提議로 됩니다. 우리의 提議는 또한 南北關係를 개선해 나가는데서 항상 앞장서 온 雙方赤十字단체들이 북과 남의 래왕의 길을 넓혀나가는데서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할 것을 바라는 온 거래의 期待에 부합되는 劃期的인 방도로 됩니다.¹⁰⁰⁾라고 또다시 비행기 利用問題를 舉論하였다.

北韓의 이러한 엉뚱한 提議에 대해 우리측은 『지금 우리에게 보다 重要한 問題는 1천만 離散家族들의 念願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어주느냐 하는 것이지 대표단이 자동차를 타느냐, 비행기를 타느냐 하는 問題가 아니라 本質的懸案問題로 되고 있는 의제5개항의 早速한 타결에 있음』¹⁰¹⁾을 分明히 하였다.

赤十字 本會談을 進行시켜 오는 過程에서 아무런 不便이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서울·평양 왕래시 비행기를 利用하자는 엉뚱한 提案은 赤十字會談의 조속한 妥結보다는 비행기를 利用한 우리측의 비행시계내의 군사시설 및 김포비행장의 防衛體制 정찰탐지에 그 底意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充分한 것이었다.

2. 南北經濟會談과 北韓의 協商戰術

① 主導權 掌握戰術

南北經濟會談은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南北間에 交流·協力の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狀況에서 신병현 부총리겸 經濟企劃院長官은 1984년 10월 10일 대북서한을 통해 『政府의 次官級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 경제단체 代表들이 함께 參加하는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것』¹⁰²⁾을 提議한데 대해, 北韓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이 1984년 10월 16일 會談開催 提

100) 南北對話史料集 제11권, p.542.

101) 南北對話史料集 제11권, p.564.

102)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44.

議에 호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동 답신(84.10.16)에서 『1970년대초에 처음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렸을 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南朝鮮側 代表들에게 지하자원 共同開發, 관개공사의 공동추진, 어장의 공동리용과 공동어로작업과 같은 중요한 경제합작방안을 提示하였다는 事實은 귀측에서도 잘 알것입니다. 우리측은 그후에도 經濟分野를 包含한 각 分野에서 多方位적인 合作과 交流를 實現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北과 南이 合作하고 團結하여 統一의 문을 열것을 거듭 主張하여 왔습니다』¹⁰³⁾라고 밝혔다.

결국 北韓側은 수재물자의 인도·인수가 남북경제회담 개최의 契機가 되었으며 南北經濟會談이 남북간에 多方位적 合作과 交流를 實現하려는 그들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開催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 제2차 會談에서 北韓은 제1차 회담시 쌍방간에 거의 의견이 접근되었던 議題問題 討議를 外面하면서 南北間의 『경제합작과 교류문제』를 協議·解決하기 위한 機構로 쌍방 부총리급을 委員長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새로 構成할 것을 主張하였다.

北韓의 이러한 要求에 제3차 會談에서 우리측은 『南北間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 推進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意書(案)』을 提示, 副總理級을 위원장으로 하는 共同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을 受容하였다.¹⁰⁴⁾

이에 대해 北韓側은 『副總理級을 委員長으로 하는 북남경제협조 共同委員會를 내올 데 대한 이 안에 同意한 것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느낍니다. 3차회담에서는 북과 남이 經濟會談에서 副總理級을 委員長으로 하는 南北經濟協調 共同委員會를 내올데 대한 合意를 했다는 것을 우리 거래들과 世界에 公布하게 되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기쁨을 表示하는 것입니다』¹⁰⁵⁾라고 言及, 그들의 要求가 관철된 것을 크게 力說하였다.

103)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p.49-50.

104) 南北對話白書, p.280.

105)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270.

또한 노동신문논평(1985. 6.22)을 통해서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와 같은 높은 급의 協商 및 리행기구를 내오면 經濟協力과 交流를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經濟問題들을 가장 積極的으로, 能率的으로, 폭넓은 規模에서 빨리 解決할 수 있으며 이 事業을 통하여 북남관계 전반을 改善하고 나라의 統一偉業을 앞당기는데도 커다란 寄與를 할 수 있다. 우리의 提案이 나가자 온 民族이 歡迎하고 世界가 共感을 表示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새 제안을 내놓은 제2차 회담때만 해도 共同委員會 構成의 必要性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것을 뒤로 미루고 물자교류 문제나 토의하자고 하던 남측이 3차회담에서 우리의 提案에 同意해 나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提案의 正當性과 견인력으로 해서 그들도 더이상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⁰⁶⁾ 라고 主張함으로써 南北經濟會談에서 그들이 積極的이며 이니셔티브를 掌握하고 있는 것으로 宣傳하였다.

② 原則提示 戰術

北韓側은 제1차 회담에서 南北間에 經濟的 合作과 交流를 實現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複雜性이 豫見된다는 점을 前提하고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雙方이 다음과 같은 原則的인 선을 세워 놓고 會談을 하는 것이 좋다는 主張을 하였다.

『첫째로, 雙方은 經濟合作과 交流方案을 提起하고 그것을 討議·解決해 나가는 제과정에서 徹底히 북과 남이 이미 合意한 바 있는 自主·平和統一·民族的 대단결의 祖國統一 3대원칙에 基礎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雙方意思를 最大限 尊重하는 원칙을 지키는 問題입니다. 雙方은 경제분야에서 合作과 交流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經濟建設 分野에서 堅持하고 있는 한, 본 정책과 원칙까지 變更할 것을 要求하지 말아야하며 상대방의 意思를 尊重해야 합니다. 셋째로, 상호성의 원칙을 堅持하는 것입니다. 經濟分野에서 북과 남의 要求는 서로 共通點도 있을 수 있는 反面에 상반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形便에서 쌍방은 물자를 주고 받으며 合作을 進行

106) 勞動新聞, 1985.6.22.

하는데서 상호성의 原則에 따라 경제거래의 形態와 規模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¹⁰⁷⁾

이러한 北韓側의 원칙제시는 會談때 마다 계속 주장하였으며, 제4차 會談에서는 그들이 내놓은 『北과 南사이의 經濟協力 및 商品교류의 實現과 副總理級을 委員長으로 하는 北南경제협조 共同委員會 構成에 관한 合意書(초안)』의 제1항에 原則條項을 또다시 提示하였다.

北側이 계속 주장하는 原則問題, 특히 統一 3원칙의 明示는 經濟會談의 性格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우리측은 會談의 進展을 위해 合意書 전문에 經濟的 紐帶回復, 民族의 繁榮, 平和統一에의 寄與 등 物資交流와 經濟協力の 目的과 함께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통일 3원칙도 전문에 넣을 수 있다는 伸縮性 있는 態度를 표시했다.

그러나 北側은 原則問題를 합의서 첫 조문에 명백히 規定하자는 그들의 主張을 계속 固執하였다.

③ 合意事項 破棄 戰術

제1차 會談에서 南北雙方은 교역품목, 自然자원의 開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設定, 京義線 鐵道連結, 南北經濟協力委員會 設置等に 공통된 의견접근을 보였다. 특히 물자교역과 關聯해서는 韓國側이 구입을 희망하고 北한측이 販賣하기를 바라는 品目으로서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등에 서로 意見의 一致를 보였고, 韓國이 販賣를 희망하고 北한측이 購入하기를 바라는 品目으로서 鐵鋼材, 纖維등에 意見이 一致하였다.

議題問題에 있어서 北韓側이 會談議題로 『북과 남사이의 經濟分野에서 合作과 交流를 實現한데 대하여』로 할 것을 고집하여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측이 折衝案으로서 『南北間에 물자교역과 經濟協力を 實施하는 問題』로 제시하자 北韓側도 『合作』을 『協力』으로 修正하는 등 韓國側 提議에 접근해 오는 態度를 보였다.¹⁰⁸⁾

107)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p.129-130.

108) 南北對話白書, p.271.

그러나 北韓側이 갑자기 다음 회담때 이를 다시 論議하자고 主張함으로써 이날 會談에서는 合意를 보지 못하고 다만 제2차 회담을 1984년 12월 5일 板門店 中將위 회의실에서 開催하는 것만 合意를 보았다.

그러나 1984년 11월 23일 板門店 銃擊事件이 발생하자 이를 구실삼아 北韓側 단장 이성록은 1984년 11월 27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두번째 경제회담을 몇일앞둔 시기에 일어난 무장도발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緊張緩和의 길로 나가던 우리나라의 情勢는 도로 尖銳化되고 있으며 板門店 회의장 주변은 살벌한 霧圍氣에 휩싸여 있습니다. 평화가 극도로 威脅당하고 對話의 霧圍氣가 급격히 弱화되고 있는 이러한 狀態에서는 대표들의 신변안전도 擔保될 수 없으며 따라서 會談도 마음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2월 5일에 가지기로 된 제2차 북남경제회담을 부득이 내년으로 넘기지 않을 수 없다고 認定합니다.』¹⁰⁹⁾라고 主張, 제2차 會談을 12월 5일에 開催하기로 한 合意事項을 일방적으로 延期하였다.

이에 대해 남측의 김기환 首席代表는 1984년 11월 28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이번 板門店事件을 擴大시켜 南北經濟會談마저 연기시키는 것은 이 會談의 成功을 간절히 바라는 6천만 온 겨레의 뜨거운 念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귀측이 모처럼 열린 南北經濟會談을 진정으로 成功시킬 의사가 있다면 마땅히 雙方間에 合意한 會談日字를 尊重해야 할 것입니다.』¹¹⁰⁾라고 主張하면서 제2차 會談을 1985년 1월 17일에 開催할 것을 促求하였다.

北側은 1984년 12월 14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제2차 會談을 1985년 1월 17일에 開催하자는 南韓側 提議에 同意하였으나 北側의 김환정무원 副總理는 1985년 1월 9일 우리측의 年例의인 팀스피리트 軍事訓練을 구실로 삼아 제2차 會談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연기, 합의사항을 破棄하였다.

이와 같은 北韓側이 2차례나 合意된 會談날짜를 일방적으로 破棄하였지만 우리측의 끈질긴 對話再開 努力으로 제2차 회담이 1985년 5월 17일에 開催되

109)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156.

110)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158.

있고 그후 제6차 會談은 1986年 1月 22日에 開催하기로 雙方이 合意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北韓側은 팀스피리트-86 軍事演習을 구실로 1986年 1月 20日 北側會談代表團 명의로 共同聲明을 통해 會談의 一方的 中斷을 宣言, 아직까지 제6차 南北경제회담은 열리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이러한 狀況은 북한측의 會談에 임하는 態度가 매우 不誠實한데다 합의된 事項까지도 여러가지 구실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破棄한데 그 原因이 있는 것이다.

④ 책임전가 戰術

제2차 南北經濟會談을 12日 앞둔 1984年 11月 23日 관문점 유엔군 측 警備 區域內에서 유엔군측 경비병과 북한측 경비병들 간에 銃擊戰이 發生하였다.

이 事件은 한 蘇聯人 青年의 亡命을 阻止하기 위해 수십명의 북한측 경비병이 軍事分界線을 不法으로 越線(越線), 銃擊을 가해 온데서 發端된 것으로 이는 북한측에 의한 明白한 休戰協定 違反이자 제2의 板門店 『도끼난행사건』 이라고 할 수 있다.¹¹¹⁾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의 이성복 단장은 1984年 11월 27日 관문점 총격사건으로 제2차 會談은 부득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前提하고 총격사건과 關聯하여 造成된 緊張狀態를 가시고 對話霧圍氣를 마련하기 위한 責任의 措置를 취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 마치 會談이 열리지 못하는 責任이 우리측에 있는 것 처럼 主張하였다.

또한 北韓側은 1986年 1월 21日 대남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86 軍事合同訓練 發表를 구실삼아 제6차 회담을 豫定(1986.1.22) 대로 가질 수 없음을 밝히면서 『지난 해와 같이 올해도 또 다시 우리의 경제회담이 중단되게된 책임은 전적으로 귀측에 있다고 認定하면서 앞으로 우리 회담을 재개하는 問題는 귀측에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情勢를 보아서 決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通知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은 사실상 會談과 關聯이 없는 板門店 총격사건, 팀스피리

111) 南北對話 제37호, p.81.

트 등의 구실을 내세워 會談을 일방적으로 延期 또는 中斷시키면서 그 모든 責任이 마치 우리측에 있는 것처럼 억지 主張하였다.

⑤ 엉뚱한 提案 戰術

北韓側은 소위 판문점 총격사건을 구실로 제2차 會談을 일방적으로 延期하였으나 우리측의 說得으로 1985年 1月 17日에 開催하기로 다시 同意하였다.

그러나 北側의 정무원부총리 김환은 1985年 1月 9日 우리측의 신병현부총리겸 經濟企劃院長官 앞으로 보내는 대남통지문을 통해 팀스피리트-85 軍事訓練 발표와 관련하여 『팀스피리트-85 合同軍事演習을 기어이 강행하게 된다면 제2차 南北經濟會談은 도저히 豫定대로 進行되기 어려울 것』¹¹²⁾이라고 주장하고 『이 責任的인 시점에서 나는 當面한 經濟會談 앞에 造成된 난국을 打開하기 위한 對策을 討議하기 위하여 귀하와 板門店에서 直接 만날 것을 提議합니다. 우리들 사이의 接觸時日은 제2차 경제회담 예정일인 1月17日 前後로 하되 具體的인 時日은 귀측이 정하기 바랍니다』¹¹³⁾라고 提議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側은 그들의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구역을 侵犯하여 먼저 銃擊을 가하는 挑發行爲를 자행하고서도 賊反荷杖격으로 그 責任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제2차 會談을 연기하였고 또 우리측이 팀스피리트를 強行한다면 이는 對話에 難關을 造成하는 行爲이기 때문에 제2차 會談이 예정된 날짜에 進行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제2차 경제회담 예정일인 1985年 1月 17日을 前後하여 남북경제회담과는 다른 副總理級 會談을 갖자는 것은 매우 엉뚱한 것으로 南北對話에 대한 북측의 진의를 의심케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엉뚱한 提案이라 할 수 있는 북측의 부총리급 會談提議는 갑자기 提起되었다기 보다는 매우 計劃的이고 意圖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로서는 제1차 회담시 歡談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이성록단장은 『사전에 한가지 問題를 通報해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平壤서 떠나올 때 우리 김

112)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161.

113)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161.

환 부총리 동지를 만났는데 말입니다. 이제 회담에 나가면 首席代表 선생을 통해서 신병현 부총리에게 자기의 親切한 인사를 전달해 달라는 이런 當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석대표 선생이 돌아가시면 신병현 副總理에게 우리 정무원 부총리 김환동지의 인사를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¹¹⁴⁾라고 言及하였다.

또한 제1차 會談이 끝날 무렵 또다시 北側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것은 序頭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무원 김환 부총리 동지가 귀측 신병현 부총리에게 보내는 그런 인사와 그리고 역시 편지거래도 좋지만 더욱 좋기는 副總理들끼리 직접 만나서 意思疏通을 하면 좋겠다는 이 정중한 提起를 正確하게 신병현 부총리에게 傳達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하는 바입니다. 역시 問題가 提起된 이상 신병현 부총리와 김환 총리간에 만나는 것은 다음번에 만나도 좋은 것이고 또 우리 會談을 계속하면서 만나도 좋은 것이고 또 부총리들이 호상 없어서 接觸이 實現된 다음에 만나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여기 그 어떤 制限을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副總理들이 만난 다음에 그 이상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問題에 대해서 首席代表 김선생이 정중히 該當하는 급에 傳達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하는 바입니다』¹¹⁵⁾라고 再次 當付하였다.

북한측이 經濟會談을 잘 進陟시키면서 부총리급 회담을 提案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會談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問題를 구실삼아 경제회담을 중단시키면서 副總理級 會談을 提案한 것은 엉뚱한 提案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으며 南北對話에 대한 그들의 매우 不誠實한 態度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3.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과 北韓의 協商戰術

① 主導權 掌握戰術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은 김재순 국회의장이 우리 國會를 代表하여 1988

114)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p.105~106.

115) 南北對話史料集 제12권, p.139.

年 7月 9日 제142회 임시국회 제20차 본회의에서 滿場一致로 採擇한 『서울을 올림픽대회에의 北韓參加 促求決議文』을 담은 서한을 7월 18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양형섭 議長에게 傳達한데서 비롯되었다.¹¹⁶⁾

1988年 7月 21日 북한측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의장은 8월중 남북국회연석회의를 平壤에서 開催하자고 提議하는 편지와 함께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草案을 동봉해 온 데 이어 7月 26日 대남서한을 통해 南北國會連席會議에서 서울올림픽에의 北韓 招請問題와 올림픽 공동주최안을 緊急議題로 同時에 토의하자고 提議하였다.

이에 대해 김재순 국회의장은 1988년 8월 1일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8월중에 成事시키기 위해 準備接觸을 갖자고 提議하였다.

그런데 北韓側은 8月 9日 對南書翰을 통해 『우리는 귀측에 지난 7月 20日에 不可侵에 관한 공동선언을 發表하기 위한 북남국회연석회의를 召集할데 대한 具體的 提案을 담은 편지를 보는데 이어 7월 26일에는 국회연석회의에 올림픽경기대회와 關聯하여 귀측이 우리를 초청한 問題와 우리측의 共同主權問題를 緊急議題로 討議할 것을 提議하는 편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우리측의 이 거듭되는 理解를 표시하고 雙方 國회들사이에 會談을 가지자고 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제1차 남북국회회담 準備接觸에서 北韓은 『겨레의 運命을 판가름하는 엄혹한 시각에 북과 남의 정치인들은 對決과 緊張과 武力衝突과 같은 不幸한 사태가 더이상 持續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和解와 信賴, 平和와 統一을 위한 새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으로 부터 出發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지난 7월 20일 북남국회연석회의를 열데 대한 중대한 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提議에 대해 理解를 表示하고 國會連席會議의 소집에 동의한 것을 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¹¹⁷⁾라고 主張하였다.

116) 南北對話 제45호, p.115.

117) 南北國會會談 제1차 準備接觸 會議錄, p.19.

이와 같이 北韓은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이 1988年 7月 9日 우리 國會가 『서울올림픽대회에의 北韓參加 促求決議文』을 北韓에 傳達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점을 배제하고 그들의 南北國會連席會議의 開催를 提議한 7월 21일 對南書翰을 보내고 이에 대해 우리측이 呼應함으로써 남북국회회담 準備接觸이 시작되었다고 主張하였다.

② 結論이 內包된 提案 戰術

北韓은 1988年 7月 21日 對南書翰에 남북국회회담 開催를 提議하면서 다음과 같은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草案)』을 동봉하였다.

〈北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草案〉

- ① 北과 南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反對하여 武力을 使用하지 않으며 武力으로 상대방을 侵害하지 않는다.
- ② 北과 南은 나라의 完全한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 北과 南사이에 있을 수 있는 意見相異와 紛爭問題들을 오직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平和의으로 解決한다.
- ③ 北과 南은 상대방에 대한 外國의 侵略이나 무장간섭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그것을 協調하지 않는다.
- ④ 北과 南사이의 不可侵의 境界선은 1953年 7月 27日부 朝鮮軍事停戰에 관한 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으로 한다.
- ⑤ 北과 南은 서로 武力을 段階的으로 대폭 縮小하며 그에 並行하여 朝鮮 반도의 지역안에 駐屯해 있는 外國軍隊와 核武器를 段階的으로 撤去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 ⑥ 北과 南은 현 非武裝地帶를 緩衝지대로 하고 완충지대안에서 무장충돌과 紛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그 擔保를 위하여 非武裝地帶에 中立 國감시군을 두도록 한다.
- ⑦ 북남불가침선언은 北과 南이 다른 나라들과 締結한 條約, 協定에 의하여 制約을 받지 않는다.

이 共同宣言은 北韓이 남북국회회담에 그들이 獲得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南北國會會談의 本會談은 아직 開催되지도 않았으며 더우
기 이 본회담을 위한 準備接觸도 이루어지지 않은 매우 初步的 段階에서 北
韓이 일방적으로 提示한 共同宣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않지만 北
韓側은 絶對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었다.

協商의 一般論的인 觀點에서 볼 때 準備接觸에서 본회담의 議題, 形式, 節
次 등을 協議하고 본회담이 開催된 이후 準備接觸에서 協議된 의제안에 具體
的인 어떤 內容을 담을 것인가를 論議하는 것이 當然하다.

즉, 準備接觸에서는 『不可侵宣言問題』를 議題로 設定하면 본회담에서는 不
可侵宣言의 具體的인 內容을 協議하는 것이다.

本회담 議題를 선정하는데는 간단하지가 않았다. 우리측은 不可侵問題와
關聯해서는 몇차례 修正을 거듭하여 『南北不可侵問題』로 할 것을 主張하였
으나 북측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할데 대한 問題』를 끝까지 주장
하면서 제4차 接觸에서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提示한 7개항의 『不可侵 共同宣
言 草案』이 선언의 기본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北韓側은 『가짜 不可侵』이 있고 『진짜 不可侵』이 있다면서 그들의
『불가침 공동선언 초안』內容이 反映되지 않은 不可侵宣言은 가짜라고 까지
강변하였다.¹¹⁸⁾

또한 北韓側은 제1차 準備接觸에서 10개항으로 構成된 『북남국회연석회의
召集 및 運營과 關聯한 합의서(초안)』을 提示하고 『우리가 오늘 상봉에서 解
決해야 할 問題들은 상당히 촉박한 問題들입니다. 앉아서 내일도 하고 모레
도 하고 하는 그런 問題들이 아니라 오늘 모인김에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만큼 口頭로 相互 立場표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가 일단 합의서 草案을 하나 내놓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내려가면서 하나
씩 쪼아가면서 하자』¹¹⁹⁾고 主張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側이 本會談에서 論議되어야 할 不可侵 共同宣言 內容을 提

118) 南北對話白書, p.421.

119) 南北國會會談 제1차 準備接觸 會議錄, p.34.

示하는 한편 南北國會會談 운영에 대해 意見이 아닌 合意書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우리측의 提案을 무시한 채 그들의 案을 토대로 논의하자는 소위 會談에서 成就해야 할 그들의 結論이 내포된 提案 戰術을 展開하였다.

③ 政治·軍事問題 우선 解決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해서 北韓은 經濟, 文化, 人道的 分野보다도 政治·軍事問題의 優先解決 原則을 固守해 왔다.

1985年 北韓은 당시 進行중이던 南北赤十字 會談과 南北經濟會談을 지연시키면서도 南北國會會談을 提議, 不可侵 共同宣言 問題를 論議하자는 제의를 했으며, 1988年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에서도 그들의 政治·軍事問題 우선해결의 입장을 明白히 하였다.

1988年 7月 21日 北韓은 대남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들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에게 交流도 좋고 交易도 필요하지만 보다 緊急한 것은 緊張의 緩和이고 대결의 해소이며 戰爭의 방지입니다. 동쪽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버리며 대포질을 하는 오늘의 對決狀態를 그대로 두고 말로나 비방중상을 그만둔다고 하여 不信이 가서질 것도 없고 信賴가 回復될 것도 없습니다. 더우기 속에 칼을 품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北南사이의 根本問題를 풀지 않고서는 서로 交流와 交易도 할 수 없고 和合과 團合도 이룰 수 없으며 協力關係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온 겨레는 한시바삐 대결에서 벗어나 平和롭게 지내며 統一된 祖國으로 살 것을 바라는데 緩和와 和解의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교류나 交易으로 한정 없이 세월이나 끌자고 해서야 언제 겨레에게 平和를 안겨주고 統一의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칼을 버리고 대포질을 그만두는 問題를 解決함이 없이 交流나 交易을 하여도 북과 남은 여전히 分界線을 사이에 두고 남남처럼 살게 될 뿐 언제 가도 和睦한 民族共同體로 될 수 없습니다. 緊張狀態를 緩和하는 問題야 말로 북과 남이 民族的 和解와 信賴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共同이 과제이며 戰爭危險을 제거하는 문제야말로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解決하여야 할 當面課題입니다.』

또한 제1차 準備接觸에서 北韓은 『南北關係 全般과 統一問題와 關聯된 모든 問題를 協議·解決 하는데서 돌파구로서 될 수 있는 중핵적인 問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南北間에 『緊張緩和 問題를 解決하고 不可侵 共同宣言을 發表하고 和解·團合·緩和의 길이 열리면 자연히 다른 문제들이 쉽게 解決』된다고 주장하였다.¹²⁰⁾

그러나 우리측은 『南北間에 累積된 相互不信의 對決과 그러한 相互不信의 關係를 과감히 청산하고 같은 피를 나눈 하나의 同胞라는 民族共同體 의식 아래 民族全體의 和合과 團合, 繁榮과 統一을 향해 함께 나가기』위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은 南北不可侵問題 뿐만 아니라 『南北間의 人的·物的 交流와 協力を 促進하는 問題 및 中斷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再開 促求問題』등도 協議해야 한다고 북한측에 促求하였다.¹²¹⁾

이에 대한 北韓側은 제2차 準備接觸에서 『南北間의 多방면적인 協力和 交流問題』는 『不可侵 共同宣言』問題를 우리측이 받아들이는 條件에서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기존대화 再開問題에 대한 우리측의 계속된 提議에 북측은 끝까지 이 問題에 대해 忌避하였다.¹²²⁾

北韓은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에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 再開 문제 協議를 끝내 拒否하고 『不可侵 共同宣言 問題』를 우선해결 하자는 소위 政治·軍事問題 優先解決 입장을 明白히 하였다.

④ 原則提示 戰術

南北國會會談 제5차 準備接觸은 4차 準備接觸 이후 48일만인 1988년 10월 13일 板門店 北側 地域인 통일각에서 열렸다.

두달가까이 會談이 열리지 못한 것은 제24회 올림픽경기가 서울에서 開催 (1988.9.17-10.3)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北韓은 4차례의 會談과 개별접촉을 進行하면서 國會會談 본회담을

120) 南北國會會談 제2차 準備接觸 會議錄, p.65.

121) 南北對話 제45호, p.131.

122) 南北國會會談 제2차 準備接觸 會議錄, p.56.

열지 못했고 더구나 제24회 올림픽의 共同主催를 實現하지 못한 것은 쌍방의 회담방법이나 實務節次上의 차이가 아니라 本質的인 입장의 차이에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같은 입장에서 北韓은 會談을 進展시킨다는 미명하에 다음과 같은 原則을 提示하였다.

『첫째로, 우리의 상봉을 成功시키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問題를 대하고 處理함에 있어서 넓은 대결의 觀念이 아니라 民族的 和解와 團합의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民族앞에서 政治人으로서의 자기의 무거운 責任感과 使命感에 充實해야 한다고 認定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높은 誠實性과 信義를 가지고 對話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모든 問題를 우리 나라 現實的 條件에 맞게 民族主體의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姿勢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認定합니다.』¹²³⁾

이와 같이 北韓側의 原則提示 戰術은 會談이 그들이 원하는 方向으로 進行되지 않을 때 會談을 지연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要素로 活用하고자 하는 것이다.

⑤ 책임전가

南北國會會談 본회담의 의제로 北韓은 제1차 準備接觸시『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問題,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 問題로하며 그 밖에 나라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平和를 保障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남측이 提起하는 問題』¹²⁴⁾로 提示하였다.

우리측은 5개항의 議題를 提示하였는데 북한측 議題와 같은 항은 제1항 『北側선수들의 제24회 서울올림픽참가문제』, 제3항 『남북당국간의 不可侵協定締結을 권고하는 問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北韓이 올림픽과 關聯하여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 問題』로 애매모호하게 제시한 것은 올림픽을 공동주최하자는 意味가

123) 南北國會會談 제5차 準備接觸 會議錄, pp.15-19.

124) 南北對話 제45호, p.128.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의 분산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이미 스위스 로잔느에 4차례(1985.10-1987.7)나 會談을 가졌지만 북한측의 억지주장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더구나 올림픽이 한달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의 共同主催는 不可能한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측은 1988년 7월 9일 대북서한을 통해 서울올림픽 공동주최가 아닌 北韓의 참가촉구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회담의제로서 현실성있게 북측 선수들의 서울올림픽 參加問題를 提示한 것이다.

제2차 준비접촉에서 우리측은 議題와 關聯, 북한측의 주장을 考慮하여 올림픽 問題와 關聯하여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問題』로 수정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한달도 남지 않은 狀況인 만큼 『제24회 올림픽 문제』만이라도 시급히 協議·解決하기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1988년 8월 29일 平壤에서 開催하여 가능한 方法을 摸索하자는 긴급제의를 하였으며 北側은 이에 대해 對答을 회피하면서 連席會議 주장만 고집하였다.¹²⁵⁾

1988년 8월 22日 開催된 제3차 준비접촉에서 우리측은 불과 며칠 후로 다가온 서울올림픽문제를 우선적으로 協議·解決하자는 긴급제의를 다시한번 強調하자, 북한측은 2차 接觸時 態度와 마찬가지로 이번 接觸이 올림픽문제와 不可侵問題를 다같이 묶어서 解決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同議할 수 없다는 입장을 分明히 하였다.¹²⁶⁾

제4차 接觸(88.8.26)에서 우리측은 서울올림픽 最終엔트리 마감일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선수단의 서울올림픽에의 參加問題를 남북국회회담에서 虛心坦懷하게 論議하자고 促求하였으나 北側은 올림픽문제의 解決은 外面한 채 제5차 接觸을 올림픽이 끝난 후인 1988년 10월 13日에 開催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측의 서울올림픽에 北側 선수참가를 위한 努力을 무시한 북

125) 南北對話 제45호, p.142.

126) 南北對話 제45호, p.144.

한은 제5차 接觸에서 『내외인민들의 期待에 어긋나게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가 民族共同의 利益과 統一念願에 맞게 解決되지 못하고 單獨으로 強行됨으로써 平和와 親善의 국제적 제전인 올림픽이 對決과 分裂에 利用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빚어지게 되었으며 應當한 責任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¹²⁷⁾라고 主張하였다.

올림픽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카드였다. 北韓은 올림픽이 한달정도 밖에 남지 않은 狀態에서 그들이 몇년간 끈질기게 주장해 온 共同主催를 더 이상 強力하게 主張하지 못하고 더구나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마치게 되자 남북국회회담에서 올림픽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올림픽대회가 民族共同의 利益과 統一念願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理由를 들어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責任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엉뚱한 變換을 늘어 놓았다.

⑥ 用語 混亂 戰術

北韓側이 南北國會會談을 위한 準備接觸을 進行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用語, 즉 『連席회의』, 『合同會議』 그리고 『일치합의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北側이 사용한 이러한 用語들에 대해 客觀的인 검토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便利한대로 恣意的으로 解釋하여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南北雙方은 국회회담 본회담의 形式에 있어 『대표회담』, 『연석회의』로 意見이 對立되어 見解一致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제4차 準備接觸에서 北韓은 『연석회의』를 『합동회의』로 수정하면서 연석회의란 北과 南의 國會議員들 전체가 연석하고 거기에 政黨·社會團體, 個別人士도 참가하는 形式』이라고 규정하고 합동회의란 『북과 남의 국회의원들만 參加하는 形式』이라면서 연석회의 主長을 讓步하였음을 크게 強

127) 南北國會會談 제5차 準備接觸 會議錄, p.20.

調하였다.¹²⁸⁾

한편 우리측이 제5차 準備接觸에서 회담형식을 『개·폐회모임』(南北國會議員 전원참가)과 『議題討議모임』(대표회담형식)으로 할 것을 提議하자, 北韓은 제6차 준비접촉에서 이에 同意하면서도 本質問題를 다루는 의제도의 모임을 『대표회의』로 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한편 『일치합의제』라는 新造語인 議決方式을 提示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대표회의』란 『雙方國會議員 全員이 아니고 일부가 동등한 權限과 資格을 가지는 會議로서, 수석대표를 中心으로 하는 쌍무적인 회담이 아닌 連坐形式의 會議』¹²⁹⁾라고 하였다.

또한 『일치합의제』란 『극소수가 反對하고 절대다수가 贊成하는 경우 합의하는 것으로 認定한다』¹³⁰⁾고 規定하고 있는데 그 意味가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北韓이 主張하는 『남북연석회의』란 北韓政權 樹立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目的에 따라 『남북정치협상회의』, 『대민족회의』, 『전민족대회』,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으로 그 용어상의 표현만을 바꾸었을 뿐 본질적으로 軍중집회식의 會議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서 우리측은 連席會議가 會談의 生産性과 效率性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代表會談으로 해야 한다는 主張에 북한측은 連席會議를 합동회의 등으로 用語를 變形시켰으나 결국 연석회의가 껍질만 바뀌어졌을 뿐 쌍무회담이 아닌 連坐方式의 形式을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일치합의제』 역시 하나의 造作된 概念으로써 그 意味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南北國會議談에서 民族將來를 결정하는 문제는 合意制 또는 만장일치제로 議決되어야 한다는 觀點에서 볼 때 『일치합의제』는 한낱 用語 混亂의 結果만 가져올 뿐이다.

128) 南北國會議談 제4차 準備接觸 會議錄, p.36.

129) 南北國會議談 제6차 準備接觸 會議錄, p.39.

130) 南北國會議談 제6차 準備接觸 會議錄, p.30.

⑦ 진실 왜곡전술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이 開催되는 남북쌍방은 몇차례의 書翰을 주고 받았다. 北韓은 1988年 7月 21日 대남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담 제안내용 중 회담형식과 關聯하여 『남북국회회담은 여러가지 形式으로 할 수 있겠지만 豫備接觸을 거침이 없이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남측 國會議員들의 연석회의를 召集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¹³¹⁾이라고 主張하면서 연석회의에는 政黨·團體 및 각계인사가 參與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988年 8月1日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8월 중에 成事시키기 위한 準備接觸을 갖자고 提議하였다.

그런데 北韓側은 1988年 8月 9日 대남서한을 통해 『남측이 말하는 남북국회회담이 制限된 몇사람의 대표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며 다른 政黨·團體들과 각계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現實에 附合되는 적중한 회담방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¹³²⁾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988년 8月 12日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成事시키기 위해서는 이 會談의 性格上 우리의 國會議員과 북측의 대의원간의 회담이 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前提하고 『따라서 이번 국회회담의 議題를 비롯한 會談의 形態, 대표단구성 등을 協議하기 위한 豫備接觸』을 開催하자고 提議하였다.

그런데 제1차 準備接觸에서 北韓側은 『우리는 이미 주고받은 편지들과 政黨들의 政策發表를 통하여 남북국회회담의 形式 등에 대하여 원칙상 상통한 立場과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오늘의 上봉에서 협의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제1차 남북국회연석회의의 召集과 그 운영을 위한 실무절차상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¹³³⁾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남북쌍방이 주고받은 書翰에서는 결코 회담형식·의제 등 어느하나 合意된 事實이 없고 다만 남북국회회담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그 준비회담

131) 南北對話 제45호, p.117.

132) 南北對話 제45호, p.119.

133) 南北國會會談 제1차 準備接觸 會議錄, p.20.

을 開催하자는 것 외에는 사실상 合意된 것이 없었다.

또한 北韓側은 당시 國會會談의 형식등에 관해 각 정당들의 個別意思를 개진하는 過程에서 『연석회의를 受容하는 것도 檢討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다.

『귀측에서 協議하는 보도내용을 보면 대체로 국회연석회의의 開催에 同意하는 거로 意見을 모으는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외신들도 북남국회연석회의를 북에서 提議했다. 이것을 환영한다, 서방외신들도 그렇게 보았어요.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도 국회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차에 그쪽에서 온 회답편지에 國會會談을 위한 7月 21日부 우리측 提案을 8월중에 하는데 대해서 同意하는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國會會談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국회대표회담의 形態도 아니요, 국회연석회의의 形態도 아니요, 모호하게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아마 내부에서 討議하였다는 이런 보도를 보아서 연석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最近까지만해도 그쪽 정당들이 政策을 表明한 것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석회의가 좋다는 이런 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念頭에 두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¹³⁴⁾

북한측은 書翰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회담형식에 관해 전혀 合意된 것도 아니며 그리고 우리 각 政黨들의 個別的 見解 보도를 마치 우리측이 『국회연석회의』에 同意한 것으로 왜곡하여 主張하였다.

⑧ 유보전술

北韓은 本會談의 形式을 남측의 국회의원과 북측의 代議員 모두 합한 954명 全員이 參席하는 남북국회연석회의에 政黨, 社會團體, 個別人士까지 參席시킬 것을 主張하였다.

北韓은 제2차 준비접촉에 『인민대중의 意思를 集大成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確信에 基礎해서 우리는 북남 국회연석회의에 되도록이면 많은 人員이 參加해서 最大限의 民主主義를 발양시키는 것이 분

134) 南北國會會談 제1차 準備接觸 會議錄, p.42.

단된 우리나라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가장 적절하고 아주 現實的이고 능률적인 해결책』¹³⁵⁾이라고 規定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國會議席을 가지지 못한 政黨·團體 및 각계인사들의 參加가 필수 不可缺함을 主張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會談의 生産性과 效率性의 측면에서 볼 때 軍중집회식인 남북국회의원 全員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구나 政黨·社會團體 및 개별인사까지 參加하는 連席會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같은 우리측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제4차 準備接觸에서 北側은 회담형식 문제에 대해 『북남국회들 사이의 協商은 북남국회의원들이 同席하는 合同會議로 한다.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는 政黨·團體代表들과 각계 인사들을 북남국회 합동회의에 參加시키는 문제는 保留하고 본회담에 가서 協議한다』¹³⁶⁾고 밝혔다.

북한측이 이와 같이 政黨·團體 및 개별인사의 참가문제를 撤回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것으로 국회회담이 그들이 의도한 데로 進行되지 않을 때 다시 이 問題를 거론하여 회담의 흐름을 그들이 주도하기 위해 일단 이 문제에 대해 讓步를 위장한 채 保留한 것이다.

⑨ 前提條件 提示

南北國會會談 준비접촉의 최대난관은 본회담의 形式과 議題問題였다. 그러나 제6차 준비접촉에서 회담개시 이후 最初로 일부분제에 대해 合意點을 이룩하고 또 상당부분 意見接近을 보았다.

남북쌍방은 본회담 形式을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會談, 閉會모임 순으로 나누어 進行하고 開·閉會 모임은 남북국회의원 全員이 參席하고 본회담의 대표수를 각각 50명씩으로 한다는데 合意하였다.

또한 양측은 『개회모임은 準備接觸이 끝난 後 1개월 안에 平壤에서 開催』, 『議題討議를 위한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開催』, 『閉會모임은 의제토의를

135) 南北國會會談 제2차 準備接觸 會議錄, p.28.

136) 南北國會會談 제4차 準備接觸 會議錄, p.28.

위한 會談이 끝난 후 1개월안에 서울에서 開催 및 공동합의서 採擇,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과 북의 공동의장제로 運營』 등 대강의 회담운영절차 까지 도 意見을 접근시켰다.¹³⁷⁾

또한 회담의제면에 있어 그동안 北韓側이 주장하던 『南北不可侵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受容하여 『남북불가침 선언문제』로 수정제의 함으로써 本會談 議題問題 역시 어느정도 妥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물론 議題討議를 위한 회담운영에 있어서 대표모임의 性格 및 의사결정 方法等의 問題에 대해 아직 雙方의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제6차 준비접촉의 結果는 남북국회회담의 成事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혀주었다.

그러나 1988年 12月 29日 開催된 제7차 準備接觸에서 북한측은 『현시점에서 북남대화를, 특히는 북남국회합동회의 開幕會議를 開催하는데 커다란 障礙要因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귀당국이 美國과 함께 매해 년초에 벌리는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입니다.』¹³⁸⁾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측은 南北對話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선 『북남국회대표회의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중지문제를 重要한 問題로 상정하고 토의해결하는 것이 應當하다고 認定하면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中止問題를 북남국회대표회의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를 북남국회대표회의 議題로 定立할데 대한 우리의 主張은 對話를 순조롭게 진전시켜나가며 북남관계를 實質的으로 改善해 나가려는 진지한 입장에서부터 出發한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中止할데 대한 問題를 북남국회대표회의의 첫번째 議題로 설정한데 대한 우리 제의의 趣旨를 깊이 理解하고 성근하게 동의해 나올 것』¹³⁹⁾을 要求하였다.

지난 6차 準備接觸에서 남북쌍방은 본회담을 위한 相當한 의견접근을 하였고 準備接觸을 조금만 더 進行시킨다면 본회담의 成事를 期待할 수 있는 狀

137) 南北對話 제46호, p.132.

138) 南北國會會談 제7차 準備接觸 會議錄, p.22.

139) 南北國會會談 제5차 準備接觸 會議錄, pp.23-24.

況에서 北韓側은 남북국회회담의 議題에 전혀 言及이 없었던 타임스피리트문제를 첫번째 議題로 設定하자는 엉뚱한 제의는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準備接觸을 더이상 進陟시키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意思表示였다.

결국 北韓側은 1989年 2月 10日로 豫定된 제8차 準備接觸을 『타임스피리트-89』를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中斷시키고 말았다.

VI. 結 論

北韓의 協商戰略戰術은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의 틀속에서 展開되어 왔다. 통일문제에 대한 北韓의 인식은 南韓에서의 民族解放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南朝鮮革命이 遂行되고 이에 따라 인민정권이 樹立되면 北韓의 政權과 平和統一을 한다는 데 있다.

南朝鮮革命을 위한 戰略基調는 소위 3대혁명 역량을 強化하며 결정적 시기를 造成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으며 赤化統一을 위한 비평화적 방도를 使用하는 한편 또한 평화적 방도로서의 協商戰略을 展開하였다.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對話나 協商은 革命鬭爭의 한 方法이며 투쟁 무기이다. 따라서 南北對話는 그들의 革命目標 달성을 위한 투쟁수단 이외의 어떤 意味를 갖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협상관에 基礎한 北韓은 대내외적인 狀況變化에 따라 對話戰略을 追求해 왔다. 즉 北韓은 對內外的인 狀況에 비추어 南北對話가 그들에게 유리하거나 選擇의 여지가 없을 때 會談에 응해왔고 그렇지 못하다고 判斷될 때는 이를 中斷하였다.

이러한 戰略에 따라 北韓은 그들의 安全을 威脅하는 위험물제거, 南朝鮮革命 및 3자회담 분위기 造成, 國際社會에서의 고립모면, 부분적인 대외경제 개방 政策의 摸索, 당면한 經濟難局과 金日成·金正日 부자세습체제 구축으로 인한 葛藤解消 등의 必要性 때문에 남북대화에 응해왔고 또한 이러한 必要性

이 減少될 때는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中斷시켰다.¹⁴⁰⁾

따라서 北韓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야의 南北對話에서 각 회담에 주어진 본질문제 解決은 外面한채 강탈적인 協商論理에 입각함으로써 어떠한 形態의 南北對話도 결과적으로 北韓의 대남적화전략을 實現하기 위한 手段으로 利用하였으며 大韓民國內의 混亂에 편승하면서 統一戰術을 具現하여 소위 南朝鮮革命의 여건조성을 도모하려는 政治的 手段으로 惡用하였다.

그 結果 지난 20여년간 南北對話가 있었지만 相互不信과 敵對的, 競爭的 關係를 청산하지 못하고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信賴構築, 交流協力을 통한 平和統一의 기틀을 다지는 데는 아무런 進展을 가져오지 못했다.

南北對話는 민족적 次元에서 南北의 當事者가 主體가 되어 민족적 和合을 이룩하고 自主的 平和統一의 길을 터 나가는 出發點이며 武力이나 暴力이 아닌 평화적 方法으로 南北間의 分斷과 斷絶을 극복할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이다는 관점에서 볼 때 北韓의 協商觀, 協商態度 그리고 協商戰術은 반드시 劃期的인 轉換을 가져와야 한다.

첫째, 統一에 대한 認識의 轉換이다. 北韓의 통일문제는 남한에서 美帝의 植民地 狀態로부터 民族解放을 가져오고 容공정권인 인민민주주의를 樹立하여 北韓政權과 平和的으로 統一을 한다는 인식에 基礎하고 있으며 北韓의 協商戰略은 南朝鮮革命을 위한 與件이나 環境造成을 위한 戰略인 것이다.

南北對話는 남과 북이 하나의 民族이라는 次元에서 서로가 謙虛하게 分斷의 현실을 認定하는 가운데 出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社會를 開放하여 接觸과 交流와 協力の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民族的인 信賴와 和合의 분위기를 造成함으로써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成就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은 南韓을 더이상 타도의 對象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나아가 南朝鮮革命에 기초한 협상관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南北間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對話를 통해 解決하려는 統一에 대한 認識의 轉換을 가져와야 한다.

둘째, 會談本然의 任務에 充實해야 한다. 남북대화의 目的은 南北의 온

140) 유석렬, 北韓政策論, op.cit., p.384.

레가 和合을 이룩하고 平和的인 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는 데 있는 만큼 分野別 會談에 주어진 본질문제 토의에 充實해야 한다.

赤十字會談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解消하는 人道的 事業이 본연의 임무이며, 經濟會談은 南北間의 交流·協力을 통해 온 民族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摸索하는데 그 目標가 있으며, 또한 國會會談은 平和統一을 위한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問題들을 협의하여 雙方 當局에 勸告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分野의 회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조건환경론을 提示하고 반공법 규 철폐, 민주인사석방 등 우리 內部體制를 간섭하고 또한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會談을 일방적으로 中止하는 등 이러한 北韓의 不誠實한 態度는 회담의 진전에 커다란 障礙要素로 作用하였다.

北韓은 南北對話에서 자기의 理念과 制度를 앞세워 자기측 주장만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主張에 대해서는 討議 조차 해보려 하지 않고 無條件 排斥하면서 會談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問題를 舉論하여 會談의 進展을 가로막는 그러한 態度는 버려야 한다.

따라서 北韓이 각 會談의 本然의 任務에 맞는 議題를 성실히 討議·解決하려는 姿勢를 가질때 南北對話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세계, 會談을 戰術的 次元에서 利用하는 姿勢를 버려야 한다. 南北對話는 상호간의 信賴를 회복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民族共同體를 회복발전 시킬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인 만큼 民族의 懸案問題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信義를 갖고 謙虛한 姿勢로 對話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北韓은 南北對話를 통해 展開한 戰術들 즉, 주도권장악전술, 結論이 내포된 提案戰術, 遲延戰術, 전실왜곡전술, 합의사항과기전술, 전제조건전술, 요구조건배가전술, 用語混亂戰術, 엉뚱한제안 戰術 등을 구사했던 바, 이러한 協商戰術은 회담을 難關에 빠뜨리는 結果만을 招來한 것으로 北韓은 회담의 實質的 成果를 맺어 南北關係의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會談을 戰術的 次元에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誠實하고 信義있는 姿勢로 對話에 임해야 한다.

北韓이 지난시기 南北對話를 進行시키는 과정에서 南朝鮮革命 분위기를 造成을 위한 대남협상전략전술을 과감히 청산하여 南韓을 타도의 對象이 아닌 동반자관계로 認識하고 相互信賴를 회복하고 和解와 協力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追求하기 위한 協商態도와 姿勢를 가질 때 南北對話는 우리 民族構成員 全體가 參與하는 民族共同體를 이룩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時代를 열어나갈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이 될 것이다.

統一家族論文集 第 2 輯
民族統一의 摸索

- 인 쇄 : 1990년 5월 14일
 - 발 행 : 1990년 5월 16일
 - 발행처 : 국 토 통 일 원
 - 인쇄처 : 서라벌인쇄주식회사
-

